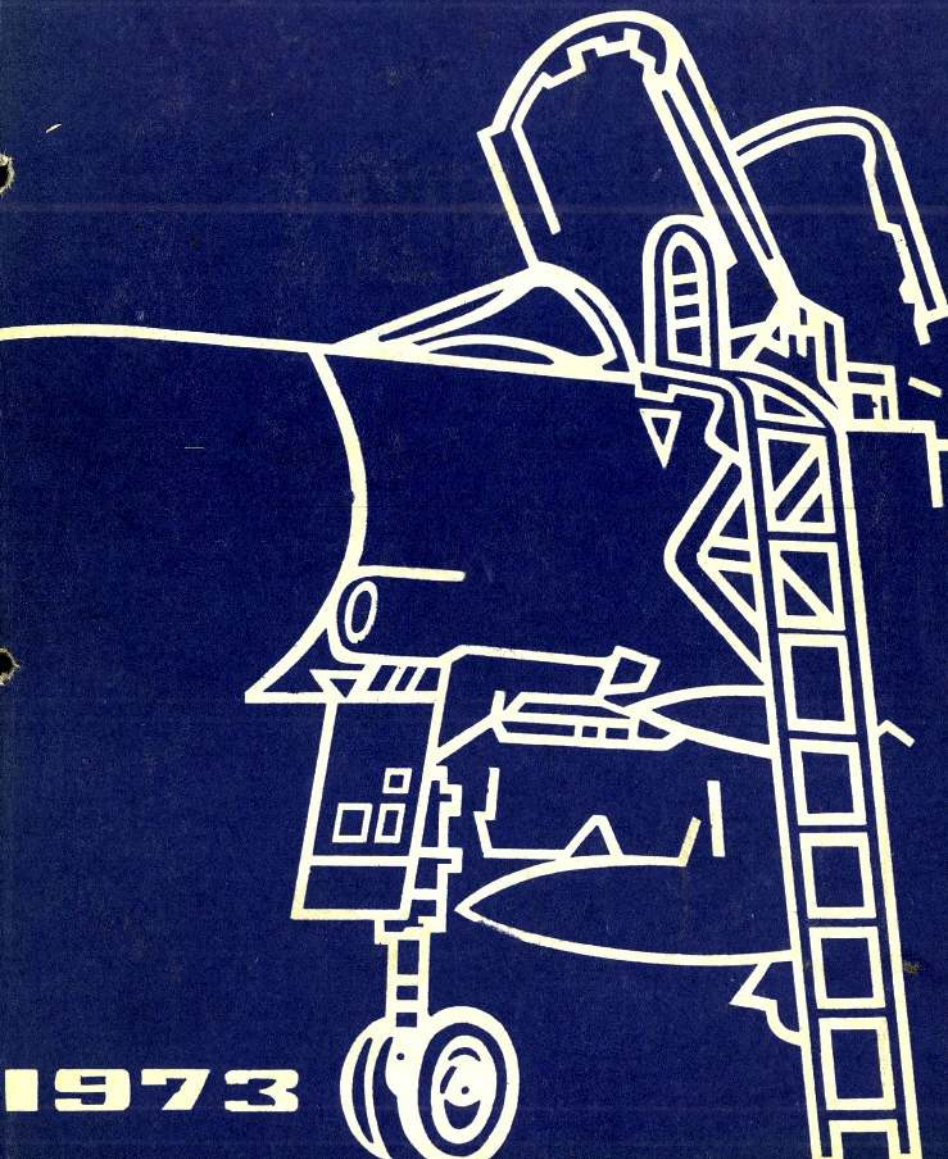


1973년 3월 5일 인쇄
1973년 3월 10일 발행

공진

영구보존용

〈제 132 · 133 합병호〉



1973



신년 시무식 거행

73년도 시무식이 옥 만호 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전 참모 및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4일 공본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옥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주적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유신과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용기있는 결단, 힘찬 행동력으로 영공방위의 사명을 다 할 것」을 다짐하였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미 제5공군 부사령관 「머피」대장 예방

미 제5공군 부사령관 「머피」대장이 지난 11월 29일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김 정린 준장 외 〇〇명 합동 전역식

김 정린 준장 외 〇〇명의 합동 전역식이 지난 12월 29일 참모차장실에서 거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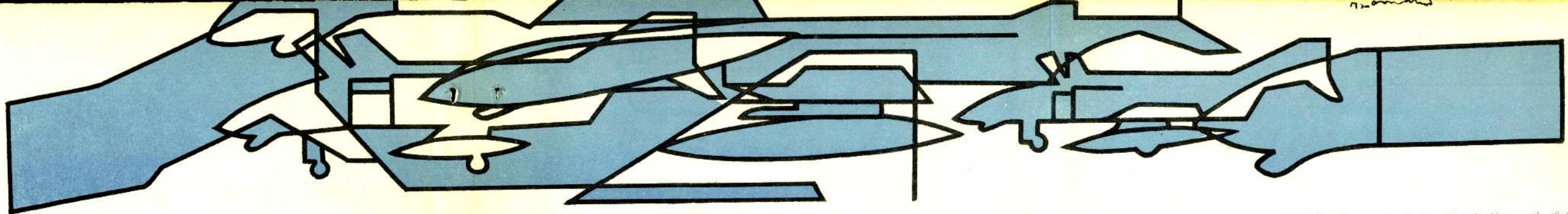
장군 진급자 신고

1월 1일부로 영예의 소장 및 준장 진급을 한 〇명의 장성들이 옥 만호 참모총장에게 진급신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옥 총장은 이들의 진급을 축하하고 중임원수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 공군 군수사령관 「케튼」대장 예방

미 공군 군수사령관 「케튼」대장이 11월 17일 공군본부로 옥 만호 참모총장을 예방, 환담을 나누었다.





권두언	정훈감 신 찬 (2)
제 8대 박 정희 대통령 취임사	(6)
참모총장 신년사	공군 참모총장 옥 만 호 (4)
권두시 솟아라, 공군이여.	전 재 수 (12)

공군 유 신 화 보

특별 정훈교육자료

10월유신과 우리 조국의 미래상	편 집 실(14)
정병지도 업무의 추진방향	홍 중 도(112)

특집 군 인 정 신

화랑정신	최 정석 (31)	3·1정신의현대사적 의의 ..	이 현종 (71)
동학의 정신	최 덕신 (39)	민중사의 비애와 영광	홍 이섭 (81)
충무공 이 순신장군	이 은상 (47)	군대사회의 특수성	서 현봉 (93)
충무공 이순신의 보국정신	김 광영 (54)	군인정신 확립	장 석준(106)
3·1정신의 의의	이 태식 (63)	군인정신 확립	이 종안 (99)

논 단

21세기는 낙원인가, 지옥인가?	박 동현 (143)
유모어론	이 병주(194)

번역 : 미 공군 재향군인회 총회 연설문

역대 참모총장 인터뷰

김 정렬 장군을 찾아서	편 집 실(153)
공군 ROTC 좌담회	
한국 항공대학 ROTC	항공대학(164)

표지화·컷.....이 재철, 옥 차 화.....신 장선

우리는 공군이다

특 공 영 화 (172)	이 양 환 (192)	고 경 달 (177)
집 이 유 작 (187)	최 기 용 (180)	최 홍 운 (190)
김 덕 영 (174)	안 진 기 (186)	김 용 (182)
이 상 호 (179)	박 인 채(175)	

항공·군사과학·전사

처칠의 전사 회고(영국의 싸움)	편 집 실(220)
전자시대의 새로운 지식산업	여 영 부(131)
대한 국군 발달사	신 광 식(237)
연 재 이스라엘군의 발전사(끝)	허 돈 구(254)

연재 숨겨진 이야기들 (끝)	전 재 수 (212)
만화 공군 만평	박 진 래 (210)
나의 문학 수업기	지 광 현 (294)
나의 입산 수도기	이 인 수 (308)
시 바 다	이 규 호 (185)
안 려	이 수 화(186)
그 풀밭의 안개	이 건 청(184)
단편 태 평 야	김 병 로(332)

군종 코너

통일을 앞둔 종교인의 자세	박 용 목(302)
이야기 한국 교회사	이 영 현(318)
마틴·루터·킹	정 활 진(327)

취미·오락·교양 코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게임	임 희 자(270)
교양으로서의 음악	김 남 기(261)
개 기르기	김 경 진(287)
생활 스포츠로서의 승마	박 경 수(276)

정예공군



10.17 비상조치와 민족사의 새전기



교육개요

가. 병도 교육계획

계단	일차	교육 내용	담당	장소	비고
1 단계	10월 20일				
	조	10.17. 신정철 장교	조	창원	창원



공군 참모총장 옥 만호 대장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 10월유신을 적극 지지키로 결의하고 유신대열의 선봉적 역할을 다하도록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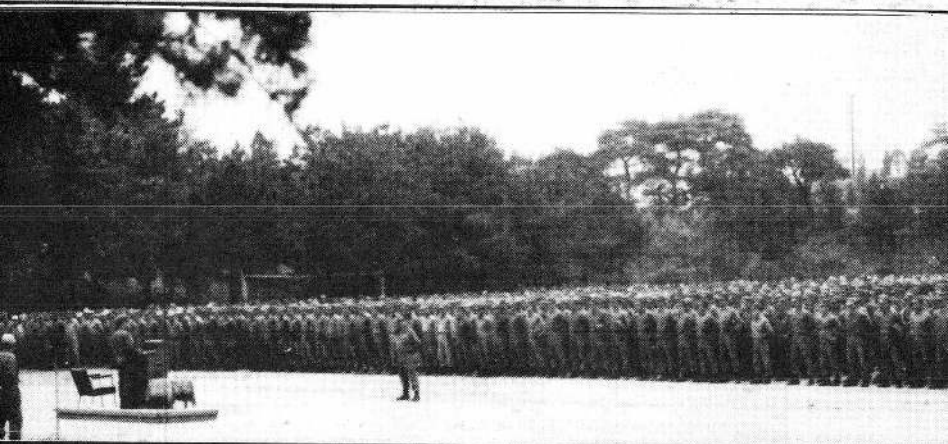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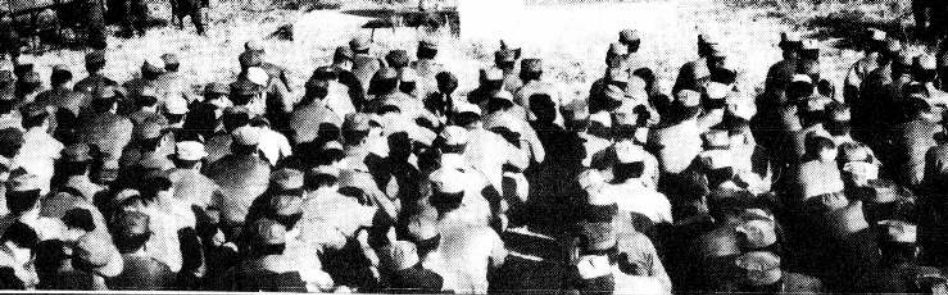
전군 주요지휘관들은 선서를 통하여 박 정희 대통령 각하의 구국일념에서 나온 10월유신을 적극 지지하고 10월유신에 앞장서서 영공방위를 이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는 한편 탁월한 박대통령 각하의 영도력에 따라 조국의 번영과 통일에 앞장 설 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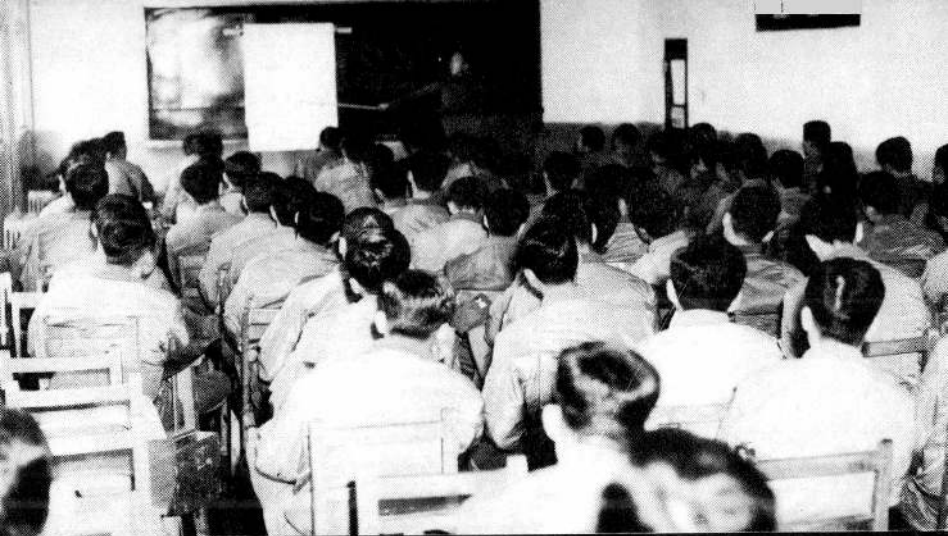


공군의 장병 뿐만 아니라 문관도 혼연히 이 대열에 참가, 빛나는 새 조국건설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10월유신의 정신은 요원의 불길처럼 공군 장병들의 마음 속을 번져나갔다. 국민을 위한 군대, 국민의 자제로서 이루어진 군대에서 온 국민들이 호응해 나가는 10월유신의 정신은 장병들의 가슴 속을 메아리쳐 갔다.

유신과업의 역군이 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학과장에서나, 강단에서도 10월유신의 정신은 메아리쳤다. 정병지도 업무를 통하여도 이 정신은 높이 숭앙되었다. 이제 새 역사의 대열에 모두 함께 정진하자.

라인에서도, 직장에서도 정훈조를 통하여 10월유신의 높은 정신은 전달이 되었다. 탁월한 영도력에 조국은 번영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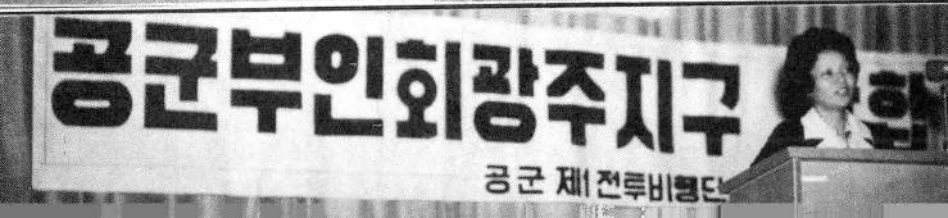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는 이 길에 우리 모두 혼연히 참가하자. 번영과 통일을 위한 이 길, 우리의 후손들에게 빛나는 역사를 물려주자. — 웅변대회에서 —

공군은 구국의 유신대열에 선봉적 역군임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정예공군으로의 힘찬 전진으로 유신성업을 더욱 빛내자.

— 강연회에서 —



10월 유신 단합대회





○ 내무반을 통한 정훈교육

장병들의 표어와 가정으로 보내는 서신

아빠님 전 상서.

아버님!

10월 유신
현정대신으로
국리민복을

우리모두 참여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평화통일의 기틀은
10월 유신으로

민족의 활로는
10월 유신으로

조국통일 영단장에
너도 나도 일장서자
제이여해 삼천 두 세만

구국의 영단
민족사의 자랑

개혁신상에 투의이거
나라 국민 권리가 중
박 대통령 주위의 큰이소 함원
총의 강령은 항상 희망찬 내일을
향려 향차재 나아 갈수 있는 체이 덕으로 우선 국민
권리가 5번 유신 권범에 대해 모두 현명함은 어국에 불란
뜨거운 마음으로 국민 투표에 참여 할수 있도록 자의적 습
은 물론 권치 이웃에 자의 권력 주를 믿는다.
이런 국민 권리가 희망찬 내일의 대변이 되니 후하

몰지각한 퇴폐주의

공군

제 132·133 합병호

1973년 제 1호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권두언>

조상의 얼을 되살리자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면면히 역사를 이어 온 민족에게는 영광이거나 수난이거나 가릴 것 없이 그 민족 나름의 애환이 따르게 마련이다.

빛나는 전통과 유구한 역사가 단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전통과 역사를 이루어 온 민족이 단시일에 멸망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우리에게는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으며 우리들의 의식 내부에 깊이 흐르고 있는 조상들의 얼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새삼스럽게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릴 수가 있다.

고구려의 자위정신이 그러했고 신라의 삼국통일 의지가 그러했으며 우리 조상들의 빛난 문화가 그러하였듯이 우리들은 조상의 이 숭고한 얼이 우리





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승해 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맥맥히 흐르고 있는 이 민족의 정신 속에는 광개토대왕의 의지가 흐르고 있고 화랑도와 김 유신, 김 춘추의 정신이, 그리고 3.1운동과 유 관순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외세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의 가슴에 흐르고 있는 이 빛난 얼은 자아를 되찾고, 자주를 역설하고, 그 필요성을 절감해 왔던 터이다.

우리의 전통의 현대적 발전을 위해 이제 우리는 분발하여야 한다.

10월유신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대명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활로를 제시한 구국의 일대 영단이었다.

자주, 자조, 자립, 자결, 자위하는 정신을 이땅 위에 뿌리박아야 하는 것이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리고 주체성을 되찾아 우리의 진로를 명확히 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일이 곧 우리나라를 아끼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군인으로서 우리가 목표하는 지상과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여 빛난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굳혀가야 할 것이다.



참 모 총 장 신 년 사



친애하는 공군 장병 및 문관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결실, 그리고 안정과 번영을 기약하는 새해를 맞이하여 본관은 지금도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영공수호 임무완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신년에도 모든 영광과 행운이 우리 공군과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는 격동과 충격으로 점철된 세계 정세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기하려는 역사적인 유신의 뜻을 올렸으며,

우리 군도 당면한 안보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유형무형의 전력 극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내실있는 영공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월유신의 이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정병지도 업무와 제반 체제 혁신 등 양과 질에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신 기원을 이룩한 벅찬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관은 새해를 맞아 지난 해에 이룩한 업적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상황과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성년공군으로서의 전통과 업적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새로운 복무자세를 가다듬어 완벽한 전비태세 확립과 유신대열에 발맞추는 군의 결의와 각오를 새로이 다짐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은 72년도까지 확보된 전력의 내적총실과 정비화를 기하여 현존전력을 극대화 하고 이에 병행하는 정신교육 훈련과 정비지도 업무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자주적인 공군 작전운영 태세를 유지할 것은 물론,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여 자주적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지향하려는 유신과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사적인 유신대열의 선봉적 역군이 되어 줄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및 문관 여러분!

본관은 10월유신이 민족중흥을 위한 구국의 영단임을 되새겨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용기와 일체감으로 단합을 저해하는 일체의 요소를 배격하고 새로운 기풍과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영공방위를 다하는 한편,

당면과제 수행에 있어서는 예리한 독창력과 용기있는 결단, 그리고 힘찬 행동력으로서 평소에 배양한 우리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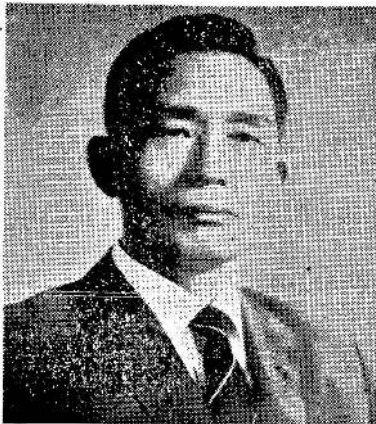
이제 국민적 총화진군을 다짐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영광된 내일에 도전하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전 장병이 굳게 뭉쳐 지금까지 보여준 의지와 열성으로써 말은 바 군무 수행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전 장병 및 문관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공 군 참 모 총 장

공군대장 욱 만 호

제 8대 대통령

취 입 사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의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과 시련의 역
사에 종지부를 찍고, 안정과 번영
의 보람찬 새 역사를 기록해 나가
야 할 엄숙하고도 뜻깊은 전환
점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 순간을 지켜보는 역
사의 증인들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우리가 기록해야
할 역사는 활기찬 새 역사이어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에 입각한 영광의 역사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바
입니다.

이러한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나는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 지지
속에 민족통일과 번영의 대임을 맡은 제 8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
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국과 민족의 양심 앞에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조국의 안정과 평화, 통일과 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
속에서 마련된 이 식전이, 나에게서는 막중한 책임과 숭고한 사명의 십자
가를 지게 하는 헌신의 계단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조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하나로 묶는 구국유신(救國維新)의

새 광장이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지난 날 우리의 5천년 역사는, 영예와 오욕(汚辱)으로 점철된 것이었으며 특히 우리의 현대사는 수난과 비운의 연속,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16혁명을 기점으로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자아를 되찾기 위한 보람찬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국력배양에 일로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공업입국(工業立國)의 터전을 튼튼히 닦아놓았으며, 이제 바야흐로 중화학공업시대(重化學工業時代)의 막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4대강유역의 크고 작은 마을에서는, 번영의 꿈을 이룩하려는 우렁찬 개발의 고동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새 마을 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일깨우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착실히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은 새로운 정신혁명의 원동력이 되어, 전국에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으며, 우리의 정신문화와 정치제도는 이제 뚝뚝하게 그 국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27년 동안에 단절되었던 남북간에 대화의 문을 열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전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단의 논리가 지배하던 냉전의 대결구조에서 벗어나, 서로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와 조화의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10년간의 우리 역사가 비단 고난과 역경만의 연속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시련을 극복하는 용기와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을 안겨준 보람찬 긍지의 기록이라고 자부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남들이 수백년 걸려서 이룩한 정신적 자아(精神的自我)의 발전을 불과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이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底力)을 실증한 것이며, 불굴의 용기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무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되찾은 민족의 위대한 자아와 자주·자립의 역량을 한 차원 더 높이 승화시켜, 이를 세계사의 진운 속에 드높이 발양해야 할 새 역사의 관문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일대 전환점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국력배양의 가속화(加速化)를 통해 번영된 통일조국(統一祖國)을 구현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쟁없는 평화 속에 5천만 동포가 다 함께 행복과 번영을 누리며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하여, 민족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야말로,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엄숙한 민족의 소명(召命)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결코 평탄한 대로만은 아닙니다. 우리 눈 앞에는 국제권력정치의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으며, 그 속을 헤치며 나아가야 할 통일과 번영의 길은 아직도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슬기롭게 이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또다시 국민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땀과 더 많은 정열을 우리 조국에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총화전진(總和前進)의 시대를 열어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들 나름으로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을 누리기 위한 이념과 제도를 가져야만 했던 것은 역사 발전의 엄연한 법칙입니다. 우리도 오늘의 현실에 대처하고, 시대

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생산적인 이념과 제도를 마땅히 가져야만 합니다. 그 이념이 바로 「10월유신」의 기본 정신이며, 그 제도가 지금 유신적 대 개혁을 통해 정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유신」은 되찾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자아(自我)를 바탕으로 하여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민족 의지의 창조적 발현(發顯)입니다.

이 유신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해 나가려는 위대한 한국민의 사상과 철학의 확립이며, 그 실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숭고한 유신이념을 구현(俱現)하기 위해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국정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단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신질서는 번영과 통일을 위한 새 질서이며, 도의와 협동과 능률과 생산을 위한 새 질서일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남북이 서로 하나의 민족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이를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실에 가장 알맞는 정치제도를 육성, 발전시켜서 생산적인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치의 진실과 능률을 극대화 해나갈 것입니다. 농공병진(農工併進)에 의하여 균형있게 배양되는 국력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직결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일터가 보장되는 탄력성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땀흘려 일하는 근로와 창의, 생산과 능률의 미덕을 사회윤리(社會倫理)의 기본으로 삼고, 일하는 국민에게는 안정 속에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를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공개와 근로자의 지주제(持株制)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복지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에게는 검약과 봉사로서 스스로 사회복지의 균점(均霑)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회기풍을 크게 진작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더욱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민족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문예중흥(文藝中興)의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나는 이러한 혁신적인 유신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신뢰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유신의 열매도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는 민족의 사활과도 직결된 이번 유신과업은 일차적으로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그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이제부터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막중한 책임과 숭고한 사명을 더욱 절감하고, 공인으로서의 마음 가짐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유신대열에 앞장서서 출선 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 길만이 국민의 절대적 지지에 보답하며, 저레의 소망에 부응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공직자들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국민들이 유신과업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할 때, 국가발전을 위한 위대한 전진은 힘차게 계속될 것이며, 유신의 보람찬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것입니다. 나는 조국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가정에서도 진정한 화목과 우애를 이룰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애국심, 이 조국애가 곧 우리들이 정립해 나가야 할 국민기강(國民紀綱)의 근본이라고 강조해 두어야 합니다. 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국가」를 하나로 알고, 국력배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그 국력은 국민 각자의 안정과 번영에 직결될 수 있으며, 행복하고 명량한, 그리고 도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으로 근면과 검소, 정직과 성실의 기풍을 크게 일으키고, 조국을 위한 사랑,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굳게 다짐하면서, 국력 증강을 위해 더욱 힘차게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밖으로는 민족의 진취적인 기상과 슬기로운 자주성을 더욱 드높여, 우방과의 친선·협력 관계를 증진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민족의 대응비(大雄飛)를 기약하는 발판이 되며,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는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 강토 위에서 영원토록 사랑을 가꾸어 나가야 할 한 핏줄의 아들·딸들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비능률과 부조리, 퇴폐와 낭비가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합리와 능률, 성실과 근면이 뿌리를 박는 아름다운 생활풍토를 이룩해 나갑시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게 하고, 그 대신 번영과 정의의 꽃이 만발하는 희망과 행복의 통일조국, 위대한 한국을 건설합니다. 그 날의 영광을 앞당기기 위해, 다 같이 이 보람찬 유신의 대행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끈기있게 전진합니다.

그리하여, 이 위대한 유신의 햇불을 무궁한 조국의 영광과 더불어, 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박 정 희

솟아라, 공군이여!

전 재 수

해맑은 새 아침의 시간
하늘을 솟아오르는
우리의 젊음.
우리는 공군이다.
영원히 푸른 이 하늘 속에서
선배도 후배도 함께 날았던
젊은 의지로 뭉친 공군은 자란다.
잠자리 경비행기에도
급조한 사제폭탄을 달아
원한의 적 탱크를 폭파하고
열렬히 바라던 무스탕으로
적진을 누비던 선배들.
무수한 젊음들이 조국의 하늘에서
산화해 가고
우리는 그 하늘에서 날아왔다.

땀흘리며, 애태우며 키워 온 공군
전쟁을 겪으면서, 시련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자라고 자랐다.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은 피와 땀으로 얼룩진
조국을 위한 숭고한 결의의 길.
그 누구가 우리를 당하라.

음속의 두배를 날고 있는
우리 공군은 세계의 열강과도
어깨를 같이 하고 있다.
어찌 이 걸음을 중단하라.

힘찬 조국의 전진과 더불어
번영과 통일의 80년대를 향하여
우리는 날고 있다.

맑고 티없는 결의로
우리의 젊음이 불타고 있다.
쫓아라, 공군이여.

해맑은 새 아침의 창공에
힘찬 너의 날개짓을 보자.
오천만을 지키는
너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자.

10월유신과

우리 조국의 미래상



편 집 실

차 례

1.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의 선진국
2.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
3. 도시보다 잘 살게 될 농·어촌
4.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증대
5. 번영의 낙원을 담은 국토개발
6. 믿음과 복지가 있는 사회
7.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1.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의 선진국

우리가 과거에는 가난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도 가난할 수는 없다. 잘 살아야 한다. 너무도 한참고 가난했던 우리이기에 잘 살아야겠다는 우리의 소원은 하늘에 사무치도록 간절한 때가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0월유신」을 기해서 우리의 1인

당 국민소득(1인당 GNP=이하 같음)이 늦어도 1981년까지는 1,000「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11월 6일, 4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달러」로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제 정부는 국민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잘 사는 세상이 다가오는 것이다.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감격이며, 보람찬 희망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이룬다면 현재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세계에서 25번째로 높은 국민소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넘어선 것이 불과 6년 전인 1966년이었다. 1,000「달러」라고 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명예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러」의 환율을 「400:1」로 잡고 가구당 인구 수를 5인으로 잡는다면 한 가정에서 1년에 평균 200만원을 번다는 말이다. 매달 16만7천원의 수입이 있다는 말도 된다.

이때에 가면 우리는 아무 것도 부러울 것이 없으며 아무 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우리도 당당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며 세계의 모든 선진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떳떳하게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아무리 생각해도 꿈만 같은 감격이요, 희망이다. 그러나 이것은 꿈 아닌 현실이다. 그 가능성이 불을 보듯 뚜렷하고 명백하다.

1960년대를 보라! 우리가 제일 처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아무도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무리하고 실현성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했던가?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 1966~1969년 사이의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것이었다. 우리는 1차 5개년계획을 4년만에 달성했고, 2차 5개년계획은 3년 반만에 완수했다. 그리하여 계획기간의 도중에서 개발목표를 수정하여 더 높이기까지 하였다. 이제 우리에게겐 경험과 자

신이 생겼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을 때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아무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라, 너무도 아프고 쓰렸던 춘궁기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초근목피로 겨우 목숨을 이어 가기도 허덕거리던 일은 이미 옛애기가 되고 말았다. 봄철의 굶주림을 없애겠다는 지도자의 결의가 굳고 높은 것이었으며 이 지도자의 결의를 중심으로 국민이 뭉쳤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서 안 될 일이 없지 않은가? 합심하고 노력만 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을 1,000「달러」로 올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결코 안 될 일이 아니다.

60년대에는 우리가 경제개발에 대한 경험도 없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기록했거늘 하물며 이제 1~2차의 개발계획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자신을 얻게 된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더구나 「10월유신」으로 우리는 안정된 정치와 능률있는 정치를 구현하게 됐다. 정치가 안정됨으로써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안심하고 오직 잘 살기 위한 일에만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능력과 국민의 지혜를 잘 살기 위한 노력, 이 한 곳에 집중시켜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경제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마당에서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이때에 가면 국민 누구나가 다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하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든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살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만 한다면 자가용 승용차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때에는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삶을 즐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된다. 가정마다 「텔리비전」은 물론 전기냉장고와 필요하다면 전기세탁기까지도 두게 될 것이며, 주말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적어도 10년만에 이 풍요와 번영의 행복한 세상을 맞는 것이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이 극복된 낙원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게 된 것이다.

10년 안에 슬픔과 고난의 발자취로 엮어진 5천년의 가난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번영과 영광이 넘쳐흐르는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된 것이다. 어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기쁨과 자랑이 바로 「10월유신」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누구나 다 이 대열에 혼연히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2.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

잘 살기 위한 「10월유신」은 우리의 수출을 10년 안에 100억「달러」로 올려 놓게 할 것이다.

수출 100억「달러」,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의 차관은 모두 합쳐서 30억「달러」이다. 그런데 그 3배가 넘는 100억「달러」를 한해 동안에 수출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진정 가난과 슬픔의 역사와 이별을 하고, 번영과 행복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까운 일본이 오늘날 세계 제 3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1969년의 수출액이 160억「달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10년 내에 이룩할 100억「달러」의 수출이 얼마나 크고 명예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에 가면 우리의 수입도 물론 늘어나지만 수출이 100억「달러」에 이르게 되므로, 수입을 하고도 상당한 외환이 남아 돌게 된다. 그리하여 무역에서도 흑자를 내게 된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외국의 원조액이 느느나 주느나 하는 것을 놓고 가슴을 조여왔던 우리가,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수출로 들어온 「달러」를 가지고도 필요한 상품을 다 수입하고 남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월유신」은 바로 이 영광과 기쁨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수출 100억「달러」—.

그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기어이 이 수출 100억「달러」의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고야 말 것이다. 지나온 60년대를 보자.

1960년의 수출은 불과 3,200만「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한국에서는 아무 것도 수출할 것이 없다고, 전세계가 한국의 수출 전망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수출을 10억「달러」에 이르게 한다고 선언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 과연 될 것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우리는 지금 수출을 18억「달러」대까지 끌어올렸다.

1960년의 3,200만「달러」와 비교하여 보면 무려 53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우리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념과 영도력 아래서 전국민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이룩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10월유신」의 잘 살기 위한 개혁운동에 온 국민의 의지와 정성이 쏟리고, 능률있는 정치, 능률있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게 된 오늘의 우리가 앞으로 수출 100억「달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1960년부터 1972년까지 우리는 수출을 53배나 증가시켰는데, 이제부터의 10년 안에 이를 6배로 늘이는 일이 안 될 까닭이 없다.

100억「달러」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 국민의 실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밀고만 나간다면 이 목표는 반드시 달성되고야 말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빛 안 지고, 수출로 번 「달러」로만 수입을 하고서도 돈이 남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수출은 반드시 외화를 버는 데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100억「달러」의 수출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공업과 기술의 수준이 향상되며 수출 상품의 질도 우수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수출을 하려면 수출할 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수출할 상품을 만드는 것은 바로 공업의 발전을 의미한다. 1971년에 우리나라 수출 가운데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86.0%에 이르고 있지만 1980년대에 가면 이것이 95.0% 이상으로 늘어나

게 된다. 이때가 되면 수출상품의 가치 수도 훨씬 더 많아지고 보다 비싼 고급품으로 되며, 기계, 선박 등 종래 우리가 외자도입으로 수입하던 것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수출이 100억「달러」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완전고용이라고 하는 「실업자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수출을 100억「달러」에 이르게 하려면 그 때의 인구를 3천7백만으로 잡았을 때 1인당 약 270「달러」씩 수출하게 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8천원이 되는 수출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수출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많은 수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10년 후에는 실업자라는 말이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나 일하고 싶은 사람이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째째매던 일은 10년 후에는 아득한 옛 얘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수출이 1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 위세를 전 세계에 떨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억「달러」의 상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4조억원의 상품이다. 이 많은 상품을 전 세계의 인류가 쓰면서 「코리아」를 생각하고 동경하며 더욱 많은 우리의 상품을 사가게 될 것이다. 이때에 가면 수출 상대국은 현재의 108개국에서 더 늘어나 수출 한국의 명예는 5대양 6대주에 떨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남의 나라 상품을 수입해야만 살 수 있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의 상품을 사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10월유신」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국의 영광과 겨레의 명예가 세계에 떨치는 그 날을 향해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앞으로 걸진해 나가자.

3. 도시보다 잘 살게 될 농·어촌

우리의 수출실적이 100억「달러」에 이르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비단 공업의 발전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공

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농·어업의 개발과 발전을 가져온다. 발달된 공업은 자연히 그 원료를 생산하는 농·어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마련이요, 1인당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한 농·수산물의 소비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특히 우유와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 밖에 고기류와 채소의 수요도 평강히 늘어난다. 이 가운데서도 채소는 수요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값도 오르게 된다. 닭이나 소는 좁은 장소에서도 한꺼번에 많이 기를 수 있지만 채소는 밭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정성들여 손수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값이 오르는 것이다. 어느 선진국을 막론하고 채소값이 고기값보다 비싸다.

우리나라도 늦어서 10년 안에 채소값이 고기값보다 비싼 시대가 온다. 이때에 가면 우리의 농촌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큼 부유한 농촌이 된다.

정부는 또한 이 동안에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할 것이다. 수리시설이 가능한 모든 논을 전부 수리안전담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요, 밭에까지도 수리시설을 하여 가뭄없는 농사를 짓도록 한다.

모든 논·밭의 경지 정리를 완료하여 기계화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비료와 농약의 생산을 더욱 늘여서 더 많은 비료, 더 많은 농약으로 곡식을 튼튼하고 병없이 길러 소출을 획기적으로 늘인다. 특히 종자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늘어나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에 응할 수 있도록 생산을 늘인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농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을만큼 잘 살게 된다. 적어도 1981년에 가면 우리 농가의 연간소득은 104만4천원에 이르게 된다. 이때의 도시 근로자의 가계소득은 89만원으로 올라가지만 농가의 가계소득보다는 15만 3천원이나 적은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농촌이 도시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이다. 1971년에 우리나라 농가의 가계소득은 도시근로자의 그것에 비해 78.9% 밖에 안 되었지만 1981년에 가면 이 비율이 117.3%로 바뀌게 된다. 농촌이 도시 근로자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증명하는 숫자다.

이 얼마나 감격할 일인가? 도시보다 잘 사는 농촌을 우리가 과거에 같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 그러나 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늦어도 10년 안에 우리 눈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의 농촌은 옛날의 농촌이 아니다. 공업의 발달로 이끄는 농촌경제의 부흥과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투자, 그리고 농·어민 스스로가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은 우리 농촌의 모습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어느 농촌에서나 전기불을 켜는 100%의 전화사업을 완료한다. 농촌마다 상수도 시설이 되어 위생적인 물을 마시게 됨은 물론이요, 부인네들은 물동이를 이어야 하는 고된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어느 농가나 경운기를 비롯한 기계화된 농기구로 농사를 지을뿐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자동차까지 가지게 된다.

동리마다 전화를 놓고 자기 집에서 전국에 불편없는 통화를 하게 된다.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는 것은 물론, 전기다리미와 전기냉장고를 가지게 된다. 농촌에서도 샘물이나 우물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식히던 원시적인 시대가 가고 20세기의 가장 발달한 문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가면 농촌사람은 일만 한다는 과거의 개념은 사라지고 만다.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는 농·어촌에서는 농사일의 틈을 타서 여행과 관광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도시에 있는 문명의 혜택을 농촌에 앉아서도 다 받게 될 뿐 아니라, 깨끗한 공기, 맑은 시냇물 가에서 오히려 도시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생을 인생답게 즐기면서 근대화된 농촌의 주인공으로서 세계를 향해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는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가난에 찌드러운 초가지붕은 박물관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어둡고 지루했던 가난의 밤에 새 아침의 눈부신 햇살을 비추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가난했던 과거를 옛말삼아 온 마을이 오손도손 기쁨과 행복을 주고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다.

이제 농촌은 가난의 대명사가 아니다. 농촌은 행복과 웃음, 그리고 부유

한 살림의 대명사로 바뀐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농촌으로 바뀌는 것이다.

5천년 역사 위에 일찌기 이런 일은 없었다.

농촌은 가난하고, 재주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옛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이제부터 우리의 농촌은 인간의 꿈과 낭만이 깃들여 있는 푸르른 전원이며 풍요와 기쁨이 넘쳐흐르는 들판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 새 농촌, 새 역사를 위해 우리 모두 「10월유신」의 드높은 깃발 아래 굳게 뭉쳐 협동하고 단결해 나가야 하겠다.

4.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증대

「10월유신」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을 증대한다.

물가는 이제부터 1년에 3% 오르는 정도로 안정된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될만큼 우리의 생산이 늘어나며, 수출이 100억「달러」에 이르리만큼,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면, 물건이 없거나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때에는 생산된 것만큼을 적절히 소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물가가 오를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위에 정치는 안정되고 사회도 밝은 사회가 된다. 생산이 풍부하고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물가는 더욱 안정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1960년대에 1년에 물가가 35%씩이나 오르는 괴로움을 겪었다. 소득이 줄는다 해도 오르는 물가 때문에 별 효과가 없었던 안타까움을 경험했다. 이러한 우리가 물가가 안정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로 간절하고 뼈저린 때가 있었다.

「10월유신」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시대를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그 뜻이 크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된다 해도 물가가 10% 오른다면 실제로는 900「달러」를 버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물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1,000「달러」를 온전히 버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소득을 올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바라고 또 바라던 소망스러운 일인가?

물가가 안정되면 국민이 다 마음놓고 저축도 하며 10년~20년 뒤의 일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물가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오를 때는, 오늘 1만원을 저축했다 해도, 내년에는 그 가치가 오늘의 5천원~6천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축이 어렵고, 10년~20년 뒤일을 설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찰나주의에 빠지기 쉬웠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오늘의 1만원은 내년에도 1만원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달에 1,000원씩 저축을 해서 10년이나 20년 뒤에 40만원~50만원을 만들어 학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늙은 뒤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것이 건전한 사회요, 착실한 인간의 모습이다. 「10월유신」은 이 착실하고 건전한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 고용이 증대된다. 생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일하는 사람, 즉 고용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이 모자라게 된다. 우리나라도 10년 안에 사람이 모자라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국민은 누구나 다 직장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으며 각급 학교에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듯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인 것이다. 자기의 인격과 품위를 지키면서 사는 신사의 나라인 것이다.

「10월유신」은 이 밝고 미려운 사회를 건설한다. 실업자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간판을 진 그늘진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의 힘을 「10월유신」의 추진을 위해 모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10월유신」은 모든 가정에 집을 마련해 준다. “집없는 설움은 당해본 사람이나 안다”고 하지만 가정마다 저마다의 집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소망스러운 일이다. 특히 도시에서 근로자들이 자기 집을 가진다는 것은 지을 수 없는 소망이요, 애절한 비원이다.

정부는 이 소망과 비원을 풀기 위해, 10 년간에 모든 가정이 자기 집을 가지도록 집을 짓는다. 그리하여 1981 년에 가면 주택 수는 602 만채에 이르게 되어, 국민 모두가 거의 자기 집에서 살게 된다.

이제는 남의 집 셋방살이를 하면서 주인 집 아이와 내 아이가 싸우지나 않을까, 혹시 주인 집에 폐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 집에 내 울타리를 치고 나만이 마음놓고 살게 되는 것이다.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1 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되는 단란하고 복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10 월유신」은 이 복되고 단란한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개혁운동이다.

네째로 「10 월유신」은 사회의 문명시설을 넓힌다.

시내 전화의 회선수는 지금의 63만회선에서 10 년 안에 299 만 회선으로 약 5배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화보급률은 인구 100인에 1.73대에서 6.18 대로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명시설의 보급률이다.

이로써 우리는 문명한 사회, 부자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10 월유신」은 바로 이처럼 안정되고 운택한 국민생활을 창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하고 내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 「10 월유신」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은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요, 청사에 길이 빛날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이다.

5. 번영의 낙원을 담은 국토개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이르고 수출이 100억「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풍요한 사회—

이 강토는 그 번영의 낙원을 담은 요람이어야 한다.

「10월유신」은 이 국토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 강토를 근대화된 살기 좋은 국토로 건설하기 위해 시작한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은 본격적으로 그 우람한 건설의 메아리를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속도로는 1971년의 650km에서 1981년에는 2,600km로 약 4배가 늘어나, 전국을 거미줄처럼 수놓을 것이다.

모든 국토(8,146km)는 100% 포장되어, 깨끗하고 산뜻한 국토를 가꿀 것이다. 고속도로와 포장된 도로는 서로 연결되어 도시와 농촌을 한나절의 생활권으로 묶게 될 것이다.

세계와 무역을 하기 위해 바다의 역인 항구는 크게 개발되어 그 하역능력이 71년의 1,870만톤에서 1981년에는 9,894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 속의 한국은 그 드높은 번영과 영광을 온 누리에 과시하게 될 것이다.

전국의 산은 대대적이며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붉은 옷을 벗고, 푸르고 싱싱한 녹색의 옷으로 단장될 것이다.

강과 하천에는 제방을 쌓고 물길을 바로 잡아 아무리 큰 장마에도 물이 넘치지 않게 될 것이다. 강과 하천은 이름 그대로 논밭을 살찌우는 젖줄이 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12개의 다목적 댐 건설은 장마에는 물을 빼어 한해를 막게 될 것이다. 가뭄과 홍수를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는 과학의 국토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걱정하던 하늘만 쳐다보던 농업과 이별을 하고, 사람의 힘과 지혜로 장마가 지나 가물거나 할 것 없이 풍년가를 드높이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붉은 산이 없어지고, 푸른 산 푸른 들만이 「빌로드」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 위에 유유히 거니는 젖소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는 낙원은 생각만해도 가슴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름진 낙토를 우리는 10년 안에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주요철도는 모두 전철화되어 빠르고 안전한 운행을 할 것이며, 새로이 건설되는 비행장들은 세계와 한국을 한 이웃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또한 공원지대와 공장지대를 알맞게 배치하여 살기 좋은 이상적인 국토로 가꾸어 놓을 것이다.

이 근대화된 국토건설은 바로 조국의 영광된 번영을 담은 낙원의 모습인 것이다.

「덴마크」는 전쟁에 진 다음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구호 아래 황무지 자갈밭 위에 오늘의 낙원을 이루어 놓았다. 「이스라엘」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사막 위에 오늘의 녹색혁명을 이루어 놓았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조건은 천배나 만배나 낫다.

우리도 「밖에서 찾던 것을 안에서 창조」하기로 결심하고 「10월유신」의 정신 아래,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칠 때, 이 영광스러운 낙원을 건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면 되는 것이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번영된 조국을 담은 국토의 개발을 위해 「10월유신」의 크나 큰 뜻에 힘을 모으고 합치자.

6. 믿음과 복지가 있는 사회

사람이 사람을 믿고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사람이 사는 참사회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다 같이 같은 권리를 가진 민간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복지의 사회야말로 문화민족이 사는 문명한 사회이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나, 돈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누구나가 다 같은 사람으로서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를 복지사회라고 하거니와, 이 복지사회는 20세기에 사는 온 인류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우리나라도 「10월유신」으로 이 복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나라가 부강해짐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을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정부는 「환경연구기관」을 만들어 근대화에 따르는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거니와 1970년대 말에는 도시의 공기를 매연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만들고, 소음이 없는 조용한 도시를 만들게 된다. 강물을 깨끗하게 걸러, 물고기가 유유히 자라나며 인간이 마음놓고 그 속에서 놀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비록 오늘날의 공해가 우리의 경제발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긴 하나 남의 나라가 겪었던 그 무서운 공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일찍부터 그를 없애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병이 났을 때, 비록 돈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마련하기에 힘을 기울인다. 이미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입장이나, 공무원 및 군인들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는 1976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거니와, 1970년대 말에 가면 이 제도의 혜택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의료보험을 넓힌다.

병이 났을 때,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간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슬픔과는 영영 작별을 한다.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누구나 돈이 있건 없건 병이 났을 때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우리가 일찌기 5천년의 역사를 통해 경험해보지 못한 복된 사회다. 그 복지사회가 「10월유신」으로 바로 눈앞에 다가선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양로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누구든 노후에도 근심걱정 없이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길을 터놓는다. 이것이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복지사회의 이상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학교의 시설을 대폭 확장하여, 곧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연장하여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돈이 없이 중학교까지를 졸업하게 된다.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아들 딸들을 앞에 놓고 한숨 어린 목소리로 가난한 집안살림을 알리면서 중학교에 가지 말라고 타이틀 필요는 없게 됐다. 중학교까지는 돈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기 때

문이다. 그렇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이르게 되면 중학교 졸업 보내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의무교육이 확충됨으로써 학부모는 그만큼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고마운 사회를 맞이하는 것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에게 교육을 못시키는 것과 병이 났을 때 치료를 못받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10월유신」으로 해서 인간의 이 기본적인 고통과 근심을 덜게 된 것이다. 생활의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은 저절로 샘솟듯 솟아나게 되지 않는다.

나라의 기틀은 튼튼한 반석 위에 다져지게 되고 국민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게 한 것이 「10월유신」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부정을 없애,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회를 건설한다.

분열과 혼란이 없는 협동과 이해의 사회를 건설한다.

거짓이 없는 참사회를 건설한다.

부정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는 사람이 마음놓고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한다.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를 건설한다.

불안이 없는 밝은 사회를 건설한다.

불신이 없는 믿음의 사회를 건설한다.

「10월유신」은 이같은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맑고 명량한 믿음의 사회—

성실과 노력으로 충만해 있는 사회— 이 사회는 우리가 오랫동안 회구해 온 것이 아니었던가. 그 사회가 「10월유신」으로 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다.

이 믿음의 사회야말로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와 수출 100억「달러」에 버금하는 우리의 자랑이요, 보람인 것이다.

양심이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누가 이 맑고 넓은 「10월유신」의

대로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7.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잘 살기 위한 「10월유신」의 역사적 대행진은 이미 시작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의 번영을 향해, 민족의 대행진은 시작된 것이다..

수출 100억「달러」의 영광을 향한 겨레의 우렁찬 합창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주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조국의 내일은 밝고 우람하다. 우리가 도움을 받거나, 꾸어 쓸 이유가 없다. 우리는 남에게 꾸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보람과 영광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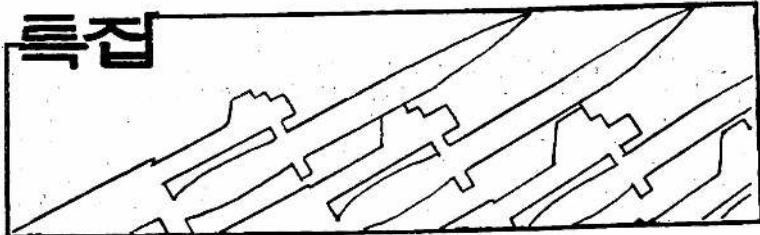
세계에 부러울 것이 없는 선진국의 대열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된다. 필요한 것을 다 수입하고도 「달러」가 남을만큼 수출을 할 것이다. 도시보다 잘 사는 농촌이 건설된다. 안정된 물가의 바탕에서 고용을 증대시키면서 풍요와 번영을 창조한다. 근대화된 국토를 건설하여 자손만대의 행복을 심을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누구나 병이 나면 병원에 가고, 나이가 들면 학교에 갈 수 있는 복지의 사회가 온다. 도움을 받거나 의화를 꾸어 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을 돕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조국애가 끓어오르도록 하자. 그리하여 잘 사는 나라, 영광된 조국을 창조하자! 조국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보람있는 민족이 되자는 말이다.

여기에 「너」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너」와 「나」는 「우리」라고 하는 한 덩어리 속에 용해되고 영켜서 하나의 목표 「잘 사는 길」을 지향하는 힘의 되어야 한다. 이 「우리」가 바로 이 강토의 주인이 아닌가.

우리 모두 힘과 뜻을 합하여 잘 사는 영광된 조국을 건설하자!

특집



군인정신

-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 다도 강한 사명감과 필승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군인정신자세의 확립을 위해 이번 호.....
-에서는 갖가지 수난 속에서도 민족사의.....
-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온 명장들.....
-의 지도력과 몇 가지 민족운동정신을 다시.....
-살펴,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명감을 재인.....
-식, 그 기본정신을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한 정신전력을 고취, 함양시키기 위한 내용을 다.....
-뤄본다. <편집실>.....

화랑정신

최정석

이현종

동학정신

최덕신

민족사의 애환

홍이섭

충무공정신

이은상

군대사회

서현봉

김광영

군인정신

이종안

3·1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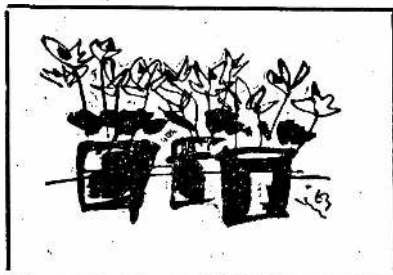
이태석

장석준

화랑도 교육사상을 통해 본

화랑정신

최 정 석



1. 화랑도의 기원 및 성격

백제, 고구려, 신라 등의 삼국시대 정세로 보아 경상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를 차지한 신라는 특히 진흥왕 이전에 있어서 남쪽으로는 왜(倭)라는 해적군(海賊群), 서(西)로는 백제와 가야, 북(北)으로 고구려와 말갈족에게 매년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산악이 많고 비옥한 평야가 적었다. 이와같이 지리적으로 이(利)를 지 못한 환경과 정세에 처한 신라는 이러한 사방(四方)의 강한 적들에 대항하고자 함에

는 국가적인 비상한 조치가 없이는 이 역경을 돌파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신라는 이 수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대 애국적 국민운동을 일으켰으니, 그 방법으로 「무력강화」(武力強化)와 「인재양성」(人材養成)의 두 가지 목적을 내세워서는 신라국민으로 하여금 소년시대부터 교육, 훈련을 시키고자 만든 것이 화랑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랑제도가 언제 창설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여러가지 문헌을 살펴보면 진흥왕 대(代)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진흥왕이 삼국정립의 국가정세에 비추어 국력(國力)과 국권(國權)을 신장하고 더 나아가 민족통일의 원대한 이상을 실현코자 화랑도의 교육제도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화랑집단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들의 조직원칙은 덕망과 신의를 중시함으로써 화랑을 내세우고 그 밑에 남

도(郎徒)라는 명칭으로 많은 단원들이
결속하였다.

그러나 화랑된 자의 신분은 반드시
귀족 출신이 아니면 안 되었다. 그 이
유는 그 때의 국가가 귀족지배적인 것
과 또 이러한 단체를 운영함에는 막대
한 비용이 필요하였고, 그 지도자는 계
급적 지위와 학문과 교양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왕족이나 귀족출신
중에서 14, 15세 내지 17, 8세의 소년
가운데 화랑으로 내세움을 받은 자는
그 휘하(麾下)에 있는 낭도들의 도덕
적, 인격적 교육과 군사적 훈련, 그리
고 수다한 낭도 중에서 장래 국가에 유
용한 인재를 발견하는 것 등이 화랑된
자의 책임과 사명이었다.

화랑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형(模型)
이요, 사범(師範)이다. 그리하여 수다
한 낭도들로 하여금 이 모범적 청년인
화랑을 사범으로 하여 얼마 동안 그를
따라 수행하는 동안에 아름답고 선량하
고 완미(完美)한 인격을 양성하려고 하
는 것이다.

화랑집단은 국가의 지도는 받았으나
국가의 직접 통제, 직할기관은 아니요,
사적(私的) 단체이었으니, 동시에 다수
의 화랑집단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
고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화랑집단은
귀족출신이었지만 결사(結社)의 법적

근거는 순전한 국가통제가 아니고 민간
적 조직이었으니, 자유주의적이며, 민
주적 조직이라고 하겠다.

2. 화랑도의 교육목적

화랑도 교육의 목적은 처음부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제도, 혹은
인재를 선택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화랑도 교육은, 우리 민족 고
유의 교육방식을 지향하여 비교적 인간
교육과 생활교육을 목적하여 왔으며 동
시에 본인의 인물과 실력으로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로써 화랑도 교육은

첫째로, 용감한 병사(兵士)와 실천적
인물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김 대문의
「화랑세기」에서 말하기를 「어진 제상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장
수(將帥)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 인하여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화랑도 교
육은 신라의 청소년에게 군사적 기능과
사회생활의 실제적인 공민(公民)의 덕
성을 훈련받게 하였다. 좀더 구체적으
로 말하면 화랑단은 국가를 위하여는
신명을 가버이 여겨 희생적인 정신을
함양하는 수양단(修養團)이었고, 일단
유사시에는 전사단(戰士團)으로서 활동
하였다. 그러나 신라 국가를 다스릴 사
회의 중심인물을 양성하면서 필요한 경

우에는 군인, 무사가 될 수도 있는 국
방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

특히 신라에서는 언제나 국방의 문제
가 일어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민
족, 한 국가」라는 삼국통일의 희망과
뜻을 가졌었다. 여기에서 국가목적에
비추어 본 화랑도는

(1) 섧직한 중견 청년을 조직하고
훈련하여 언제나 국토방위와 국위선양
에 총동원하자는 것이었고,

(2) 국민의 상무적인 기풍을 항상 진
작하여 사기를 앙양하는 동시에 민중통
일의 대업을 완성해 보자는 것이었고,

(3) 조국의 앞에 개인의 이득을 용
인치 않고 조직과 규율을 통하여 언제
나 대아(大我)를 위해 소아(小我)를 희
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하였던 것
이다.

이로써 보면 신라의 화랑도라는 것은
그 교육 목적에 있어서 평시에는 사회
의 중심인물을 양성하는데 수양단체였
고, 전시(戰時)에는 전사단(戰士團)으
로 변하였다. 이것이 신라인의 국민교
육이었으며, 국민정신이었다.

둘째로, 도덕교육(道德教育)을 중시
하였다. 화랑집단은 화랑을 중심으로
교우간에 서로 사회생활의 규범을 배워
도덕적 교육을 훈련받았다. 도덕교육의

바탕은 유교, 불교, 도교의 외래사상의
힘이 컸었다. 화랑도의 도덕교육은 유,
불, 도교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국민생
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화랑도들은,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고(유교의 가르침), 모든
일을 거리낌없이 공정히 처리하고, 말
하지 아니 하고 일을 실천 하였고(도교의
가르침), 모든 약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만 실행하려고 노력하였다(불교
의 교화).

그리고 삼국유사 경문왕조를 보면,
화랑도의 도덕교육의 세 가지 미덕(美德
)으로서 ① 윗 사람으로서 겸손해서 남
의 아래에 앉는 것, ② 부유한 사람으
로서 겸박한 것, ③ 권세가 있는 사람
으로서 위세를 부리지 않는 것을 가르
쳤다.

그러니 화랑도 교육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신앙에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공
자의 사상과 종교이면서 철학인 불교와
도교가 전입되어 외래사상인 충효(忠孝
)를 기조로 하여 신라 사회에 봉공하는
도덕적 정신을 길러주었다.

세째로, 화랑도 교육은 원판법사의
세속오계(世俗五戒)를 교육정신의 목표
로 하였다. 즉

① 사군이충(事君以忠), 임금을 섬기

되 충성으로써 하라는 것이니 왕실이나 국가를 위하여 신명을 바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였고,

② 사친이효(事親以孝), 부모를 섬기되 효로써 하라는 것이니 가정에서 효를 다하여 가문(家門)을 빛내고 나아가 국가에 충성하는 충효일치를 친정한 효도라 생각하였고,

③ 교우유신(交友有信), 벼를 사기되 믿음으로써 하라는 것이니 사회생활과 인간에 대한 신의(信義)를 서로 맹세하고 실행하는 전우애를 강조하였고,

④ 임전무퇴(臨戰無退),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니, 용기와 필승의 신념을 강조한 그들의 철석같은 군운이었고,

⑤ 살생유택(殺生有擇), 산 것을 죽임에는 반드시 가려서 하라는 것이니 어질고 의로운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화랑도 생활의 목표가 되는 교육정신이나 도덕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어떠한 방법으로 화랑집단에서 실시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화랑집단이 공동생활을 통한 수양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평시에 있어서는 사회적 예의 훈련, 국가와 가정에 대한 충성, 효도 및 낭도간에 특정의 우정

관계가 발생하여 소위 형제관계의 애뭇한 정의(情誼)가 성립하였다. 전시에 있어서는 이들의 교우(交友)의 관계가 전우미담(戰友美談)이 되었다. 그러나 교우관계가 친밀하고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는 것은 화랑도 교육의 특징이다.

이상을 고찰해 보전대 화랑도 교육의 목적과 화랑도들의 일화 일부는 활동적인 생활을 강조하면서 도덕과 예의를 존중한 서양 증세 기사도 교육의 목적과 일치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쪽이 모두 사랑(友情)과 전쟁을 가르치고 약자와 부인에 대한 보호와 만사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명정대할 것을 가르쳤다. 즉 정의와 신사도에 입각해 행동하고 사회의 안녕질서유지와 보호에 헌신한 그들의 의협적 행동은 서로 상통한 바 있다.

3. 화랑도의 교육

과정(教育課程)

화랑도의 생활양식이나 교육과정은 지적(知的)인 것보다는 활동적인 것이었다. 주로 사회적·정치적·신체적·군사적 훈련을 교육의 면에서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낭도들은 이러한 생활과정을 통하여 인격교육이나 인간관계의

기초를 닦았다. 화랑도의 교육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화랑도의 생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첫째로, 도덕과 심성(心性)을 도야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화랑도 교육의 목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라의 화랑도들은 서로 도의와 심성을 연마하는 가운데 만인이 흠모하는 인격의 소유자를 목표로 한 것이니 심성과 이성의 도야에 화랑의 교육적, 도덕적 가치를 두었다. 즉 화랑도 교육은 이성을 통해서 덕이 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 훈련이었다.

둘째로, 정서를 도야하였다.

화랑들은 시가(詩歌)와 음악을 즐겼고 실제생활을 통하여 한결같이 춤추며 노래하는 가운데 정서의 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화랑집단의 의식이 각자의 마음 속에 뿌리 박게 되어 공동운명체로서의 호흡과 일체감이 형성되고, 전체로서의 마음의 조화를 얻게 되어 공동적인 행동을 하는 심성적인 바탕이 되었다.

셋째로, 무술을 단련하였다.

진술한 화랑도 교육목적에 비추어 보아 화랑단체가 일종의 군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시에는 전사단으로서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칼쓰기, 창쓰기, 활쏘기, 말타기, 다름박질,

팔매질, 씨름 등의 훈련을 조직적으로 학습하였다.

네째로, 심신단련과 직관도야를 하였다.

화랑들은 심신단련과 직관도야를 위하여 전국토의 지리조사와 명승고적지를 순례하였다. 화랑단원이 배를 지어 서 하는 일대 여행은 이들에게 일종의 신체적 훈련이었으며 국토에 대한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직관교육이기도 하였고 특히 화랑집단이 주로 강원도 일대를 여행한 것은 이 지방이 산수가 아름답고 경치가 좋아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수 있었고 고구려·말갈과 접경지대로서 군사상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화랑도들은 이곳에서 지리조사와 아울러 전쟁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을 체득하는 상무적인 실제훈련을 쌓았던 것이다. 이러한 교육훈련이 화랑도 각 개인에게는 심신을 단련하고 교양을 쌓아 자기의 전문을 넓히고 국토에 대한 애착심과 애국심을 길러 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여행은 인격, 풍속, 무술, 심신단련, 지리 등을 동시에 학습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물의 성격적인 장단(長短)과 품성의 선악을 구별하여 인재등용의 기회로 삼자는 화랑도 교육의 목적과 일치되는 점이다.

4. 교육사상에 나타난 화랑정신

화랑도 교육은 신라 진흥왕 37년에 시작한 신라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무사도 교육을 시키고 나라수호정신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제도로써 그들의 교육목적은 용감한 병사와 실천적 인물을 양성하여 국가에 멸사봉공하는 정신을 기르고, 도덕교육을 실시하여 집에서는 부모에 효도하고, 밖에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말하지 아니 하고, 실천궁행하고, 모든 약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착한 일만 신봉하였고,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를 그들의 계율로 삼아 행동윤리로 실천하여 장차 어진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되고, 출중한 장수와 용감한 군사가 되어 국가의 동량지체가 되었다 함은 앞에서 고찰한 화랑도의 기원, 교육목적, 교육과정에서 살펴보았거니와 이들의 정신을 간추려 보면 애국심(국토방위), 충성심, 용감, 신의, 정직, 인자(仁慈), 협동, 상무정신, 필승의 공격정신, 청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화랑정신을 학술적이나 강학적(講學的)으로 설명, 전개하지 않고 역사상 유명한 화랑도들 가운데 사다함, 관창, 원술랑 등 세 화랑의 실례를 들어 화랑정신의

진면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다함(斯多舍)은 최초의 화랑으로 천여명의 낭도를 거느리고 있었다. 562년 신라는 장군 이사부(異斯夫)를 보내어 가락국(伽羅國)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 때 가락국에는 다수의 일본 원병이 주둔하고 있었으니, 용이한 전투는 아니었다. 사다함은 최초의 화랑이란 자부심과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또한 애국충정에 불타, 너무 어리다고 출정을 만류하는 진흥왕의 권면을 뿌리치고 출정을 탄원하여 화랑낭도를 인솔하고 출진하였으니 이것이 화랑 최초의 출진이였다. 15,6세의 흥안의 소년 화랑도들은 국경에 이르자 선봉에 서서 성문을 깨뜨리고 용감히 적진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화랑도들의 의기충천한 모습을 본 후진의 장졸(將卒)들도 일제히 맹렬한 공격을 가하여 드디어 가락국은 멸망하였으며, 일본군도 항복하여 반도로부터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진흥왕은 사다함의 무공에 대하여 노예로서 포로한 가락인 3백명과 많은 토지를 하사(下賜)하였으나 그는 그 노예전부를 석방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도 굳이 사양하다가 마지 못해 조그마한 땅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같이 살고 같이 죽을 것을 맹세한 부하 무관랑(武官郎)의 전사함을 몹시 슬퍼하여 7일간

통곡하다가 필경 그 자신도 절명하였다 하니 그 나이 겨우 십칠세 때의 일이었다. 우리는 이 간단한 기록을 통하여서도 초기 화랑의 애국, 충성, 용감, 인자, 청렴, 신의, 우정 등을 엿 볼 수 있다.

또 황산벌에서 전개된 백제, 신라의 전투에서는 신라 화랑 관창과 백제 용장 계백장군의 충성심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감격과 교훈을 주고 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황산벌에 진군하여 백제를 침공하려고 할 때 백제는 용장 계백으로 하여금 결사적인 장병 오천명을 선발하여 접전케 하였다. 계백장군은 전선(戰線)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그의 가족을 불러 놓고 말하되 『지금의 백제 국민은 나, 당의 대군과 싸우게 되어 국가의 존망을 알 수 없다. 만일 나라가 망하면 너희들은 적의 노예가 될 것이니 살아 남아서 적에게 사로잡혀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몸과 마음의 목되게 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하고 의연히 칼을 뽑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손수 베었다. 장군은 국가에 충성심을 다 바치는 것을 최고의 신념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가족을 희생한 것이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신념과 절의와 명예와 긍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다는 숭고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다. 그리고 계백장군

은 황산벌에 이르러 신라군과 대진하였을 때 장병에게 말하기를 『옛날 월왕 흘천은 오천명의 병사로서 오나라의 칠십만 군졸을 격파하였으니, 귀관들은 마땅히 생명을 다해 싸워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하였다. 장군의 부하들은 출발 당초부터 장군의 장렬한 절의에 감격하여 이미 결사적인 정신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과연 일기당천(一騎當千)의 기세로 사력(死力)을 다해 싸움에 신라군은 번번히 퇴각하였다. 이렇게 진퇴하기를 4차나 거듭하다가 결국 백제군은 비분히 패하고 계백도 전사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처음 신라군이 불리하였을 때 신라 장군 김품일(金品日)은 그 아들 관창(官昌)에게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나 이 때야말로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울 때이다』 격려하며 관창은 곧 말을 달려 적진에 돌입하여 창으로 수명을 무찔렀으나, 생포되어 계백의 앞에 송치되었다. 계백은 그 투구를 벗기어 보고 『어린 사람으로 이다지 용감하니 가당한 일이라.』하고 죽이지 않고 도로 돌려 보냈다. 관창은 본진으로 돌아와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敵將)의 머리를 베고 그 기를 빼앗지 못한 것은 통분한 일이라』 의치면서 두 손으로 우물물을 움켜 마신 뒤에 다시 적진으로 달려 들어 용감히 싸웠으나

제차, 포로가 되었다. 제백은 부득이 그 머리를 베어 관창의 말 안장에 매달아 신라진으로 보내었다. 풀일장군은 사랑하는 아들의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쥐고 소매로 그 피를 씻으면서 『내 자식의 면목이 이제야 몇몇하고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너도 뉘우침이 없으리라』 하였다. 이 광경을 본 신라 장졸들은 비분강개하여 일제히 복을 치면서 나아가 드디어 결사적으로 용전하는 백제군을 대파하였다 하니 화랑의 용감과 충효 일치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신라 김유신 장군과 그 부인의 언행에서 화랑정신의 근본을 볼 수 있으니, 백제, 고구려가 망하고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영토 쟁탈전이 일어났을 때이다. 유신의 둘째 아들 원술랑이 황해도 평야에서 당, 말갈 연합군과 싸워 패하여 돌아왔을 때 김유신은 그가 전사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을 크게 노하여 「원술이 싸움에 패하여 살아 돌아옴은 왕명을 욕되게 하고 가훈(家訓)을 배반하였다」하여 왕에게 사형을 요구하였다. 태종왕은 그것을 용서하였으나, 유신은 부자의 의(義)를 끊었다. 그래서 원술은 농촌에 은둔하여 있다가 유신이 죽은 후에 그 어머니를 뵈고자 하였으나 어머니도 이

미 자식이 아니라 하여 만나지 않았다, 그래서 태백산에 쫓겨가 있다가 또 당나라 군사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연히 출정하여 공을 세우고 국가의 포상까지 받았으나 그 어머니는 망부(亡夫)의 뜻이라 하여 여전히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원술은 통환을 풀 길이 없어 초야에 은둔하여 일생을 애통 속에 마쳤다 하니 신라 국민정신의 초석으로서의 화랑정신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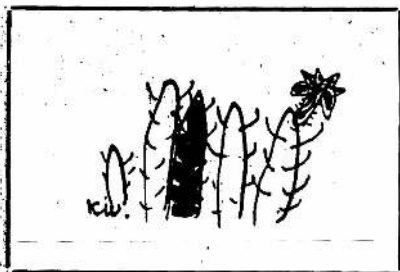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신라 화랑도 교육사상을 통해서 본 화랑정신을 고찰해 보았거니와 이들의 근본정신은 애국, 애족, 충성, 신의, 정의, 정령, 자립, 자조, 협동, 단결, 희생정신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국가에, 사회에, 가정에, 매사에 공명정대한 마음이 집으로 임하면서 국가의 방패로서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정세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정신의 결속에 의한 애국심, 충성심, 합일된 힘의 집결체로서의 굳건한 단결심이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신라 국민정신의 본원인 화랑정신을 본받아 내재적 정신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학의정신

최 덕 신

<천도교 교령>



머 리 말

1860년에 우리나라 경주 땅에서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수운 최제우선생에 의해서 창도된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백십여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동학은 1894년에 우리나라 민주혁명의 효시인 갑오동학혁명을 일으켜 안으로는 봉건제급사회를 무너뜨렸고 밖으로는 청일전쟁이라는 풍운을 불러일으켰으며 노일전쟁이 한참 치열하여 가고 있던 1904년에는 갑진개혁운동을 일으켜 민회를 조직하여 민권을 신장하고 수십

만명의 동학도인들이 하루 아침에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음으로써 세계 신문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나타내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1919년 3월 1일에는 3·1 독립운동을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가 기독교, 불교 등의 전혀 근원이 다른 종단과 힘을 합하여 일으킴으로써 죽어가던 이 민족의 혼을 다시 살려 놓는 등 우리나라 근대사에 주류를 이룬 큰 일을 하였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동학은 괴물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학은 늙고 병들어 죽어가던 이 민족을 젊고 생명력에 넘친 청년 민족으로 갱신시켰다.」라고 칭찬도 하고 「동학은 종교라기보다는 사상단체가 아니냐」 하는 의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동학에 대하여 구구한 평가를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동학의 참된 정신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없다.

오늘날 분단된 우리나라의 운명을 직시하여 불적에 이 비인도적이고 불합리한 분단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종식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할 길을 찾으려면 무엇인가 우리 민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체제를 초월한 우리를 하나의 민족으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적에 우리는 최근 백년사에서 큰 힘을 발휘하였던 동학을 바르게 알고 동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알아보아 오늘날의 분단된 비극적인 우리 민족의 운명을 극복하는데 거울삼을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뜻에서 나는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학이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동학이 그의 교화나 현실운동을 통하여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겠다.

동학이 태어난 이유

동학이 창도된 1860년 전후의 우리나라 형편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리 민족은 이제 다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위기의식이 최고에 달하였던 「불안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안으로는 이조 5백년의 봉건 정치가 사색당쟁과 사대주의로 썩어 들



<천도교 최 덕신 교령>

어갔고 밖으로는 서구의 동방에 대한 침략 때문에 동양의 중심세력인 중국이 흔들리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가 차례로 식민지화 하여 가는 등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어 가기도 하였거니와 일반서민대중으로서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까지 「이제는 다 죽게 되었구나」 하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으니 그 중의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여 보겠다.

옛날부터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삼재판란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삼재라는 것은 천재(홍수·풍수재·가뭄과 같은 것), 염병(전염병), 난리(내란 혹은 전쟁)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삼재가 번갈아 혹은 한꺼번에

우리 주변을 휩쓸어 왔기 때문에 서민 대중은 「이제는 정말 다 죽었구나」 하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한 삼재를 하나씩 살펴본다면 첫째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홍수, 한발, 풍수해같은 것은 나라를 나스리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하여 치산 치수를 잘 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하였다. 흉년에 풀어주는 등 관민이 서로 힘을 합하여 나간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으나 당시의 부패한 정부가 그것을 할 까닭이 없으니 천재가 나기만 하면 피할 도리가 없었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인 열병이라는 전염병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위생사상으로 보아서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으니 환자와 멀리 하는 방법 밖에 없었는데 이것 역시 그런대로 정치가 잘 되어 그런대로의 방역대책을 세워 나간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겠으나 당시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열병이 돌기 시작하기만 하면 서민대중으로서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세재의 난리의 경우를 생각할 적에 난리라는 말은 그 어원으로 보아 질서가 문란하여 진다는 뜻인데 이것은 흉년이 들에 먹고 살 수 없게 될 적에도

적이 생겨 질서를 잡을 수 없게 되고 내란이 일어나고 죄없는 사람이 말려들어 죽게 되는 등의 재난이 일어나 이것을 난리라 하였는데 이것 역시 정치가 잘 되어 있다면 생기지 않는 법이건만 이조의 운명이 다 되어 가던 때인만큼 사방에서 도적떼가 일어나고 민란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상하게 되니 「난리가 일어나면 다 죽는다」 하는 공포를 힘없는 서민대중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삼재에 의한 위기의식에도 겹쳐서 결정적인 공포를 주게 된 것은 「외국침략이 닥쳐오고 있다」 하는 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이조 5백년 동안 쇠국정책을 쓰면서 세계대세에 눈과 귀를 가리고 잠자고 있었는데 18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서양의 철선이 우리나라 근처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그 철선을 탄 서양사람들이 동양의 중심세력인 중국을 침범하기 시작하다가 1842년에는 아편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무력으로 싸워 이겨 홍콩을 빼앗고 다섯 항구의 개방을 얻었고 또한 영국상선 아흔호 능욕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살해사건으로 1856년에 영·불연합군이 북경에 쳐들어가 친자가 열하로 도망가는 소동이 일어나 「서양사람은 싸우기

만 하면 이기지 못하는 일이 없고 처 때
 앓으려면 앓이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 「서양사람들이
 곧 쳐들어 올 것이다」하는 소문까지 나
 들게 되었으니 당시의 서민대중으로서
 는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하는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두 가지 탈출구

그러면 이러한 민족적 위기를 맞이하
 여 대다수의 민중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첫째가 도망가라 하는 것이다. 즉 천재
 ·염병, 난리에서도 망가 편안하게 살 곳
 을 찾아가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좋
 은 구실이 있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에는 「정감록」이라는 괴상한 글이 있는
 데 그 속에는 난리가 일어날 때 살아
 날 수 있는 십승지지가 기록되어 있고
 언젠가는 진인(정도형)이 나와서 세상
 을 편안하게 하여준다는 예언이 기록되
 어 있다는 민중들 마음 속에 뿌리깊이
 박혀 있어 난리가 난다 하거나 하면 피
 난보따리를 싸질머지고 「정감록」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난리 가난 염병이 들지 않
 는다는 십승지지를 찾아 들어가 정도령
 이 나와서 편안한 세상이 될 때까지 기
 다리자 하는 생각으로 이리저리 피난하
 려 다니는 일이 많았으니 그 당시에 그

렇게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어 있을 때
 그러한 도망가서 살아나 보자 하는 생각
 이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 수 없
 었을 것이다.

둘째는 외세에 영합하자 하는 것이다.
 당시의 난리라는 것은 머지 않아 서양사
 람들이 쳐들어 올 것이라는 불안을 말
 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서양사람에게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 머지 않아 서
 양사람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을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외래종교에 귀의하는 현상이 일어났었
 다. 이것은 말하자면 외세에 영합하자
 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를 본다면 서양사람들이 식민지 침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를 전하여
 발판을 만든 예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조의 그릇된 정치와 싸움에
 서 벗어날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애국적인 동기에
 서 받아들여 많은 순교와 고난을 겪으
 면서 새로운 진리를 전하여 온 훌륭한
 종교인데 그 당시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
 을 때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안간에 신앙도 없이 외세에 영합하기
 위하여 입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할
 적에 이것도 다른 형태의 도피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당시의 「불안의 시대」에서의 탈출하려는 두 가지 경향을 살펴 볼 적에 이 두 가지가 모두 그 시대에서 탈출하자는 적극적인 것이지 그 시대를 극복하자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당국적인 경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마다 절감록을 믿고 도망가서 살자고 한다면 다 도망간 뒤에 나라는 누가 지켜 줄 것이며, 저마다 외세에 영합하여 자기 혼자만 편안하게 살자고 한다면 나라는 어찌되고 자주독립은 어찌될 것인가. 이렇게 불적에 동학이 탄생할 당시의 우리나라는 형식상으로는 나라와 민족이 살아 있는 것 같았으나 그 정신과 자세에 있어서는 이미 망하여 버티거나 다름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학의 창도

수운 최제우 선생은 이렇게 다 죽어버린 이 민족 속에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극한 정성으로 염원하고 탐구하던 끝에 드디어 1860년 4월 5일에 한울님의 계시를 받아 그 길을 깨닫게 되었으니 수운 최제우 선생은 그것을 동학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면 수운 최제우 선생은 어떻게 하여야 망하여 가는 이 민족에게 새 생명

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는가. 내가 아는대로 차례로 적어 보겠다.

7. 천도(天道) 수운 최제우 선생은 이 민족을 구하려면 어떤 부분적인 개조나 처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 즉 천도를 깨닫고 천도를 실천하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주만물을 살리는 천도가 인간사회에 실현될 때 모두가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여 천도를 가르쳤다.

이 천도라는 말을 쉽게 풀이한다면 「天」이란 크다는 뜻과 전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니만큼 전체가 다 잘 사는 길이라는 뜻이니 우주전체의 만물은 세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으나 그 가운데 살아나오는 기운이 있어 우주전체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며 전체의 생명을 키워나가듯이 우리 인간사회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며 전체가 번영할 때 그 안의 모든 만물이 다 같이 잘 살게 된다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수운 최제우 선생은 그러한 인간질서를 성교신이라는 세 글자의 도덕으로 집약해서 설명하였다. 즉 우리 모두가 자기 사명과 목적을 정성껏 다하여 전체의 일부분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만큼 서로간의 관계를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는 공경의 정신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사람과 한울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 등의 서로간의 단계를 신의와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일체의 정신으로 안정시켜 나아가는 것이 전체가 다 잘 사는 천도를 인간사회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ㄴ. 인내천(人乃天) 수운 최제우선생을 이렇게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우주전체생명의 주인인 「한울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 한울님이 어디 먼 곳이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모시고 있다 하는 시천주(侍天主)의 신앙을 가르쳤다.

우주는 살아있고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 그 우주의 생명과 창조력을 한울님이라 생각한다면 그 생명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들을 한울님을 자신 속에 모시고 있으며 한울님의 생명과 창조력은 우리 자신 속에 있어 우리 자신을 통하여 창조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사람이 곧 한울(人乃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주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귀중한 자기자신을 「자각」하게 되어 죽지 않는 「무궁한 나」를 찾아 자신을 구하고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각할 때 「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이어야 한다.」「사람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유이어야 한다」하는 인권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동학이 창조된 뒤 30여년 후인 1894년에 동학이 갑오동학혁명을 일으켜 신분적 계급을 바탕으로 한 봉건제도를 무너뜨린 것이 이러한 인내천에 의한 만민평등의 인권의 자각에서 생겨진 것이고 1919년에 3·1독립운동에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가 민족자유주의 독립운동을 주로 한 것도 이러한 인내천에 의한 인권자유주의 자각에서 생겨진 것이라 하겠다.

ㄷ. 수심정기(守心正氣)수운 최제우선생은 수심정기를 강조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수심은 우주창조의 한울님 마음을 지키라는 뜻이고, 정기라는 말은 우주창조의 한울님 기운을 말하는 것이니 우주는 기운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인만큼 사람은 그 바른 기운을 발휘하여 세상을 창조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운 최제우선생은 도를 이치로 논하고 궁리로서 찾으려는 나약한 선비들과는 달리 도를 정기로서 실천하라는 뜻에서 기운을 숭상하였다.

그리하여 수운 최제우선생은 서민대중

의 기운을 돋우기 위하여 강령의 법을 만들고 창가를 지어 스스로 부르고 칼춤을 추고 제자에게도 권장하였다. 수운 최제우선생이 동학을 창조한지 불과 4년 밖에 안 되는 1864년 3월 10일에 반역죄로 당시의 관헌에 의해서 참형당하여 순도하게 되었는데 그 때 반역죄로 추궁 당한 가장 큰 이유가 칼춤을 추고 서민대중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는 이유이었다. 이것만 보아도 그 가르침이 수심정기라는 기운을 발휘하는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학이 이 세상에 탄생한지 불과 100여년 밖에 안 되는 동안 우리나라 근대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갑오, 갑진, 기미운동 등의 큰 일을 하여 나온 근본적인 힘이 그 교리 자체 속에 기운을 돋운 요소가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오늘날의 동학

수운 최제우선생은 이렇게 이민족을 구하기 위하는 길은 우리 민족을 신인간으로 창조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동학이라고 이름하였다. 이제 동학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동학이라는 동자는 바로 우리나라를 가르친 것이 틀림이 없으니 수운 최제우선생은 이렇게 전 인류를 구하는 근본적

인 가르침이 바로 우리나라 사상이라고 주장하신 것이다.

동방의 작은 나라 약한 나라 항상 이웃의 침략에 시달리며 자주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면 우리 민족 자신의 정신을 찾아 그것을 구심점으로 하여 하나로 뭉치고 그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오늘날의 우리 처지를 생각하여 보자. 우리는 과연 자주 자립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구원받고 있는가.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에 의하지 않던 국토분단으로 같은 동족이 같은 동족을 원수로 삼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이념과 사상과 체제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민족 스스로가 창조하지 않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이념, 사상, 체제를 무엇으로 극복하여 그보다 더 월등한 이념, 사상, 체제를 창조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서로 만날 것인가.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우리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외부에서 주어진 이념, 사상보다 훌륭한 우리 스스로의 이상과 포부를 찾고 키우고 다듬어 우리 스스로가 새 인간이 되어 수심정기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데서 방황하던 민족의 마음은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왜 우리는 태극기를 우리의 국기로 삼았는가. 태극기는 태극 혹은 기와 같은 우주성생의 근본원리를 도형으로 나타낸 것인데 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러한 철학적인 상징을 우리 국기로 삼았을까. 나는 그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 자신이 물질문명의 파탄으로 망하여 가려는 이 세계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사명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세계를 휩쓸고 있는 양대조류인 자유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이념을 생각할 때 인간은 자유로와야 한다는 자유사상이나 생산과 소유를 균등 분배하여야 한다는 공산주의나 다같이 그만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근본적으로 인류를 구할 사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일찌기 독일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독일의 분단은 구라파의 분단일요, 독일의 통일은 구라파의 통일이다. 그러므로 독일은 통일되어야 한다」 과연 옳은 말이다.

이 말을 우리 경우에 적용시켜 보면 「한국의 분단은 세계의 분단일요, 한국의 통일은 세계의 통일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통일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일가 속의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세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함으로써 세계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통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통일이 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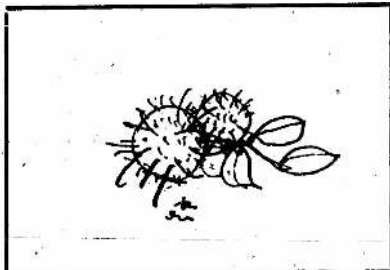
우리는 동양평화의 지휘탑을 이 땅에 세우고 어두운 세계를 밝힐 등대를 세워야 하고 세계의 정신적수도를 이 땅에 만들어야 한다.

나는 항상 동학은 동학도인 혹은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인만의 동학이 아니다. 민족주체성을 가지고 한국적인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려는 모든 한국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남북성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는 이제 동학의 시대로 접어들어 왔다고 본다.

우리는 이 시련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것을 찾고 우리 것에서 힘을 얻고 거기서 새로운 길서를 찾아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누구나 동학을 생각하여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 은 상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상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널리 알려진 이를 말하라면 누구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첫 손가락에 꼽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 위에 가장 큰 은혜를 끼쳤고, 또 민족의 가는 방향을 몸소 가리켜 주신 이가 바로 그 어른이기 때문이다.

그의 본관은 덕수요, 아버지의 이름은 정(貞)이며, 어머니는 초계 변씨(卜氏)로, 인종 원년, 즉 1545년 음력 3월 초8일(그때 양력 4월 28일)에 4형제중

의 세째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고, 뒷날 집이 가난하여 살 길이 없어, 어머니의 고향인 아산 백암(지금 현충사가 있는 마을)으로 이사한 뒤로부터 거기가 저절로 고향이 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의협하고 용감하여 뜻 아이들과 전쟁놀이를 할적에도 대양 대장이 되었고, 또 비록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옳지 못한 일을 하는 때면, 러리에 찾던 화살을 뽑아 그를 쏘려고까지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두 형제가 함께 유교의 학문을 배워 문사나 학자가 될 수도 있는 천품을 보였으나, 22세가 되면서 생각한 바 있어, 책을 던지고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기운이 세어서, 보통 사람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그를 이겨내지 못했고, 지혜와 용맹이 남보다 뛰어나 활쏘기, 말달리기에 도 그를 따르는 이가 없

있으며, 학문과 서예에까지도 실력을 갖추었던 것이다.

그가 28세가 되던 해 가을에 훈련원에서 무사들의 과거시험이 있었다. 그는 그 과거에 참렬하여 말을 달리다가 불행히 말이 거꾸러지면서 사람도 같이 넘어져 왼편 다리뼈가 부러졌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는줄만 알았는데, 그는 한 발로 일어서서, 마당가에 있는 비들가지를 꺾어 그 껍질로 상한 곳을 동여매고 나오는 것을 보고 모두들 그 장쾌함을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32세가 되던 해 봄에 다시 과거를 보아, 우등 성적으로 급제를 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함경도 동구비보란 곳으로 권관이 되어 나가니 이것이 그의 첫 벼슬이었고, 권관이란 것은 일종의 하급장교인 셈이었다.

거기서 3년 동안 국경을 지키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훈련원 사무관이 되었을 때, 그의 상관인 서 익이란 이가 인사행정을 옳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보고 극력으로 반대했으며, 그러다가 36세가 되던 해 가을에 전라도 고흥 고을 발포란 곳으로 수군 만호가 되어 가니, 만호란 것은 그 포구를 수비하는 연대장인 셈이었다.

그때, 전라 좌도 전체를 관할하던 좌

수사 성박이란 이가 발포로 사람을 보내어, 발포 재사 뜰에 있는 큰 오동나무를 베어다자 거문고를 만들려는 것을 보고, 그는 단연히 거절하며, 『비록 상관이라 하더라도 어찌 나라의 물건을 사사로 쓸 수 있으며, 또 이같이 오래된 나무를 하루 아침에 찍어버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고 그 심부름 온 사람을 쫓아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뒤에는 때양 시기와 질투가 따르는 법이다. 그리고 예나 이제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을 때는 그에게 손해가 미쳐오는 것이다.

성수사관이 아니라, 서울 훈련원에서 일보면 때에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도 나서서 그를 모함하여 38세에 발포 만호에서 파면되기까지 했다.

다시 한 해가 지나, 39세가 되던 해 겨울에 함경도 경원군 전원보의 권관으로 복직되어, 오랑캐의 괴수 울지내를 사로잡아 큰 공을 세웠다.

그러자 11월 15일에 아산에 계신 부친이 세상을 여의었는데, 통신 교통이 불편하던 그 시절의 일이라, 그 이듬해인 40세가 되던 해 정월에야 부친의 부음을 듣고, 그날로 길을 떠나 천리 아산으로 분상했었다.

3년상을 마친 뒤, 42세가 되던 해 정월에 또다시 함경도 경흥군 조산보 만호

가 되어 가니, 그곳은 오랑캐들과 접근해 사는 국경지대라, 뛰어난 장수를 보내야만 우리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1년을 지난 뒤, 43세가 되던 해 가을에 같은 고을 녹둔도의 둔전관을 겸했는데, 이 녹둔도는 두만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에 있는 외로운 섬이요, 둔전이란 것은 군인들의 주판 아래 있는 농장인 것이다.

그날 따라 안개가 짙어 사방이 캄캄하고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모두 버를 거두어 언덕 위로 올라가고 지키는 군사가 얼마 되지 아니했으므로, 우리편 수비대장과 감독관들이 전사함 때까지 이르렀다.

이순신 장군은 분연히 나섰다.

피나는 격전을 거듭한 나머지 도둑배들을 물리치고, 그 뒤를 추격하여 우리 포로 60여명을 구원해 가지고 돌아왔다.

그랬건만, 상관인 이일이란 사람은 함경도 병사의 지위에 있어, 그의 공로를 시기하여 오히려 그를 잡아들이고, 일토당토 않게 패전했다는 죄목으로 옥에 가둔 뒤에, 자기에게 유리한 말로 조정에 보고했다.

조정에서는 이 순신이 패군한 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병사의 체면 때문에,

부득이 그에게 「백의 종군」의 명령을 내렸으니, 이 백의종군이란 것은 직함을 빼앗고 평복으로 군대에 복무하라는 일종의 형벌인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 45세가 되던 해 겨울에야 비로소 벼슬다운 벼슬을 얻어 전라도 정읍 고을 현감이 되어 부임했다. 거기 가서 고을을 다스려 나가는데도 모든 일을 공정하고 민활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즐거이 따랐다.

그러는 동안, 시국은 차차 어지러워갔다. 더우기 일본과의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았다. 앞으로 닥쳐올 국란을 생각할 때,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유성룡 정승은 일찍부터 서울같은 동네에서 살며 그의 인격과 무용과 재예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임금께 그를 높이 등용하자는 것을 힘써 아뢰었다.

그래서 마침내 전라 좌수사가 되어 여수로 부임하니 47세가 되던 해 2월인데 그 해가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년이었다.

그는 장차 왜적이 쳐들어 올 것을 알았다. 조정에서는 위태하다거니, 그렇지 않다거니 하며 시비가 많건 말건, 그는 자기의 권한 범위 안에서나마 자기, 신념에 의하여 전쟁준비를 해나갔던 것이다.

좌수영 관할 아래 있는 모든 부대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장비를 낱낱이 정비하며, 그 위에 가장 특기할만한 것이 바로 거북선의 창제였던 것이니, 이야말로 세계 철갑선의 원조요, 또 이것으로써 임진왜란의 큰 공로를 세웠던 것임은 물론이다.

마침내 임진왜란은 터졌다. 그가 전라좌수사가 되어 여수로 내려가 전쟁준비를 하기 1년 뒤인 48세가 되던 해, 선조대왕 25년, 1592년 임진년 4월 13일에 왜적들이 부산에 상륙했다.

14일에 부산진성이 무너지고, 15일에 동래성이 무너지고, 차례차례로 모두 무너지더니, 5월 초3일에는 마침내 서울이 함락되었다.

그는 전라도 해군으로서 관할은 비록 달랐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앞에서야 어찌 홀로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분연히 일어서서 영남 해역을 향하여 출동하니 5월 4일이었다.

왜적선들이 거제도 옥포에 정박해 있으면서 분탕질을 치므로, 우리 해군은 그리로 들어가 그들을 여지없이 무찔러 이기니 이것이 5월 7일 제1차 옥포 해전 대승첩이었다.

그 다음 5월 29일에 다시 진군하여 경상도 사천에서 크게 이기고, 계속하여

6월 2일에 당포에서 승첩한 것을 비롯하여 몇날 동안 경상도 바다 위에 있는 적들을 모조리 격파했는데, 이것을 일컫 제2차 당포 해전 대승첩이라 일컫는 것이다.

그 다음 7월 초8일, 한산섬 앞바다에서 이른바 「학날개 전법」을 써서 서해로 올라가려는 왜적들을 완전히 무찔러 남해 바다의 고가밭이 되게 한 것으로서, 임진왜란의 위급한 형세를 바로 잡았던 것이니, 이것이 제3차 한산 해전 대승첩이었다.

그런데 부산은 이미 왜적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 또 그들의 연락처로서 적군의 기지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것을 쳐 없애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는 마침내 부산 앞 바다에서 큰 전투를 벌이고,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니 이것이 바로 9월 초1일 제4차 부산 해전 대승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의 부하 장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인받고 뛰어났던 정운장군이 물운대 앞 바다에서 전사한 것은 비통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 즉 49세가 되던 해 7월에 그는 진을 한산도로 옮겼다. 여수에 전라 좌수사의 본영은 그대로 두고, 전쟁을 위한 전투본부는 영남의 한산도로 옮겼는데, 서해의 길

목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충청, 경상, 전라 3도의 해군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자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3도 수군통제사라는 새 직제를 마련하고서 이순신 장군으로서 제1대 책임자로 임명하니 그 해 8월 15일이었다.

그로부터 그는 전라 좌수사라는 본직을 그대로 띠고, 그 위에 3도 수군통제사의 중책을 겸한 몸으로 한산도에서 해군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다.

첫째는 둔전을 설치하여 높고 약한 군인들로 하여금 경작케 하고, 둘째는 소금도 굽고, 고기도 잡고 질그릇도 구워서 그것을 팔아 옷감을 바꾸어 군복을 지어 압했으며, 셋째는 여러 만선의 곡식을 저축하여 군량으로도 쓰고, 왕실에도 올려보냈고, 넷째는 광석을 캐어다가 불에 녹여 무기를 만들었으며, 다섯째는 나무를 찍어다가 군함을 만들어 내는 등 아무 것도 없는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갔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하는 유명한 시조도 이때에 지었던 것이요, 나라를 걱정하는 여러 편의 한시도 남겼음을 본다. 52세까지의 한산섬

생활은 거의 휴전시기라고도 볼 수 있거니와, 그는 오직 일편단심, 긴장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의 기록 중에 「7년 동안 벼를 풀지 않았다」는 것이 있다. 그의 나라 위한 지성스러움을 증거 해주는 좋은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산에 계신 어머님을 여수로 모셔다가 피난을 시켰다. 그러나, 그가 여수 좌수영에 있는 동안에는 어머님을 간간이라도 뵈을 수가 있었지만, 한산섬으로 진을 옮긴 뒤로는 편지로써 문안을 살피는 것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의 난중일기를 살펴보면 사흘이 멀다 하고 어머님 생각, 어머님 문안이며서 읽은 이로 하여금 감탄과 함께 눈물을 짓게 한다.

50세가 되던 해 정월 11일에 어머님께 문안간 일이 있었을 때도 겨우 하루 밤을 지내고 돌아올 적에 어머님은 오히려, 『어서 가서 나라의 옥됨을 갚아라』 하셨으니, 과연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2년이 지나 52세가 되던 해 윤8월 12일에 문안갔던 뒤를 이어, 10월 3일에 어머님을 여수 본연으로 모시고 와서, 초7일에 어머님의 81세 수연잔치를 베풀어 드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초10일

의 난중일기에 「10월 10일. 맑음. 정오에 어머니를 하직하고, 오후 2시께 배를 탔다. 바람 따라 돛을 달고 밤새도록 노를 재촉해왔다」고 적은 것이 있거니와, 이것이 어머니와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만나보는 것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바로 그해가 지나, 53세가 되던 해 2월 26일에 이 순신장군은 한산섬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향했다. 경상 우수사 원균이 이 순신을 시기하여 음해를 일삼더니, 이때 왜적들의 방략에 호응하고 또 조정에서도 「순신이 적을 잡지 않았다」 하여 필경은 그를 묶어오는 한편, 원균으로서 통제사를 대신케 했던 것이다.

그가 체포되어 서울로 올라갈 적에 지나가는 고을마다 담녀노소가 길을 막고 통곡하며, 『통제사 한 분 없어진다면 나라도 그만이요, 우리 목숨도 다 죽었소』 하는 것이었다.

길을 떠난지 8일만인 3월 4일에 투옥되었다. 조정에서는 아무리 죄명을 지으려도 지어 붙일 것이 없어, 막연하게 「적을 놓친 죄」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렸다. 그 중에서도 정탁이란 이의 상소문이 주효되어, 옥에 갇힌지 26일만인 4월 1일에 「백의 종군」(평복을 입고 직함은 없이 군에 복무하

는 것을 이름)의 판결을 받고 옥에서 풀려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 석방이 아니었다. 일종의 가솔육인 셈이었다. 경상도 합천 초계에 있는 권을 도원수의 진영에 배치되어졌다.

이때, 여수에 계신 어머니는 아들이 체포되어 간 소식을 듣고 천리 밖에 그 대로 앉아 있을 수 없어 배를 타고 서해를 거쳐 아산 고향으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아들은 옥에서 풀려나오는 데 어머니는 배 안에서 돌아가시다니!

그는 서해로 달려나가 배에 올라 어머니를 껴안고 목을 놓고 통곡했다.

그는 어머니의 영구를 아산 옛집에 모셔다 놓기는 했으나, 장례를 치를 여유도 없이, 도사에게 이끌려 경상도 초계 권원수의 진으로 내려갔다.

그러는 동안 원균이 통제사가 되어 해군의 질서가 완전히 해이해지자, 일본은 다시 제척을 세워, 새로 또 침략해 들어오니, 그것을 일러 「정유재란」(정유년 1957년에 두번째 일어난 전쟁이라는 뜻)이라 일컫는다.

7월 16일에 통제사 원균은 패전하여 도망가다 왜적의 칼에 찔려서 죽고, 부하 장수들도 모두 다 순국했으며, 또

이순신 장군이 많이 만들었던 거북선과 전함들도 모조리 깨어지고 말았다.

이순신 장군은 권원수의 진중에서 이 보고를 듣고 통곡했다.

그러나 통곡한 것만이 아니었다. 도원수와 의는 끝에 송 대립 등 9인의 동지들과 함께 현지조사를 떠났었다.

조정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새삼스레 지난 일을 뒤우치고서, 그에게 통제사의 직함을 다시 내렸다. 그는 연해안을 두루 돌며 참패한 전적을 살피 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배란 배는 다 깨어져 겨우 12척을 거두었으며 군인이라든 군인은 다 달아나고 겨우 120명을 얻었다.

조정에서는 약한 병력을 걱정했다. 그러나 그는 『진에게 싸울 수 있는 배가 상기도 12척이 있습니다. 신이 죽지 않았으며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무서운 신념으로 새 전쟁에 임했던 것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결심 앞에는 조금도 무서운 것이 없었다. 그 해 9월 16일, 전라도 우수영과 진도 사이의 울릉목(명량 해협)에서 동서고금의 역사상 유례없는 큰 해전이 있었던 것이니, 우리 배 12척으로써 산갈이 덮쳐 오는 3백 30여척의 적선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린, 이른바 명량해전 대승첩이 바

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명량해전이 끝난 뒤, 그는 진을 북포 고하도로 옮겨, 거기서 그해 겨울을 지나니 54세였다.

그해 8월 17일, 우리 조정에서나 군중에서는 알지 못하는 큰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것이다. 그로부터 일본의 침략군들은 하루 바삐 지회 본국으로 철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함부로 놓아 보내 줄 수는 없었다.

마지막 달아나는 왜적선 5백척을 추격하여 남해 노랑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다. 그는 갑판 위로 올라가 하늘에 빌었다.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 그는 복채를 쥐고 득전했다. 수백척의 적선을 침몰시켰다. 승첩은 정해 놓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어찌하랴. 적의 탄환에 왼편 겨드랑이를 맞아 쓰러졌다.

『방패로 내 앞을 가려라. 적이 나를 볼까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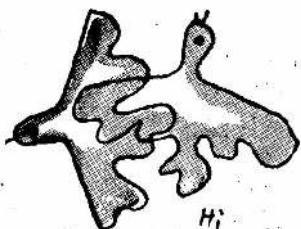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발설하지 말라.』

선조 31년 1598년 음력 11월 19일 그해 음력 12월 16일) 이른 아침, 슬프다! 우리의 영웅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나, 아침 해는 돌아 올랐다. 나라와 역사는 다시 살았다.

충무공 이순신의 보국정신

김 광 영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웃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무수한 침략을 받아 온 수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피문은 항쟁으로서 그 고난을 이겨낸 극복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극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위대한 힘이 움직여 왔음을 본다. 이 힘이 바로 민족을 죽음 속에서도 건져 낼 수 있고, 또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나가는 이른바 민족의 정기요, 우리 국사상 이 정기의 가장 대표적인 활양자야말로 다른 이 아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그는 54년 동안의 일생을 통

하여 오직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은 것이다. 옳지 못한 일 앞에는 털끝만큼도 굴하지 아니 했고, 옳다고 믿는 일 앞에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관철했었다.

그는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민족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살았다. 세상에는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서 민족을 파는 사람이 있지만 그는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특히 우리 국사상에서 임진왜란이란 것은 7년 동안이나 강토와 민족은 불구덩이 속에 집어 넣었던 처참한 전쟁이었다.

그 때 만일 충무공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역사는 그것으로서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를만큼 위급하기 형언할 길이 없었다. 그랬으나 그로 말미암아 생존의 생명을 건졌고, 역사의 명맥을 이은 것이다.

우리로서는 다만 충무공을 예찬하는 것만으로서 족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그를 예찬해야 하는지 그 까닭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순신은 1545년 3월 8일에 서울 건천동에서 덕수 이씨의 12대 손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이 정(李貞)으로서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던 평범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초계 변씨였다.

그는 4형제 중 세째아들로 태어났다. 건천동은 지금의 남산 밑 필동에 인접한 인현동 1가.중에서도 중앙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금의 변화한 서울 거리와는 달리 그가 태어난 전후만 하더라도 인근에는 집들이 띄엄 띄엄 세워져 있었으며, 그의 집은 당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 평범한 집이었다.

세계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하듯이 이 순신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오직 수양과 노력을 거듭하여 역사상 가장 으뜸가는 인물이 된 것이다.

단지 그의 가정은 그 당시의 대부분의 백성들과 같이 검소하게 살았으며, 대대로 내려온 유학의 집안으로 “충직정명(忠直正明)을 숭상하는 가풍을 자녀 대대로 매우 청빈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한다.

보잘 것 없는 가난한 선비집에 태어난 이 순신은 어려서부터 매우 활동적이었고, 그의 성격은 씩씩하고 영특하고 깨끗하고 담대하였으며, 또 그 반면에 말과 웃음이 적고 침착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편이었다.

그는 모든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방 안에서 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밖에서 뛰어 놀기를 좋아하였다. 밖에서 여러 동무들과 뛰어 놀게 되면 흔히 나무를 깎아 활과 칼을 만들어 전쟁놀이를 즐겼다.

이 순신은 전쟁놀이를 하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활과 칼같은 것이었으며, 항상 화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동네의 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리에 부당한 일이 있으면 어린 나이로서 용감하게 이를 시정하고야 말았다.

뿐만 아니라 혼란한 사회에서 자라나는 이 순신은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두터우며 웃 사람에게 공손히 대하였다. 인간적으로는 그는 남에게 의리가 있어 이웃간에 그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가 8세 때 그의 부모는 서울을 떠나 300여리 떨어진 충남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로 이사를 하였다 한다. 어린 이순신은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하는 간에 그 동네의 어린이들과 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전쟁놀이를 매우 즐겨하였다.

이러는 동안 차차 성장한 이순신의 가슴 속에는 '문인보다 무인이 되어 나라에 충성을 바치자'는 생각이 움트고 있었으며, 그의 일상생활을 주의깊게 관찰해 온 부모는 선비 집안의 기품을 계승하고, 나아가서는 문인으로서의 출세를 바라는 뜻에서 그에게 이러한 말로서 훈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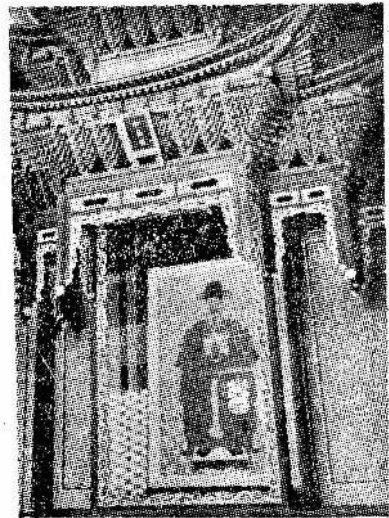
『전쟁놀이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부모의 말을 듣게 된 이순신은 두 형을 따라 글방(서당)에 다녔다.

그는 글방에서 수학하는 동안, 비범한 면모와 뛰어난 재능으로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선비다운 면모를 하고 있으면서도 무인의 용기와 용감한 행동으로 주위 사람을 가슴 설레게 하였다.

그가 가진 재능은 문인으로서 능히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였다.

그는 글방에 다니면서 통감, 대학 등 어려운 책들을 읽느라고 골몰하였으며, 책을 읽을 때에는 자기의 해석에만 읽



<아산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의 영전>

백이지 않고 대의에 통달하도록 유의하였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신을 모아서 그가 가진 재능과 용기를 다했으며, 잡다한 생각으로 매사를 대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책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주위의 인기가 대단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능을 남에게 자랑하거나, 남을 경시하지도 아니 하였다.

이순신은 20세가 지날 무렵에 부모님의 알선으로 결혼하였으며,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글 공부와 활 쏘기도 잊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노력해 온

그의 수양은 그에게 남다른 커다란 목적과 희망을 갖게 했으며, 결혼생활이라는 단계에서 이를 중단할 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매사에 갖추어진 정력으로 서 수련해 온 그는 날이 갈수록 무사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만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의 나이 22세 때이었다. 이 해에 그의 유학은 벌써 한 사람의 선비로서 부족함이 없었으며, 그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이 순신의 장래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 그는 이때부터 무사훈련, 즉 말을 타고 활을 쏘는 훈련에 전념하려고 하였다.

그가 말 달리기 연습을 한 곳은 지금도 치마장이라는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집 앞의 평평한 들판이 아니라, 바로 집 뒤의 방화산 꼭대기에 자리잡은 곳으로 오르막 내리막을 달리면서 연습을 해야만 했다. 방화산 꼭대기의 조금 평평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위의 산등성이를 마구 달리면서 맹렬한 연습을 하는 것이었고, 그는 이러한 모험적인 행동을 즐겼던 것이다.

이 순신이 나이 22세에 이르매 스스로 문(文)과 무(武)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온 것이 「무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었기 때문에

문인으로서의 출세를 단념하고, 무예를 택하기로 결심했다. 실로 그는 문인을 숭상하는 당시의 사회풍조를 벗어나서 조국의 앞날을 바라본 것이었다. 그의 부모와 주위의 어른들은 이 순신의 재능을 아쉬워하면서 시대풍조를 배역하는 무인으로서의 출발을 반대하곤 했으나 이미 마음 속으로 결심한 그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남달리 효성이 지극한 그는 자기의 뜻을 반대하는 어른들의 마음을 돌려야만 했으며, 또 어른들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무사로서 좋은 일꾼이 되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를 다 한다』라는 말로써 어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곤 했다.

나이 27세에 이 순신은 부인과 두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무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야만 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군사학교의 제도가 없었으므로 스스로 활쏘기, 말타기 등의 훈련을 하며, 또 여러 곳의 명인을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배워야만 했다.

실로 그에게는 가족을 부양할 작오보 다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굳건한

신념만이 더욱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비록 두 아들을 거느린 아버지였었고, 또 부명의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훌륭한 무인이 되고 나아가서 조국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자각과 결단으로 훈련과 수양을 쌓아 스스로 자신을 이끌어 올리려고 하였으며, 모든 고충을 물리치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스스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 순신의 나이 28세 때의 8월, 서울 훈련원에서는 무사 선발 시험이 열렸다. 이 시험은 별과시험(別科試驗)이라는 것으로 합격하면 정식 군인, 즉 오늘날의 초급장교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5~6년 동안 스스로 수련한 무예를 시험하기 위하여, 또 합격을 하고야 만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응시하였다.

침착한 태도로 시험관 앞에 나아간 그는 지금까지 스스로 닦아온 무예를 시험하던 중 마술, 즉 말을 타고 달리면서 여러가지 기교를 보이는 과목에 이르렀다.

그는 조금도 어색함이 없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기교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말을 타고 달리던

중 말이 거꾸러짐과 동시에 그도 떨어지고 말았다. 시험 중 말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는 무사하지를 앓았다. 낙마함과 동시에 왼쪽 다리뼈가 부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시험에 실패하고 만 이 순신은 티끌안کم도 실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후 출골 수양과 훈련을 거듭하였다.

그 후 4년이 지난 다음 32세 때의 2월 식년무과(式年武科)에 응시하여 병과(丙科)에 합격했다. 이 시험은 전번의 별과시험과는 달리 나라에서 4년마다 한



〈부여군청 앞 로터리에 있는 장군의 동상, 군수리 싸움터로 떠나면서 왕성을 바라보다.〉

번씩 보이는 정식 과거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에서 그는 무예와 무경강독(武經講讀)에 능통하여 시험관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스스로의 실력으로 당당히 합격한 그는 자신이 가져야 할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본성이 충용 강직한 탕도 있었지만, 비굴하게 남의 힘을 빌려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 합격한 그날부터 임용 발령을 기다렸으며 또 자신의 보직을 위해서나 출세를 위해서 권세가에 출입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대장부라는 것은 세상에 나서 나라에서 써 쓸 것 같으면 죽음으로 충성을 다 할 것이요, 써 주지 않으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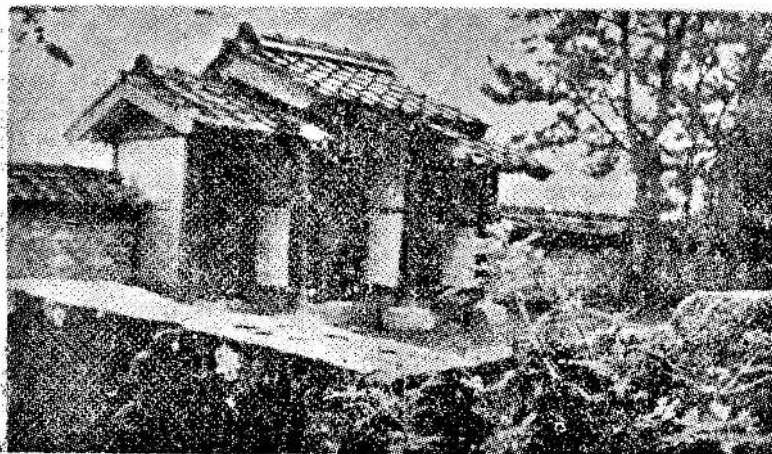
골에 가서 발을 갈고 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이 순신의 말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려는 생활태도, 그리고 어떠한 직책과 직위에도 만족한다는 그의 깨끗하고 숭고한 정신을 대변한 것이었다.

실로 그는 공명정대(公明正大)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었던 것이며,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과시하지 않으려고 했다.

무과시험에 합격한 후 발령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순신은 그 해 12월에 동구비보(童仇非堡)의 권관(權管)으로 임명되었다(권관: 이조 때 변경의 작은 진보에 두었던 중 9품의 수장).

그는 이때부터 32세의 나이로 처음



<현충사와 함께 세워진 충곡서원, 장군의 묘에서 500m 가량 떨어져 있다.>

의 벼슬살이를 시작하는 것이었고, 또 고난의 가시밭 길을 밟아야만 했다. 동구비보는 함경도의 두멧골로 두만강 상류의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종종 여진족이 침입하는 곳이었다. 실로 그 당시는 귀향살이를 가는 사람들도 관리들과 결탁하여 이 지방만을 가지 않는다는 아주 험악한 시골이기도 했다. 특히 권관이라는 지위는 지금의 신임 소위와 같이 최하위에 해당되는 계급이었으며, 국경지대를 수비하는 일종의 과전대장과 같은 직책으로 그 지방의 백성들을 같이 다스리는 것이었다.

실전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 순신은 아무런 말없이 이곳으로 부임했으며, 어느 지구의 권관들보다도 철저한 경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마 이 순신도 고향을 떠날 때에는 힘차게 일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지만, 그도 인간이었기에 산간벽촌의 입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일단 동구비보에 도착한 이후로는 모든 일을 계획성있게 실천했으며, 조금도 자신의 직책과 근무처에 대한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공인(公人)으로서 집무하는 동안 자신이 맡은 직책에 성실, 충실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는 가정이나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생각한다

는 것은 사심(私心)에 기울어진다는 것임을 명심하고, 언제나 공(公)을 앞세워 일했다. 군사들에 대한 훈련, 여진족이 침범하였을 때를 가상한 방비책, 여러 곳에 산재한 백성들의 생활을 위한 대책 등 모든 면을 빈틈없이 검토하여 실행하였으며, 조그마한 일이라도 소홀히 취급하지를 않았다.

한편 이 순신이 동구비보에서 근무한 지 2개월 후인 33세 때의 2월, 그의 부인은 세째아들을 순산하였으며, 이 순신은 이제 세 아들을 거느린 아버지로써, 남편·가장으로서 권관이란 말단직을 아무런 불평없이 성실하게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동구비보의 권관 생활을 3년 동안 근무한 이 순신은 35세 때의 2월, 서울에 있는 훈련원으로 전직되었다.

당시 훈련원은 지금의 각 군 본부와 같이 군사들의 인사, 고시, 훈련 및 교육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곳이었으나 군기는 극히 문란했었다.

특히 군율의 문란과 상관의 청탁에 따른 그릇된 인사이동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고, 이를 바로 잡을 판리마저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훈련원 내에 이 순신이 보좌를 받은 곳은 봉사(奉事)라는 직책이

있으며, 품계는 종 8품(從 八品)으로서 훈련원 내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있었다. 그는 근무지의 변경과 동시에 영전을 한 것과 같았다. 왜냐하면 종 9품에서 종 8품으로 승진했고, 또 함경도 두 멧골에서 서울로 전임했기 때문이다. 아마 이 순신 자신도 그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반가워했을지도 모른다.

이 순신이 맡은 주 업무는 군사들의 인사관계로서 종종 위로부터 인사에 관한 압력도 있고, 동료들로부터의 청탁이 들어오곤 하였으나, 원래부터 정직하고 근면 성실한 그는 공규(公規)를 준수하려 했고, 어떠한 사람의 청탁도 받지 않았다.

그가 봉사로 있을 때, 상관인 병부랑(兵部郎)으로부터 거의 명령과 같은 청탁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 내용은 자기의 친지 한 사람을 순서를 뛰어 참군(參軍)으로 승진시키려고 인사관계 서류를 꾸며달라는 청탁이었다.

담당관 이 순신은 잠깐 동안 생각했다. 그는 이 청탁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움을 감지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보다 그것이 부당함을 병부랑에게 말해야만 했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순서를 바꾸어 올리면 반드시 그 자리에 승진할 사

람이 승진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일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또 법규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병부랑은 즉석에서 상관이란 지위로서 위압으로 우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순신은 끝내 고집하고 듣지 않았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또 자신의 신상에 불리한 일이 있을 것이 없지만, 인사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 없었다.

이후 공명과 정의로써 불의에 대항한 이 순신의 언동은 전 훈련원 내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문란한 훈련원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모든 관원들은 모두들 통쾌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하였다.

실로 봉사라는 일개 담당관이 과장급의 병부랑에 반항이나 대항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공명과 정의 앞에 나타나는 불의의 위압은 부당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권세와 돈만을 따라다니는 훈련원 내의 간부들은 이 순신을 부하로 두거나, 아니면 훈련원 내에 그대로 두면 그들 자신의 부정이 탄로될 것이고, 앞으로 부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순신에 대한 새로운 인사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다.

이 순신은 훈련원에 부임한지 겨우 8개월만인 그해 10월에 충청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군관(軍官)으로 전직되었다. 비록 뜻밖의 전직을 당하는 것이었지만, 어떠한 사람을 자기의 상관으로 모시든 간에 공정한 태도만은 변함이 없었다.

공규(公規)를 지키기에만 충실한 이 순신은 이듬해 7월, 즉 그의 나이 36세가 되던 해에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 관내의 발포 수군 만호(鉢浦水軍萬戶)로 전직되었다. 만호의 품계는 종 4품으로 승진된 것이다.

이 발포는 지금의 전남 고흥군 도화면 내발리에 위치한 조그마한 포구로, 이곳에서 그는 수군의 전장(鎭將)으로 처음 출발하여 남해안 지방의 방위 임무를 맡게 된 것이었다.

이 당시 조정의 무능과 부정 부패는 수군과 육군을 막로한 일선 지휘관에게도 미치지 않았다. 이들 지휘관은 사리사욕에 급급하였으며, 외면상의 위용만을 과시하고 내면적인 군사들의 임전태세나 사기, 군기, 정비면의 내용에는 무지할 뿐 거의 무방비상태나 다름 없이 하여 두었다.

훌륭한 인물은 혼란한 세상에서 나고, 또 혼란한 세상에서 온갖 고생과 쓰라

림을 겪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충무공 이 순신은 한 보잘 것 없는 선비집에 태어나서 갖은 고난과 싸워가며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옳게 생을 마친 인류의 사표로서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민들의 가슴 속에 길이 간직되는 위업과 교훈을 남긴 사람이었다.


숙종임금은

『……제 몸을 죽여 나라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에게서 처음 보는 일이다. (身七國活 始見斯人)』고 하였다.

충무공 이 순신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 화와 비, 사랑과 배신,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순 속의 혼란한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공명정대를 생활 신조로 삼아 온갖 모략과 술됨, 고난을 물리치고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조금도 흠잡을 곳이 없는 위대하고 성공적인 생애를 보낸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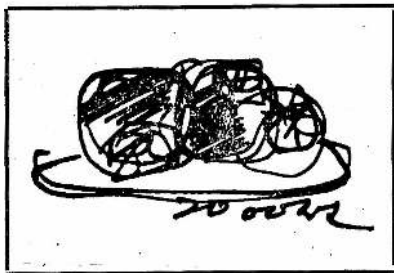
그는 맹목적으로 순종 복종하는 후손들에게 인간의 창의성과 국가의 자주성과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교시하였다.

실로 그가 남긴 발자국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또 미래에도 지워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갔으나 그의 정신만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다.



3.1정신의 의의

이 태 식



아! 우리 동포들아 눈을 들어 세계의 대세를 보라.

평화의 신(神), 자유의 신은 이제야 길고 큰 손을 들어 여러 나라의 비인도적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무도한 강국의 압력 밑에 신음하는 각 민족의 멍에를 벗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평화의 낙원을 축조하여 자유의 무대를 건설하는도다.

아! 우리 동포들아 뭉친 힘으로 속박의 끈을 끊어버리고 큰 결심과 성의로써 독립의 깃발 아래로 나아갑시다.

아! 우리 동포들아 기회는 두번 오

지 아니 하니 이 때를 맞아 맹렬히 일어 서서 멸망의 장소로부터 자유의 낙원으로 약진하라.

아! 우리 동포들아 자유의 죽음이 속박의 삶보다 항상 나으니라.

아! 우리 동포들아 용감히 일어서라 그리고 깨우쳐라.

이상은 3.1만세 직후 서울거리에 나붙은 격문들이다. 우리는 이 격문들을 통해서 멸망의 장소로부터 자유의 낙원으로 향한 민족의 부르짖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잔인 무도한 일제의 탄압 아래서 얼마나 신음을 했었고 또한 그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고 평화를 회구했으며 그리고 얼마나 용감히 투쟁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좀 더 상세하게 3.1운동이 지닌 그 의의와 정신 그리고 민족사에 남긴 가치를 음미하고 3.1정신이 우리 세대와 자손만대에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를 알

아보기로 한다.

1. 민족의 결기

3.1 운동의 정의 고찰

3.1 독립운동은 그 규모로 보나 또한 조직면으로 볼 때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상 최초 최대의 민족적 항쟁이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과시했고 대내적으로는 민족독립에 대한 열망과 거족적인 민족의식을 불러일으켜 놓았다.

3.1 독립운동은 실로 민족적 생존에 대한 거족적인 절규였고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다. 여기에는 신분의 고하, 연령, 성별, 학식, 종파 그리고 직업의 차별도 없었으며 우리 동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용맹히 결기하여 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항일투쟁함으로써 민족의 독립과 생존을 주장하는 거대한 횃불을 조국의 산하에 맹렬히 지펴 올렸던 것이다.

이 거족적이고 역사적인 민족의 봉기는 폭력적인 투쟁의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시위로 세계 열강의 우호적인 원조에 의해 민족의 염원이었던 자주독립을 기대했던 것이다.

3.1 운동의 계기

이미 전술한 바와도 같이 3.1운동은 한국 현대의 민족적 독립운동사상의 가장 조직적인 항일 독립의식의 행동화였으며 거족적인 민족의 봉화로써, 합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하여 크게 잘못된 방향을 걷고 있던 한국사의 진로를 근본부터 시정하려는 민족적 봉기였다. 과연 이 거족적 민족봉기의 유발 동기는 무엇이며, 내적 추진력과 객관적인 외부 정세는 어떠하였는가. 국권을 무자비하게 박탈 당하고 우리의 강토마저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 아래 짓밟힌 후 10년째 접어들던 1918년, 구라파의 천지롤 포성으로 진동시켰던 제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항복으로 종말이 되고, 다음 해인 1919년 1월에는 파리에서 국제 평화회의가 개최되게 되었고 당시의 미국의 윌슨(T. W. Wilson)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전국이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종전이 머지 않음이 전망되자 강화회의의 기초조건으로 14개 조안을 미국회에 연두교서로 발표하였는데, 이 가운데 민족자결을 주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세계의 약소민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즉, 이것이 바로 오늘에 잘 알려진 바 민족자결주의라 하는 것이다. 어떤 민

족이든지 그 민족의 의사에 의하여 독립국이 되기를 원하는 민족은 독립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독일 등 패전국의 식민지로서 자유를 갈망하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10여국이 독립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세계만방에 널리 알려지자, 같은 비운에 처해 있던 우리 민족에게 비상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때를 놓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민족운동의 기운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기운은 우선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의 환경 속에 있던 미주를 비롯한 해외교포들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며, 당시의 세계정세의 움직임에 보다 민감했던 재일본 조선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행동에 옮겨진 2·8독립선언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3·1독립운동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민족의 쫓기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하여 각 도시에서 선포된 독립선언에 이은 민족의 쫓기는 전국 방방곡곡에 치열한 불길로 번졌다. 즉, 3월 1일에 점화된 독립만세의 불길은 날이 감에 따라서 요원의 불길과도 같이 전국 각지로 파급되어 민족 역사상의 최대의 거족적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와같은 국내

의 대대적인 전 민족의 독립투쟁의 시위는 노도와도 같이 파급되어 마침내 그 여파는 국의까지 퍼져나가게 되었고, 서간도지방의 일대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해외 교포들의 독립을 선언하는 함성이 울렸다. 한편 서간도 지방에 못지 않게 북간도에서도 독립을 절규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각지와 미주 여러 곳의 교포들도 국내의 독립선언 운동에 호응하여 독립 선언식과 축하회까지 열어 독립을 희원하는 민족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표명하였다. 특히 미국에서의 독립선언은 세계의 큰 이목을 끌게 하였고 당시의 미국교포들이 이룩하였던 한인 자유대회의 발기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이 승만이 단상에서 발표한 독립선언 연설의 한 귀절은 아래와 같다.

「우리 한국의 2천만명 연합국 국민해의 대표자들은 이로써 한국의 독립과 한국백성의 자유를 선언하노니, 이 선언이 여러 나라의 동등권의 증명을 당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후예에게 빼앗지 못할 인권으로 전하노라………」

이상과 같은 한국 교포의 독립선언은 미주의 여러 언론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선진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염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한국 민족의 조직력과 문화수준을 행동으로

표시함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하고 일본인의 거짓 악선전에 대항하여 올바른 인식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 미주에서의 교포들에 의한 한인 자유대회의 소식은 멀리 구라파에까지 보도되었으며, 당시 미국의 레코드(The Record)지는 다음과 같은 찬사의 일절을 소개하기도 했다.

「침착하고 허식없는 이 사람들이 불꽃과 민첩함과 꾸밈없는 성질을 가지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거사를 진행시켰다는 점은 온 세상의 모범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족의 피를 같이 나누는 한국민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즉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도 독

립항쟁을 벌이지 않은 곳이 없었고, 시위운동을 펼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독립을 갈망하는 한국민의 애타는 절규의 함성은 드높았던 것이다.

3.1 운동의 실패원인과 결과

피탄압 민족의 울분의 폭발음과 자주 독립의 함성은 전 강토에 울려 퍼져 남녀와 노소를 불문코 항일 투쟁 대열에 거족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그러나 불행히도 민족의 자주독립으로 자유와 평화를 찾으려던 꿈은 일제의 무자비한 총검에 불거품처럼 사라지고 결국은 민족의 역사적인 투쟁 봉기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일제의 압제에 시달린 민족의 함성은 총검에도 굴하지 않고 요원의 불길처럼 삼천리 방방곡곡을 뒤흔들어 놓았다.>

당시에 거사의 주역들이었던 국내의 독립지도자들이 기대했던 바, 외국으로부터의 원조도 희미해졌고 일본 당국과의 대화도 용납되지 않았으며 또한 계속 추진할 만한 조직적인 핵심체가 뚜렷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실상 장기간 지속할 수 없었음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비록 3·1 독립운동은 실패로서 종말을 고하고 수많은 조상들이 일제의 형틀의 혼으로 사라져 갔지만 그 결과는 컸던 것이다. 그 첫째로는 3·1 독립운동에 이어 중국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계속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도할 항구적 기관으로 군림하게 되었고, 둘째의 성과로서는, 일본은 탄압만으로 한국을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한계가 있는 것이었으나 소위 문화정치로 정책을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해외 교포들의 독립운동은 끊임 없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2. 3·1정신의 의의와 교훈

지금까지는 한국 근대사에 나타난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1910년대에 있었던 선조들의 피흘린 항일투쟁의 총 결산이었던 3·1독립운동의 의의와 그 역사적인 과정, 그리고 이민족의 거족적인 봉기가 남긴 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

찰해 보았고, 다시 3·1운동의 특기할만한 특성과 당시의 국민들의 신념을 분석하고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의 영원한 발전에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세와 그 실천방향에 관하여 음미하고자 한다.

3.1 독립운동의 성격

위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3·1운동은 거족적 민족운동이었다. 또한 전 인구의 80퍼센트 이상이 농민이었으므로 이 민족운동에 참가한 인원도 대부분이 농민들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지주 등 상류계급은 물론이고, 소상인 계급 등에서도 직업을 흔히 농업으로 나타낸 예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농민들의 참가가 대부분이었다 하여 학자에 따라서는 민족의 독립운동을 농민운동이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3·1독립운동이 농민운동으로만 단언한다면 어디까지나 농민의 권익을 위한 대대적인 봉기였다는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할진대, 3·1운동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운동에 참가했던 그들은 오직 독립만세불 절규, 독립만을 염원했던 것이니 여기에는 사상의 대립도 이념의 상치도 없었던 거족적 독립운동이었으므로, 농민운동시합과 같은 것은 오류일 뿐만 아니라 민족운동

에 대한 큰 모독이기도 한 것이다. 또 한 3·1운동이 적수공련의 평화시위였을 뿐 깡디의 무저항 항쟁이나, 공산당의 비폭력항쟁 이론의 적용 해석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다.

3·1운동은 실로 이념이나 성격으로 보아서도 자유와 평화를 회구하는 민족어대대적인 시위로서 이 시위를 통하여 민족의 숙원인 자주독립의 굳은 의지를 전달하고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독립을 추진함이 목적이었으므로 평화시위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3·1 운동 당시의 국민의 신념

한일 합병 이래로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탄압, 학정 밑의 망국한에 복매어 신음하여 온 우리 민족에게 국권회복, 조국의 자주독립, 그리고 광복이란 국민 누구나가 다 같이 품어오고 기다려 온 염원이요 속망이었다.

한편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져 민족에게 비수를 꽂아 가슴 아프게 한 친일도배일지라도 그들의 가슴 한 구석에는 민족독립이란 한 가닥의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같은 독립의 염원은 전 국민의 소망이요, 속망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나, 그러나 3·1운동을 전후한 국민의 인식이나 관심에 있어서는 지도층과 일반

국민과의 사이에는 다른 점이 없지도 않았다.

의병운동 이후 합병에 따른 일제의 극심한 무력탄압으로 우리의 민족운동 세력은 해외로 자리를 옮겨 재기강화를 시도하였고 혹은 국내에서 비밀결사와 위장전술로 전략이 바뀌어지고 교육, 산업, 언론, 문화, 체육 등의 보급항상으로 실력 배양을 지향하고 있어 더욱 뭉쳐지고 굳어진 독립운동의 저력은 조만 폭발의 시기만이 기다려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세계대전은 종말을 고하고 전후의 처리의 평화회의가 열리어 세계재편의 기운이 갑자기 조성되어 간위에 민족자결론이 발표되어 세계 약소민에게 크게 충격을 주고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였다 함은 이미 전기한 바와 같다.

그러하여 국내의 지도층에서는 이를 시기적 계기로 이용하기 위해 독립운동 전개의 여론을 환기하고 계획의 수립과 전개방안이 추진되었었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는 해외대로 움직임이 활발하였고 해외의 동향이 국내로 전해짐에 따라 국내의 운동노력도 움직임이 날로 달라져 마침내 3·1독립운동의 폭발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도층에서는 3·1운동을 민족

독립의 직접적 달성 방법으로는 보지 않았다. 즉, 3·1운동으로 독립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도층에서는 사실 민족자결주의에는 냉담하였을 뿐 아니라 3·1운동 발발 직후에 그들이 운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동의 주체를 모색하기에 이른 것들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들은 3·1운동의 전개로서 앞으로는 전 국민의 민족정신을 재 환기시켜 이를 고취함으로써 민족정신의 함양과 단결을 이룩하여 독립운동세력의 강화를 기대하였고, 대외적으로 볼 때는 전 민족의 독립의지와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여 국제적 여론과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동정과 협조를 획득하여 독립달성에 힘이 되게 하자는데 있었던 것이다.

과연 그들은 시위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미국 등 열강에 독립원조를 요구하였고, 평화회의 등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후원을 역설하였으며, 앞으로의 운동방향을 결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운동의 주체를 마련함으로써 운동의 체계화를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도층과는 달리 일반국민의 3·1운동에 대한 인식과 기대는 다소 달랐다. 15년간이나 뼈저리게 느껴 온 망국한과 이민족의 학정에 대한 반항심은 민족 최후의 상징이었던 고종황제의

급서와 독살설의 유포로 극도로 흥분되었고, 또 민족자결주의의 선전으로 즉시 독립을 믿고 싶었던 것이다. 만세시위로 독립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전인구의 약 1할에 해당하는 200여만이 3·1운동에 참가하여 일제 군경의 무자비한 총검 앞에 적수공권으로 조금도 겁낼 이 없이 돌진하였던 것이다.

평안남도에서는 독립시위의 전진의 대열이 일제의 총검으로 쓰러지면 동지의 시체를 밟고 넘어면서까지 만세를 부르며 돌진한 곳도 있고 사천(沙川)같은 곳에서는 탄환이 모자라서 더 못쓰었다고 일군 상부에 보고한 일까지 있었다 한다.

당시에 각지의 시위의 그 열광상, 일제 총탄 앞을 다루어 돌진하던 그 모습, 일제 군경의 대량학살을 눈앞에 보면서도 시위에 열을 올리고 날을 거듭하여 시위하던 그 광경, 이 모든 것들은 시위, 즉 독립으로 신념한 일반군중의 인식의 표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 정신의 교훈과 조국 근대화

3·1운동은 남녀노소를 불문코 집집마다에서 거리로 뛰어나와 한마음 한뜻으로 쫓기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의 교리를 달리하는 종파들의 세력도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 굳게 뭉쳐

거족적인 조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실로 세계 독립 운동사에 유례없는 장거로서 민족의 위대함을 입증해 주는 우리 민족의 자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당시의 우리 조상들은 장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비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친추의 한을 남기고 만 곁과로 돌아가기는 하였지만, 3·1운동의 역사적 장거는 조국의 영광과 더불어 불멸의 빛을 남길 우리 민족의 정화가 아닐 수 없고 내일이 오늘보다도 더욱 큰 뜻을 지닌 3·1독립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의 후손에게 영원히 되살려 나가야 할 바로 민족 정신의 귀감인 것이다.

회고하여 보건대, 반만년의 민족사를 통하여 탄압과 부자비한 폭정에 끝내 굴하지 않고 것처럼 장렬하게 자주민의 의지를 행동으로 구현했던 예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으며 언어마저 말살 당할 때 한 숨막히는 강압의 질곡 속에서 끝내 좌절하지 않고 이처럼 당당하게 민족의 독립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자주와 독립의 대의를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과 이상을 만방에 선양했던 일이 과연 전 세계를 뚫어 얼마나 되겠는가를 생각할 때 3·1운동은 실로 인류사에 길이 남을 민족의 자람이요, 만세에 찬연히 빛날 민족 정신의 금자탑

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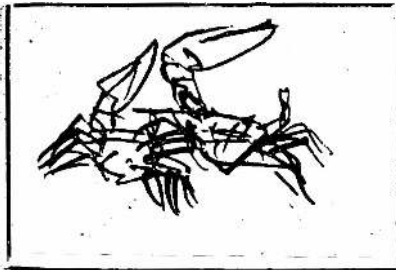
우리는 3·1독립투쟁 정신을 통하여 당시의 우리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집요하고도 잔인했던 침략자의 압제하에서도 봉기하여 분연히 민족의 자주 독립을 걸규로써, 열기로써, 혹은 실력으로써 과시한 혁혁한 투쟁의 전모와 속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조국 광복의 영광을 쟁취하려던 선조들의 항쟁을 실감할 수 있으며, 맨주먹 붉은 피로 조국의 강토를 물들이며 침략자의 종칼에 대결하여 민족의 생존과 긍지를 지키려던 자존 자위정신의 구현과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으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려고 했던 자조 자립정신의 발현은 우리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 질 수 있는 민족의 긍지인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우리 조상들이 발휘했던 거룩한 자주독립, 자존자위, 그리고 자조자립의 정신을 우리 세대가 이어 받들어야 되고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살려 나가야 할 교훈을 거울삼아 조국의 건설 및 근대화, 자주국방의 보루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세대의 숙원이요, 사명인 통일대업을 이룩하고자 말겠다는 굳센 결의를 새로이 가다듬어야 한다.

3·1 운동의 현대사적 의의

이 현 종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I)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주성·독립성·평화성·조직성 등을 최고도로 발휘한 우리 민족사상 가장 두드러진 애국운동이요, 자율적인 민족운동이었다. 근대문명의 수입시기로부터 일본에 유린당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발전이 저해당했던 근세기의 우리 역사는 개화 근대화로의 발전과 외국침략에 대비하여 주권을 지켜야 될 국난 속에서 갖가지의 시련으로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채 국권마저 빼앗기고 말

았다.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은 무서운 식민통치와 무단통치로 의사표시 자유마저 박탈 당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내외에서 극권회복과 우리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 당했으며 우리가 지켜오던 민족문화의 유산마저 위기에 접어들었다. 주권을 잃은 뒤 10년간은 너무나도 가혹한 탄압 아래에서 우리의 고유사상과 문화가 일제라는 태두리 속으로 강제로 전락되어가는 식민통치의 제일기가 시작되었다. 강압적인 헌병경찰제도하에서 탄압을 받은 우리 겨레는 표면상 조용하였으나 속으로는 주권회복을 위한 민족의 저력을 표시할 기회를 엿보며 식민통치자로 군림하는 일본과 대결의 시기를 굳혀가고 있었다. 이처럼 염원하던 시기는 왔다. 나라 잃은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고 견디어오던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을 기

하여 온 겨레가 함께 일어나 종교나 교육이나 남녀노소의 구별없이 도시나 농촌 방방곡곡에서 주권회복을 위한 비폭력운동으로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하였다.

우리 겨레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항거는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희생이 단단히 컸다. 민족적인 일대수난이요, 시련이었다. 가옥과 재산이 파괴되고 나아가서는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1910년 이후 가장 큰 수난에 접어들었다. 주권을 잃은 국민으로서 주권을 찾으려는 당연한 행동은 일제의 총검 앞에 희생물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표시는 오히려 죽음을 초래했으나 거기에서 굽히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은 우리의 민족운동사상 획기적인 사실이요, 유례 없는 큰 일이었다.

3·1운동이 비록 실패하였다고는 하나 우리는 3·1운동을 현대사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민족자결을 부르짖은 점은 갈수록 그 의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반세기 이전의 사실이지만 그 정신은 우리의 교훈이요 사는 길이었다. 우리가 단결을 요할 때 3·1운동의 정신은 더욱 빛이 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3·1정신을 높이 받들어 우리의 나아갈 바를 굳히고 온 겨레가 뭉쳐서 일해야 된다고 깨닫고 있는

것이다.

(II)

3·1운동은 우리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민중운동의 시발점인 계서도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역사상 외침에 대항키 위하여 전 국민을 동원하면서도 비폭력운동을 전개한 것은 3·1운동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었으며 또 실천되었다. 3·1운동의 지도층에서는 비폭력을 민중운동의 원칙으로 삼았으며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지방에 따라서는 그에 대항키 위하여 폭력으로 나타난 곳도 있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주권을 잃은 뒤에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줄기차게 자주독립 국가를 표방하면 영원의 결정체요, 실천이었다. 때로는 3·1운동을 가리켜 세계1차대전 후 미국 대통령 「윌슨」에 의해 부르짖는 민족자결의 원칙론의 영향으로 3·1운동이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바로 결부시키려 하고 있으나 그렇지가 않다. 우리 민족의 자결원칙은 우리의 주권이 일제에게 유린 당하던 구 한말로부터 계속되었으며 일제침략이 가중됨에 따라 더욱 강하게 나타났고 주권을 완전히 잃는 뒤에 또 계속해서 주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

다. 일제의 헌병 경찰체제 아래서도 굽히지 않고 독립운동은 계속되었으며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려는 의도는 항상 간직하고 있었다. 다만 그같은 자결원칙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시기가 문제되었을 따름이다. 그것이 1차대전 후 새로운 시대조류로서 민족자결론이 나타나자 시기에 적합함을 택하였으며 3.1운동의 도화선으로 발전시켜 준 것이다.

당시 지도층에 있던 인물들은 독립운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당장에 독립이 된다고 믿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그들이 당면한 무서움은 더욱 컸다. 그렇지만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목적은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시들어가는 독립정신을 불러 일으키고 또 연명성있는 독립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데도 그 목적의 일단은 있었다. 3.1운동의 대표자인 손병희는 2월 22일 천도교 기도회가 끝난 다음 교회간부들에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되는 건 아니요, 그러나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겠소」라고 한대서도 그 일단은 덧붙 수가 있다.

3.1운동의 지도자의 한사람인 이 승훈도 1918년 12월 동경유학생 서훈이 찾아왔을 때 동경에서의 동향을 들은 뒤

다시 독립운동의 방침을 의논하는 조만식 등 동지들에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가 우리 민족의 의사를 발표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총칼을 들고 적과 싸울 수는 없다. 우리에게 그 준비도 없거니와 때도 그럴 때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은 우리의 평화스러운 무저항주의에 대하여 총과 칼로 이것을 무찌르려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천만이 단합하여 주기를 기억하고 통일된 의사를 발표하면 당장 독립이 안온다 해도 이것이 씨가 되어 그 열매를 거둘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3.1운동은 당장 우리 겨레가 독립이 된다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는 독립정신을 불러넣고 일본에는 식민통치를 배격하는 무저항주의로 우리의 결의를 나타내는 동시에 세계 각국과 민족에 대하여 한국민족의 독립염원과 총화적인 달결을 과시한 것으로써 일찌기 우리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위대한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현대에서 보아도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또한 손병희는 3.1운동의 거사전에 천도교 간부들에게 말한 운동의 조직에 대하여 「태극기를 그려서 거리로 뛰어나가 만세를 부르지만 하면 되니 굳이

학식높은 지도자나 인격자들 그들 필요는 없소. 오히려 만세대장은 무식한 사람이 좋아. 일할만한 청년이나 인격자는 뒤에 남아 만세운동을 이끌고 재정을 조달하고 하는 더 큰일을 맡게 하고 만세에 앞장서 행동대는 좀 무식하고 용기있고 썩썩한 사람을 내세우도록 합시다!라고 한 것을 본다면 3·1운동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Ⅲ)

3·1운동은 바로 우리 겨레가 요구한 민족사를 지켜오는데 전통적인 사상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이민족에 대하여 침략해 본적이 없이 평화애호하는 민족으로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나라와 겨레가 위협을 받을 때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국토방위와 민족의 수호에 힘을 다한 민족적인 저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싸워왔다. 죽는 한이 있을지언정 평화를 파괴하여 위협해 올 때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외국침략을 받았으나 그 때마다 모두 물리쳤다. 그렇지만 1910년 때에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채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일대 오점을 찍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

하기 위해서 식민지체제라는 어려운 사정 아래에서도 3·1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처럼 무서운 식민통치하에서도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정신으로 일관하였다. 그런 정신은 독립선언문에서도 우리 겨레는 정의와 인도를 재현시키는 데 힘을 썼다. 즉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19세기식의 식민통치 등 약육강식의 낡은 수법은 사라졌다고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민족은 죽은 것에 대한 특별한 동시에 새로운 도의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것으로의 접촉임을 밝힌 것이다. 더우기 동경유학생들의 독립선언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 민족은 생존권리를 위하여 독립을 주장한다는 선언문이나 3·1독립운동의 선언문에서도 우리들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 주장한 점이다. 따라서 자주독립을 외친 근본이유는 민족의 자존성, 조국사상, 민족적 자유를 주장한 것이며 일제가 한국 민족에 대한 말살정책을 취할 때 우리 민족의 긍지를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이같은 정신적 독립운동의 염원은 실제 행동면에서도 나타났다. 독립선언문

에서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독립을 위해서 마음과 몸을 바칠 것을 선언하였던 것이며 자발적으로 동원도 인수나 지역별 계층별로도 그렇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232의 부·군에서 211개의 부·군이 참가했고 연령상으로 보더라도 청소년층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 노유의 구별 없이 참가하였다.

또한 종교, 교육, 직업의 구별없이 각계 각층에서 오직 주권을 잃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애국적인 사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빈부의 차별없이 온 겨레가 독립운동의 대열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총결기한 것이며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수단으로서 민족자결주의, 무저항주의, 평화적인 수단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다.

3·1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상은 겨레에게 교훈을 남기는 동시에 이후에 전개되는 민족운동의 지표가 되었다.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거세게 밀려 들어오는 외세에 대하여 척화본론으로 시작하여 1884년 개화파의 갑신정변, 1894년 동학농민전쟁, 1896년 이후의 독립협회 활동을 통한 국가 의식과

민권사상, 일제 침략에 대한 유학자의 지도적 정신과 농민·군인들의 주권 상실에 대한 항쟁·자결·순국 등의 정신, 민족의 생존을 위한 민족주의 독립·자유 등 우리민족의 독립주권사상이 3·1운동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이 정신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이다.

3·1운동은 침략주의와 강권주의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전제한 다음 바야흐로 인도적 정신이 새로운 문명의 선광을 인류의 역사에 비치기 시작하였다고 선언한 점이다. 그러므로 새 세기는 도의의 시대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도의의 시대가 왔음을 깨닫고 새로운 세계의 조류에 따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구시대의 강권과 침략을 버리고 자유의 시대가 온 것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 경제, 사상, 자유를 외치면서 민족적 존영을 위하여 생존권을 주장한 것이다.

우리의 선인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를 쟁취한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를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상, 문화에 대한 자유를 얻으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선언서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영



<거룩한 민족의 양심은 죽지 않는 것, 3·1정신은
바로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정신적인 지류이다>

을 이룩하려 함이다」 하여 우리 민족전체의 발전을 촉구함이였다.

3·1 운동은 강압과 침략에 대한 자유를 위하여 싸우면서 세계조류인 정의를 부르짖었다. 정의가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고 정의가 없이는 평화가 이룩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서로 연관되는 공평함 속에서만이 진정한 자유가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정의의 3·1운동은 우리 겨레가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정의의 토대 위에서 자유의 제도를 세우려는 것이 근본정신이었다. 따라서 3·1운동에서 주장된 정

의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만 진정한 사회적 행복과 국가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은 겨레가 힘을 합하여 삼천만이 하나로」라는 정신 아래서 노력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3·1운동의 정신을 고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나아갈 지표로 삼는 것이다.

(IV)

우리의 독립선언문은 그 정신면에서나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행동면에서 볼 때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다. 선언문의 초두에서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

도라] 하여 우리 민족이 비록 일제라는 지배하에였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독립 국가의 민족이라고 명백히 선언한 점이다. 따라서 이 말은 주권을 잃은 모든 국가와 민족에 적용되는 주권회복을 위한 교훈인 것이다. 3·1운동은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의 약육강식이라는 희생물로서 등장된 것을 되찾으려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준 것으로 단순한 독립투쟁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역사의 진전에 따르는 광복운동이며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선언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모두 지킬 것이며 생명의 낙을 마음껏 즐길 것이며 우리의 충분한 독립력을 발휘하여 온 세계에 민족적 정화를 맺게 할 것이라 하면서 민족적 자유를 찾아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화들을 이루는 광복운동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정말 우리의 독립선언서는 한민족을 포함한 모든 피압박민족들에게 준 새로운 아시아의 헌장이요, 세계사의 의의허창이 되는 것이다. 유럽의 역사가 이의 역사라면 여기에 새로운 역사로서 등장한 것은 의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자유의 헌장인 데 대하여 우리의 독립선언서는 평등의 헌

장이 될 것이라 보겠다.

우리의 독립선언서는 자유와 평등과 우애의 대원리를 자연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에 옮겨 놓은 위대한 문헌이다. 독립선언문의 구구절절이 자유와 평등이며 평등은 곧 우애로 나아가는 장면을 확실하게 서술하였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도 이 세 가지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거기에서는 자유, 평등, 우애의 세 가지를 전개시키는 단위나 주체가 개인인데 반하여 우리의 독립선언서는 그 주체나 단위가 오직 민족으로 나타나 민족의 자유, 민족의 평등, 민족사이의 우애로 서술한 점이 다들 것이다.

3·1운동은 과거에 중시되던 중군애국사상에서 근대적인 민족국가로 옮겨진 것이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지독한 압박 속에서도 대의를 외쳤다. 일제의 허위선전으로 외국인들은 마치 한국민족은 독립할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 어리석은 미개민족으로 여겨오던 중이었다. 그 민족이 온세계를 향하여 최고도로 자유와 평화, 도의를 외치는 최고의 거성을 보여주는 행동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한 외물 부르짖었다. 정의와 인도를 무기로 삼아 일제에 불합리하게 합병된 이유를 밝히면서 항일시위를 비폭력으로 전개하였

다. 그러자 지금까지 한국인을 그릇되게 인식하던 사람들도 한국인의 지성을 재평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3·1운동은 근세기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우리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3·1운동의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시위운동은 의연한 한국민의 자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세침략과 압력에 시달리던 아시아 여러국가와 민족에게도 커다란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주었던 것이다. 우선 몇 가지 예시를 본다면 반영운동의 지도자로서 여섯번이나 투옥되었던 인도의 「네루」는 열여섯살 된 외동딸 「인디라」에게 자기는 옥중에서 날마다 편지를 써서 주는데 장편의 세계사를 서술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3·1운동에 대하여 「오랫동안 독립을 위한 항쟁은 계속되어 그것도 여러번 폭발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봉기였다. 한국의 민중, 특히 청년남녀들은 우세한 적에 항거하여 용감하게 투쟁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이상을 위해 순사한 것이다. 일본의 한국인 억압은 역사 가운데서도 참으로 비통한 암흑의 일장이다. 한국에서는 대개 학교를 갔나 온 소녀들이 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너도 마음이 풀릴 것으로 안다」고 하였는 바

멀리 동남아 인도 독립운동자에게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라 보아 진다.

우리와 인접된 중국에서는 약 두달 후인 1919년 5월 4일 북경대학생들이 일본에 강요당한 21개조의 폐기를 부르짖으면서 권기하는 5·4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시위와 파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일대 민중운동은 북경 군벌 정부의 대탄압을 이겨내고 마침내 정부로 하여금 「베르사이유」조약의 조인을 거부케 하는 등 반 제국주의의 자각과 중국민중의 뿌리를 깊이 박아 놓았던 것이다. 3·1운동에 뒤이어 약 1개월 간격으로 4월 6일에 일어난 인도의 진리파악운동인 「사티야그라하」운동이나, 다시 한달 간격으로 중국의 5·4운동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으로는 찾기 어려우나 우리의 3·1운동이 약육강식의 시대상 속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무기없는 민중의 힘이 그처럼 크게 작용한 순수한 민중운동이라는 점에서 또는 같은 시대상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비록 시차는 있으나 일치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으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 보겠다.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도제

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3·1운동은 우리의 역사상에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주면서 다시금 다른 민족에게까지도 크게 연광성을 주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V)

3·1독립운동을 일으킨 33인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하여 선언서에서 명백하게 밝혔다. 그들 민족대표들은 거사 후에 닥쳐올 일제의 탄압에 대하여 사활문제를 초월하고 민족운동의 전철에 나섰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배화관에서 진행된 것을 소개하여 「일동이 인사를 교환한 후에 손교주는 이 감성을 시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즉시로 경무총감에게 봉지하여 33인은 이곳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것을 알려주었다. 이에 경무총감부의 일본인 관리들은 의외의 대사로 놀래서 달려와 33인을 잡아갔다」라는 당시의 사정을 본다면 민족대표들은 이미 살신성인이라는 단단한 자오로써 독립선언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책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충격을 가진 일제와 겨루어 보자는 의지로써 맞선 것이라 보겠다. 비록 일제의 식민지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은 결코

일제에 뒤지지 않는다는 민족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토대로 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행동이었다.

이미 식민통치라는 탄압 속에서 외부세계와의 공식 접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발전은 일제라는 테두리 속에서 강제적으로 이끌려 가고는 있었으나 우리 민족의 잠재된 정신적인 발전은 세계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충군애국의 이상이 민족 국가의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일어난 것이다. 특히 독립선언서에 자유와 정의와 인도의 정신이 주가 되어 나타난 것은 우리 민족이 평소에 간직해 온 고도한 문화와 정신의 소유자로서 빛나는 민족정기의 발로라 할 것이다.

우리 겨레는 강대국의 영향으로 국난을 당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렇지만 언제나 침략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보존을 위한 투쟁의 수도 강하여 민족국가와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온 것이다. 또 온 겨레가 그토록 한 뜻, 한 몸이 되어 우리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면을 보여준 것은 3·1운동 때라고 할 것이다. 이같은 3·1운동은 그 의의를 보아도 다양하지만 현대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커지며, 몇 가지로 간추려 볼 수가 있다.

첫째,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을 환기시

켜 독립국가의 민족으로서 주권의식이 강력하게 나타난 점이다. 독립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주권을 찾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명백히 한 점이다.

주권을 상실한지 10년간이 지나 식민 통치의 강화로 시들어가는 민족의식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의식을 불어 일으켜서 새로운 독립운동의 의식과 정신이 강화된 것이다. 그리하여 60만세사건, 광주학생운동과 각급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이 그들을 조직하여 민족사상을 고취시킨 것은 물론 항일독립정신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둘째,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상 새로운 기원을 이루어준 점이나, 일제침략이 가열되면 1894년 이후 항일전으로까지 발전하여 많은 희생과 고난을 무릅쓰고 또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일줄 모르는 불굴의 정신은 부병처럼 나타나 전국적인 항일시위가 전개되어 일제의 식민통치의 허위선전이 그대로 온 세상에 드러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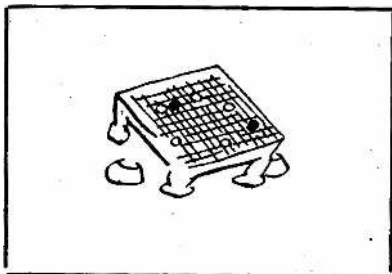
셋째, 항일 독립운동의 연면성이다. 3·1운동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한 일제는 계속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억압하였지만 항일독립을 위한 활동의 중심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에다 수립하였

다. 주권을 잃은 뒤 조직적인 독립운동 기관이 탄생하지 못하였는데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운동의 대표적인 기구가 생겨서 정신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의 제정과 공화국의 형식을 취하여 민족사의 새로운 현상을 빚었다. 그리하여 중국대륙에까지 일제 침략의 손이 뻗치자 항일투쟁을 더욱 강화하여 광복군을 조직하는 동시에 대일선전포고 등을 발표하여 연합군 측에 가담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3·1독립운동은 한국민족이 절대로 외국인의 지배하에서는 살 수 없다는 산 교훈을 준 것이다. 또한 외국인에게 일시적으로 약세의 입장에서 지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정신적으로 패배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민족과 역사는 연면성과 지속성이 강하며 자주와 독립성이 굳게 흐르고 있음을 과시하여 준 것이다. 이런 점은 유구한 민족의 역사와 또 우리가 잦은 외국침략 속에서도 계속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온 민족문화의 유산과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3·1 독립운동의 정신처럼 혼연 일체의 민족정신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민족사의 비애와 영광

홍 이 섭



서 언

일반적으로 「한국사」를 민족적 수난의 역사로 보아왔고, 현재도 흔히 그렇게 말한다. 민족의 역사가 긴 경우 주변의 이민족의 침략에 의해 비극적인 결과를 양출하기 쉬웠으나, 그러한 때에 저항,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여 민족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다면, 그 수난의 반면에 지닐 수 있었던 「영광」, 보다 선천적이었던 수난에서 재기할 민족적인 전통—성격·힘이 있었을 것으로 「수난의 역사」를 보다 뚜렷이 인식하는 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 발전되어

은 그 민족의 지속에 대한 역사적인 조건을 다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먼저 「역사의식」이 문제의 초점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사의 이제까지의 인식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즉 한국사의 인식 이해에 있어 「역사」 자체를 사실로서의 「비극적인 조건」—「수난의 역사」로 보려고 한 인식체계의 왜곡에서 이미 보는 눈부터에 병폐가 있었으므로 우선 시정될 이점부터를 비판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었다. 이 병폐의 원인이 대내적으로, 가깝게는 한국사회의 자신이 근대적인 의식에 의한 탈퇴를 하지 못하고 식민지 치하에서 역사의식에 있어서도 침략자의 왜곡화정책에 역제를 당하였으며 침략자들로 왜곡화 한 선행적인 조건을 이곳에서 찾 고자 하여 유출한 유교주의 이념에 사로 잡힌 「중화적 세계관」을 중심한 종속적

전해의 전제에서 결과된 과거 한국인의 자국사예의 인식체계의 왜곡화는 물론, 보다 그 「빈곤한 의식」의 비판적 극복이 행해지도록 되지 못하였던 것을 역이용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조건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현재에 있어 정신적으로 더 비극적이었음은 그 왜곡된 체계에의 추종이었다. 오늘의 한국사의 이해에 있어 정선적인 가다듬이 있어야 할 것이 역사의식의 파악이라고 할지, 과거적인 인건에 대한 비판적 극복 없이는 수난의 반면에서 영광을 찾기 어려우며, 영광은 민족적인 것이냐? 때로는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있어 부침한 권력지배층과 내지는 이따금 등장했다 사라진 한 영웅의 향유이었더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향유를 위하여 대중적 기반은 어떻게 구축되고 파멸·분산·재조직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서 오늘의 역사가 과연 민족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난에서 영광의 역사로 전변될 것인지도 생각될 것이다.

1. 고대적 세계에의 재검

한국사에 있어 신라사회를 중심으로 흡수된 반도지역의 고구려, 백제의 봉치기반-팽정구역에 반도적, 단일국가 형성에 있어 역사적으로 ①조선민족의

고대적 세계의 형성인 동시에 대륙적 세계의 반도적 위축이었다. ②유리된 대륙지역은 역시 걸쳐있는 고구려에 의해 발해의 건국으로 서남통로로 한족사회에의 공격을 보게 되었다. 이 사실은 한국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는 3국이 대륙국가와 반도국가로 양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변에 있어 이른바 통일신라는 이후의 국가건립자의 정신에 통합의 길을 지시했을 뿐 실질적으로 위축의 기상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진흥왕의 순수비를 단순한 적강(拓疆)의 기념물로만 숙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시 북계(北界)에의 진출보다 원거리로 되돌아가려는 향수가 깃들여 있었던 것이다. 신라는 이와 동시에 해양에도 관심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이와 동시에 해양에도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장 보고의 활동은 그 일단면이지만 일본의 원인자각대사(圓仁慈覺大師)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서 보듯 중국 산동방면의 근거에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의 일부는 백제의 동남 일본, 서남 동남아로의 왕래, 중국 대륙방면에 의·통교에 나타났던 것이다. 남방 반도지역의 신라의 이러한 활동에 대비할 발해의 교통로의 발전은 종결적으로 당

에의 정벌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현재 1, 2의 문자로서 표현된데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역사의 저류를 이루고 있는 수, 당의 고구려에의 내신이 결과한 고구려의 쇠망은 고구려 민족으로는 중국 국가에의 도전이 당시 사회로는 역사적 과제이었음은 이미 앞서 산해관을 사이에 둔 한한(韓漢) 양 민족의 출입결전에 나타났던 바이다.

아시아 제민족사를 지역적으로 볼 때 북부 고원지대의 유동적인 유목민족이 남부 강하지역의 토착적인 농경사회에의 침투의 반복에서 보는 그대로, 일찌기 일본의 白鳥庫吉 박사의 아시아사 인식에 있어 「남북대립」은 그 주조이었고 O. N 「래머모어」의 유목민족과 농경사회의 정립의 이론적 실체이었던 것과 같이, 고대에 있어 북방 돌궐과 농경사회로의 한족사회와의 관계 교섭에 있어 북동의 용좌에 있는 고구려가 수, 당의 대내질서의 정비와 함께 북방 민족에의 대비에 있어 보다 초점적일 수 있었다.

광개토경영락호 태왕비(廣開土境永樂好太王碑)에서도 한한족이 요하의 일선을 넘나들던 역사적 사실을 보이고 화북지대에서 북서 아시아의 통로의 진격이 불가해의 기록이 아니었음은 한한족

의 투쟁이 산해관, 요하선임을 생각하고 강하유역의 토착사회로의 한족사회와 북의 돌궐과의 관계에 고구려의 용자가 직결되어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소급해서 보다 고대적인 단계에 있어 북동 아시아의 문화의 흐름이 대결과 평창의 선에서 통일신라로 오면서 고구려가 수, 당의 동침에서 와해되게 되었으나, 발해는 한족사회에 대결의 일선을 뚫던 것으로 당에의 정벌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당시의 남북의 한계(분계)선은 근대에 와서와 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었다.

신라가 반도 내의 고구려, 백제 행정지역의 흡수와 함께 이 지역의 당의 세력을 일로 축출하는 방향으로 추궁한데서 반도의 장악으로 진전하였으나, 북으로 고구려 구강(舊疆)을 기반으로 하게 되었음은 궁예의 분립진국에서 볼 수 있다.

궁예가 주로 영북지방으로부터 편강고원에서 활동할 때 그의 생각하는 규모를 볼 때 웅장한 기백은 위축되어 가는 신라에의 대결로서만이 아니라 북으로 확대할 의도에서 행동하였던 것을 보겠다. 이어 그 정신의 수속(受繼), 실천자로의 왕건의 진국에 나타난 정신적인 면은 금서몽(진일 경성제국대학교수·일본인)같은 이의 위조로 단정 부정

하러던 거와는 달리 고려시대의 적극적인 위정가들에 의해 존수, 실천에 옮겨 놓으려고 노력하게 한 「태조훈요 10조(太祖訓要十條)의 정신은 궁예의 생각에서 한걸음 북으로 다가서는 것이었다.

이상의 제일단계에서 고대조선민족은 국가사회를 단일화하는 방향에서 움직여 왔고, 지역적으로는 남부반도에서 북부대륙(산해관 이동의 만주)의 구강을 흡수하는데 지표를 두었다.

2. 「비애와 영광」의 문제

한국사의 추이가 안으로 자체의 전개 과정에서만 역사의 발전적 광경을 보게 되지 못한 데에 한국사가 일그러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북부 대륙에 발해가 「해동의 성국」으로 동부아시아의 융축에 있을 때, 남부 반도의 신라사회가 정돈(평은)되어 문화에 있어 자연스러운 미, 균형의미를 지니고, 사상적으로 종합화(구조화)하기에 이르렀다. 조각, 건축, 문학(향가), 사상(불교, 한학과 한족문화전반—특히 제도·과학·기술·화랑도…) 등에서 한국문화의 고전적 세계를 구축한데서 그 문화적 빛을 보게 되고, 후대의 한국문화의 기원이요 고할임을 수증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소산이 반도적 자연적인

제조전과 같이 결합되어 배태—생성됨에서 후대 것의 기준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통일 이전의 고려러, 백제와의 각기의 특색이 신라통일기에 있어 원융의 단계에 이르른데서 인간적인 현실적미를 감추게 한다. 이러한 표현을 중국 예술론에서 「생동」이라고 하였지만 나대(羅代)문화의 특색은 이 「생동」에 있었으며 이 「생동」의 기맥은 통일신라의 정신이었다고 하겠다. 시각적인 조형문화에서 뿐 아니라, 정신면에 있어 현실인식, 그 대결에 있어 현세적이었음은 아주 근자의 한국인이 종교신앙을 논하는 데서 밝혀지고 있지만 종교신앙이 현실도피에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언제나 현실에의 대결로서 제시되었다.

이러한 현실대결의 정신은 종교의 기본적인 흐름이었으나 정치적인데 이용될 적에 현실도피가 되었고, 생활의 도구로 분화할 때 현세적인 부패와 그 정신이 현실도피의 처소가 되었었다. 신라의 불교사상은 동시기의 불교미술의 유구(遺構), 유물에서 감축됨과 같이 이해될 때 동아시아의 불교세계에 빛을 떨치었고, 한국민족이 역사의 소장에 초연히 그 광휘를 지니고 있음을 긍정하게 된다. 단적으로 여기서 그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신라인의 이러한 정신과 아름다운 숨씨는 3국 중 후진국이었

던 신라가 제일단계로 반도적인 세력권의 통합에서 신라인의 정신구조에 일체 종합화의 방향, 그 구조화의 초점이 놓이었으며, 대내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자신의 역사적인 조건—여러가지 특성을 조화시키며, 대외적으로는 동시에 성당의 문화에 있어 그 정신적인 내지 물질적인 것의 균형있는 수용에서 신라인의 것으로 다시 비쳐졌던 것이다.

팽창하는 조류를 휘어잡는데 힘썼고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결실이 신라인의 역사적 위치를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인의 정신과 문화는 자연적인데서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에서 한문—한학(유교)의 수용과 함께 중국 사상에서의 자연도 그대로 흡수 이해되었으나, 신라문화의 독자적인 발전단계에 있어서는 신라인의 주동적이었던 반도의 자연으로 전변되었다. 신라인은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이 고장의 자연을 발전하였던 것이다. 신라문화의 특색, 독자성은 여기에서 싹뻗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재발견이 신라문화의 구축 기반이 될 때 유, 불, 선 3교의 종합으로 보게된 화랑도의 전개가 있었고, 현실적이고 인간적—현세적인 불교문화의 「미」를 양출하게 되었다.

고전적인 정형의 미를 간직한 신라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대내적으로 사회의

모순—불합리에서 배태된 갈등 속에서 북방에의 회귀를 망각한 것 같았으나, 체계적인 지배층은 막강의 편으로 경사들을 보이었으나, 그 반체제적인 데서는 강력히 북방에의 회귀를 생각했음은 영북(嶺北)에서 활동하여 평강고원을 신장하던 궁예에 의해 지시되었으며, 그 고원에서 점진적으로 북으로 이동하는 고려의 세력에 의해 포착되었었다. 한국사의 일반에서 후삼국시대는 북방회귀에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 신라사회에의 도전 속에서 북방에의 의식을 복구시켰고, 그 주도적인 인물이었던 왕건에 의해 그 의식은 재확립되었다.

신라의 통일체제의 재확립과 북방에의 의식을 다시 강조한 고려의 국가건립은 정신적으로는 신라의 반도적인 의식을 본래의 고대적 세계로의 회귀이고 재현이었다. 즉 훈요 10조의 이면에 떠오른 불교 신앙, 풍수설조대 일부에서는 미신 운운하지만, 불교와 풍수설에 의거함은 고대적 정신이 불교신앙과 습합(習合) 전개하던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사태이었고, 화랑도의 계승적 전개에서 귀결된 바다.

북방민족에의 경계(훈요 4조)와 동원 이남(東峴以南), 공주강외(公州江外), 산형지세(山形地勢), 병후배역인심(並趨背逆人心)…(8조)한 것은 고려가 통

일될 국가형성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닥친 후백제와의 결전에서 잠재화한 의식의 표현과 북방에의 관심이 동시에 대치되어 북방 민족에의 경계는 북방에의 관심사로 표현된 것이었으나, 5조의 「서경, 수덕조순(水德調順), 위아국지맥지근본(爲我國地脈之根本), 대업만대안녕(大業萬代安寧)」은 개경에서 수백리 북방인 서경에의 진출을 실질적으로 명한 것으로, 동남경주에서 평강고원—철원으로 다시 개경에서 서경으로의 진출은 역사적으로 어디까지나 북방회귀의 실천의 일단이었으나, 이러한 역사적인 의식이 현실정치에서는 무난히 용이하게 수락되지 않는 것이며, 또 안으로 그러한 정신이 팽창했다 해서 동아(東亞) 전국(全局)의 대세가 좌우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전의 대세로써 글안·여진·몽고의 제족이 한족의 농경문화의 제기반을 흡수한 강력한 정복세력으로 대두한 때에 한국사로서는 수난이 왔고, 이 수난의 비극이 있었다. 그렇다고 통합에의 의욕이나 회귀에의 정신이 소멸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패기에서 수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패기는 대내적으로 긍정에의 방향과 부정에의 방향으로 이끌려 대결을 반복하여 온데서 반도적 현실에 치중하고, 국가정치가 현실에 초점을 두

는데서 표면적으로 북방회귀에의 의식이 소멸된 것같이 보기 쉬웠던 데서 한국사의 현실의식의 테두리가 위축되어 왔다.

민족적으로 비극이었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수난이라고 하면 그러한 결론에서 영향을 받은 위축된 의식의 속에서 피동적으로 소극화하며 정신적으로 타의화한 것이 물질적인 피해에 비견한 것이었다.

이러한 다른 질량의 양면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북방회귀에의 정신은 사회적으로 집권체제가 변이할 때마다 반복되었고 경제적인 피해가 이민족의 침략에 따라 또 문화유산의 소실이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었으나, 뒤에 오는 결핍·빈곤 속에서 불리한 제조건의 극복에 이어 문화의 역사적인 전개 속에서 보다 새로운 미의 창조—재발견에 노력해 온 데서 한국민족이 존속되었고 양으로는 적지만 정제있는 유산을 후대에 끼쳐왔다.

고려는 명확히 훈요 10조에 따라 역사적 현실을 극복하려는데서 서경주유의 좌절은 있었으나 북방회귀의식은 여말에 있어 다시 논의될 때 이것을 강경히 고특(固特)했던 것이었으며 여선(麗鮮) 교체에 따라 조선이 대명—사대, 대일—교린이라는 국교의 지표를 내걸었자

만 실질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
자는데 있었다. 외세에 대립하는 것으
로써 대내적인 수습이 가능했다. 한족
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산해관 이동의
지역에 대한 조·명간의 생각을 근대적
인 영토관념에서 논하기는 어려우나, 양
강을 사이에 둔 여진의 강남 농경사회
에의 침투와 그에 대한 조선의 정책
을 볼 때 북방정책을 수립할 때는 국가
제정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도 신장의
빛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양강을 경
계로 해서 넘나들었으나 대개의 지식층
이나 관료들(유교주의 관료학자들)의 생
각이 반도적인 세계에 집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학자들을 사대,
소극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북방지대에 자극이 있을 때의
농경적인 조선 왕조가 그에 대비하였음
은 여말선초(그 이후도 지속된다)는 물
론 후대에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자
극적일 때의 이 사회는 언제나 전환점
에 있었음은 과거의 역사적인 추이가
그리했음에서 이러한 일반론에서는 더
깊이 논하지 않아도 수긍되는 일이다.
이 전환점은 선행사회의 배제(피멸—쇠
망)에서 신흥국가의 형성기에 놓여있
다. 그리고 대체로는 북방민족의 태동,
한국사회의 전환(왕조 교체)과 반도지
역의 정치적인 동향과 엮맞아 왔다.

그렇다고 수난과 영광이 민족사의 그
립된 상태에서 대내적인 권력구조에 의
해서만 좌우되어 온 것은 아니었으나,
소급할수록 대내적인 조건과 외세의 작
용에 있어 대내적인 조건의 비중이 무
거웠으며, 근대로 올수록 상업자본의
발전에 따른 서구세력의 동태(東來), 서
구 자본주의 국가의 원조와 시장탐색에
따른 식민지, 약탈정책에 따른 침략이
급속 강화—확대됨에 따라 외세의 조건
이 민족·국가 운명을 결정하였다.
여기에 오면 민족사에 있어 수난과 영
광이라는 것이 대내적으로 봉건적인데
서 자본주의 단계로의 발전 여하가 문
제가 된다. 자본주의화 하지 못한 조건
의 탐구에서 한국사의 수난을 보게 될
것이나, 이것을 단순한 외침으로 보는
데서 유교주의적인데서 위정척사론(衛
正斥邪論)으로 대항하였으나, 이렇게
단순히 볼 것이나, 그렇다면 양면의 관
측에서 개방만이 수난의 극복이었겠느
냐, 논리와 대내적인 사회발전과를 생각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동부 아시아에
있어, 자본주의의 성립에 있어, 한 유형
으로 근대화한 일본과 하지 못한 중국
을 예로 보는 구미인의 논리도 「웨버」
의 종교사회학(주로 「유교와 도교」—정
통과 이상)에 중국사와 일본사의 판조
로써 「된것」과 「안된것」의 추구라고 보

겠다.

여기에 「조선」이 빠져있음은 일본의 식민지이었던데서 그 어느 편에서도 논의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한국의 현대를 비극적인 점에 갖다 놓고, 민족적으로 수난을 하게 한 것으로도 보겠다.

즉 과거에의 어떤 해석이나, 현재의 어떤 인식이든지 간에 요는 한국이 「식민지시대」를 겪었다는 사실의 비판적인 이해에서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수난사보다 드물게 있는 민족 영광의 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외근—내환

종래 사용하던 판념적인 용어로 「외근」과 「내환」이란 낱말을 그대로 대본다. 한국사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소장되어 오는데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외근—이민족과의 공격, 피격의 되풀이, 한국사에 있어 역사적 실체로써 일찌기 대두되기는 한족과의 투쟁을 이 예로 보겠다. 특히 압수(鴨水)를 사이에 두고 대륙과 반도에 걸쳐 있던 고구려는 한족과 부단한 전쟁에서 요하의 선을 사이에 두고, 요서의 제성을 점거하고 깊숙이 화북지대로 출입한 호태왕의 비문이 지시하는 고구려민족의 팽창기의 역사나, 고려가 북방민족의 남침을 끝까지 막아내고, 북진하려

는 의도는 「서경주유(西京駐留)」의 혼요로만 규정지을 것이 아니요, 세종이 저군6진을 설치할 때의 의욕이 이민족의 자극(침입)에만 따른 것이 아니라, 고구려 국가가 대륙에서 발전할 때 역시 항쟁의 대상은 한민족과 서북방의 유목민의 문제가 되었으며 그들의 침투를 억제하는데서 강남의 따뜻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고려 국가가 농경지대로 남하하는 유동적인 제민족을 방어하여야 반도지역을 보호 방위할 수 있었다.

세종의 북진과 남진은 도상의 역사적인 과제를 처리함이 곧 신생 이치왕조의 권력기반을 견지하는데 선무이었다. 근세까지의 이러한 지역적 환경문제는 험사리 처리되지 못했다. 아시아 대륙의 민족적인 세력이 응결될 때 반드시 반도지역으로 내밀린 것은 한국사 자체의 역사적인 조건이었고, 같은 방향에서 민족세력의 이동에 있어 따뜻한 강남지대는 대륙세력의 안전책으로도 썩기를 박을 지점이었다.

해상으로 열도지대의 해구의 내침 약탈은 열도사회의 불안과 자연적인 조건이었던 기근에 따라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서 대륙국가의 변이—왕조의 교체, 고려 또는 조선에 있어 그것이 동북아시아 지대의 반 유목—반

농, 또는 유목적인 사회와 연관성이 강할 때 그 반도에의 작용이 컸다. 열도 사회—일본의 왜구가 반도사회에 노략질을 거듭하고 봉건시대에 있어 결산적인 임진—정유의 난을 빚어냈으나 이것으로 결말을 짓지 않고, 자본주의화 단계에 있어 서구적인 지식—기술을 앞서 수용(당시로는 미숙 미비하였지만…)하고 근대 한국 침략의 선봉이 되었음은 한국사에 접철된 외근의 일포(一餉)이었다.

더욱 일본의 해상에서의 침투에 있어 여말선초의 「왜구」와 화는 이후 조선사회로는 특히 유념, 방어를 강구했어야 할 일이었고, 여말에서 선초를 걸쳐 일본에 통신사를 보낸 본의도를 잊지 않았어야 할 것이었고, 일본측의 육구에 따른 종래에 있어 중종 때의 3포왜란(1510)에 이어 선조 때의 임진왜란(1592)은 교란수호로 지내왔으나, 19세기 후반기의 일본 자본주의의 침략에 대결방어하지 못한데에 한국사는 스스로 비판의 공백을 지니게 되었다.

내환이라는 관념을 분석한다면, 집권 지배층에 있어 권력분쟁(왕조교체, 또는 왕실 자체 내에서의 지배권의 쟁탈) 또는 왕위를 중심으로 한 양반층의 같은 분쟁에서 파쟁이 번져갔으나, 조선시대에서 보듯 당쟁이 후일의 망국적인

조건이었다고만 단정할지는 재고할 문제이지만, 민족의 역사적인 발전에 있어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수난을 초래할 조건이었고 사회발전에 저해의 조건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한국의 전사(全史)에서 조선시대의 당쟁에 유사한 파쟁이 있었지만, 왕권을 배경으로 이념적으로 유교주의적인 모화적 명분이라든지, 인식론적인 일부의 견해 내지는 의례적인데 치중, 실용적 예론으로도 분쟁을 거듭하며, 궁극에 가서 결론적인 단안은 카리스마적인 왕권에 의했다. 이것은 상대편을 때려눕히는데 있어 최상의 묘약이었다. 여기서 사회적인 진전을 생각할 수 없었다.

은총에서 죽음으로 왕왕히 「역약」에 의해 처단되었으니 죽어도 군은에 사하여야 했으나 실제의 파쟁은 혈연적인데서 더 얼켜들어갔다. 한국사에 있어 이러한 조선시대의 당쟁은 그 자체 비극적인 작위였고, 그것에 제약된 사유의 왜비(萎痺)도 한 번 생각할 것이다. 사상적으로 편향적이었고 독단적인데서 근세사상의 구조적 전개를 찾아보기 힘들고 일부의 이기설(理氣說)의 전개, 현실학파에 있어 남인학파의 사상적 수계와 비남인학파의 일부의 학인이 전개시킨 북학론도 남인학파의 사상과

상보 구조화하는데서 문제가 된다. 물론 계보적 유학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있었던 것의 형식적 체계화에 있어보는 거와는 다르고, 주자학의 이해 전개에 따라 양명학이 역시 수용·이해되었고 일부에 있어 사유의 기반이었으나 이것이 학사적으로 위치가 설정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또한 왕권을 배경으로 파생되었던 당쟁에 깊은 관계가 있었지 사상적인데서 사유를 통한 대결이 아닌데서 내환 중의 한 비극이었다고 하겠다. 사유의 불발달은 역사적으로 한국 민족이 현실적인데서이었다 하겠지만, 「유교」가 현실사상이었던데서 보면, 정치권력을 빌려 제약한 조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내환으로는 농민들의 항쟁인데, 통일신라의 말엽 후삼국시대에서 고려의 반도사회의 재정리에 있어 농민들의 항쟁은 군용에 의해 왕권쟁탈에 이용되었고 고려·조선에 있어서 농민의 항쟁은 지속적이었으나 외군에 의해 잠식되었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렇게 방향이 돌려졌으나 사회의 추이발전 의식이 깨어오면서 민요라고 한 대부분의 농민항쟁이 힘의 규합, 또 의식적인 규합으로 전개되었었다.

이러한 예는 19세기로 접어들면 뚜렷이 나타나고 1811년 홍경래난에서 1892

년 진주민란, 1894년 동학교주의 난으로 난속하는 과정을 밟아온다. 이러한 일련의 민요는 민족사에서는 수난의 계열에 놓을 사건은 아니다. 오히려 민족의 투쟁력, 항쟁의식의 강화에 있어서는 영광의 도전을 개척한 보람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항쟁의식만으로 민족사의 수난을 영광으로 들릴 수는 없었다. 후대에 와서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사회진전에 자극이었고, 한국사에 있어서는 국가정책의 시정의 근본원인이 되었음은 1862년 진주민란에서 된 불통이 영남의 각처로 호남·제주에서 평안·함경도까지 파급됨에 따라 현지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민란의 원인을 조사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민란이 발생하게 된 기본적인 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한 것은 시정에 있어 고식적인 대규모의 난으로 번졌고, 이 난은 일본 침략의 구실이 되었으며, 중앙의 정부도 위협을 받고 외군에 의한 진압의 기도에서 청·일전쟁으로, 일본은 이 전쟁을 계기로 한·청분리와 일본의 침략기반의 선행적인 마련을 한국정부에 내밀게까지 되었다.

안으로 자체의 전개를 위한 어떠한

사태의 진전에 있어서든지 외부에서의 침투공략을 배제하여 자국—자기 사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했으나, 대내적으로 상호대결의 힘에 비해 침략적인 외세가 우세했던 19세기의 한국의 역사적 실정은 수난의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또 이것을 견주어 나아갈 정신적 지도력(의식)에 있어서는 개방한 정신적인 지도력이 외국 것의 수용에 멈추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타」에 의존적인데서 자기 사회의 인도력이 되기 어려웠고, 제 외세에 휘둘리게 되었으므로 제 외국의 이해의 판가름에서 한국이 자기 운명을 가누기 어려웠고 외세에 대해 고립적이었던 위정적사론이 보다 강력하게 외배자에 도전적이었으나, 침략자—안에서의 도전자를 한국인 자신의 손으로 차단하게 하여 도전을 배제하고 침입하였던 것이다.

이 대립관계는 한국인 자신이 공동의 목표에서든지 각 파의 이해 또는 견해의 차에서 귀결되었어야 하고, 그 판가름이 개방적이고 근대적인데 지향할 수 있어야 했고, 언제나 외배적인 침략자를 배제할 힘의 준비가 견고했으나, 19세기의 한국사회는 이 조건에서는 비극적인 교차점에 있었음으로 개화운운이며, 사상문화의 새로운 수용에 있어 고난의 길을 밟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사에 있어 외근과 내환이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외근—내환, 내환—외근의 미분상태에서 한국은 수난의 바람받이에서 있었다.

4. 한국사의 해석

현재 우리들의 인식 이해에 깊히 이용되는 과거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왕조사적—정치사는 아무래도 수난의 역사로 보게 되며, 앞서 말한 대로 뻗어보자는 의욕, 신장했던 때의 역사는 토막 토막 영광의 장면으로 점철이 되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정채있고 균형잡힌 윤리적 아름다움이 깃들인 자연에 조화된 인간성을 고도로 발휘한 문화적인 것을 창조했고 그것을 후대에 남기었던 역사이었다.

민족적으로 이러한 기복있는 역사를 계승 해오는 동안 정신적으로 발발(勃發)히 되기를 보이었으나, 그것의 계승—전개에 있어 왕왕 좌절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한국민족의 역사적 전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일체의 좌절을 보게 되었으며, 좌절 속의 투쟁적 40년의 시간은 수난의 극복이었으나 사회발전에 긴한 교육훈련, 정신, 경제 등의 근대사회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 창조할 시간의 상실은 너무도 컸다. 이 시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재의 한국인에게는 한국에 있어 수난사를 어떻게 영광의 역사로 볼 것이며, 막연히 관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민족사」를 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재검하여야 할 것이다.

3국이 다 각기 국가체제를 갖추고 발전하면서, 각기의 역사를 저지하였음은 3국사기같이 절략된 기록 속에도 일조나타 전하고, 고려에 와서도 고대 3국의 역사를 고려가 어떻게 수계하였는지 밝히고자 한때서 판료측에서 3국사기가 민간에서 3국유사의 편찬정리가 있었다. 이 양자에 있어 전자는 지나치게 합리적인 조작을 기도한 데서 역사적 실제까지 왜곡되었으나 유사는 그것을 시정되기 전까지는 그 그릇된 데서의 악영향이 적지 않음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있어 일본의 침략자들이 한국사의 조작, 왜곡화 작업에서 볼 수 있었다. 여기서 한국 자체에서 혁명적 광정작업(匡正作業) - 민족사로사의 사실에 즉한 바른 해석에 의한 시정이 없는 한 한국사에의 한국인 자신의 자학적 태도는 가색지지 않을 것이다.

자학적 요인의 태도를 시정해서 보지 않는 한 그에 대한 반발적인 왜곡화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키 어렵다. 역사란 바른 사실에서 새로운 규명이 요

구되고 그것을 인류사회의 진전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게 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우리들에게는 한국사가 수난사이었던 아니든간에 즉 집권체제가 바뀔 때마다 선행사회의 역사에 감행했던 왜곡화 작업에서 결과된 오인, 심지어는 일제시대의 잔흔으로의 자국사의 자학적 배판을 불식하는 정신적인 바른 작업에 필요하다. 여기에 무엇보다 선행적으로 가장 긴한 과제는 한국민족사의 바른 이해를 위한 공동의식의 가짐일 것이다.

결 어

수난과 영광은 외근-내환이 직결된 듯이 동시적인 것으로 극복하기 극한한 수난의 시간을 극복하는 순간의 역사는 영광의 역사로 전변되는 것이나, 역사적으로는 때로 그것이 간격을 두고 전변하여 민족에 따라서 일시적인 융흥에서 멸망으로 전락, 영원히 사라지는 수가있었다. 이 현실적으로 그 실재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현재의 우리들이 오늘의 역사를 내일의 우리 자녀들에게 영광된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현실의 제폐를 어떻게 배제·극복할 것이냐? -하는 윤리적인 귀결에 우리들의 공통된 의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민족적으로 지닌 지난날의 역사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해석 여하는 우리들의 정신에 지대한 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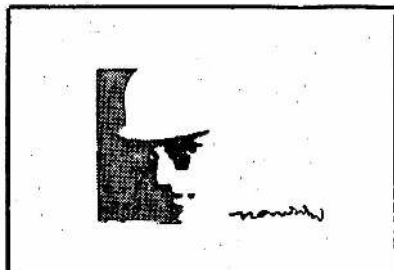
군대사회의 특수성

서 현 봉

리고 정신적 요소가 효과적으로 융합된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같은 총력전을 위하여 군대의 조직 및 운용도 그 성격과 현모를 새롭게 하고 있음은 군 특색상의 중요국면을 가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군 사회의 특수성은 첫째로 전체성을 강조한다.

군의 조직은 전체적 통일성을 기반으로 한다. 군은 개인 중심을 위주로 하는 다른 집단과는 달리 우선 그 조직의 기초를 개별 단위를 떠난 전체 단위체를 그 근간으로 한다. 이는 한 마디로 「개인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전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

사회에서의 개개인의 다양한 기본적인 제 욕구가 이같은 전체적 통일성을 기초로 군 조직 내에서 강력한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자기 욕구의 좌절감을 가져온다 함은 군 본질상 당연한 이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대성격을 규정하는 제반 요소 중에서



군대의 존재 의의는 국토방위와 국민 보호를 근본 목적으로 하여 전쟁 승리를 위하여 존립한다. 이를 위하여 군대는 그의 존립근거가 조직, 체계, 그리고 운용, 체계는 사회의 여하한 집단 조직과도 그 성격을 확연히 달리한다. 따라서 군대집단은 사회의 어느 집단에서 볼 수 없는 고유의 특이성을 지닌 특수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동시에 인적, 물적, 환경적 특수성을 내포하는 특별 집단인 것이다.

더우기 오늘날의 전쟁 양태는 종래의 단순한 마력(힘) 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인적, 물적 자원과 그

도 전체성의 원리야 말로 집단의식을 기초로 한 「전우애」와 같은 기밀한 정신적 요소를 토대로 하여 전투력의 강화 및 전쟁능력의 확보를 통한 국방 임무의 완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개인의 제반 요구를 통합, 조화된 방향으로 결속시켜 군의 힘을 형성시킨에 커다란 계기를 조성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획일성을 강조한다.

군의 운용은 획일적 강력성에 의하여 유지 발전한다. 군은 그 특유한 전체성의 조직 원리를 기반으로 일반 권력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포괄적, 획일적 강력성에 의하여 군 임무의 수행과 군이 목표하는 통합된 질서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군 생활에서의 상하 명령 복종관계는 군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군의 유지 운용에 생명선을 이루고 있음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따라서 군은 그 고유의 특별권력에 입각한 명령 복종을 절대적 요소로 하는 바 이러한 특수성은 일반 사회 집단에서와 같은 단순한 상하 관계와는 그 성격을 판이하게 달리 한다.

이러한 엄격한 명령 복종관계에 입각한 강제적 획일성을 통하여 군의 전체적 통일성을 기하게 되는 바 여기에 인간의 잠재적 또는 대항적 계유가 위에 말한 강제적 획일성이라는 장애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로 실효성의 보장을 강조한다. 군은 전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막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장비, 그리고 제반의 정신적 요소의 개발을 위하여 전력 향상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군의 인적 물적 및 정신적 제요소의 축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군전력 요소의 최대한의 효율적 운용을 확보함이 그 목적이다. 여기에 개개인의 능력별 자기성장을 목표로 하는 인식개념은 상실되고 만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개인의 관심, 흥미, 능력 등 제반의 경험상의 차이는 군 운용의 실효성의 보장이라는 범위 안에서는 그대로 전파되지 못함으로써 군생활 부적응 현상까지 초래시키고 만다. 업무권태, 책임불이행 등 안일 무사주의의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셋째로 정신적 제 요소의 개발을 강조한다.

군은 바람직한 군인상의 형성을 위하여 정신적 자세의 확립을 강조한다. 전장에서의 승리는 곧 참다운 군인정신의 궁극적 표현인 것이다. 군은 개체를 떠난 집단의식의 결속체로서 전승의 신념과 전우애의 발양 및 사기진작과 단결

심의 고양(高揚)을 통하여 참다운 군인으로서의 정신적 자세의 확립을 요구한다. 이로써 군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전체로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도모하여 군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가치관을 창조함에 무엇보다도 정신적 요소의 개발을 중시한다. 따라서 군의 최대 사명인 전쟁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군인정신의 육성이야말로 군의 제일차적 당면과제인 동시에 군유지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관계에 발생하는 정신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며 정신적인 건강의 촉진과 조화적인 병영생활의 조성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상에서 군 사회의 특수성에 연유되는 군 집단조직과 운용 및 군생활의 특이성을 몇 가지 요소로 논급하였다. 물론 일반 사회 집단과의 공통된 성격과 요소를 군 집단도 내포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상술한 전체적 통일성, 획일적 강력성, 실효성 보장, 정신적 제 요소의 개발을 강조하는 요소별 특이성에서 연유되는 군 정신교육 활동의 문제는 다각적인 특수 방향에서 분석 검토되어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군 특수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군대 사회는 특수 사회로서 전체적 통일성, 획일적 강력성, 실효성 보장, 정신적 제 요소의 개발을 강조하는 토대 위에서 개인의 자주적 활동과 다양한 적성의 지도와 개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하는 개인중심의 윤리 강령보다는 획일적인 명령체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군대의 전체적이고 제도적인 통일의 질서를 확립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창조적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군대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고 건설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는 부분적인 개인의 자유와 개성 및 창의성은 존중하나 무엇보다도 군대의 생리와 특색은 개인보다는 군대라는 단체를 중요시하고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단체보다는 군대라는 조직체가 개인을 포괄적으로 기속하고 있다는 단체적 연대 의식을 윤리 강령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군대 사회의 획일적인제도와 엄격한 규율칙규속에 각색의 생활경험, 지적배경, 적성과흥미, 심리적, 정서적 개인차등, 천차만별의 개인의 생활목표와 생의 진로가 군대의 각 존립 목적과 지향하는 목표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또 군 집단과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어떻게 조정함으로써 동질적인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히 대두된다. 이러한 군대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집단과 개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정신 교육(생활지도, 상담 포함)의 개선 방향으로써 정신교육 담당자들(지휘관, 군목, 정훈관, 보안관, 안전관, 군의관, 훈육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에 적극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1. 군대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조화시켜서 교육을 해야 한다.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우선 진정한 인간이 되어야 하고 진정한 군인은 진실하고 용기있는 인간으로부터 출발되고, 진실한 인간은 멋이 있는 인격으로 형성되어 지는 것이다. 이 말은 군대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결코 유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인간적인 것을 군대적인 것에서 사상(捨象)하고 나면 거기에는 빛이 남는가? 인간적인 것은 군대적인 것의 내면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군대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하나의 수와 양의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내면성이 분실된 의면 규정이나 정합적(整合的) 통일은 그 전체를 기초하고 있는 필연적 계기들의 내적 연관성과 생명적 교통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한에서 그

러한 전체적 통일성은 주체적 힘과 약동을 찾을 수 없는 우연한 집합에 불과한 것이다.

군대가 하나의 단순한 결속체 이상의 그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강제적 획일성이나 외적 합일에만 착안하지 않고 그 내적인 조화와 전체적 주체성의 의식을 배태할 수 있는 유기적 통일체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인간적인 것과 군대적인 것을 아무런 모순개념이 아닌 것을 인식하게 된다. 결코 인간적인 것은 군대적인 것에 소외되거나 배물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적극적으로 참여되고 주관되는 한에서 군대적인 것은 생명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군대적인 것의 강제된 형식은 일단 인간적인 것의 입장에서 긍정되어야 하며 이런 한에서 그 속에 놓인 개성은 자신의 주관의 원리를 새로운 합리성의 선상에서 작열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다채롭고 방일한 주관의 자유는 외적 규제에 의해서 전적으로 할인되고 그 개성은 「그 자체만의 독자성」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은 벌써 규정과 외적 규제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강제외의 의미 대신에 활동의 의미 속에서 외면적 질서는 정당화 되는

것이다.

동시에 개성들은 서로 단절되고 고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혼연히 교류하고 상호 필연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대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은 하나의 유기적 전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양자는 유리되지 않고 조화된 하나를 이룬다. 이때 군대는 결코 인간적인 것의 추방된 영토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전체와 개체의 본질은 조화시켜 교육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가치와 인격을 최대로 존중하고 창조적 활동과 자율적 성장을 도모하여 장차 자율적, 창조적, 주체적 민주시민으로서의 공헌과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의 건전한 자아육구를 성취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질을 키워주지 않고 다만 개인은 국가와 전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개인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여 개인의 건전한 발달을 통해 사회, 국가가 발전하고, 개인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지적 발달을 통해 건전한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하에서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개인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직접 기여, 공헌하는 논리적 연관성을 고찰해 볼 때에 민주군대 사회에서 개체 군인과의 상호존적 영관성은 지명한 논리적 귀결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전체가 요구하는 바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도 개인의 목적달성을 목표로 삼으며,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 입장에 선다면 군인은 개체의 보호발전을 위하면서도 전체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며 이타적 목적달성을 위해 헌신하는 위치에 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성과 개체성은 그 표면으로 보아 이타와 이기라는 상극된 모순 개념을 내포하며 그 두 입장은 항상 대립과 투쟁을 면치 못할 것 같이 보이나 개인의 존속과 행복이 없는 전체의 생존, 번영이 있을 수 없으며 전체의 존립이 있는 가운데 개인의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Fichte는 「독일국민에 고함」이란 저서 중 국민교육의 이념에서 「교육이란 단순히 각 개인의 타고난 본질적 성능을 완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 존재를 특히 완성적 존재에 관련시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적 존재로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 존재, 즉 조국의 일원으로서 완

성되어야 한다. 도덕도 종교도 모두 조국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국민성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이란 독일인으로 하여금 참다운 독일인으로 기르는 것이다. 이것이 독일의 국민 교육인 바 그것은 결코 세계 인류의 교육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참다운 독일인이 될 수 있다면 그들에 의해서 세계 인류의 개조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논하여 전체인 국가와 개체인 개인의 상호 존재적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전체성을 띤 군인이나 개인주의에 사로잡힌 일반개인이 서로 남을 이해하며 자기자신에게서도 타(他)의 존재가 일정한 양식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군인이라고 개인의 이기적 욕구와 충동이 전혀 말살된 것이 아니며, 개인이라 해서 전체적 공통성을 아주 사상(捨象)시켜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체적 획일성의 극단인 군대사회에서도 개인의 인격 욕구 만족을 해치지 않고 공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최대의 주의들 기울여야 하며, 가장 이기적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전체를 파멸시키거나 동료들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보다 완전을 기하려면 양자를 다 같이 살리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형태인 것이며 개인은 최대의 이기성(利己性)을 구하며 동시에 전체를 가장 잘 위하는 개체가 됨이 바른 길임을 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 백 가지의 이론보다 한 가지의 실천이 요망되고, 즐거운 분열보다 괴로운 단합이 있어야 하고, 남을 꺾느니보다는 도울 줄 알고 아낄 줄 알아야 한다.

◇ 우리는 비난이나 시비가 있기 전에 엄숙한 역사의 표정을 읽어야 하고 싸우려 하기 전에 무엇을 도와 줄 것인가에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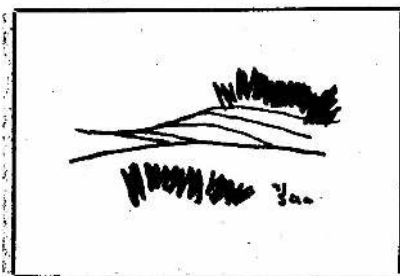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 명랑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은 조국근대화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1967. 연두교서에서——

군인정신 확립

이 종 안



사람들은 정신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며 혼란 단어를 써서 정신을 표현한다. 애국정신, 민주정신, 준법정신, 군인정신, 과학정신, 대화정신, 협동정신 등등…… 또 정신을 말할 때는 특히 예를 많이 든다.

× × ×

동서 베를린의 양단시 많은 이들이 철책과, 담과, 지하망, 수로를 통해 자유를 찾아 탈출을 하고, 서백립의 자유민이 모여 평화메모를 벌인 일—

이것을 자유 혹은 민주정신이라고도 한다.

로마와 칼타고의 전쟁에서 로마의 「레이루」라는 병사가 칼타고의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을 순순히 보면 살려준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는 몇몇한 죽음을 원한다. 나 자신에게 비겁하지 않겠다」고 죽음을 택한 후 이야기를 들던 로마의 군사가 승리한 유럽전사의 귀감이 되었던 이야기—

이것을 배국정신, 희생정신이라고 말한다.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유명한 영국의 어느 장군의 이야기가 있다.

길가다 울고 있는 소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었을 때, 깨진 접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애처로와 새로 사서 도와줄 약속을 하였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하며 집에 돌아왔다. 마침 소녀와 약속한 그 시간에 가장 친구에게서의 만나자는 약속이 와 있었으나 소녀와의 약속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소녀의 소망을 이루었다는 높으신 장군의 이야기——.

이것을 약속정신, 사랑의 정신이라고 할 말한다. 또한 8천미터 이상의 「에베레스트」산정을 정복한 「마르니」의 말도 있다. 「당신은 왜 산에 오릅니까」 「나는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라는 대답이었다——.

이것을 탐험정신, 개척정신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의 타입, 가장 소중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정신의 범위를 타연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 × ×

아무리 같은 정신이라도 슬픈 사람에겐 슬픈 모습으로, 즐거운 사람에겐 즐거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철인 「스피노자」의 말처럼 모든 정신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정신의 정의를 살피려 볼 때 일반적으로 마음이나 생각을 총망라하며, 철학적으로는 지성적이며 능동적으로 목적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말한다. 외국어에서는 정신을 다양하게 설명한다.

“Spirit” “Mind” “Soul” “Mental” 등 그 사용이나 해당되는 범위가 꺾이나 복잡스럽다.

아름다운 「정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이나 뜻이 공통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육체, 영혼, 지성, 목적 등을 설명할 때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고 지나야 할 것은 정신과 대립되는 것이 물질이라는 점이다. 또, 물질과 정신은 항상 상호보완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그 선도적 역할은 언제나 정신적 측면에서 맡아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신은 모든 인간활동의 동기와 추진된다는 점에서 물질보다는 다른 그 특징이 있다.

정신의 최대목표를 어떤 물량적인 형태로 표시할 수는 없고, 추상적인 사유의 방향과 행동규범으로 밖에는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정신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그 목표가 될과 동시에 인간행동의 규범이 생활화 될 때 정신적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정신의 함양은 결국 가치관의 척도가 되고, 이것을 작게는 올바른 개인의 주관, 인생관으로, 크게는 국가관·민족관·역사관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가름하여 준다.

무엇이 가치있는 것이냐?

어떻게 옳게 판단하고,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답도 곧 정신의 척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어떠한 인간의 움직임에도 정신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값어치가 없다!는 옛사람의 소의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 × ×

군인에게도 정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군인정신이다. 군인복무규율 제 2장 4조 3항에는 군인정신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즉『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입전무퇴의 기상을 견지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따라서 군인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군인의 본분을 명심하여 철저한 군인정신을 함양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군인은 국가정신력의 중추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때문에 군인정신의 형성이 필요하고 문화가 변하고, 주변의 정세가 변하고, 이때올로기가 변하여도 군인정신은 국가와 함께 핵심을 짚는 것이어야 한다.

마치 정신의 정의와도 같이 꿰뚫는 예지, 장기적인 안목,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과 함께 하는 철두철미한 군인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인은 국가의 생명이다. 실령 지휘

관이나 상관이 바뀌어도 또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정비된 군인정신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몸바치는 군인의 상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 × ×

배가 풍랑에 휩싸여 기울어지고 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고 있지만, 배는 이미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구명보트를 내려 10명 정도만이 옮겨 타고 아우성치는 무리로부터 구출되어야 하는 위기가 왔다. 이때 선장은 결단을 내린다. 체력이 가장 좋은 승객 몇명과 배에서 가르던 개를 태운다. 정원 10명이 채워지고 구출되어 가는 것이다. 개 1마리 때문에 인간 하나가 죽어야 한다는 비리(非理)는 사실상 정당화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언제 구조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식량없는 조그마한 보트에서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면 개 한 마리는 가장 좋은 식량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구세주로 승화된다.

× × ×

이야기는 대강 이렇다. 이 상황에서 선장의 예지, 미래를 보는 눈, 위기를 극복하는 구세주의 역할, 이것이 바로 군인정신이 확립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신뢰감이다. 국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충성·용기·신념·기상을 견지

하는 정신, 죽음을 무릅쓰는 정신, 본분을 다하려는 의지 등 모든 정신의 요소가 행동으로 승화되었을 때의 군인의 참모습이다.

그 곳에는 사리사욕이나, 이율배반이나 부정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지탄 받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실상 인간의 삶의 대가는 자기 중심이었다. 자기 중심은 욕망, 탐욕, 소망 등을 최대한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드려는 무서운 다름을 강요한다. 그 쟁탈전은 분쟁을 초래하고, 분쟁은 범죄적 폭력행태를 취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개인의 주체성, 독자성, 창조성을 말살시킨다.

이러한 정신풍토, 사회풍토에서는 관용보다는 비판용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 당연한 지탄을 받게 된다.

「大學」의 「正心章」에도
 心有所好惡則 不得其正하고,
 心有所恐懼則 不得其正하며,
 心有所忿懣則 不得其正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곧 마음에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바른 것을 얻을 수 없고, 두려움이나 분한 것이 있으면 또한 바른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뜻으로서 이중성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결과도 바랄 수 없다는 말인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근간이 바로 군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 × ×

지금까지 군에서는 정훈교육이나 인격교육을 통하여 군인정신의 주입을 위해 매우 많은 비중과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여 왔다. 그 범위는 대강 전우애와 희생정신, 용기와 책임, 명예와 긍지, 명령과 복종, 솔선수범, 상경하애 등으로서 이것을 주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보다는 후회가, 영광보다는 불명예가 점철된 슬픈 군인정신의 기록이 더 많았을 지도 모른다.

또한 전군 이래 선배들로부터 확립된 정신적 유산을 별로 받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제라도 막연하고 피상적이었던 군인정신의 제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롭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언제나 한탄만 했던 과거지사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릇 군인정신에 무감각하며, 해야 할 사명에 무관심하고, 또 자기 행동에 무책임하는 그 군인, 그 병영생활, 그 군대의 앞날은 어둡고 비극적일 수 밖에 없다. 동적인 정신요소보다, 생산적인 정신요소보다 활기를 더우는 저해 요소

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유일한 방법으로서로는 침체되는 군인정신을 바로 잡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새 정신교육의 집행에 있다.

군인정신이 침체되고 책임윤리의식이 희박하여 군의 위신이, 군의 기강이, 군의 질서가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군의 교육이 큰 문제점과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게르만」민족의 국력신장을 위한 불굴의 집념을 배워야 하겠으며, 그 집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정신교육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확고한 가치관을 승화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는 언제 쓰러질지도 모른다. 우리 군인도 「아래로부터」 튼튼하고도 집진적인 정신교육이 이루어질 때 바로소 군인정신은 어떠한 내외의 시련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 × ×

원래 민주사회는 무엇보다도 합리적 정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민주군대는 세련된 정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래를 지향하여 줄곧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타성화된 현실에 안주하려는 비판적인 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합리

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합리적 정신의 임무는 사회나 병영의 전진한 발전을 저해하는 여타가지 요소들 인식하고, 반성하면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비판하에 보다 나은 병영생활을 위해 정신을 계발하여 습관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건이다.

형벌의 이론에도 범죄의 요건에는 「기대가능성」이라는 이론이 있다. 즉 어떤 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행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 성립된다면 그것은 범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정신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신에 기인하는 현실의 직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리적 정신과 투철한 책임감을 가질 때 민주군대의 토대는 굳건하게 마련되는 것이다.

편견과 불신, 형식에 집착하는 전통주의적 사고방식, 자기주장의 절대화, 감정적 융화라는 미명하에 억압과 배타 등 정확한 정신의 근간을 저해하는 요소들 과감하게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지위와 명예를 걸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결고 나서는 것이다. 이와같은 의식이 있을 때 그 곳엔 엄숙함과 존경함이 있다. 민주군대란 바로 이러한 정신적인 자각분자들로서 구성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 × ×

이제 군인정신의 확립을 위한 문제를 생각해 보자.

「오르는 산은 오르지 않는 산보다 더 높다」 군인정신도 마찬가지다. 더 좋은 정신계발을 위해 높은 이상을 향할 때 그 곳엔 승화가 있을 뿐이다.

국가와, 현실인 군대와, 해야 할 당위성 속에서 보다 긍정적인 차원을 생각할 때 그 곳엔 발전이 있을 뿐이다.

군인정신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에 우리의 Focus를 맞추어야 한다.

몇 가지 정신의 흐름을 알아.

1. 정신의 열음(Open)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사회적 동물일 수 있는 것은 정신이 있고, 행동의 제약이 있고, 결단이 있는데 있다. 실존철학자는 「인간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리고 보고, 알고 결과를 찾는데 있으며 그 안에 정신의 전진이 있다」고 말한다. 실로 그 순간에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순간, 역사와 현실적 의무를 자각하는 순간, 병역과 군복무가

인식되고 복무의무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자신에게만 고찰되었던 정신세계를 원하게 열므로서만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생활에 보람을 찾고, 이것이 무슨 정신이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의 특징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군 정신교육의 최종목적도 막혔던 개인중심의 사고방식을 계발함으로써 공동목표, 사명의식, 행동지침을 주입시키려는데 있었다. 이념과 사상을 극복하고, 지휘통솔하고 모든 문제들 인식시키는데 있었던 것이다.

「문은 늘 열려 있는 것만은 아니다.」 다시 기회를 잃기 전에 우리는, 특히 군인정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닫혀져 있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인간의 위대성은 오로지 현실에 충실하는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이나 현실, 체제에 용감히 왕복함으로써 확고한 정신을 근간으로 대의를 위해 화강암, 철강과도 같이 강하고 냉철한 의지를 현실화시키는데 있다.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려는 외유내강의 자세가 필요하다.

2. 정신의 뱀(Issue)

지금까지의 인간은, 그리고 군인은 대부분 생이나, 의무를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살리워졌

다」 또 가치문제에까지도 가장 상위가치인 정신적 가치보다도 쾌락가치, 경제가치, 문명가치 등에만 집중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의 진로를 자기의 가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실정이다. 그러기 위해선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신을 맛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왕에 군복무를 하고 있으니 까 해야 할 당위성과 하지 않으면 못건딜 새로운 정신적 혁명이 있어야 한다.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의 뜻과도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버리는 정신의 펄 가치를 찾아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기 의식이다. 계급, 지위, 특기에 대한 확실한 정의 파악이다. 여기에 교만이나 자만, 열등의식 등은 자기 기만이며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능력이나 인내력에 대한 자기 평가절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모순이나 불쾌를 자아낼 수도 있다. “E. Fromm”의 말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의 매매시장에 내놓고 확실한 표준치를 설정한 후 자기 능력을 평가하라』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3. 정신의 함(Act)

「호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호르지 않는 물이란 웅덩이에 고여 병균이 서식하고 쓰여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호르는 물은 언제나 맑고 새롭다」 썩을 거름이 없는 것이다. 비단 물만이 아니다. 정신상태도 마찬가지다. 정지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고 죽어가는 것이다.

우리들이 아는 지식, 견해, 비평도 행동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근대 정신은 행동하고, 고발하고 꿈틀하는데 그 특징이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군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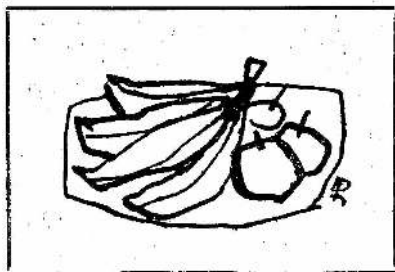
군인정신이 옛날모습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고집과, 배타와 독선과, 나태와 고립이 되고 말 것이다. 「베르그송」의 말대로 『아는 정신을 그대로 행동화시키며 사색인으로서 행동하고 행동인으로서 사색하는 정신』을 가져야 하겠다.

『어떠한 행동을 갖지 않는 행동은 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몽상이다』라고 한 Martin의 이야기.

『모든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은 물론 정신상태를 깨닫는 날이다』라고 한 Hilty의 이야기와 같이 군인정신은 행동화되어야 한다. 걸철된 역사와 전통을 심어야 한다.

군인정신 확립

장 석 준



[1]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인간 정신의 우수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라. 예로부터 인간의 정신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시되어 왔고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어떤 것보다도 넓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문학과 예술의 심소함과 위대함도 정신의 산물이고, 종교의 거룩한 힘도 인간정신의 결정(結晶)이라 하면 과한 표현일까?

사전을 찾아보면 「정신」이란 「물질이나 육체에 대하여 마음이나 생각」 또는

「지성적 이성적인 능동적 목적의식적인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정신은 인간의 육체라는 실체가 생명을 갖는 활력소이며, 한 가정, 사회, 국가 또는 역사가 생성하고 그 뜻을 실현케 하는 원동력 내지 추진력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精神一到何事不成이라는 말이 있고, 또 뉴프론티어 「정신」은 케네디 대통령을 위대하게 했으며, 대한민국은 「숭고한 3.1정신과 4.19의 거 및 5.16혁명정신」에 의해 오늘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신을 무시한 적은 없다.

[2]

군인정신도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임은 분명하다. 인간이 「군인」이란 특수한 신분과 임무를 지녔을 때 그 지위에 상응하는 정신세계를 일컫는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정신의 모체는 인간정신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그 범위

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가치있는 인간정신에 투철한 군인은 훌륭한 군인정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군인은 전쟁을 상정(想定)하여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며, 생사를 가름하는 전투에서 그 전면목이 나타나는 것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정신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즉 인간정신의 여러 요소를 서열화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서열의 군인정신에서는 약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승의 신념」이나 「왕성한 공격정신」은 군인정신의 차원에서는 가장 우위에 두어야 할 것이나 가정이나 일반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전적필살(見敵必殺)의 정신이 일반사회에게 필수적이라고 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의 정도는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대개의 경우 가치있는 인간정신의 요소는 훌륭한 군인정신을 이룬다. 인격이라고 표현되는 인간정신의 수준은 군인에게도 너무나 바람직한 것이며 또 전우에는 우정과 그 정신이 서로 통하는 것이다. 희생정신과 명예심도 마찬가지다. 그러기 때문에 흔히들 군인이기 전에 참다운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 지도 모른다.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오랫동안 지휘관 생활을 한

분들의 회고담 속에 「훌륭한 군인은 역시 훌륭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인정신을 논할 때에 항상 「인간적 정신」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군인정신을 기화로 「비인간적 정신」의 강요를 삼가야 될 것이다. 즉 인간적 정신은 군인정신의 척도요 표준이라 할 수 있다.

(3)

군인복무규율을 보면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군인은 명예심을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을 견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고, 따라서 군인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군인의 본분을 명심하여 철저한 군인정신을 함양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군인정신의 요소로서 ① 명예 ② 충성심 ③ 진정한 용기 ④ 필승의 신념 ⑤ 임전무퇴의 기상 ⑥ 책임감 등의 6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이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 6개항 설명은 김 유혁 저 「정신교육강좌」에서 인용).

첫째, 명예라는 것은 개인의 직업 또는 그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인

식기준에 상응할 수 있는 명성인데 명예의 관념을 배양하는 도덕적인 소지는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사회정의에 대한 의무감을 높이 가지는 일이다.

둘째, 충성심은 자신이 소속하는 주권에 대하여 진실으로 무단히 헌신하려는 불변의 관념인데 이는 국가에 대한 대의 앞에서 자아의식을 초월하는 마음가짐이다.

세째, 필승의 신념은 싸워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의지와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의심없이 굳게 믿는 정신자세이다. 그러므로, 신념은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 하지 않는 상위차원에서 그 태도를 지배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네째, 책임은 안으로는 양심에 대하여 충직하고, 밖으로는 사회에 대하여 심력을 다하는 것인데 책임관념은 자신의 역할과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이해를 갖는 데서 생성한다. 그러므로 책임관념을 배양할 수 있는 바탕은 사실판단에 필요한 상식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사실을 보다 올바르게 판단하여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이라는 것을 판별 단행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아울러 갖추어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자질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자신의 책임범위는 자신의 권위범위와 일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법적책임 범위보다는 직무에 수반되는 책임범위가 더 크며 또한 도의적 책임범위는 직무에 관한 책임범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섯째, 용기는 위협이나 곤란에 직면하였을 때 그를 피하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자기 통제력을 말한다. 그런데 용기는 정신적인 용기와 육체적인 용기로 양면성을 띠는데, 위협 극복의 마음의 결단만으로서서는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없다. 결심과 함께 육체적인 행동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는 언제나 행동적인 일면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임전무퇴의 기상은 군인으로서 체득한 불요불굴의 기질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몸가짐으로써 이와같은 기본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내재적 요건이 건전히 갖추어졌어야 함은 물론, 굳건한 심신단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군인정신의 요소들 개관한 바, 이것으로써 군인정신의 전모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인간 정신은 본래 불가분적 내지 포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할진대,

이상의 6개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야 할 비로소 참다운 군인정신이 형성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하나 혹은 둘만 갖추어져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즉 충성심만 있으면 용기와 임전무퇴의 기상 등의 다른 요소는 자연히 갖추어지느냐? 또 책임감이 왕성하면 명예심이나 필승의 신념이 저절로 생기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일의적(一義的)으로 답할 성질이 못된다. 본래 인간의 정신영역은 제 요소가 상통하지만,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도 흔히 있다. 좀 어색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새로운 과목을 배우게 되어도 대개의 경우 잘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학과 물리는 잘 하나 화학에는 뒤떨어진다는지, 가정에서는 착실하나 학교에 가면 불량학생이라는 말을 듣는 일이 흔히 있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여하튼 이들 군인정신의 요소는 일면에서는 서로 상통하나, 다른 면에서 별개의 작용을 한다. 따라서 군인정신의 요소 상호간 균형을 이루며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상의 6가지 요소들은 군인을 독립개체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개개 군인의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문제이다.

군인도 어디까지나 군대라는 집단의 일성원이며, 역사적 현실적 존재이다. 군인의 힘은 군대 전체 속에서 「합·획」을 이룰 때에 비로소 전력화되는 것이다. 집단구성원의 차원에서 역사적 현실적 존재로 볼 때에 위에서 열거한 군인정신의 요소에, 집단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과 그 존재의 의의 내지 목적과 일치하는 요소가 더 첨가되어야 한다.

전자가 단결의 요소로서 협동심, 전우애 및 희생정신이며 후자는 시국관 내지 국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심, 전우애 및 희생정신 등의 단결요소는 「군인정신」을 「군대정신」으로 승화시킴이 시국관 내지 국가관의 확립은 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고 전략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한다.

이 점에서 우리가 국제정세를 알아야 하며, 남북접촉 등의 일련의 사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4)

이상에서 우리는 군인정신의 확립을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군인정신의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제 군인정신의 확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물음에 답해야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정신을 고취하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실전과 같은 강인한 훈련, 엄정한 군기의 유지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이는 지당하다. 지금까지 대개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취하여 왔고 또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함께 사회풍조는 극도로 변하였고, 이러한 풍조 속에 기성체제에 반발을 느끼며 체제를 벗어나려는 감정과 목적의식 없이 행동하는 것이 현대 젊은이의 일 특징이라 할 때, 구성원의 대부분이 이들로 되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지난 20여년 동안 실전없는 평시 속에서 군인 「되있음」을 현실적 직업관념에서 일종의 생계수단시하고 있다면 역시 군인정신 확립을 위하여 새로운 면에서 검토되고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방향을 바꾸어 전향에서 기술한 군인정신의 요소를 살펴보자. 이들은 모두 국가적, 사회적 혹은 군대적 차원에서 개개 군인이라는 「인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들이 개인이 군대 혹은 사회나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과 일치 내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반드시 그렇다고는 대답하기 힘들다. 이점에서 개개 군인의 경우, 인간적 차원과 그보다 상위의 가치관 사회에 모순과 갈등을 느끼게 된다. 공군은 비록 지원제라 할지라도 군복무 자체에 열증을 느껴 원초적 문제에서 갈등하는 장병도 있을 것이며, 현재 군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생활에 불만과 불안을 느낄지도 있을 수 있고, 전역과 사회와의 연결문제 또는 진급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자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이 개개 군인에게 있어서 군인정신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군기위해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상위 차원에서 개개 장병에게 요구되는 것과 개인이 상위차원에 요구되는 것이 주관적 객관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군인정신을 고취하고 정병강군을 육성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길은 두 가지 면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외부적인 객관적 해결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내부의 주관적인 자기 자신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전자는 우리나라 현 실정상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는 보다 정책적인 문제이나 후자는 개개 장병의 의식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개

인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토록 하는 것이다. 갈등 속에서 긍정을 찾으며 자아(自我)를 실현하는 것이다. 개인과 전체를 조화시키며 자아를 확대하여 나가는 「현대적 인간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구체적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는 않으나, 마침내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금 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 2전력사업의 일, 활동과제로 사명감의 자각을 선정한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각」 즉 자율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 「자각」도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자각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로부터의 스스로 느끼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 자제로서 이루어진 민주군대의 참다운 군인정신이 형성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민주군대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5)

이상의 정신을 기조로 할 때 전향 서투에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반복적인 교육과 실천과 같은 감인한 훈련 및 엄정한 군기의 유지 등이 군인정신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부언한다.

믿거나·말거나

◇ 월광으로 가벼워지는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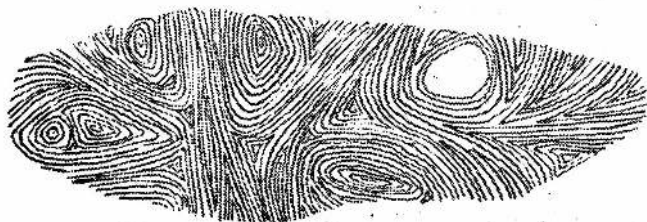
어떤 배라도 달이 밝은 밤보다 한낮이 무겁다. 달이 배에 미치는 인력은, 달이 물에 미치는 인력보다는 훨씬 크다. 그 결과 배의 배수량이 감해지는 것이다.

◇ 만월과 반월

만월은 반월의 아홉배나 밝다. 반달이 되었을 때 보이는 달의 부분은 구름이 많고 울퉁불퉁해서 보름달의 9분의 1의 빛 밖에 반사하지 못한다.

- 본 논문은 공규 14-36(72. 9. 10.)으로 하달.....
-된 공본 제2전력위원회 및 예하부대 정병 지도.....
-위원회의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의 내용 및 실천.....
-방법,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회무계획 및 실천.....
-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장병들로 하여금 정병.....
-지도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키고자 함.....

정병지도업무의 추진방향



홍 종 도

— 서 론 —

타의에 의한 분단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는 분단 27년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어렵고, 고된 유형 무형의 전쟁을 치루어 왔다.

71년 12월엔 북한의 결정적인 침략의 야욕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국가비상사태령을 선포하였고, 군은 긴장 속에서 적의 기습, 도발에 대비한 입전태세완비와 전력의 내실화를 위한 정예화 작업에 주야를 가리지않았다.

또한 지난 7월 4일에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로 어렵고, 긴장된 대화의 길이 열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 분야에서 경쟁과 대결로 표면적인 평화존속의 길은 열려 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강력

한 군사력의 뒷받침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아도 역사상 최초의 평화 공존 무드로 분단국의 재결합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으나, 미국, 일본, 소련, 중공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정세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어려운 여건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비교한 독일은 그들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면 주위의 약소국이 당장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한반도의 충돌로 인하여 강대국간의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강대국간에도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나, 분단된 남북간의 통일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이념과 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통일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은 것이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통일의 길을 열어 민족의 염원을 성취하겠다는 비장한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고, 적십자 회담과 차원 높은 남북 조절위의 회의를 진행시켰으며, 아울러 역사적인 10월유신으로 민족의 생존과 번영,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 자기의 주권과 국토를 지킬 힘이 없는 민족은 그 민족 자체의 존속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냉혹한 국제 정세를 보아 온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질게 물든 교활한 북한과의 어렵고 험한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니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군의 정예화를 기하며, 민주 군대의 이념과 사상으로 충일된 제2전력을 극대화한 정병 지도책의 강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에서는 금년초부터 정예 공군 육성을 위한 정병 지도 업무를 개발하여 정신 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제2전력의 구현과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규 14-36(72. 9. 10.)으로 규정화된 「공본 제2전력 위원회」와 「예하부대 정병 지도 위원회」는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본 론 —

공군 정신전력 향상을 위하여 군 및 단위부대의 지휘 관리에 있어서 정신전력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와 활동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연구 개발하며 관계 참모간의 조정 및 협조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참모총장 또는 각 부대장을 보좌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군본부 제2전력 위원회와 예하부대 정병 지도 위원회가 발족되어 공군 장병 및 군속에 대한 정신전력 부분의 개발과 정신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관련되는 인간관계, 생활환경, 윤리 도덕 문제, 사회성 문제, 복지 시설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망라한 정병 지도 업무를 어떻게 계획 실천하며,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병 지도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각급 부대의 실정은 어떠한가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로, 각급 지휘관이 정신전력 강화에 대해서 미온적인 관심 또는 경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부대 지휘관은 작전에 직접 관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신전력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소외하는 경향이 많다.

즉 눈에 보이며, 그 성과와 실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분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작전 임무를 띠고 있는 항공기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파손된 경위와 원인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사고의 요인을 파악하여 정비 및 운용에 철저한 주의와 관심을 환기시키며, 파손된 것의 복구를 위해 철야 작업을 지시하여 원상 복구를 최단시간 내에 완성하며, 우수한 정비사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평가 자체가 파손된 항공기가 제 모습을 찾고,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지만 그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의 열의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려는 정비사의 정신 자세에 대한 평가는 없으며, 장병이 근무 이탈, 혹은 군기 사고를 범했을 때, 그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따르고 처벌에 대한 공포로 장병에 대한 경각심만을 환기시키지 그 장병이 사고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의 미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범법자에 대한 처리는 그에 적절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건을 일단락짓는데 그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고를 저지르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문제와 군대 사회에 관한 문제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휘관이 보다 관심을 가져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사전 선도와 계몽, 교육과 순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정신적인 문제와 정신전력 향상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 또는 경시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둘째로, 정병 지도를 위한 참모 협조가 미약하다.

장병들의 정신 무장 강화와 정신전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예하부대의 정병 지도 담당관 또는 정훈 참모가 업무를 수행하는데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작전분야 경우는 하나의 작전계획 일환으로 부대 임무를 중지하면서까지 그 분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정신분야의 교육과 행사는 지휘관 및 참모의 이해 부족과 협조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도 교육 참석이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여 사역병을 차출하여 보내듯이, 교육 때마다 고정적인 인원, 동일 인물이 참석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인원이 문서상으로만 교육에 참가하여 표면적인 성과에 있어서는 양호하다는 실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향에서 기술했듯이 지휘관의 무관심과 참모 협조의 미약, 정신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나타나는 각급 부대의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세째로, 지휘관의 편견 또는 독선으로 인하여 부대 지휘관과 말단 사병에 이르는 인화단결과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부대 지휘관, 혹은 오랫동안 군복무를 필한 장병들은 그 성격 자체와 생활방식이 군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또 그것이 정상적이겠지만, 불과 3년 내지 4년간 군복무를 필하고 나가게 되는 장병들에게 있어서는 개성 및 생활습성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정신적 계도가 없이 일방적인 자세에서 명령에 대한 복종만을 요구하게 된다면, 간혹 부조리하고 불협화음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상의 하달이 말단까지 미치지 못하고, 지휘 관리상 불필요한 불평 불만과 군 작전 및 기강 확립에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각급 부대의 모순을 해결하여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의 형성과 자발적이며, 사명감에 충일된 군 기본자세를 확립하여 제 2전력을 극대화하며, 정예 공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본 제2전력 위원회와 예하부대 정병 지도 위원회를 발족시켜 다음의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면 공규 14-36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고, 그 기능에 따른 예하부대 정병 지도 위원회가 업무의 내용을 어떻게 세분하며,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공본 제 2전력 위원회

공군 장병 및 군속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전력 강화에 대하여 업무의 계획, 검토, 심사, 지시를 담당하며 아래 업무를 한다.

가: —공군력 증진을 위한 정신전력, 전기 기술 및 제도운영면의 제반 사

항을 분석 검토하여 필요한 개선책을 협의 건의하며,

나 :—정신전력 증진을 위해 군제도, 규범, 관습, 기풍 등의 여건을 관찰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인의 검토 및 개선책을 강구하고,

다 :—정신전력에 관련된 국가정책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할 소지의 마련 및 검토 평가하며,

라 :—정신 교육의 강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연구 협의하고,

마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전 부대의 생활 환경과 활동 상황의 개선책을 강구 및 연구 발전시키며,

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사 :—일체감의 형성과 사명감의 고취 및 생활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며,

아 :—위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각 부대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책 사항에 관해서 심의 지원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즉 공군본부 제 2전력 위원회는 정신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및 방향만을 제시하고, 예하부대에서의 집행에 관한 감독 및 난점에 대한 심의와 협의로서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예하 부대 정병 지도 위원회

이에 따라 예하 부대의 정병 지도 위원회에서 처리될 업무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신전력에 관련되는 지휘관리상의 모든 제도, 규범, 기풍, 관습 등의 여건을 관찰 분석하고, 문제 요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개선책을 강구한다.

1) —병영 생활의 제도 및 규범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책을 강구한다.

2)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 관계 개선 업무

3) —각종 예식, 사제, 복제에 관한 정신적 요인상의 문제

4)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적 지도책의 연구 개발

5) —자발적 참여의 자세 확립을 위한 사명감의 고취와 생활화시키는 문제

6) —일체감 형성을 위한 발전책과 저해 요인의 분석 및 대책 강구

7) —각종 기술향상을 위한 발전책과 저해 요인의 분석 및 대비책 강구

8) —군 기강을 저해케 하는 관습 및 심리적 요인에 대한 시정, 지도책의 연구 개발

나: —복무 의욕 증진을 위한 사기 양양책을 연구 개발한다.

1) —내무 생활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업무

2) —상담, 지도 활동을 통한 문제 사병의 다각적인 파악으로 정신적 요인에 의한 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3) —체육 활동, 여가 선용의 장려 및 향상에 관한 업무

4) —내무 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발전 업무

다: —복지 증진, 생활 환경 개선책 강구

라: —공군 및 당해 부대 구성원으로서의 전통 의식을 부식시키는데 대한 사항

마: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각종 활동 사항

바: —합리적인 인사 관리 향상을 위한 연구 등으로 예하 부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병 지도 위원회는 정신전력의 증진을 위해 군제도, 규범, 관습, 기풍 등의 여건을 관찰,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군 전력 향상의 저해 요소를 제거, 개선하며, 군 기강을 쇄신하고, 검소한 생활 기풍을 조성하며, 병영 생활의 명랑화와 가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군 전력 향상의 저해 요소를 제거 개선

가: —인사 관리의 공정 및 저지 적소에 배속

나: —임무 및 책임 완수의 자세 확립

다:—상호 존중 및 자발적 참여의식 고취

라:—특권의식 제거

마:—무사 안일주의 배격

바:—유신 과업 및 정예 공군 육성의 사명감 고취

사:—정신 및 사상 교육의 철저

아:—일사분란한 지휘 체제 형성 등과 같이 지휘 관리면에서의 철저와 각종 임무와 작전에 임할 수 있는 정신자세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서 이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정병 지도 위원회에서 검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2. 군 기강 쇄신에 관한 업무

가:—준법 정신 양양

나:—언어 순화

다:—각종 청탁 행위 근절

라:—사생활의 절제

마:—퇴폐 풍조 일소

바:—업무의 신속 처리

사:—군폐 및 직권 남용 금지

아:—모든 시간 엄수

자:—용의 단정

차:—사제 복장 착용 금지

카:—경례 준기 확립

타:—직무 준기 확립 등 군인 기본 정신 함양과 실권을 위한 제반 업무를 정병 지도 위원회에서 검토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3. 검소한 생활 기풍 조성 업무

가:—허폐허식 일소

나:—행정 간소화

- 다:—예산 및 물자 절약(폐품 재활용)
- 라:—각종 행사의 간소화(대대단위 이취입식 제도 폐지)
- 마:—각종 당번제 재검토
- 바:—사무실 내의 화려한 장치 일소(음접세트, 차, 화려한 명패 등)
- 사:—무리한 회식 금지
- 아:—의태품 사용 금지
- 자:—소형차내 장식 금지 등 새마을 운동 정신과 서정 채신을 위한 각종 활동에 위배되는 요소를 찾아 근본 요인에서부터 시정 및 제도해야 한다.

4. 내무생활 향상 및 병영 생활의 향상을 위한 제반 업무

- 가:—정훈조 운영 재검토
- 나:—구타 및 기합의 근절
- 다:—사적 제제 근절
- 라:—불필요한 집합 및 사역 금지
- 마:—휴가 외출의 공정 실시
- 바:—부당한 지시 일소
- 사:—금품 약탈 금지
- 아:—보급품의 적시 정량 보급
- 자:—급식의 향상
- 차:—복지 시설의 확장
- 카:—체육 및 오락시설 확보
- 타:—문제 사병의 보호와 선도
- 파:—여가 선용을 위한 제반 조치 등 병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개선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제반 업무를 연구 실천한다.

5. 제도, 규범, 교육의 개선 문제

- 가:—정훈조 운영의 규정화
- 나:—불필요한 규정의 폐지

다: —내무생활 규정의 조정

라: —정신 교육 요원 명령화

마: —정병 지도 요원에 대한 인사 명령 및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정병 지도 업무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병 지도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모든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지난 9월 10일 공규 14—36으로 정병 지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이 하달되자 과거 인사 분야에서 담당하던 제반 업무를 정훈분야에서 인수받아 업무를 시작했다.

정병 지도 위원회에서 실천하게 되는 제반 업무는 정훈 참모가 통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참모 부서의 기본적인 업무는 당해 참모부서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훈 참모가 이를 종합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즉 한 문제점에 대해서 당해 참모가 정병 지도 위원회에 건의하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 참모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문제점의 해결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장병의 복지 향상과 사기 및 정신전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정훈 참모를 경유,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업무가 원활하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문제점에 따르는 몇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예; 문제 사병 선도 위원회).

둘째: —지휘관 참모 및 상급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실천에 모범을 보이며

셋째: —지시와 강요에 앞서서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조성하고,

넷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점 제시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이고, 생활면을 통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다섯째 :—억압과 명령보다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하며

여섯째 :—주관 참모에게만 과중하게 업무를 맡기지 말고, 전 참모부서의 기본 업무 분할과 협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곱째 :—장병들에게 사명감과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주를 설정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장병들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단계적으로 한 가지씩 봄을 조성시키는 방법이다.

1) 군기 확립 우수 부대

2) 언어 순화 우수 부대

3) 정훈조 모범 운영 부대 등의 역사와 전통 의식을 자극하여 장병으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여론을 형성시키는 것이며,

둘째 :—지휘관 참모 및 정병 지도 요원들의 꾸준한 교육과 설득으로 이 해시켜 장병들로부터 실천케 하며,

셋째 :—구체적인 사례 및 실천 지침을 제시하여 기간 조직 구성 단위로 부터 실천되어 총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며,

네째 :—지휘관 참모 및 상급자들로부터 장기적 계획으로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급자들이 스스로 따르게 하는 방법 등이다.

— 결 론 —

이상에서 열거한 정병 지도 업무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다.

이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첫째로 :—기존 지휘 관리 및 장병들의 정신전력 향상에 저해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 분석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장병들의 병영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둘째로는: —이에 따라 정신전력을 강화한 제2전력의 극대화를 꾀하여 공군의 전력 증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몽 선도되어 자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로는: —지금까지의 구습과 퇴폐풍조를 일소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여 장병 정신 재무장을 강화하여 10월유신 정신에 부합되도록 제도함으로써 국가 시책과 10월유신의 실천에 모범을 보여 공군 정예화를 이루어 4대 군사 노선의 성공으로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김 일성 유일사상에 의한 강력한 정신 교육과 군사력을 뒷받침한 북한과의 대화 있는 대결에서 사상 및 군사력의 정예화로 일단 유사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신전력의 함양으로 최후의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공군 정예화 작업에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자립의 의욕이 용솨음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에 가득차 있다. 이 의욕과 자신은 정녕 우리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우리의 값진 소취이며 재산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의욕과 자신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인 것이다.

◇ 우리는 한 말의 씨앗을 한 줍씩 미리 나누어 먹는 조급과 무지보다도, 이것을 심어 열섬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인내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 매말랐던 눈에 물줄기를 대었다고 해서, 당장 바닥난 눈에 물이 풀고루 될 수도 없다.

— 1967. 연두교서에서 —

로버트 깬스버어프 소장

미 공군 재향군인회 총회 연설문

박 계 춘 역

- ◆.....다음은 1972년 9월 18일 공군 재향군인총회.....◆
- ◆.....의 개회사에서 행한 미 공군성 정훈국장인.....◆
- ◆.....Robert Ginsburgh(로버트 깬스버어프)소.....◆
- ◆.....장의 연설문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실>.....◆

오늘날 공군은 지난 7년 동안의 경우처럼 동남아시아 상공의 전투에서 실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과정에서 항공력의 비효과성에 관하여 구구한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을 고찰해 보면 우리는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또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항공력의 비효과성에 관한 구구한 의문을 고찰해 보는 대신 동남아시아 항공전에서 당면한 6가지의 현실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항공력은 그 자체만 갖고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거나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나 한국전(6.25)에서의 폭격작전을 회고해 볼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항공력을 가능한 한 결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맹에 대한 1965년부터 1968년간의 항공작전의 목표는 제한된 것이었다는 것이 현실임

니다. 제한된 목표들의 끝자리를 보면,

① 적의 성역을 부정함으로써 우리의 전투병력과 우리의 우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② 1954년과 1962년의 「제네바」협정을 악랄하게 위반한 월맹에 대한 형벌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③ 월맹으로부터의 인원과 물자의 유입을 제한시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그 댓가를 크게 강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목표들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습니다. 월맹에서의 항공작전은 우리의 전투병력을 지원해 주었으며, 적에게 성역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분명히 월맹은 그들의 침략에 대하여 막중한 댓가를 지불해야 했으며 우리는 그들의 산업시설, 유통저장시설, 발전능력을 파괴하고 전쟁물자와 식량유입 소요량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인력자원을 그들의 병참선을 유지, 보수하는데 전용케 함으로써 월맹에게 그들의 침투 댓가를 실질적으로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두번째 현실은 지상군의 월남화 정책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월맹이 월남을 대거 침공했을 때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즉 대체로 일차적인 반격 후 주월미군은 549,000명에서 36,000명으로 감축되고 주월미군 전투병력이 완전 철수했음에도 월남육군은 이 대단히 어려운 악조건하에서 무사히 잘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번째 현실은 증강된 월남공군의 효과를 개선함으로써 현저히 월남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1968년 3월부터 1972년 3월 사이에 18개 대대의 400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던 월남공군은 45개 대대의 1,100대 항공기로 증강되었으며 이러한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971년에 월남은 월남 내 항공작전의 대부분을 인수했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는 아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맹군의

대거침공 한달전 1972년 3월까지 미 공군 전술 항공대대는 1968년의 최고 41개 대대에서 15개 대대로 감축되었습니다. 3월까지의 월남공군은 월남 내 출격횟수의 90%를 담당했습니다. 그 때 이후로 미군의 항공작전은 불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월남공군은 아직도 월남 내의 전술 항공작전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월맹은 월남의 이러한 전투능력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미군병력의 감축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부활제를 기해 공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든 월남 군사력의 성장에도 놀란 것입니다.

네번째 현실은 지난 부활제 주간 동안의 월맹군 공격에 대비하여 항공모함의 소속 전투기를 포함한 전술 전투기가 잠정적으로 400대에서 800대로 증강시킬 수 있었던 항공력이 보유한 그 특유한 융통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B-52 전폭기는 전체 B-52 함대의 반 가량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공군 전술전투기들은 「푸르티다」에서 Non-stop으로 공중연료보급을 받으면서 「하와이」로,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지나」반도로도 비행해 왔던 것입니다.

「뉴멕시코」의 공군 「팬텀」기 부대는 「알라모 고르도」(Alamogordo)를 떠난지 72시간만에 동남아시아에서 전투준비를 완료했던 것입니다. B-52를 포함하는 미 본토에 기지를 둔 다른 항공기부대들도 태평양을 건넌고 공격절정 후 수시간 내에 월맹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맹이 부활제 주간의 공격을 시작한 후 3일도 못가서 18대의 미 공군 「팬텀」기가 「다낭」의 미 공군을 증강시키기 위해 현지에 도착했으며 해병대 「팬텀」기도 「다낭」에 배치되었습니다.

4월달이 지나기 전에 베트남 해안을 순항하던 항공모함의 공군력은 갑자기 증가되었습니다. 3월 한달 동안 매일 평균 군함에 정박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2대였으나 4월달에는 3대 이상 5월말까지는 4대로 증가했습니다.

다섯번째 현실은 소위 “Linebacker”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대 월맹 항공작전과 1965~68년 기간의 “The Rolling Thunder”작전간의 중대

한 차이점을 주목함으로써 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월맹이 그 수입의 85%를 의존하고 있던 항공기가 기뢰로 봉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뢰는 또한 월맹의 해안 교통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조직적이고 재빠른 후방차단 작전이 북부국경으로 연결하는 「하노이」의 북동 및 북서쪽에 대한 교통망에도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The Rolling Thunder” 작전 기간 중에(그러나 그 기간도 더 연장되었음) 이러한 많은 목표물에 대해 성공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상 교통망과 내부수로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은 항공기의 봉쇄 때문에 더욱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Linebacker” 작전은 그 시초부터 아군의 항공승무원을 보호하고 공중공격에 대한 그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적 방어망의 중요 요소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두 작전의 목적상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Linebacker” 작전은 “Rolling Thunder” 작전이 3년 반 동안 걸려서 준 충격보다 더 많은 충격을 불과 4개월 동안에 준 것이며 일회 출격의 비율도 1967~68년 간이 보다 적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항공기의 기뢰부설과 재빠르고 조직적인 항공작전 덕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준 여섯번째의 현실은 「레이저」나 전자조정장치(Electro-optical Guidance)로 장비함으로써 「Free Fall Bomb」(유도장치가 없는 재래식 폭탄)보다 훨씬 더 정확성을 갖는 소위 「Smart Bomb」(유도장치를 가진 폭탄)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유도폭탄이 정확히 목표물에 맞지 않을 경우에도 보통 10 내지 15 피트 내에서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의 목표물에 충분히 접근된 거리에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유도폭탄의 사용은 보통 수십대의 항공기를 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2~4대의 항공기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술적인 장점도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 ① 아군 항공기의 노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실이 격감되고
- ② 적은 수의 항공기로도 성공적으로 보다 많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증대되며
- ③ 이전에는 공격하기 어렵게 생각했던 목표물들, 즉 탱크, 추력, 보트, 협소한 다리, 방커, 동굴 및 터널 등은 군 전술상의 이법(理法)을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④ 끝으로 새로운 유도폭탄은 우리에게 사람이나 시설같은 부수적인 피해물을 최소로 줄어들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Smart Bomb」(유도장치를 가진 폭탄)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가 많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Linebacker”(라인 백커)작전의 효과에 끼친 그들의(Smart Bomb) 다대한 공헌을 강등시키지 않고 차라리 균형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유도폭탄이 Rolling Thunder 작전기간 중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들면 「하노이」화력발전소가 1967년 미 해군의 전자유도폭탄 “Walleyes”에 의해 두서너차례 폭격당함으로써 그 가동을 중단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뻑뻑히 들어선 주변지역은 부수적인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폭격은 일부 정보계통에서까지도 그들이 다른 소식통을 통해 「하노이」의 전기가 나갔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는 믿기 어려웠을 정도로 정확하였던 것입니다.

「Smart Bomb」(유도장치를 가진 폭탄)가 목표물 공격에 항상 최선의 방법은 물론 아닙니다. 예를들면 지역목표물(Area Target)과 같은 일부 목표물의 경우는 보다 비싼 유도폭탄보다는 「Free Fall Bomb」(유도장치가 없는 재래식 폭탄)가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도폭탄이 공격항공기의 수량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월맹과 같은 튼튼히 방비된 지역에서 공격부대의 주요 부분을 분장시키는 ECM(Electronic Counter Measure) 또는 MIG, CAP(Combat Air Patrol), 에스코트, 방비물은페 등과 같은 지원 항공기의 수량을 일반적으로 감소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Smart Bomb」는 「Smart Campaign」(스마트작전)을 위한 충분한 대응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Smart Bomb」는 빈약하게 짜여진 작전의 결함을 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잘 기획되고 조직적으로 수행된 작전의 효과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 할만한 사실은 유도폭탄(Guided Bomb)이 보다 능률적이었던 것처럼 “Free Fall Bomb”도 또한 Rolling Thunder작전기간 중 그의 효과를 실증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965~68년 사이의 Rolling Thunder작전기간 중 수백대의 항공기가 수행하지 못했던 일을 불과 2~3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1 Line-backer”작전으로 그 유명한 「탄 호아」다리를 파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의의있는 업적이었으며 파괴하려다 실패한 수백 개의 베트남에 있는 다리 중 유일한 중요 다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항공력이 과소평가됐다는 사실은 곧 장래에 이것이 이룩할 업적을 과대평가하도록 하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 최종적인 판단을 예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을 끼고 월맹에 들어오던 물자수입의 통로가 지극히 좁아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도교통의 후방차단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맹의 다량의 전쟁자원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제 주간의 침공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모든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월맹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월남에 다시 공격을 시도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방차단 작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자를 수입할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성공적으로 우리의 후방차단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게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많은 물자를 저장해 놓았는지, 그들의 보급물을 얼마나 빨리 소비할 것인지 얼마만큼이나 그들의 허리띠를 졸라 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 것인지 확실히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회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전쟁이 끝난 후 항공력은 월맹을 비 타협적인 그늘에서 뜻깊은 협상의 불빛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공헌했다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거나·말거나

◇ <MA>

이나메르어로 마(MA)라는 말은 여섯 개의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말할 때의 울림에 따라 살, 말, 유명, 무덤, 어머니, 그러나……등의 뜻이 있다.

◇ 검은 우유

1891년, 미국 오하이오주 티리코즈의 「트퍼트·한즈보로」가 기르던 암소 모리호는 검은 젖을 내었다. 검정 잉크같은 우유는 아주 맛이 좋았으며 콜달같은 버터로도 역시 맛이 좋았다.

화학자들은 여러가지로 조사하여 보았으나, 종래 이 검정빛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 Intellectual Industry란 무엇인가?
- 지식산업은 컴퓨터의 발전에서 나온 말이다.
- 전자과학과 정보과학은 새로운 지식산업의 주축이다.

시사과학

전자시대의 새로운 지식산업

여 영 부

1. 지식산업의 등장

지식산업(Intellectual Industry)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컴퓨터의 발전에서 유래된다. 컴퓨터를 보통 전자계산기라고 부르나 실제 컴퓨터는 계산만 하는 기계는 아니다. 전자계산기는 서류정리, 장부정리, 봉급지불, 재고목록작성 같은 기계적인 일을 할 뿐 아니라 번역하고 명령하고 발견하는 인간의 중대한 일도 수행한다.

전자계산기가 한국동란 때에 「맥아더」원수를 해임하게 하고 한편 큐바위기 때에 「케네디」의 결심에 해답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의 유명한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즉 한국동란의 전국이 역전되어

유우엔군이 복진하게 되자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면전쟁의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당시의 미 「트루만」대통령이 수학자, 물리학자, 통계학자 등으로 구성된 한 「오퍼레이션 리서치 그룹」에게 「지금 전면전쟁에 돌입하면 미국 경제의 전부분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라는 과제를 주었던 바 이에 대한 전자계산기의 해답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전술을 취하였을 경우에도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트루만」대통령은 중공본토의 공격을 강력히 주장한 「맥아더」원수를 해임하였고, 한국동란은 그 이상의 확대없이 끝나치게 되었다. 또 1962년의 큐바위기 때, 미 「케네디」대통령은 소련 수상 「호루시초프」의

발언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알아내는데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소련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취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전자계산기는 국가간의 전략과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문제를 판단함과 동시에 사람을 명령하기도 하여 「인공두뇌」라 부르기도 한다. 오토메이션이 이미 새로운 용어가 아닌 것처럼 전자두뇌화라는 용어도 상식화 되어 가고 있고 전자두뇌화가 발달하면 사람과 기계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토론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예견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매우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이것은 참으로 현대인간이 기우하는 「찬란한 과학문명의 회비」를 초래한 대표적인 경우가 될지도 모른다.

전자계산기가 본래도에 오르기는 1958년 진공관이 트랜지스터와 대체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특히 군에 있어서 보다 크고 보다 신속한 계산을 요구함에 따라 발전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으며 그 이용범위는 상상 의로 넓어 사회의 여러 분야에 커다란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는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경이감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말하자면 「전자계산기는 과연 우리의 친구인가, 적인가」 「실업사태를 야기시켜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

렇지 않으면 「다행히도 인간은 기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또 「인간의 두뇌의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사회의 조심스러운 반문과 기대 속에서 계산기는 현재 눈부시게 발전하고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사에 있는 3천5십만불의 세이버(Sabre)라는 계산기는 이 비행기 회사의 5십5개소의 표과는 사무실의 모든 비행기의 좌석과 예약에 대한 그때 그때의 현황을, 즉시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전자계산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따라서 미국 내의 모든 전자계산기가 일시에 그 기능을 정지한다고 하면 미국 내의 모든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어 버리고,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재정은 혼돈상태에 빠지고, 전화는 들리지 않고, 미국의 하늘은 적의 공격에서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미국정부의 보급 95%를 전자계산기가 처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의 양말, 군화, 무기 등의 모든 지급품을 체크하고 또 북대서양에서 항행하고 있는 모든 선박의 항로, 방향, 속도를 기록하고 또 전 산업의 소득세와 3분의 1의 개인 소득세를 체크하고 있다. 더욱 현재의 전자계산기가 없었더라면 달에 가보려는 희망을 결코 가질 수 없게 되었을

것이며, 제트기의 발전은 다년간 지체되었을 것이고, 대륙간 탄도탄이니 폴라리스 잠수함이니 하는 것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 한다.

그리고 기업경영이나 은행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병원에서도 환자를 진단하고 신속, 정확히 심전도를 읽는데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다. 범 죄수사에도 사용하고 학교에서 어학, 역사, 수학을 가르치는데 전자계산기 선생이 등장하고 있다. 더욱 과학자들은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일백 여개의 새로운 소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며 또 지금까지 불가사의한 분야로 알려진 인간세포의 신비를 규명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계산기가 발전하고 그 활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학문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따라서 그만큼 지식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과학기술의 특징은 과거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던 과정에서 다시 「종합화」의 성격으로 변해지고 있고 따라서 어떠한 연구일지라도 혼자 힘으로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넓은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일본에서 대학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가지 정보와 지식을 알선하고 매개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었다. 말하자면 학계에서 연

구하고 개발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널리 국내외에 소개하고 알선하는 한편 각종 공업권의 출원, 양도, 원조 등을 대행하여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상아탑의 산물인 여러가지 정보와 지식을 상품화하려는 것이었다.

현재 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은 약 5만 5천종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평균 일백만건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량의 증가는 십년의 배증기(倍增期)를 가진 급증상태에 있다고 한다. 과학분야의 것만 보더라도 연간 공간도서(公刊圖書) 1만 4천점, 공간잡지 3만 5천점, 연구보고지 약 10만점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문지에 게재되는 논문, 기사 수는 연간 7십 5만건, 공표특허수(公表特許數) 20만건이라 한다. 이러한 지식 가운데는 모든 과학자가 연구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자료와 새로운 아이디어 등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들어 있는 것이다.

실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과 아이디어의 착상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자료들이 과학자로부터 과학자에 잘 전달됨으로써 새로운 연구와 기술의 개발이 촉진되어 지는 것이며 동시에 산업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의한 기술개선으로 그 치열한 기업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학교수의 한 과학자가 폭주하는 여러가지 문헌에 관해 소모하는

에너지는 전연구활동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만일 문헌과 기타의 정보를 얻는데 정력을 쓰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그 정력을 창조적인 연구활동에 경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산업이 발달한 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구조사, 선전 등의 임무를 분리시켜 독립 활동하게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출자에 의하여 이러한 임무의 기관을 만들고 있는 예가 많다.

그것이 복잡하고 어려울 경우일지라도 컴퓨터의 기능을 매개로 하면 쉬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기계에 의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구하는 연구를 오퍼레이션 리서치(Operatoin Research)라 한다. 오퍼레이션 리서치는 제2차대전 중 영국에서 시작되어 영국, 미국에서 군사목적용 위하여 적극 활용되었다. 영국은 처음 물리학자인 「PMS 브라켓트」 박사를 중심으로 생리학자, 수리물리학자, 천체물리학자, 측량기사, 수학자 등 11인의 팀을 만들어서 당시 독일의 공습을 탐지하는 레이더망과 고사포의 배치, 열세의 방공전투기에 대한 공습명령 등의 가장 합리적인 조직에 대해 연구하게 하여 큰 효과를 보았고 이 방법은 1942년 미국의 작전부대에 도입되어 일본의 특공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전후 오퍼레이션 리서치

는 전자기계를 매개로 하여 과학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새로운 무기로 이용하게 되었다. 즉 오퍼레이션 리서치는 한정된 설비와 인원을 유효하게 배치하고 장래의 판매량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경영법 등을 안출하는 것이었다. 가령 전국에 지점과 출장소를 가진 운수회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정된 대수의 추력을 어떠한 비율로 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각 출장소에 공평하게 배치할 수도 있지만 출장소에 따라 하물 취급의 차가 있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여 일정한 해답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며 이러한 경우 오퍼레이션 리서치는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리하여 정당한 해답을 찾아 내주는 것이다. 또 인구, 지세, 입지, 교통, 도로, 수요 등 모든 자연적, 사회적 조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국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수송, 배분을 위해 그 모든 관계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모든 사회에 있어서의 전체의 연관을 통한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문제도 전자계산기에 의한 오퍼레이션 리서치를 통해 비로소 정확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기상예보의 적중률을 높임과 동시에 경기에 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을 좌우하고 경기를 변동하게 하는 부수의 요소를 수량으로 바꾼(計量分析) 다음

에 이러한 수량의 상호관계를 방정식으로 나타내어(組織分析) 전자계산기로 어느 정도 과학적인 답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와같이 콤퓨터리제이션(Computerization)은 인간이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찾아내고 내일의 기상, 내일의 경기, 더욱 넓게는 내일의 사회를 예측함으로써 모든 내일을 관리하는 권자에 오르고 있는 것이며 「지식산업」은 이러한 콤퓨터의 기능을 매개로 하여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그것이 개인적인 분야이건 단체적인 분야이건)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공급은 전자계산기를 매개로 한 지식기업(혹은 정보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간편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수 있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며 인간은 그러한 정보공급의 체제에서 벗어나 살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식기업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전자계산기에 숙달된 고도의 지식인들이며, 지식인들에 의해 지식을 판매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 「지식산업」을 「정보산업」혹은 「제4차산업」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아직 이 산업에 포함될 한계나 정의에 대해서는 일정한 설이 없으며 이것에는 대체로 연구개발, 조사, 기술진단, 교육, 통신, 신문, 출판, 방송 등이 포함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이제 이 지식산업에 있어서의 몇 가지

새로운 부문에 대한 전망을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2. 매스코뮤니케이션의 변모

과거 10년간에 얻은 인간의 지식은 그때까지의 전 역사를 통하여 얻은 지식은 2배에 달하고 있으며 금후 10년간에 다시 배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렇게 격증하는 신지식을 어떻게 소화하고 실용화하느냐 하는 것이 또 현대인에 주어진 커다란 고민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통신위성을 위시한 여러가지 통신상의 기술혁명들은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음성, 영상, 문자에 의한 동시 통신을 누구하고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는 것이다. 10년 내에 각 가정에 텔레비전, 라디오의 프로그램을 직접 보내는 강력한 대형 통신위성이 나타날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이미 1966년 초부터 미국 RCA사는 50만마일평방 내의 각 가정에 직접 텔레비전방송할 수 있는 위성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이것은 1970년대에 완성될 것이라 한다.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용의 TV 송신장치를 가지고 현재의 전화와 같이 전용의 채널을 통하여 세계의 누구하고도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지금이라도 극히 가능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제미니 6호와 7호를 사용한 TV방송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중 원거리에서 방송국이나 케이블을 이용하지 않고 실현된 것이었으며 이 사실은 그야말로 TV방송의 새 시대의 출발을 뜻하는 것인 동시에 로칼 TV나 라디오 방송국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할 전조라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더욱 통신위성의 잠재적 역할은 매우 넓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의 정보를 즉시 분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할 세계정보센터 같은 것도 전자계산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통신위성에 의해 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좁은 지방간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동시통신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범위가 넓어져서 국내 어디라도 가능하게 되고 급우에는 세계의 청중, 기업, 시장, 연구소,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한 한 세계동시통신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어떤 회사가 사원의 가정에 유선 TV, 원거리용 전자계산기, 전송장치 등을 설치하게 하고 사원의 통근없이 일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어떤 종류의 회의는 가정과 사무실 혹은 본사와 지사를 연결하는

엘렉트로닉스 통신장치를 사용하면 전원이 일개소에 집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무실이 필요 없게 되고 따라서 도시의 중심가는 쇠퇴하여 갈 것이라 성급히 판단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어쨌든 통신혁명의 영향이 각 가정에 미치게 될 날이 상상 외로 빠른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그것은 최신의 컴퓨터 시스템이 가정용의 입출력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더욱 가격이 낮아지고 사용방법이 간단해지고 또 소형화로 발전함과 동시에 다채로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보급속도가 매우 빠르게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선진국의 사업가 사이에는 가정의 일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경향이 많아졌으며 노동시간의 단축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 것이나, 실제 가정용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회사의 기간전자계산기나 엘렉트로닉스 통신장치와 연결하는 상호관계를 가지면 이러한 경향은 당연한 일로 되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래에 있어서의 세계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서제가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여러가지 정보가 전화, TV, 라디오, 장지, 신문 등을 매개로 가정에 들어오고 있는 바 그 양은 매우 많으며 증가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이해하고 중요시해야

할 판단을 스스로 하기에 대해 벅찬 일로 되어 가고 있으며 고도하고 다채로운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통신위성과 직접 정보연락을 할 수 있게 될 때에는 이것은 더욱 커다란 즐거움이자 고민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무한한 호기심과 끊임없는 애지욕(愛知慾)은 그 자신의 호기심과 애지욕에 따라 세계의 정보를 알리고 하여 자가용의 전자계산기, 복사기, TV 등의 비치는 불가결한 것이 되고 전자계산기의 보급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이때 필요한 질문을 전자계산기에 주면 그 답이 곧 TV 스크린에 나타나게 되고 혹은 그 답이나 정보의 복사를 필요로 하면 복사기에 의하여 항상 보관하여 둘 수도 있는 것이다. 또 TV레코드에 의해 영상을 재생 감상할 수 있다. 즉 근래에 비데오 레코드(Video Record)라는 것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지금의 음악레코드와 같은 것으로 자기가 보고싶은 때에 이것의 재생장치를 한 TV 세트를 통하여 언제라도 그 영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의 앞으로의 과제는 일반의 보급을 위해 그 장치의 가격을 낮추는 것뿐이다. 한편 현재 TV테이프 레코드가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은 1975년경에 시판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질적의 TV프로그램은 레코드에 수록되어 언제라도 다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의 유명한 TV 프로그램의 레코

드를 구입하여 어느 곳에서라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벨 연구소에서는 TV전화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로 얼굴을 보며 전화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단계는 이미 지나고 있다. 제2단계의 연구에 있어서 TV전화에 그래픽(Graphic)한 표현능력까지 주고 있다. 여기에서 그래픽한 표현능력이란 책의 한 면을 전화 앞에 펼쳐놓으면 상대방의 전화가 동시에 이것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싼 비용으로도 영상되는 모든 것을 송, 수신할 수 있는 TV전화를 개발 중에 있고 한편 칼라 TV전화도 개발 중에 있다. 어쨌든 이 TV전화가 완성되면 매스컴에 영상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는 결과가 된다. 그들은 TV전화의 일반보급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다. 즉 그들은 「회사에 이 TV전화를 놓으면 그것으로 연락하기 위하여 사원의 자택에도 그러한 장치가 필요해진다. 이렇게 하여 가정에도 전화가 보급되어 간다. TV전화는 일반 소비시장에 정착하려면 20불(월간사용료) 정도 되어야 하나 이것은 극히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벨 연구소에서는 TV전화와 단추식 전화틀 조합하면 전화와 같이 장치한 상점의 전자계산기와 연락하여 집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집에서 상점의 전자계산기에 전화를 걸어 희망하는 물품의

번호대로 다이알을 돌리면 자동적으로 기록해 내어 이에 따라 주인은 전달기판을 통해 상점의 전자계산기는 주문서, 출하서(出荷書), 청구서, 재고표 등 관계서류를 배달해 준다. 이때 상품의 번호는 상점에서 만든 목록표나 광고 속에 기입하여 발표한다. 돈의 지불은 은행에 전화로 지불을 의뢰하면 은행의 전자계산기는 자동적으로 이것을 처리해 주게 되는 것이다.

특히 1970년대의 전자계산기를 논할 때는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계산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년 전에 벨 연구소에서 음성다이알 전화기를 만들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전화기 뿐만 아니라 전자계산기에도 가능한 일이다. 이미 RCA사가 개발한 음성식별장치는 영어의 기초 음성 중의 28음까지 반응하는 것이었다. 이 장치는 수음한 음성을 발음기호로 기록하는 것인데 다음 목표는 회화속의 말을 식별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것은 수년 내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전문적인 컴퓨터기사의 힘을 알리지 않고도 자유로이 전자계산기와 대화하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지금도 어떤 종류의 전자계산기는 조잡한 프로그램 설계를 정확한 작업명세서로 교정해 주는 것이 있다. 어쨌든 전자계산기가 영어의 질문을 이해하고 영어로 답해준다는 것은 전자계산기의

대중화를 위해서 극히 필요한 일이며 이러한 장치는 여러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연구 중에 있다.

통신기술이 이와같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며 그것은 통신장치의 일체화이다. 전파에 의한 통신기술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무선전화가 등장하였고 다음에 라디오 방송 무선전화가 출현하고 그 후에 TV가 개발되어 오늘날 흑백에서 칼라TV로 발전했다. 지금은 고도의 복잡한 통신장치로서 전자계산기가 나타났다.

이러한 통신기술들은 각기의 목적을 가지고 따로 따로 개발된 것이었으나 마이크로파와 통신위성이 출현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각종의 통신을 기술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형식의 통신은 전자파(단속하는 신호)로 변경하여 같은 중계조직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TV나 전화 뿐만 아니라 책, 신문 등도 독자의 에너지량을 가지고 전화신호로 먼 곳까지 전달하고 이렇게 전달된 신호는 수신기에 의해 본래의 표현 형태 혹은 다른 표현형태(음성, 활자, 복사 등)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통신위성에 의한 세계정보센터의 상업적 야망은 더욱 강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상

이에서 오는 국가간의 통신상 곤란에 대하여도 이러한 세계적 규모의 통신장치의 출현은 통신기술의 혁명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제언어의 통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또 대립된 세계의 융합에 매우 효과적인 매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3. 출판·교육의 혁명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엘렉트로닉스 기업과 출판사와의 합병 혹은 흡수경향은 엘렉트로닉스 통신혁명이 급후출판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크게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합병 혹은 흡수의 예로서 렌담 하우스사와 RCA사, 타임스사와 GE사, 사이언스 리서치 아소세이션과 IBM사 그리고 몇 개의 출판사와 제록스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어떠한 토론석상에서 「GE사는 왜 서적업무에 관심을 가지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동 지배인은 「GE사가 서적업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업무에 관심을 가지는 것 뿐이다」라 대답한 바 있지만 서적은 새로운 통신기술에 의한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하나의 정보자료로서 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만일 서적은 정보의 자료로서 취급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많은 부수로 인쇄할 필요가 없게 된다. 새로운 통신기술에 있어서는 광

학(光學)적 기초취득장치가 서적의 각면을 주사(走査)하면서 시각적 신호를 전기적 진동으로 전화시키고 이것이 전화선으로 송신될 때 가청음으로 변하게 하여 상대방의 전자계산기에 전달하게 한다. 이때 복사를 원하면 그것에 부설된 복사기가 음향신호를 복사 프린트에 원문을 복원해 주게 되고 한편 이것이 TV복사기, TV레코드 또는 TV테이프 레코드의 형식의 요구에도 응할 수 있어 어떠한 정보도 여러가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엘렉트로닉스 기업이 출판사를 매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미래의 출판업은 엘렉트로닉스를 매개로 한 하나의 정보공익사업의 형태로 변하게 될 것은 틀림 없는 일인 것 같다.

현재 RCA사는 전자도서관, 데이터뱅크(Data Bank)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인쇄물의 정보 전체를 전자적으로 저축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순간적으로 끄집어 내어 복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때 문자는 물론 그림도 그대로 복사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전자출판망, 즉 전자정보체계들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출판업에는 이미 마이크로 폼(Micro form)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지식의 폭주」나 「서류작업의 격증」에 따라 출판업의 중요 수단으로 등장된 것이다. 「세익스피어 전집」같은 것

을 호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고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마이크로 폼 메이커의 꿈이기도 하지만 이것의 실현은 바로 눈 앞에 다가서고 있다. 현재 토마스 퍼블리싱사의 마이크로 카탈로그부에는 자동판매기 회사 1350사가 만들고 있는 2만 1천종의 생산품에 관한 완전한 설명서와 또 다른 많은 정보가 카아드로 되어 있고 이 정보는 가입회사 8백사에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객이 이전에 같은 양의 정보를 보존하는데 커다란 공간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 지금은 극히 적은 통속에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많은 전문지도도 머지 않아 마이크로 폼의 형태로 보존하였다가 청구에 따라 사본을 인쇄하여 주는 경향을 따르게 될 것이라 한다. 즉 청구에 따른 인쇄제도는 출판의 새로운 형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 개발된 서류저장장치는 편면인쇄서류 50만매분을 저장하는데 비메오 테이프 1권(720피드)으로 족하다고 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것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학교에 저장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시각표시장치가 달린 개별연구 열람실이 1백실 있다고 하면 1백명의 학생이 동시에 다이알 하나로 같은 논문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혹은 다른 논문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1백권의 책이 필요하였던 서적

이나 전문지가 한 권으로 충분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조직이 널리 사용되면 인쇄문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증대하지만 복사물 요구하는 사람의 수는 매우 감소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 활판인쇄의 초기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즉 초기에는 손으로 쓰여진 원본이 필요하면 역시 손으로 필사(筆寫)하여 얻어졌고 이것이 초기의 활판인쇄시대에 이르러서는 처음에 일면 일면을 손으로 늘려 인쇄하던 것이 기계화로 발전한 후, 다시 자동기계화로 발달함에 따라 대규모의 인쇄시대로 발전하였지만 이제 다시 주문에 따른 일부 일부의 복사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의 출판산업은 데이터뱅크에 의해 정보를 파는 정보회사로서 매우 성장이 빠른 거대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웨스턴 유니온사는 모든 정보를 하나로 상호 연결한 전자계산기로 수집, 저장, 회수, 복사, 분배하는 전국적인 조직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를 공포한 바 있다. 동사는 이미 미국의 법률조사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것은 법률가들이 동사에서 만들 조직망을 이용하여 연방 소송과 법령들이 저장되어 있는 중앙의 전자계산기에 그들의 모든 의문을 질문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자계산기는 그 판예와 그 관련 법규를 구분하여 질문자에게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알려 주게 될 것이다. 의학에 있어서도 사람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전자계산기 정보의 이용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의 조직적인 계획이 여러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미네아폴리스에서 산파율 사이의 지구에 있는 8건의 병원이 환자애의 서비스와 병원관리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전자계산기 설비를 이용하는 협력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이것을 계기로 전국적인 병원정보조직을 완성하여 환자, 병원, 관계자에 좀더 커다란 이익을 주려 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는 산업계, 정부, 공공단체 등의 동일업종 간에 있어서 커다란 관심사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RCA사, 웨스턴 유니온사, 제록스사, ITT사 등 거대 전자트로닉스 기업이 일체로 되어 메이타뱅크의 구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정보센터는 뉴욕에 설립할 예정이라 한다. 동 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것은 기술자 합동평의회, 엔지니어링 인덱스, 기술자 연합이사회 등이며 동 센터의 연간 운영비는 약 1천만불로 예상하고 있고 궁극에 있어서 독립체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공공단체 혹은 사설정보센터 그리고 가정과의 개별정보교환의 기능도 갖게 될 것이라 한다.

만일 가정용 입출력장치로 된 전자계산기와 이것에 복사장치와 TV스크린, 그리고 비데오 레코드나 비데오 테이프 등의 기능을 종합한 한 세트의 장치를 갖추 수 있게 되면 소설책이나 월간잡지 혹은 전문지를 구입하지 않고도 집에서 TV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그 복사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더욱 신문은 인쇄하여 배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 보다 넓고 선택된 뉴스를 신속히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의 공상의 세계가 아니며 TV전화는 물론, 서류, 잡지, 신문 등이 모두 「동일한 전자펄스의 형태로 동일한 기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고 또 수신단(受信端)에서는 이러한 전자신호를 원하는 어떤 형태(음성, 활자, 영상 등)로도 바꿀 수 있다」는 오늘날의 전자공학기술에 근거를 둔 것이며, 참으로 가까운 장래의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전자트로닉스 기업은 이러한 장치의 일반 보급을 위하여 그 가격 인하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들은 또 이것의 실현을 극히 낙관하고 있다. 한편 전자계산기를 위시하여 TV, 그리고 전자트로닉스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이에 관련된 여러가지 최신기기를 종합한 장치를 이용한다면 이것의 교육의 세계에 대한 커다란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교육인구의 증가, 지식의 급증 그리고 교원의 부족 등 당면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엘렉트로닉스에 의한 새로운 교육공학의 이용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근래 RCA사도 선택학습방식의 전자계산기 장치를 개발하여 교실, 도서관, 기숙사의 어느 곳에서라도 특정한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필요한 학습에 대한 청강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의 특징은 학생의 착석장소들 임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매릴랜드주의 어떤 마을에서 최근 교육TV에 의한 실험프로그램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 보고한 바 그것은 「이로 말미암아 수업이 강화되고 학생의 교육기회가 넓어지고 성적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TV가 없었더라면 이 마을은 더욱 일백인의 교원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고 교육프로그램에 주어진 과정을 각 학교에 설치하기 위하여 약 1백만불의 예산을 추가해야 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TV교육으로 발전된 것으로는 원거리에서 서로 음성을 교환할 수 있고 강의하는 교사의 문자나 도식을 TV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어 동일한 교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방식이라 하겠다. 이러한 TV교육방식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스콜랜드이다. 이 나라는 교육TV의 시

실을 그라스고 지역 밖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할 조치가 이미 실시되었고 현재 마이크로 웨이브를 사용한 TV교육이 인접지역의 학교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궁극에 있어서 전국적인 TV방송 교육체제를 확립하려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TV교육은 엘렉트로닉스적인 교육과 더불어 장래의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켜 가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통 영사기와 슬라이드 프로젝터 등도 이용될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완전한 교육용 칼리큘럼이 만들어져 이것이 레코드화 되거나 비데오 테이프로 수납되어 학생 스스로가 어떤 장소에서라도 학습이나 청강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 자료와 장치를 중앙관리할 도서관같은 곳이 오히려 교실로 적합하게 될지 모른다. 또 교사는 직접 가르치는 시간보다 전자계산기나 레코드 슬라이드, 그리고 비데오 테이프 등의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짜는데 더 열중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교교육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의 모든 교육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이렇게 엘렉트로닉스와 정보과학은 새로운 지식산업의 주축으로 거대한 기업전망을 갖고 등장하게 된 것이다.

21세기는 낙원인가 지옥인가?

박 동 현

<과학평론가·외대교수>



석탄, 석유 세기의 종말

우리의 태양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G급의 태양(표면온도 6천도 내부온도 2천만도)에서 표면온도 1만도, 내부온도 1억도 이상의 백색왜성(White Dwarfs)으로 진화해가는 것이다.

그 때가 오면 우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고열 때문에 평균온도 섭씨 1백도(적도지방)가 넘을 것이고 바다나 강물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모든 식물은 타서 말라버리고 인간은 그 이상 머물 수 없는 종말이 오리라고 본다. 물론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지구 전체를 냉각시키든가 지구의 공전궤도를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 2의 지구를 찾아 이민을 가든가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보다 금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태양이 먹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구의 평균온도가 섭씨 1도 증가하려면 적어도 3천만년 있어야 하니까.

우리들 자손이 20세기 과학과 기술을 이어받아 앞으로 30억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현재 그 모든 원동력이 될 에너지 자원, 즉 지구가 가지고 있는 화석연료(석탄, 이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총 매장량은 얼마나 있는냐 하면, 석탄으로 환산해서 ▲ 석탄, 이탄 4조5천억톤 ▲ 석유 1천5백억톤, ▲ 천연가스 8백억톤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10년에 2배로 잡고, 석탄, 이탄만으로 62년, 석유가 17년, 천연가스를 합쳐보아도 백년 넘기가 어렵다.

또 하나의 에너지 자원인 우라늄은 석탄 환산으로 30조톤, 약 백년분이 있다. 押田勇雄, 일(日)

그러므로 21세기는 석탄, 석유 세기의 종말과 동시에 모든 동력이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되는 세기이다.

그 다음은 태양에너지의 기원인 중수 소핵융합발전의 세기가 21세기 자손들의 기술로서 개척되리라 생각된다.

중수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중수가 되어 해저 깊이 고요히 잠자고 있다. 바다 속에 중수소의 총량은 지구가 백억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에 해당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창조주 만세!」 소리가 절로 나올만도 하다.

만년 미래 우리 자손들 교과서에는 「옛날 만년 전, 우리들 조상은 땅 속에서 파낸 석탄, 석유를 산화시켜 동력으로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더라」

앞으로 30억년이란 긴 지구 미래의 장래를 생각해 보면 석탄, 석유의 20세기는 신석기시대 최종기, 이야말로 과학시대 이전의 원시문명에 해당할 지도 모른다.

컴퓨터 만능시대

오늘 우리나라에도 각종의 컴퓨터가 실용되고 있다. 수를 계산하고 방정식을 풀고, 각종의 정보를 기억, 분류, 판단 혹은 분별하고 말을 번역도 한다. 그리고 인간이 할 노동을 컴퓨터 자신이

모든 기능을 발휘하면서 대신 조종하여 직접 행동 해주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말하자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기술의 신발전과 응용, 혹은 컴퓨터와 컴퓨터 끼리의 혼성시스템에도 그 앞날이 무궁무진하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무실, 공장, 야외에서까지 등장하여 우리 생활에 음식물과 다름 없는 생활필수품이 되고 말 것이다.

즉 21세기는 컴퓨터 만능시대다.

21세기의 컴퓨터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역할을 하나」를 한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생생해 보면,

실내의 조명과 온도, 습도, 공기의 순도는 항상 일정하게 조정되고,

신문은 각 신문사에서 발신되는 TV 전파로 자가프린트(Facsimile)하거나 신문배달기계로 침실에서까지 운반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자동조리기(소형은 가정용, 중형은 식당용, 대형은 대기업용)는 수백종의 요리 프로그램이 비치되어 재료만 준비되면 스위치 하나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요리가 필요한 양만큼 조리되어 벨트 콘베어에 올라 식탁까지 운반된다. 식후에는 식기 청소기가 자동으로 소제정리해 준다. 이 두 가지의 과정을 혼성하면 그야말로 로보트 가정부

물론 세탁기는 식기소제기와 하이브라도 되어 있다.

이러한 행동적인 컴퓨터 반면에 브레인(腦)컴퓨터가 있다. 국영 혹은 민영 정보센터와 연결되어 항상 새로운 자료가 수록 혹은 기억되어 필요한 질문에 답한다.

1920년의 미국 대통령은 누구냐? 닉슨 대통령 취임은 언제냐? 3에다 10을 곱하면 얼마냐? 말하자면 백과사전이고 자녀들의 가정교사이다.

그 가정의 경제능력에 따라서 외국정보센터와도 계약할 수 있다. 내일의 런던의 일기는 어떠하나, 알프스의 적설량은, 국도 2번의 교통량은, 뉴욕 브로드웨이의 땅값은, 증권시세는 등 그야말로 세계가 눈 앞에 있다.

화학공장이나 실험실에서는 사람 대신 컴퓨터가 직접 합성하며 생산은 물론 속속 신발명품이 등장하고 기타 경 혹은 중기공장에도 로봇과 컴퓨터가 모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여 소수의 조정기술자와 수리공, 제품관리자와 사무원 뿐이다.

시·구·군·읍 사무소에는 각자의 호적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축소, 자기만이 아는 일련번호에 따라 자료실에 보관된다. 이 번호의 숫자는 유전자형의 암호라 한다. 병의 진단, 치료, 예방, 약물조제까지 컴퓨터에 관련된다.

교통—전기자동차 붐

석탄, 석유의 종말에 이어 전기동력이나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 대체될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도 컴퓨터가 역할, 대부분의 교통기관이 자동운전 혹은 무인조종 따라서 자동신호의 시스템으로.....

리니어 모터 방식의 공중, 지하 궤도 교통은 보통 시속 5백 km.

리튬, 유황, 나트륨 등의 축전지(현알카리 축전지보다 수십배의 축전용량을 가지고 있다)가 개발되어 종래의 가솔린 엔진의 자동차는 사양화되는 것과 동시에 오늘날 그렇게 말쑥부리던 스포츠 공해는 끝 이야기.

밤에 차고에서 충전하고 낮에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동과 반자동의 전기자동차 시대의 시발점이 된다. 시속 2백에서 3백 km.

마하 2~3의 대형 SST(5백~천명 승용)는 서울 워싱턴 간 보통 3시간에 갈 수 있고, VTOL(수직 이착륙기)나 VSTOL(초단거리 이착륙기)는 수송용으로 I원용 로켓 스포츠 혹은 피크닉용으로 등장할 것이다.

해상의 대형선박은 원자력으로, 소형은 가에르트단식 캐속정으로 시속 3백 km의 스틸을 맛볼 것이다.

해저도시, 해저별장, 해저맨션까지 투자하는 업자가 나타날 것이고 따라 가지

각색의 잠수보트와 파치스카프(심해용)가 등장할 것이다.

해저탐색은 21세기 관광여행의 제일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것이다.

21세기의 교육

자료수집, 정리, 기억, 그리고 얼마만한 분별은 컴퓨터(학교에서는 티칭머신이라 부른다)가 대행해 주니까 결국 학교교육은 컴퓨터의 원리조작이 위주가 되기 쉽다.

이러한 컴퓨터학습은 잘못하면 창조력이나 판단력의 결핍을 보게 되고(이 문제는 20세기 종말기부터 점점 심각해지고 교육의 대혁신이 논의될 것이다.

대학에서는 컴퓨터 이상의 판단력, 독창력의 교수를 요구하고 따라 교수 위주의 대학으로 교육이 평가될 것이다.

유명대학의 우상숭배의 무리는 20세기에서 종말, 학습시간의 대부분은 컴퓨터와 TV교육으로 충당되고 나머지는 장기탐색여행이나 기술습득의 실습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수따라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들 멋대로 대학을 전전하는 자유가 부여될 것이고 이러한 자유가 관철되기 위한 교육혁신의 메로는 서기 2천년까지 계속된다. 이리하여 영웅주의적 시대는 살아지고 모든 학문의 방법론이 분화와 동시에 협동적인 논리실증주의에도 시스템화

할 것이다.

21세기의 우주과학

아폴로 계획에 이어서 달기지진설과 관광개발이 본격화되고 민영관광회사는 우주선 건조에 막대한 투자를 시도하리라 본다.

월면관광 프로그램 작성, 관광호텔, 관광도로가 연차별 계획하에 진행되고 한편 과학자들은 초국제적인 천문관측소와 각종 연구소, 그리고 달의 지하자원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새로운 원자력 엔진(로보적 핵융합반응의 엔진)이 21세기 초에 선을 보이게 될 것이고 따라 현 로케트의 수십 수백 배의 추진력을 가진 우주선이 등장하여 우주인의 화성착륙, 금성탐색은 21세기 중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무인조종 화성로케트, 금성로케트는 수없이 발사되고 화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다음 목적을 위해서 정리될 것이다.

태양계 탐색은 21세기까지 계속되었지만 우리 태양계를 떠나 제일 가까운 켈타우르스의 탐색은 긴 공백기가 오리라 본다.

20세기까지는 3천여개의 소형 인공위성이 지구궤도를 돌게 되겠지만 21세기는 이러한 소형 위성을 발사하여 서로 도킹시켜 대형 우주스테이션(최소한 3개 이상을 건조, 각종 전파의 중계,

기상예보, 천체관측, 달 우주선의 지구 터미널 혹은 결핵환자들의 요양소 역할을 할 것이다.

우주선용 새로운 태양전지의 개발, 새로운 연료전지, 원자력전지, 새로운 통신수단(예를 들면 레이저광을 이용한 통신), 개량된 우주복, 우주식량, 월차량 혹은 우주선 기체의 새로운 재료 등이 발명, 발견되어 나올 것으로 본다.

21세기의 의학

진단에서 처방은 물론 치료수술에까지 컴퓨터가 등장한다. 의사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수술과 정신병에 관한 치료, 약물처방의 최종적인 판단이 주 임무가 될 것이다.

임원실에는 로보트 간호원이 인간간호원 보조역할을 할 것이다.

인공내장의 개발, 암 치료의 방법이 발견되고 노쇠현상을 연장하는 새로운 약물(굳어서 딱딱해진 노화세포질을 신진대사시키는—DNA(핵산) 생산을 촉진시키는 각종의 약물), 의료보험제도 혹은 국민보건의 완벽한 후생시설, 법으로 보장된 가족계획 등으로 평균 수명 65세(21세기 초)에서 80세(21세기 말)로 연장될 것이다.

기관이식, 세포이식의 기술, 각종 의료기구의 신발전과 방법(예를 들면 화이버스콕이나 초음파 케스, 안기오그라피같은 것 등으로 노력과 시간이 걸

약되고·의과에서는 더 한층 다양해진 인공수족, 정형수술이 왕성하리라 본다.

21세기의 도시계획

대부분의 교통기관이 전력화함으로써 육상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궤도차량(리니어모터식)과 지하궤도, 혹은 인간궤술로 왕래할 것이고 시가지의 도로확장 문제는 오늘날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대단위의 고층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오늘의 케이블카 모양의 이중 삼중의 공중궤도(모노레일)와 지하궤도(모노레일)로 대량 수송될 것이며, 육상교통은 도시외곽에서 전원풍경 속을 달리게 되고 다른 도시외곽에 도착하게 되면 지하 혹은 공중궤도에 연결되어 목적의 건물에 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모든 자동차는 지상용 네 개의 차량과 공중궤도용 차량 한 개가 있어 양쪽을 겸하게 되어 있다.

21세기의 토지 가격은 더 한층 비싸지게 마련이다.

이리하여 해상도시(선상건물)와 해중도시 건설 붐이 세계 각처에서 유행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상 해중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새로운 법제가 필요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단위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지는 이중 삼중의 방사선궤도 교통의 양상을 카타보리즘(Catabolism) 식 도시계

획이라 부른다. 생물의 이화(異化) 작용이란 뜻.

21세기의 인구

세계의 인구는 1966년에 33억 5천6백만명, 1965년의 32억 9천 5백만명에 비해 6천 1백만명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1년 반에 약 1억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하고 1년에 대한민국 2개가 생겨나는 셈이다.

이리하여 각국의 인구 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서기 2천년대의 세계의 인구를 대략 예측할 수 있다.

갈수록 출생률과 사망률이 감소되고 따라 증가율도 감소되어 가고 있다.

21세기 초의 세계 인구는 최대 65억, 최소 53억, 중간치 대략 60억이 되지 않을까 본다.

이 상태로 계속한다면 21세기 중엽에는 세계 인구 백억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 선진국의 인구 증가율은

감소일로이고 현 후진국(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일부)은 점점 증가하여 21세기 초에 가서 감소되어 결국 21세기 중반까지 80억 내지 백억을 초과하지 않으리라 본다.

유엔통계를 참고로 1966년에서 서기 2천년 대의 각국의 인구증가율과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즉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 1966년 1백 50불에 비해 8백 34불(6%, 34년간의 복리계산), 미국은 3천 2백 79불에 1만 2천 4백 42불, 일본이 8백 20불에 8천 1백 82불로 우리나라의 10배 가까운 소득을 갖게 된다. 이 상태로 계속한다면 21세기 중엽에는 15배를 초과할 셈인데 증진을 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후진으로 낙후하느냐의 기로점이 앞으로의 정책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다음 표를 보면 서기 2천년대의 1인당 국민소득 원불 미만이라는 일본을 제외한 동남 아시아 지역

1960~65년			1975~80년			1995~2000년		
출생률	사망률	증가율	출생률	사망률	증가율	출생률	사망률	증가율
33.6	15.7	17.9	30.5	12.7	17.8	25.5	9.4	16.1

<UN 인구 예측 중간보고(1963) 중에서>

		인 구	국민소득	1인당 소득
한	국	2.5	8.7	6.0
미	국	1.5	5.6	4.0
영	국	0.4	4.4	4.0
서	독	0.5	5.0	4.5
일	본	0.6	7.7	7.0
프	스	0.6	5.1	4.5
이	리	0.5	5.0	4.5
캐	다	0.5	5.0	4.5
호	주	1.4	5.9	4.5
알	틴	1.5	6.4	4.5
남	아	2.8	7.4	4.5
맥	코	3.3	7.9	4.5
브	질	2.7	7.4	4.5
필	핀	3.1	7.3	4.0
인	도	1.8	4.6	3.0

<UN 통계를 중심으로 失野誠也氏의 계산>

한	국	834
미	국	12,442
영	국	5,779
서	독	7,079
일	본	8,182
프	스	6,893
이	리	4,243
캐	다	8,991
호	주	6,923
알	틴	3,216
남	아	2,465
맥	코	2,001
브	질	1,005
필	핀	573
인	도	178
인	니	246

파 키 스 탄	.251
중 국	536
소 련	3,662

뿐이다.

일본국의 경제정책은 21세기의 원대한 앞날을 바라보고 현재 치밀한 계획 아래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21세기의 식량사정

인류는 과거 50만년 동안 지구 땅덩어리 중 경지(耕地)로서 7~10% 밖에 개척 못했다. 즉 인간은 아직도 땅을 파헤쳐야 할 개척자의 신분을 면치 못하

고 있다.

현재 지구에 쏟아지고 있는 태양에너지의 1백만분의 1이 식량으로 변해가고 있다.

인간은 이 무진장한 물질자원과 에너지자원의 눈곱만도 못이용하고 있는데, 인류의 반 이상은 굶주리고 있다.

FAO 통계를 보면 세계의 인구는 연평균 1.5% 증가하고 있는데 식량생산은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다.

2차대전 후 폭발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식량사정은 훨씬 좋아졌다. 그러면서도 남아, 동남아시아(일본은 제외), 중남미 등(후진국에 속한다)의 국민들은 굶주리고 메마르고 있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식량이 남아 돌아 처치 곤란할 지경이다. 이런 불균형의 사정은 20세기 후반기까지도 별 변화없을 것이다.

20세기 초의 세계인구가 60억이 된다 하더라도 전세계의 식량은 충분하고 백억이 된다 하더라도 부족은 아니다.

물론 과학적 영농방법의 잘못을 후진국이 혁신할 수만 있다면 그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여전히 홍수와 가뭄의 지옥은 후진국의 공통된 전제특권임을 볼 때 앞뱉하지 못한 치수가 가장 큰 원인이다.

물론 21세기까지 이 상태가 계속되어서야 빵을 위해 선진국에 추파를 던질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21세기적인 빵의 노예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도태냐의 양자택일의 길은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

동물을 다루는데 빵의 효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후진국이 스스로 분발하여 개척하느냐 아니면 선진국의 후진개발의 투자방법을 혁신하느냐에 달렸다. 자동차나 나일론, 코카콜라보다 앞서야 할 문제점이 선진국의 3차산업 발전을 볼 때 그 운명이 내다보인다.

3차산업의 전성기

세계의 노동력은 컴퓨터의 등장으로 자동시스템화 되어 가고 거기다가 일하는 로봇이 등장함으로써 개인적인 인력까지 불필요하게 되었다.

인구증가율이 많고 국민소득은 반바레해서 적은 나라일수록 후진국에 속한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한 데다가 인력대가가 비싼 탓으로 남아서는 저노임의 노동력을 가진 후진국의 3차산업 개발에 투자해 왔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 양상은 달라진다. 즉 선진국은 후진국의 인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하며 도리어 자기 나라 인력이 남아서 걱정이다.

21세기의 노동 기준은 하루 3시간으로 한정될 것이고, 국가는 노동인구의 필요에 따른 가족계획이 실시될 것이다.

각 기업가는 산업가는 산업시스템 기술화와 로보트 개발에 주력할 것이며, 투자의 3분의 1은 제3차 산업(서비스업)에 충당될 것으로 본다.

나머지 3분의 1은 자원개발에 투자될 것이며 그 반 이상은 해외자원과 후진국 개발에 투자되며 20세기 후반기부터 이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3분의 1은 생산과정에 투자한다. 즉 제1은 성력화(省力化)의 투자와 3차산업의 투자, 제2는 자원개발의 투자(후진국 개발을 포함), 제3은 생산과정의 투자(신제품 개발을 포함)가 된다.

생략화의 투자는 컴퓨터 이용의 시스템 기술인데 말하자면 무인공장 개발을 말한다. 각종 공작기계, 가공세트, 재료선택, 약품의 분석, 합성이 컴퓨터에 기록되고 프로그램의 지령대로 무인조종을 하게 된다. 인력투자의 절약은 기업가의 수익에 크게 좌우되고 국민소득은 증가되게 마련이다.

미국의 예를 보면 21세기 초의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2천 4백 4십불이며 1966년의 약 4배, 국민의 노동시간은 1일 3시간이니까 돈은 많고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 「여가를 어떻게 즐기느냐」는 것을 기업화하는 것(이것도 3차산업의 일종이다)에 투자된다.

벌써 미국의 일류 메이커들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연구와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천연색 입체 와이드스크린의 TV개발, 월판광, 해저관광사업 등의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생략화시스템 기술의 예를 들면

석유에서→플래스틱→제사(製糸)→방직→재단→재봉→의복의 과정을 석유→플래스틱→ 불직포(不織布)→접착→의복 .

※불직포는 제사랑직하지 않고 바로 감을 만들고, 재단, 재봉하지 않고 접착시켜 의복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혹은

석유→플래스틱→의복

즉 각 사이즈의 인형에 플래스틱을 접착시켜 벗기면 의복이 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중간 공정에서 생략되는 이윤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혹은 발전과정에서는

열에너지→기계에너지→전기에너지의 과정을 열에너지에서 바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MHD(Magnetic Hydro Dynamics) 시스템도 이미 가동하고 있다.

3차산업의 또 하나의 특색은 정보산업(국영 민영으로 대기업화할 가능성이 많다)과 판매서비스의 대기업화가 있다.

대규모 정보센터에서는 각종의 자료가 수집되어 컴퓨터에 수록되어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제공(유료 혹은 무료)할

수 있고 생산공장의 대규모 직영판매센터에서는 TV전화나 TV호핑으로 칩대에 누워서 상품을 선택하고 배달기제로 매나 소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구입할 수 있는 판매의 단축화가 있다.

컴퓨터 조리기도 생략화, 예의 하나이던 신제품 개발의 일종이다.

21세기의 신제품, 신재료, 개발 전망을 추측하면 다음과 같다.

무인조종 자동차(전기동력), 자동조리기, 소계로보트(가정용, 호텔용), 간호로보트, 배달로보트, 각종 공장의 생산품 직능로보트, 자동판매기(소계품용), 입체 TV(천연색), 원자력냉동기와 클터(공작용), 소형원자력발전기, 원자력제트엔진, 원자력우주선, 자동터널 새굴기, 원자조명, 프린트계복기, 레이저통신기, 고성능태양전지, 신합성플라스틱, 인조단백질, 인조육개발, 인스탄트 음식물 개발, 증식기능을 가진 단백질 자합성, 각종 인공장기, 신효소합성, 관광용 해저탐색선, 가정용 팩시밀 복사기, 합성식용유, 합성사탕, 합성전분 목질(木質)에서, 건축로보트, 발광섬유(신형광 플라스틱), 원격촬영기(레이저광용) 등등 무진장한 발명품이 등장할 것이다.

21세기는 관광 붐

풍부한 여가와 국민소득의 증가는 자연 여가를 즐기는 오락에는 발전할 것

이고 그 중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관광여행이라 본다.

우주선의 개발과 해저 탐색선의 개발은 달여행과 해저여행이 톱클라스에 속할 것이나 관광업자의 수지면으로 보아 달여행보다 해저여행이 1위를 차지할 것은 틀림 없다.

여기에 따른 관광 정보산업도 자연발생하게 만련이다.

그렇게 되면 후진국도 3차산업의 덕분에 21세기적 식민지 형태로 연명해 나갈지도 모른다.

결 론

21세기는 영웅주의의 종말, 석탄, 석유 세기의 종말.

21세기는 원자력세기의 시발점.

21세기는 3차산업과 시스템기술화의 세기.

21세기는 로보트 개발의 세기.

21세기는 인구증가율 제도의 극한점.

21세기는 달관광, 해저관광의 붐.

21세기는 에너지 혁명의 세기.

21세기는 생명창조의 시발점(원시생물단백질 합성).

21세기의 선진국은 낙원과 풍부의 세기. 그러나 자칫하면 후진국은 21세기적 진화론의 자연도태의 세기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21세기적 식민지의 동물원? 물론 절대 그래서야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 어디에 속할 것일까?

초대 참모총장

김정렬 장군을 찾아서



일 시 : 1972년 9월

장 소 : 삼성물산주식회사 사장실

대담자 : 대위 전 재수(공본 정훈감실)

전대위 : 장군님 오뎃만에 뵈겠습니다.

저희들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발간하는 공군지는 역대 참모총장 인터뷰 계획을 세워 맨먼저 초대와 3대 참모총장을 역임하신 장군님을 찾아

왔습니다.

세삼 공군 장병들에게 소개할 필요도 없이 장군님은 공군장교 군번 1번이시고 공군 초대 및 3대 참모총장으로 제임하시면서 공군창설과 육성에

은갖 정열을 다 기울이신 어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군 역사의 살아있는 터석나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군님께서 공군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택하셨는가 하는 점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 사관학교 시절

김장군 : 내가 사관학교를 택하게 된 것은 한일합방이 되고도 한참 후의 일이었지만 무문(武門)이 많은 우리 선조들의 영향이 많았어요.

이조 말기에 내 조부가 무관이었고 내 백부가 일로전쟁 전에 일본 육군사관학교 15기로 나왔고 또 내 선친이 이응준장군이나 이청천장군, 신태영장군 등과 더불어 일본 사관학교 26기로 졸업하셨어요.

이러한 무문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서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되면 타국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사관학교를 택하게 되면 장차 조국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지금



<김 정렬 장군의 근영>

의 서울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를 택하게 되었어요.

내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도 항공과를 택한 것은 이러 해.

당시 일본 사관학교에 입학이 되어 예과를 거치면 본과에 갈 때 병과가 분류되는데 보병, 기병, 포병, 공병, 치중병, 그리고 항공병 등이 있었어. 그때는 한참 항공붐이 시작될 때였고 사람들이 항공에 몰리는 편이라 딱 어려웠지요.

경쟁도 경쟁이거니와 신체검사에도 합격해야 되고 여러가지 테스트에도 합격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내가 합격이 됐어. 또 본과에 들어가서 조종, 기술, 무장, 통신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나는 여기서도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

전투조종사로 졸업하게 되었지.

그때 전투조종사로서의 동기생들이 82명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 겨우 10명이 생존하게 되었는데 생존자 중에 내가 끼어 조국의 광복을 보게 되고 또 공군에 이바지하게 되었다니 지금 생각하면 감개무량한 일이지요.

공군창설과 7인 간부

전대위 : 장군님께서서는 저희들 공군을 창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6·25동란을 전후하여 동분서주하시면서 공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949년에 공군이 창설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군 : 지금 나보고 공군 창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선배인 최 용덕장군, 장 덕창장군 또 이 영무장군, 박범집장군이 계셨고 동료인 이 근석 장군 등 기타 항공동지들이 힘을 합하여 공군을 창설하게 되었는데 해방 후 3년간은 군정이었잖아? 45년, 46년, 47년은 미군정하에 있었고 1948년 8월에 유엔의 승인을 얻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간은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육상경비대, 해상경비대를 위시한 소위 통위

부를 중심으로 하여 국방임무를 도와주는데 공군은 사실 정밀기체고 고액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는 또 군이라고 해댔자 나라를 지키는 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육상, 해상의 치안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미국측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군을 창설해야 겠다는 생각은 미국측에서는 조금도 하지 않았대 이거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선배 동료들이 7인 간부가 되어가지고 공군창설을 서두르게 된 거지요.

전대위 : 7인간부들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부 소위로 임관하지 않았습니까?

김장군 : 그렇지. 48년 4월에 우리가 보병학교에 들어가서 한달 훈련을 받고 난 다음 태능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15일간 훈련을 다시 받고 일곱명이 모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지.

물론 최 용덕장군은 과거에 남의 나라에서 장군을 지냈고 장 덕창장군 등 다른 분들도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 다 높은 지위에 계셨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계급장을 달았는데 최 용덕장군 같은 분은 「우리가 백의종군도 할 수 있거늘 우리가 이걸 못달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위를 달던 때인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어 우리 정부가 교섭을 벌인 끝에 L-4라고 하는 잠자리같은 비행기를 10대 얻었지요. 이것 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비행부대가 생겼지. 그때 사령관은 최 용덕장군이시고 내가 초대 비행부대장이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에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9월 14일에 비행하게 되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날았지. 그때 내 비행시간은 전투기로 2,300시간이 되었고 전쟁을 겪은 나로서는 잠자리같은 비행기는 까짓 거 눈감고도 들 수 있었지.

그때 한국에 있는 미 공군사령부의 항공부장이 한국의 조종사들이 어느 정도의 비행을 하는가 하고 체크하게 되었지.

우리가 이륙해서 신나게 비행하고 내린 다음 그 사람은 「우리가 도와 줄 것은 전혀 없다」는 거야.

전대위 : 그때는 꿈에도 그리던 태극기를 단 비행기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조국의 하늘을 난다는 보람이 참으로 크셨겠습니다.

김장군 : 그렇지. 1948년 9월 14일은 내 일생 중에서 가장 보람있는 날이었을지 모르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요. 최 용덕장군은 남의 나라에서 30여년간 군대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소원이 그거였다는 거야. 뭐냐하면 말이요, 「우리나라의 군복을 입고 우리나라의 상관에게 경례를 하고 태극기를 단 비행기로 조국의 상공을 날아봤으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들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 이말이요.

공군사관학교의 시작

전대위 : 장군님께서 공군이 독립하기 전에 지금 공군사관학교의 효시가 된 육군항공사관학교의 초대교장을 지내셨는데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김장군 : 우리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1949년 10월 1일인데 육군항공사관학교가 생긴 것은 그보다 9개월 전이지요. 그때는 육군항공사관학교라 그랬지만 공군이 독립함과 동시에 공군사관학교로 되었지. 그때 군부내에서는 일부 육군간부측에서는 사관학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직도 시기상조다. 나라 경비의 낭비도 되고 경비도 이중으로 들지 않느냐 이거야. 아직도 우리들은 육군장교 복장이었지만 사관학교가 6개월간은 과목이 같을지 모르나 조종사로서의 정신무장 상태나 지식아

나 통신, 기상 등 기술적인 면을 배우려면 이를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공사관학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마침 그때 정치를 하고 있던 선배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의 장래에 대한 비전이 참 훌륭하다고 판단하여 항공사관학교를 설립토록 해 주었던 거요. 그래서 1기생으로 100명을 뽑았지. 그게 1949년 2월이지. 아무 것도 없는 김포 부근의 큰 강당에 책상 100개를 짚어 넣어, 준비를 단단히 했어. 그때 뽑은 1기사관들이 현재 공군에서 소장도 되고 준장도 된 사람들이지요.

공군독립

전대위 :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된 것은 1949년 1월 10일부터가 아닙니까? 공군창설이 되고 육군의 1개부대로 있다가 공군으로 독립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군 : 아까도 이야기한 최장군, 장장군, 박장군, 이장군 등을 비롯하여 김신, 장성환, 김영환, 신유협 등 여러 사람들의 총화로써 육군항공부대로부터 공군이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2차 대전이 끝나고서도 미군에는 공군이

없었지요. 미군이 공군으로 독립한 것은 1947년, 미군도 그러했는데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불원한 장래에 공군이 독립해야 될 것이라고도 생각되었고 우리가 3군 예산이 독립되어야 할 필요도 있었지.

그때 대통령이나 총리, 국방부장·차관도 매우 이해가 컸고 그리하여 드디어 독립하게 되었지요.

공군장교군번 1번이시라는데

전대위 : 장군님은 제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공군의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여러 번 보였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공군의 일원으로서 제가 장군님을 생각할 때에도 장군님은 우리 공군과 더불어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분이실 것입니다.

장군님께서 공군장교 군번 1번인 50001번이신데 가장 큰 영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만……

김장군 : 사실 그것은 나로서는 펴 파분한 이야기였어. 내 위로도 연장자가 10명은 있었어요. 공군 독립이 되니까 군번이 필요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당시 초대 참모총장이던 내가 군번 1번이 안 될 수가 없었어. 내 개

인의 겸양으로 최 용덕장군을 비롯한 선배가 계셨기 때문에 1번을 아니 받으려 했으나 형식상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참모총장이란 직위에 있었으니까 하는 수 없이 공군장교 군번 1번의 영광을 얻은 셈이지.

전대위 :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공산 괴뢰집단이 남침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북한의 공군은 200여대의 항공기로 남침해 왔으나 우리 공군은 불과 20여대의 경비행기로 전쟁을 맞게 되었으며 혈전을 거듭하게 되었고 전쟁 발발 얼마 후에는 무스타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6·25 당시를 회고하시면서 그때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군 : 공군이 독립이 된지 8개월만에 6·25가 일어난 셈이지. 공군은 타군과는 달리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말하자면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군대가 아니요?

국민들이 헌금으로 건국호헌납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고등연습기 T-6 10대를 사서 6·25 동란 40일 전인 5월 15일에는 헌납식을 갖게 되었지. 이 T-6 10대와 L-4 6대, L-5 8대 등 모두 24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 경비행기들로는 전쟁할 태세가 되지

못하였지.

그때 북한은 순식간에 한국을 치려고 서둘렀으나 그들의 조종사는 미숙했어.

그때 육군은 또한 한 대의 탱크도 없었지. 북한은 300대고 또 적의 탱크를, 막을 대전차포도 없었어.

당시 나는 대통령에게 물밑듯이 '넘어오는 적의 탱크를 가장 빨리 저지하자면 전투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조종사는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백아더 사령부에 전문도 보내고 주일공사에게도 지시를 내리셔서 전투기를 한국군에게 인도하도록 촉구를 하게 되었지.

백아더 사령관은 「항공사령관을 한국에 보낼테니 공군의 책임자와 만나서 전투기 인수에 관해 협의하라」고 하게 된 거야. 이리하여 스트레이트 마이어 극동공군사령관이 한국으로 비태하여 왔어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선 훈련없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길래, 그때 우리는 약 100명의 조종사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미국 비행기를 타 봤을 까닭이 있다. 일본군에서 훈련을 받았으니 각 부분의 조작이 서로 다른 거였지.

그래도 나는 「전혀 훈련을 받지 않고 당장 작전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다」라고 했더니 스트레이트 메이저 장군이 선뜻 「그럼 10대를 주겠으니 가지러 오라」는 거야. 그때만 해도 미군이 참전하지 못했으니 한국 조종사가 와서 가져가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조종사 10명을 선정했어요. 이 근석장군을 위시해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무스탕을 조종해 보았던 지금 교통부장관인 김 신, 이분은 중국공군에 있었던 까닭으로 무스탕을 조종했지. 그리고 김 영환, 장 성환, 박 회동, 강 호륜, 정 영진, 이 상수, 장동출 등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일본으로 보냈지. 마침 그때 비가 계속 와서 그 이틀날 못 가지고 와 비가 개자 연습 없이 이다즈케에서 바로 날아왔지.

맨처음 공격한 것이 시흥에서 내려오는 적탱크였는데 이 첫 공격에서 우리 공군의 지보인 이 근석장군을 잃게 되었어.

전대위: 그렇게 무스탕을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공군은 일면 작전, 일면 훈련이라는 벽찬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취월장으로 성장해 온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1년도에는 한국공군이 단독작전을 수행하게 되었고 드디어는 제트화시기에 돌입하

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제트화가 시작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군: 잘 알고 있다시피 2차대전 당시에는 제트기가 없었잖아요? 한국전쟁 때부터 제트기가 출현했는데 52년, 53년, 54년 이 무렵이었다 이거요. 북한이 소련에서 제트기를 받아가지고 제트와 제트의 대결이 되었는데 한국공군은 무스탕이라는 프로펠러 비행기였지.

우리도 국군근대화를 위해 1954년 7월에 이대통령의 방미시에 여러사람이 갔는데 그때 나도 가서 근대화 협의를 하게 됐지. 미국의 수뇌부에 제트기를 달라고 간청하게 된 셈이지. 그러니까 제트훈련을 받을 30명을 보내라는 거야. 나는 회의 도중 밖으로 나와 한국에다 전보를 쳐서 즉시 조종사 30명을 미국으로 보내라 그랬지. 그래서 54년 여름에 바로 훈련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1955년에 제트기를 받았는데 한국공군의 근대화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전대위: 장군님께서서는 초대 유엔군사령부에 한국군 군사사절단장으로 가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지게 된 경위는 어떠했습니까?

가?

김장군: 전쟁이 일어나서 일단 남하했다가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난 뒤 파죽지세로 평양까지 진격했고 또 압록강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공군이 불법침략을 했지 않았어? 그래서 또 1·4 후퇴를 하게 되었지 않아요? 공군은 여의도에서 대구, 대구에서 제주도까지 가고 제주도에서 다시 사천으로 옮기는 등 그런 변천이 있었지요. 강릉에서부터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게 되고, 53년에는 무스탕이 40대로 인가가 되어 작전에 임하여 왔던 것이지.

그런데 전쟁 초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작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유엔 사령관에 작전지휘권을 이양해서 한 사람이 총 작전을 통제하게 되었지. 이렇게 되니까 한국사람의 뜻과 달리 부대이동이라든가,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달라. 그래서 이 대통령은 「유엔군이 비록 막강한 군대와 군사력을 갖고는 있지만 작전은 한국사람과 의논을 해야 된다. 근대 군사원칙에 따라 한 지역에 1사람의 작전지휘관이라는 것은 인정은 하나 그 부사령관을 내어 놓아라. 그것은 한국사람이 해야겠다. 한국사람이 참가하지 않는 작전계획은 우리는 묵과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유엔군 측에서는 「작전을 계획하고 명령하는 곳이 동경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이니 그 곳에 한국군의 고급장교가 와서 직접 참가하면 될 것이 아니냐?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요.

그때 마침 나는 참모총장을 내 놓고 있던 때라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동경에 가서 초대 군사사절단장을 하게 된 거지.

3대참모총장 이후의 동정

전대위: 장군님께서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기업체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계십니다만 3대 참모총장을 그만 두시고 난 이후의 동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군: 3대총장을 이임하고 오랜 책임있는 자리에서 좀 쉬려고 했었는데 1957년 우리나라가 전혀 국교를 맺지 않았던 아프리카와 중동의 친선사절단으로 가게 되었지. 역사적으로 전혀 아프리카와 접촉이 없었던 곳이었지. 모록요, 튀니시아, 리비아, 수단, 에치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등이었지. 미국에 각 나라 대사관에 가서 간단한 일방적인 봉고를 하고 가게

되었지. 그게 70여일 동안의 여정이었는데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반만년 역사에 내가 처음으로 우리 정부의 사신으로 국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영광이야.

여기서 돌아와서 이 박사에게 신고를 하자마자 국방장관이 되어 3년 동안 이 박사를 모시게 되었지요.

국방장관을 3년 했지. 미국의 대한국 정책의 변경에 따라 1963년 박대통령각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주미대사로 미국에 가게 되었지. 그때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어 전 세계가 비통하게 생각하고 있던 때인데 나는 워싱턴에서 목격했지요.

미국에서 돌아와서 국회의원이 되었어. 국제국회의원협의회에 매년 나가 국제회의에 참석하곤 했지요. 오란타, 몬테칼로, 베네주엘라 등지로 갔었지. 그러다가 지금은 사업가가 되어 현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근 황

전대위: 김장군의 연세가 금년 쉰 여섯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장군: 맞아요. 쉰 여섯이니까 1917년생이지.

전대위: 돈암동에 살고 계시다가 연전에 불의의 화재를 당하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요.

김장군: 작년엔 돈암동에 살고 있다가 화재를 만났지. 그래서 지금은 임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어디 적당한 데에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한 채 지을까 하고 있어요.

전대위: 자녀분은 전부 몇이신가요?

김장군: 5남매가 있지. 다 성년이 되어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

정신무장강화에 대한 말씀을

전대위: 남북적십자회담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만 박대통령각하의 8.15 선언 이후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통일로의 접근을 시작하는 모색이 거국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일수룩 우리 군인의 입장으로서서는 더욱 정신무장을 공고히 하고 사명의식을 투철하게 견지하여야 하겠습니까.

저희 공군에서는 현재 정예공군의 힘찬 거보를 내딛고 있고, 제2전력개발을 위해서도 분투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 즈음하여 장군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군: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게 마련이지요. 목표는 뭐가 옳

고 그런지 시비곡절을 판단하여 세워
야지요.

우리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지만 통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아래
에서 통일을 바라고 있지. 공산주의에
저서 그들의 체제 아래 통일이 되기
를 바라지는 않아.

그만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공
산주의 체제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자유를 북한에 알려 주어,
그들에게 남독이 가도록 가르쳐 주어
야 하겠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
라」고 할만큼 자유는 소중한 것이 아
니 되겠어? 목숨보다 소중한 자유의
진가를 철저히 알아서 북한동포들에
게 알려주어야 돼.

그러자면 국민 각자의 정신무장이 필
요해. 군으로서의 말할 것 있겠나?
공군에서 지금 알아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바라기는 장병 각자가 더
욱 단결하여 국가적 사명완수의 역군
이 되어 달라는 거야.

끝으로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전대위 : 지금 이 시간에도 공군장병들
은 선배님들이 피흘려 쌓아 놓으신

전통 아래 각 기지, 각 사이트, 그리
고 각 사무실에서 임무원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장군님께서 후배
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
십시오.

김장군 : 연년세세 우리 후배들이 참
잘 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열원
하고 있던 것을 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때 고맙게도 생각이 되고 마
음 든든하게도 생각되어요.

내가 교장으로서 1기사관생도들을
맞이할 때 이러한 모토를 내세웠어
요. 생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지요.
「일류의 신사가 되라. 일류의 공중지
휘관이 되라. 일류의 기술자가 되라」
고 말이야. 지금 공군에서 고위층이
된 1기생들이 묻는 이야기가 「그때
무슨 이유로 일류의 신사가 되라고
했느냐?」는 거야.

나는 복장을 잘 입는 그런 신사가
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야. 속에 있
는 지혜가 밖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신사의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였어.

신사란 겸양지덕이 있어야 하고 예
의 발라야 하고 진짜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지.

공군은 용기만 있어도 안 돼, 노력
만 가지고도 안 돼, 정밀한 기계를 음

직일 수 있는 여러가지의 지식이 필요하지. 보통 사람보다 더 공부물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공군이 못 되는 거지.

지혜스러워야 하고 상관은 인자스럽고 부하는 웃사람을 공경으로 받드는 이러한 신사적인 정신을 끝끝내 가져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네.

물론 더 말할 것 없이 잘 하고 있지만 공군을 더욱 발전시키는 초석으로

여러분이 힘껏 노력해 주기를 바라오.

전대위: 장군님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익한 말씀이 공군장병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을 믿으면서 이만 끝을 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장군: 잘 가시오. 시간이 있으면 또 만납시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 「한 나라의 역사는 그 겨레의 거울이요 등불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바로 보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한 민족의 주체성을 파악하고 한국 역사의 정신적인 기둥을 도로 찾아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입하기 위해 비판적인 태세를 확실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종교는 국가와는 별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 목적 역시 국가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치적인 영합과 압력에서 독립해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들도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적 여건에 대한 의무를 느끼며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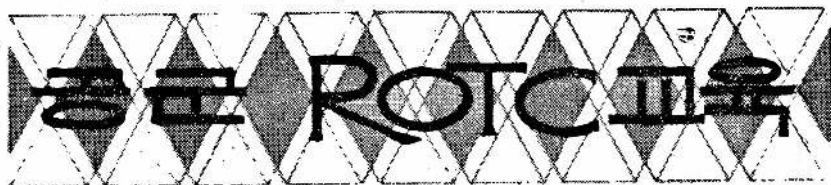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에서—

◇ 정치는 국가사회의 전반사(全般事)에 관한 기초적인 시발이자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정치 자체가 먼저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여타의 문제는 가히 미루어 짐작될 일이다.

◇ 올바른 혁명의 발생 자체가 국가, 국민, 역사의 요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 혁명의 완수는 전 국민적 공동의식, 공동노력, 공동책임하에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좌담회



한국 항공대학

..... 창의성 있는 실천으로 「신념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고,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기 인적 요소의 자질개발과 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하늘에 뜻.....
 을 둔 용사들이 있다.
 금년 한국 항공대학에 창설된 공군 예비역 무관후보생제도(AF.....
 ROTC)를 둘러싸고 후보생들의 명예심과 앞으로의 사명감, 그리고
 그들의 교육에 대해 알아 본다.

□ 참석자

공군 대령	김	직	한	(단 장)
공군 소령	합	영	훈	(MTC교관실장)
공군 대위	최	형	규	(교무행정계장)
공군 대위	김	태	정	(ROTC훈육관)
	김	재	환	(항공대학 교무과장)
	박	오	화	(항공대학 학생과장)
	이	종	진	(ROTC 명예위원장)
	홍	기	주	(ROTC 명예부위원장)
	김	두	현	(ROTC 명예위원)
	김	윤	성	(")
	홍	승	복	(")
	권	성	원	(")
	이	상	조	(전자공학과 3년)
	양	인	석	(운항관리과 2년)

이	광	무	(기계공학과 2년)
곽	태	근	(통신공학과 2년)
박	영	구	(전자공학과 2년)
김	채	근	(운항관리과 1년)
안	승	수	(기계공학과 1년)
김	수	국	(통신공학과 1년)
박	경	성	(전자공학과 1년)

□ 사 회 : 공군소령 김 문 제(ROTC 교관실장)

□ 때 : 1972년 9월 8일

□ 곳 : 한국 항공대학 회의실

사 회 : 자주국방의 태세확립과 군의 정예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불타는 정열로써 애국을 하고자 모인 공군 ROTC를 둘러싸고 「공군 예비역 무관후보생 교육」에 대해서 국방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그 동안의 학교측의 여러 노고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동안의 ROTC 설치 경위에 대하여 교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ROTC 설립의 경위

교무과장 : ROTC는 금년 3월 1일부터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설치 이전의 경위를 살펴보

면 특수대학의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 항공대학이 1968년 12월 31일부로 교통부로부터 문교부로 인수되었으나, 금년으로 20주년을 맞지만 그 동안 병역혜택이 없었고, 공군에 향대 8기 졸업생부터 무관후보생 제도가 있었으나 1969년도에 정식 인가가 됐고, 다시 1971년 12월에 공군 예비역 무관후보생제도(AF·ROTC)가 정식 합의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뉴프론티어 정신으로 앞으로의 정진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학교 교육과 임영교육을 하고나서

사 회 : 교무과장님께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무관후보생, 선배들이 이미 있으나 우리는 개

적정심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ROTC제도 설치 후에 있어서 후보생 중에서 학교교육과 임영교육을 통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면 합니다.

홍기주 : 공군 ROTC 1기라는 생각보다는 항공대학 학생이라는 관념이 짙었지만 임영교육을 마친 후에는 반대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성과면에서 만족을 기해야겠고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영교육 중 저는 흠에 대한 존경심을 배웠습니다. 「어머님 품」이라고 하는 복와자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폭소)

이종진 : 전에는 느끼지 못하였지만 임영교육 후에 저희들 ROTC의 명예실에 입각하여 학교에 좋은 인상을 심자는 의미에서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후보생으로부터 느끼고, 본인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ROTC를 객관적으로 느낀 점

사 회 : 역시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후보생의 자격을 잃지는 말아야겠고

항공대학생으로서 적극적 활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던 1,2학년 학생들이 ROTC 후보생들을 보고 느낀 점은 어떠한지요?

박태근 : 제가 느끼기에는 부동자세라든가 일반학생으로부터 풍기는 멋보다는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군인이면서 학생이라는 어설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풍이 있고, 능률한 모습에 제가 여학생이라면 일종의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채근 : ROTC제복을 입은 선배들을 볼 때마다 ROTC의 비율이 학생 수기적은 우리 학교의 실정으로 보아 내년 정도가 되면 학생의 반이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위압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조 : 종전에 병역문제에 있어서 무관후보생제도가 있었는데, 바람직한 ROTC 제도가 창설되어 더욱 잘된 일이라 찬성하며 앞서 말한 두 학생의 딱딱하다거나, 위압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는 초창기에 있어서의 하나의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차츰 ROTC와 MTC와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 자율성을 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 자신은

ROTC 후보생이 아니지만 한 마디로 해서 그 인상은 만점입니다.

후보생의 긍지,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

사 회: 그러면 ROTC후보생들이 후보생으로서의 긍지와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윤성: 저는 항공대학생이라면 군부를 공군에서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ROTC교육이 학과에 지장은 없다고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딱딱한 느낌이나 위압감 같은 것을 느낀다고 하나 그렇지 않고 저 또한 ROTC에 대한 인상을 호조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후보생으로서의 긍지를 지도자의 인격과 행동의 저변에 잠재하는 확고부동한 정신적 자세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홍기주: 군인이면서 학생이라는 이중신분의 문제가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ROTC후보생으로서의 긍지를 군의 기간이 될 장교후보생의 신분으로서 고도의 명예심을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고, 또한 백절불굴의 인내심과 정의감, 예절을 지킬 줄 아는 도의심을 가지고 소아를 버리고 대아

로 지양하는데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배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입영교육때 훈련장에서 피우는 화랑담배맛은 ROTC후보생이 아니면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폭소).

앞으로의 전망

사 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학생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과장: 전공분야가 임관 후에 특기면에서 살려지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64기 사관후보생 임관시의 비율을 보아도 처회 학교출신의 특기부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장기복무일 경우에는 더욱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OTC장학제도가 설립된다고 하니 학구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유망주로 육성해 나가기를 요망하고 싶습니다.

더욱 조종과 출신의 복무연한에 있어서 아직 미결정이나 비행훈련기간이나 앞으로 민항공분야의 길을 감안한 비행경력을 보아서도 적어도 7년 이상 하늘에 봉사해야 할 줄로 압

니다.

일반학생이 ROTC 후보생에게

사 회 : 그러면 일반학생들이 ROTC 후보생에게 요구하고 싶은 점이 있거나 앞으로 ROTC후보생이 되었을 때의 포부를 말해 본다면?

양인석 : 한 마디로 포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조종실무에 있어서는 더욱 필수적인 것이므로 밝은 슬기와 밝은 지혜로써 스스로 자제하는 자유 속에서 대학생들의 선구적 역할을 실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새로운 학습과 연구에 되살리고 싶습니다.

박영구 : 앞으로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부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협조하는 체제에서 대화 있는 합의에로의 전망이 있기를 바라며, 되도록 좋은 면을 강조하여 투신할 줄 아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저의 포부는, 책임완수의 인격, 대화의 인격, 실력을 겸비한 인격을 가진 인격자로서 자주국방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김채근 : ROTC제도는 장차 사회적응의 교량적 역할이 되므로 군인정신에

위배되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 전공분야를 활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통신전자 부문의 전망은...

김수국 : 설문에서 동떨어진 느낌이 있지만 저는 통신, 전자부문의 전망이 밝지 않은 것 같아 망설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단장 :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전자분야에 있어서 실질경험을 얻는다는 것은 타군에 비하여 공군이 폭이 넓으므로 전망이 밝습니다. 더욱 항공전자부문이 요구되는 공군에서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무과장 :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인생을 개척한다는 면에 있어서 꼭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지휘봉술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공분야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전공분야에만 집착하는 조급하고 소극적인 마음을 배제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학생과장 : ROTC후보생은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장교로서의 소양을 배양하는 것이므로 일말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MTC학생들은 선배와 접촉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ROTC후보생들은 타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부담을 느끼어 조화를 이루어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반공교육의 착안점

사 회 : 좋은 말씀 여러분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도주의, 책임감, 사상적 교육 외에 반공 민주교육의 중요점을 어떤 부문에 두었으면 생각하십니까?

박경성 : 「국방은 부귀보다 더 중요하다」고 아담스미스가 말했듯이 총력 안보를 부르짖고 양과 질의 자국방이 요구되는 현하에 책임완수의 도덕관, 창조적인 삶의 태도, 인간정신의 회복 및 확립, 주체성에 입각한 기본사상의 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김대위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반공민주교육의 주요점은 과학적인 이론교육과 반공도덕의 내면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학훈단의 훈육목표를 말씀드리자면 미 육사에 「의무, 명예, 조국애」라는 슬로건이 있지만, 저희 학훈단의 훈육 목표는 「군인정신함양, 전기열마, 인격도야」를 내세우고 있

는 것입니다.

이로써 Leadership문제, 협동심, 전우애를 함양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승고한 전우애는 군대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생관에 입각한 전우애는 전력강화의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전우의 희로애락을 자신의 것으로 포용할 수 있고, 전우가 다하지 못한 임무를 자진해서 완수할 줄 아는 이러한 모든 것이 과학적인 이론교육과 반공도덕의 내면화로써 이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과 후보생 적응

사 회 :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상태는 어떠한지요?

건강이라는 것은 단지 무병하다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호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건강조건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이며 현상태에 만족하고 있는지 또한 ROTC후보생은 훈련시 적응문제는 여하한지요?

이광무 : 육체적으로 저희 학생들은 양

호한 편이나,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 상태는 각자 나름대로 자신이 판단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현상태에 완전히 만족할 만한 정신 건강상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현 : ROTC입영훈련시 처음에는 훈련이 힘들고 고봉스러웠지만 적응해 나가고자 하는 인내심과 고난을 감수, 극복하겠다는 강인한 투지력 앞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정신력이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만으로 관물의 각이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폭소)

후보생에게 기대하는 것

사 회 : 입영훈련시의 에피소드를 잘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건강을 겸비한 여러분에게 합소령님께서 앞으로 기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합소령 : Pax Americana시대로부터 Pax Pacifica에로 전환하는 현하에 더욱 대북한 대응태세에서 우리는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무

력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하한 적의 간접침략이라도 분쇄할 수 있도록 군의 정예화와 국민총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대한민국 공군의 간부가 되어 무적의 공군, 무적의 국군이 될 때까지 우리는 뚜렷한 사명감을 지닌 창의적인 정예공군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당백의 필승의 신념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어떠한 훈련이라도 이를 감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임받는, 연마하고 전진하는 정예공군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단장으로서 한 말씀

사 회 : 유비무환의 철통같은 방위력을 구축하고 자기발전과 공군력 강화에 끊임없는 노력의 기초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단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단장 :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본인이 바라는 것은 성의있는 태도로 일관하여 할 때와 놀 때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로 모든 교육훈련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훈단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극 성의있는 태도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의 의미를 모르면서 희생의 대가를 구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인과 학훈단은 이러한 여러분과의 대화의 광장을 자주 마련할 예정입니다.

끝 맺는 말

사 회 : 지금까지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북한과 대응하는 이때에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하겠고, 장차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해 정예화에로 정진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후배와 ROTC간에 대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서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고, ROTC후보생들은 군을 통해서 학교의 명예를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입영교육 중 항공대학기를 앞세우고 다녔듯이 일찌 단결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대학의 명예를 유지해 나가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군의 장교 후보생이라는 사명감에 불타고 스스로 자강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확고한 군인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MTC학생들은 ROTC에 관한 일종의 선입감을 버리고 선배라는 생각으로 격리감을 버리어 상호 일체감을 형성하여 자주국방에 앞장서서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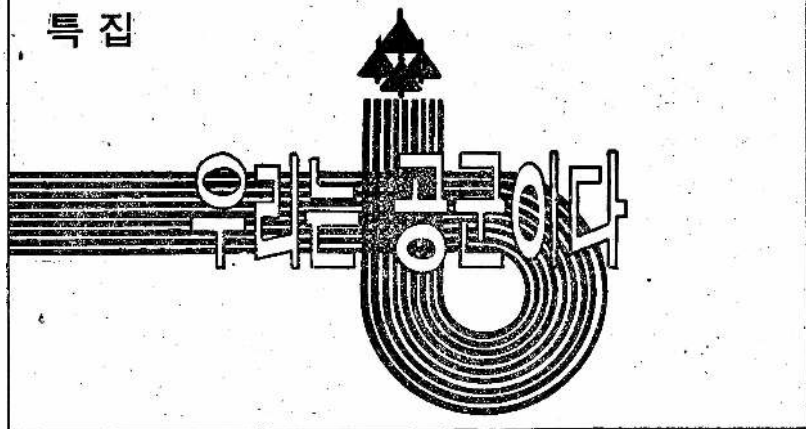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믿거나·말거나

◇ 이상한 노트

블란서 앳베빈의 열두살 난 아네르 후르론이란 소녀는 어떤 질문을 받든지 그의 손, 발, 어깨에 붉은 색으로 나타나는 글자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 소녀의 의지의 힘으로 만들어진 필적은 몇 분 동안 확실히 읽도록 또렷하였다. 그러다가 차츰 엷어져서 흔적 없이 살아졌다 한다.

특 집



- ◇... 우리는 정예공군이다. 맡은 바 임무는 다르다 할지라도 푸른 제...◇
- ◇...복으로서 각기 책임완수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각 분...◇
- ◇...야별로 공군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찾아보기로 한다. <편집실>...◇

◁ 조종사 ▷



총령 공영화

손을 대면 금시 파랗게 물이 들것만 같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하얀 비행운으로 원을 그리며 달리는 비행기를 볼 때 누구나 멋이 있다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나 초긴장된 상태에서 그 복잡한 계기판을 정감하며, 레시바로 지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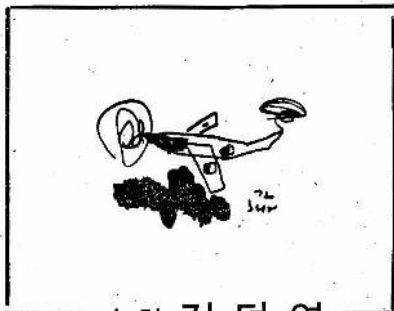
는 작전 수행에 촌각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조종사의 등에는 땀이 흠뻑 배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세계의 전쟁양상이 달라지면서 항공기의 역할은 중요시되고 항공력은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만큼 클로즈업되고 있다. 그 실례로는 1, 2차 세계대전의 전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중동 6일 전쟁은 너무나도 똑똑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제 27년 동안 남북으로 갈라져 한시도 긴장을 풀 어보지 못하고 총칼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공군력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팽대무변한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 조종사 한 사람 한 사람 어깨 위에 주어져 그 짐은 더 없이 귀중하고 무거운 것이다. 겨레

생명과 나라권리를 지키는 군대 앞에 바친 이 몸은 한번 나서 한번 죽는 땀땀한 길에 맡은 사명 다하러 웃으며 간다. 이 조종사의 노래가 내포한 뜻처럼 전투 조종사는 자기를 초월하여 생활하고 있다. 한 몸을 바쳐 조국을 구하고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서슴치 않고 그 길을 택했고, 아무리 험하고 위험해도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걸어갔던 것이다. 6·25당시 홍수처럼 밀어닥치는 북괴 탱크를 보고 한대라도 더 부수기 위해 적의 고사포에 맞아 불은 비행기로 적의 탱크에 사정없이 내리박혀 부딪쳐 버린 이 근석장군이 나, UN공군은 요새화된 승호리 철교를 못 부셨지만 우리 선배들은 적의 포화가 작열하는 위험도 무릅쓰고 명중 폭파시켜 공군전사를 장식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항상 조국의 하늘을 연중 무휴로 방위하기에 삼천만의 불침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한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젊은 청춘을 불사르고 남이 잘 때는 깨어서 적을 감시하고 만일의 경우는 하나 밖에 없고 귀중한 생명까지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신념 속에서 생활하기에 하늘의 파수병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기에 조종사는 불붙는듯한 정열의 빨간

머플러를 목에 걸고 대로를 활보하는 긍지를 갖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우리 공군은 북한 공산집단의 공군에 비하여 수적으로는 3대 1로 열세한 입장에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전투 조종사는 북한 공산집단 조종사보다 평균 10배의 비행시간과 훈련을 하였고, 특히 요즈음에는 전기연마 1:5의 신념으로 수적열세를 질적인 전기연마로 만회하고서 밤낮 없이 피눈물 나는 강 훈련을 실시하고 전투 조종사의 정신면에서는 일기당천의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더욱 자부심을 갖는다. 나는 자랑스러운 전투 조종사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다는 신념을 갖고 심신을 바쳐 매진한다. 나는 어떠한 일든지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나는 항상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폭을 넓혀서 내가 종사하는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한다. 나는 전투 조종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며 무한한 자부심을 갖는다. 나는 일할 때 뿐 아니라 놀 때도 서슴치 않고 타와 선의의 경쟁을 한다. 나는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면 반드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또 좋은 것을 찾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적극적인 실천자세를 가지고 전투 조종사로서 본분

을 다하는 것에 큰 보람을 갖는다. 나는 이상의 신조로 전투 조종사의 생활을 하며 누가 보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만이 자부과 긍지를 음미하면서 「나」 하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라는 전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본분으로 생각하면서 피와 땀을 아끼지 않음이 우리 전투 조종사의 자세이고 각오라 하겠다.

◁ 조종사 ▷



— 소령 김 덕 영 —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흰 줄무늬를 수놓으며 마음껏 활개를 퍼보는 빨간 머플러에 푸른 제복의 멋진 사나이들」 피상적으로 좋게 평해보는 통상적인 조종사의 이미지이다.

물론 제복은 어디까지나 군복이며 이는 국방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방위의 표시이기도 하다.

내적으로 조종사들이 감당해야 할 일

은 너무도 많다.

그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의 힘에 의한 변화(공중·지상)에 적응해야 하는 기술을 연마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인내력의 한계에 도전해야 하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중력 가속도에 의한 압력에 도전하여 신체 기능의 일부분이 마비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부정확한 인체감각의 착각으로 인한 고통스런 인내력의 한계에 도전하여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일당백의 정신력에서 면역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 정신은 현 정세하에서 결정적인 요소인 공중기습에 대응할 적에 이를 격멸 승리의 판권을 확보해야 하는 정예공군의 사명에 귀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반 여건을 극복하고 공중활동의 무궁한 변화에서 자부심과 희열을 찾아 이를 맛보는 데서 보람과 긍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항공기 자체를 생각하면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로서 공기 중을 날아야 하며, 활동무대는 무한의 공중이라고는 하나 조종사 자신의 활동영역은 반평도 못되는 좁은 조종실, 직경 10cm 미만의 조종간 운동범위 내에서 온 정력을 모아 그리는 의지의 창조품은 아무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자기만이 알고 자기만

이 평가할 수 있는 무형의 예술로서 혼자서 최상의 미소를 짓고 등에 배인 땀도 의식하지 못한 채 만족하는 것이 공군의 실체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육망의 한계는 없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겪는 갈등은 좁은 운동, 넓은 활동무대와 의정·반의 갈등에 승하여 더 깊게 되고 이를 해소하는 기회를 가끔 갖게 되는데 이것이 거칠은 면도 엿보이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일면으로 생각한다면 더 큰 갈등, 쌓이는 잠재적인 불만은 승화하는 형태로 나타내는 일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Golfer가 Holeon Ball을 넣는 기분을 대지사격시 느낄 수 있으며, Driver로 Tee up 하는 기분을 공중 전투 기동을 실시하면서 만끽하고 낚시 삼매경에 처하는 경지와 똑같이 표적을 조준하며 공중사격을 실시하면서 보람을 찾는 것이다.

언제나 거짓없는 기계의 움직임, 여기서 우리는 참을 배우고 진실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람찬 폭음을 남기며 힘찬 이륙을 하는 항공기 조종석에서 헬륨을 쓰고 있는 동료가 더없이 힘차고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은 참된 생활 속에서 보람찬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정의감

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내가 조종석에 앉아 비행을 할 때도 남이(국민) 그렇게 보아주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정비사 ▷



— 중령 박인채 —

이른 아침.

정적을 깨는 「부저」 소리.

아직 별빛도 사라지지 않은 새벽에 「부저」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Alert 정비사 대기실에선 고조되어 가는 긴장이 한 점을 향하여 돌진하는 순간의 진동을 겪는다.

의자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소리.

지상장비의 소음에 이어 비상대기 항공기 엔진 시동이 걸리는 소리.

이러한 것들이 삼천만의 불침번인 Alert 정비사들에겐 순간적인 일에 불과한 것이다.

이윽고 항공기는 푸른 조명등이 질서

정연한 유도로를 거쳐 Run-way를 질주하여 무사히 이륙한다.

「Hot Scramble」

정비사에게 항상 따르는 용어인 동시에 언제나 긴장감을 고조시켜주는 단어이다.

전광석화화도 같은 순간이 지나고, 어둠속에 파란 배기가스를 뿜으며 무사히 이륙하는 애기를 바라보고 있는 정비사의 눈동자에는 보람이 충만해 있는 것이다.

푸른 제복을 입고, 하늘을 지키는 용사가 되겠다는 용지를 품고 공군에 뛰어들어 우리 정비사에게 가장 먼저 가까워지는 것은 우선 JP-4 항공기의 연료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 연료보급을 하고 항공기를 세척하며 정비를 위해 기름통 속에 손을 넣다 보면 기름에 걸린듯 손이 부르터지고, 기름때가 끼어 물로도 씻기지 않는다.

정비사 생활을 하다보면 얼마든지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그러한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을 위한 고통 속에서 무형적으로 얻어지는 항공기에 대한 애착심은 실로 커지는 것이다.

우수한 정비사는 반복되는 실무교육

을 통하여 엘리트 정비사가 되며, 항공기에 대한 애착심은 바로 그 숙련도와 비례한다.

정비사들의 업무는 모두가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의 결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 번의 실수가 공군 전력의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깊은 편념은 모든 정비사에게 깊이 뿌리박혀진 것이며, 이러한 정신만이 안전을 기해 주는 것이다. 특히 일선 정비사들의 자랑스러운 임무가 공군 전력증강의 원천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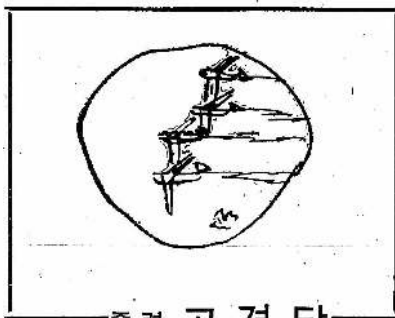
계속적인 훈련비행의 정비지원을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임무와 비상대기의 임무인 것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선정비사의 비상대기는 낮과 밤,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나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정비사들의 가정생활 내지는 개인적인 시간의 여유라는 것이 이러한 빈틈없는 비상대기 근무중에서 촌각의 틈을 낼 수 밖에 없는 고된 생활의 연속이겠으나, 그러한 속에서도 말없이 실행하는 미덕이 또한 정비사들에게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 일선 정비사들의 긍지와 보람은 바로 이런 고되고 힘겨운 정비생활 속에서도 공군의 생명은 바로 우리요,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는 원천이 바로 우

리라는 생각으로 내 손으로 정성껏 정비한 예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호뭇해하는 마음은, 정비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공군의 주역은 우리라는 생각은 일선 정비사들만의 지나친 자부심만은 아닐 것이다.

<제 3593 부대>

◁ 무 장 사 ▷



총령 고경달

오늘날 한 국가가 외교무대에서 커다란 비중으로 나타날 때는 그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의 부국이나로 발언권이 강해지지만 그 경제란 일단 유사시 얼마만큼의 국방력을 증강시킬 수 있느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 힘의 상징인 국방력이 막강한 위력으로서 나타나려면 삼군이 모두 제 성격대로 강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현대전에서는 공군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군력이란 항공기의 보유량과

조종사의 기술문제에 얼마만큼의 전력이나오나 평가되지만 그 항공기와 기술은 우수한 무장지원 없이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하나의 「날뿔」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항공기의 위력이 나타나고 조종사의 기술이 제대로 나타나게 하려면 무장사의 지원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 무장사는 무장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갖는 동시에 또한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현대전의 중심이 항공기요,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주는 것이 우수한 무장지원이라면 그 우수한 무장지원을 하는 무장사야말로 핵심적인 인물로서 등장되는 것이다. 항공기관 여러 후방분야의 지원없이 혼자서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복합체의 의미로는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복합체가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무장사의 할 일이라 생각한다.

이 무장사의 할 일이 곧 바로 무장사의 후방지원을 의미한다.

그럼 이 무장사의 후방지원이란 무엇인가?

옛날에는 무장사의 인식이란 무거운 폭탄이나 다무고 위험한 폭발물이나 판지면서 작업장의 노무자로서의 일일 수

행하는 정도로서 힘만 세고 일만 잘 하는 일꾼 정도면 된다는 인식이었으나 지금의 무장사는 광범한 일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하고 협동적이며 적극적이어야 하며 고도의 두뇌를 요구하는 일로써 그 광범위한 것을 대별하면,

● **항공탄약(Munition)**: 저장관리, 조립, 운반수단 및 폭발물 처리.

● **무장(Weapon)**: 폭탄, 라케트, 기총, 유도무기 및 항공사진 계통의 정비.

● **화력제어(Fire control)**: 조준기(Sight, Radar, Sys) 계통정비.

● **탐재통신(Communication)**: 송수신(TACAN, SIF, Radio Compass) 계통정비로서 화력지원과 통신전자분야의 업무가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며, 한 마디로 이 방대한 업무를 통합하고 관장하여 일을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군의 위력을 나타내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무장사라고 한다.

그럼 이 방대한 조직을 체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무장사의 임무란?

첫째: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항공무장을 지원하는데 신속한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초를 다루는 현대전에서는 벌써 패배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둘째: 정확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무

장을 한 항공기가 그 정확도가 미약하여 고공에서 제 임무를 수행못했을 경우 이것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투하, 명중, 파피도의 차질)

셋째: 안전하게 지원해야 한다. 위험한 폭발물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생명은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즉 한 번의 사고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신속, 정확, 안전이야말로 무장사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은 물론 공군력을 대표하며 국방력의 증강이며 국가의 힘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하는데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룩될 수 없는 것으로 끊임없는 훈련과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해에는 공중사격대회에서 타단에 비해서 무장전자지원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무장전자정비대대는 최우수 무장지원상을 미공군 314사 단장 「멜로이」 장군으로부터 수상하게 되었으며 이때 훈시에서도 「멜로이」 장군은 무장없는 항공기란 마치 Air Line과 다름없다고 강조하였는데, 올해는 우리의 현실로 보아 신속한 무장지원을 해야 하는 처지에서 우리 대대는 타부대보다 빨리 증전에 ○○분대를 병던 대량 무장장착을 ○분대로 돌파함으로써 그

훈련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러한 일련의 체계를 세움과 동시에 후방요원에 무장장착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필요한 인원을 교육시킴으로써 총력지원으로 완전무결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1인 2기의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전력증강의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게끔 준비하였으며, 적의 기습적인 공격에도 언제든지 막아낼 수 있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과 부단한 노력의 경주로서 우리 무장사는 무장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주국방을 부르짖는 국가의 목표 앞에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태도로서 생활하며 발전적이며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공군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현실 앞에 다시 한 번 우리 무장사의 위치와 갈 길을 음미해 본다.

<제3593부대>

◁ 정 비 사 ▷



총령 이상호

1952년 4월 L-4 경항공기로 시작됨

우리 공군은 그후 AT-6, F-51 무스탕 전투기로 옮겨지면서 차츰 공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제트 엔진의 출현으로 F-5 항공기의 도입에 이어 F-4 팬텀기의 도입으로 이제는 성년 공군으로서 조국의 푸른 창공을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주국방을 다지게 되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기만 하다.

오늘도 제트 엔진의 요란한 폭음과 함께 푸른 창공을 날며 조국의 영광방위를 다짐하고 비행하는 전투기의 모습울 올려다보는 국민들은 공군의 존재함과 자주국방의 기대를 공군에 걸고 있다 해도 잘못된 생각은 아니리라.

지난 67년 6월 중동의 6일전쟁은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력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아랍보다 수적으로 열세하면서도 「이스라엘」 공군의 기습선제 공격으로 아랍의 제공권을 완전 장악하는 공군 전격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아랍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끈 사실은 현대전의 면모를 뚜렷이 우리에게 심어준 좋은 예라 하겠다. 오늘날 세계 항공기의 발전템도는 변화무쌍하여 오늘 창공을 주름잡던 신기종이 내일이면 구형에 속하게 되리만큼 온 세계는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에 온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공군은 아직 자체생산력의 미

비로 인해 우리의 힘으로 항공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종을 보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 우리 정비사들은 오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의력과 정신편, 전기면 그리고 체력면에 있어 자체연마에 정진하고 있다.

한 대의 전투기를 띄우기 위해서 밤낮을 거꾸로 생활하며 온몸이 기름투성이가 되어도 조그마한 나사못 한 개에 전력을 기울이는 정비사들의 진지한 눈초리는 왕성한 책임감에 불타고 있으며, 반짝이는 동공 속에 내일의 성년공군을 그려보는 것이다.

격납고에 준비하게 늘어선 각종 기종의 항공기들.

저 기체 내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털끝만한 실수가 있다면 음속돌파의 순간, 산산조각이 날것만 같음을 생각하며 우리 공군의 생명선이 정비사들의 손에 응결되어 있음을 가슴 속에 뜨겁게 느끼며, 젊음과, 정열과 생명을 기체 내에 불어넣어주는 탄어린 정비사의 노력과 총화가 공군 정예화의 원칙이 되어 먼 훗날 우리 자신의 손에 의해서 세계 열강국에 못지 않는 신예기가 개발되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종을 보유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갖추는 날이 하루 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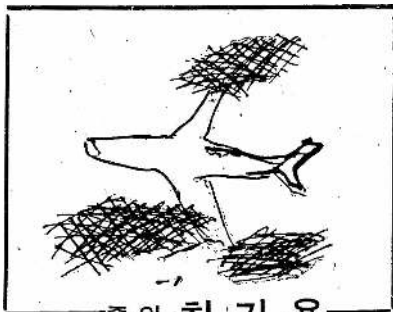
오리라는 부푼 희망과 기대에 정비사들은 오늘도 고된 줄을 모르고 신념과 긍지 속에서 정비에 전념하고 있다.

24시간의 불침번.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 위를 질주하며 요란한 폭음과 함께 웅대한 모습으로 푸른 창공을 솟구쳐 하얀 선을 그리며 치달는 창공의 전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정비사들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보람차고 흐뭇한 미소 속에 자주 성년 공군을 가슴 속 깊이 다짐해 본다.

〈제 3593 부대〉

◁ 무 장 사 ▷



중위 최기용

연전에 「대야망」이란 영화를 감상할 기회가 있어 좀 관심을 가지고 본 기억이 있다. 1차대전시 치열했던 공중전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장면 중 한 조종사가 어려운 기동 끝에 상대 비행기의 꼬리를 물고 기종의 방아쇠를 당겼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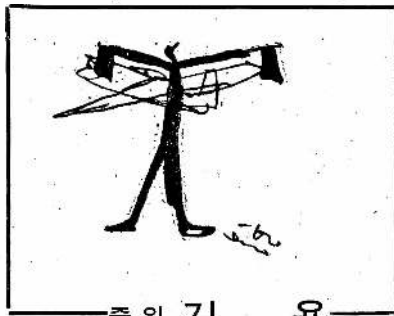
기종이 꼼짝도 하지 않아 무척이나 애 태우던 모습이 기억에 새롭다. 다른 감상객들이야 탁연히 낭패로우나 하고 그쳤겠지만 본인이 공군의 일원이고 보면 그것도 무장사의 칭호를 받고 있는 실 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듯 문제의 비행기를 작업한 무장사가 기총정비에 미비했었는지 아니면 비행중 갑자기 자재에 결함이 발생했는지 기타 여러가지 가능성을 찾느라 고심하였다. 기본전환으로 본 영화지만 직업의식은 떨칠 수가 없는 모양이다. 화면에 보이는 비행기 자체는 유치한 것이나 그래도 기종을 달고 날으니 제법 전투기로서 모양은 갖춘 셈이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전투기와 일반 여객기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가령 여객기가 편대를 이루어 비행하는 것을 본다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단순히 인간이 가지는 하늘에 대한 동경, 그리고 편대를 이룬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투기의 편대비행은 어떨까. 이에는 좀 다른 차원으로 위에서 느낀 것 이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위력에 일종의 경이스러움마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을 결정지우는 것이 바로 무장인 것이다. 위용을 자랑하며 적지로 날아간 전투기가 전혀 무장

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여객기와 차이점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에 우리 무장사들은 긍지와 사명감을 느끼지만 반면 각오 또한 새롭지 않을 수 없다. 한밤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이른 새벽 우리 무장사들은 기상하여 찬 새벽공기로 졸리움을 씻고 Line으로 나가 항공기 무장계통 배선 및 Switch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그리고 무장장착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를 살피고는 비행계획에 따라 해당 무장을 장착하게 된다. 확인 또 확인을 거친 항공기는 요란한 폭음을 남기고 활주로 끝으로 이륙 사라지면 무사히 사격임무를 끝내고 돌아오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임무완수에 부듯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와같은 훈련으로 조종사의 사격능력을 배양시켜 공군 정예화의 밑바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무장사의 임무가 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대량무장장착」— 이른바 Mass Loading이다.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전투태세 완비의 일환으로 가장 빠른 시간내 정확 그리고 안전하게 항공기에 대량으로 무장을 장착하여 작전에 임하는 임무이다. 상황이 떨어지면 마치 비행단이 살아 움직이는듯

체계적으로 민첩 활발하게 움직여 활기를 띠우게 되며 긴장감에 충만하게 된다. 우리 무장사들은 이때만을 위해 살아온듯 빠른 동작으로 각기 항공기로 이동하여 폭탄을 장착하게 된다. 평소에 받는 교육 훈련으로 무장사의 활약은 빛을 발한다. 항공기 밑으로 정확한 위치에 폭탄을 이동시켜 Bomb Jack를 올리고 Lock를 걸고 Fuze를 장착하며 Sway brace를 조이고..... 하나 하나의 벽돌이 쌓여 훌륭한 건축물을 이루듯이 무장사 각 개인의 동작으로 무장이 끝나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는 공군 최대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훈련의 진행과정을 보노라면 오묘한 예술작품이라도 감상하는 듯한 희열마저 느끼는 것은 내가 감수성이 예민해서일까 아니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미적 감각이 없다면 좀 둔한 편에 속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코 배 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무장사가 항시 대하게 되는 상대는 폭발물이다. 이 폭발물이라는 놈은 결코 섣불리 다룰 놈이 아니다. 오기로 가득찬듯 성미에 안 들면 기여이 의사표시를 하게 되므로 그야말로 신주 명어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의사표시라는 것이 인명피해나 국가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요약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장사의 손은 억센 반면 그만큼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므로 섬세하며 부드러운 면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때문에 우리 무장사들은 집에 들어가면 다정한 남편, 훌륭한 아빠로 정평이 있다). 각기 제원이 다른 여러가지 폭발물을 다루려면 각기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여 안전수칙이 수립되고 이에 어긋남이 없이 작업을 실시하여 말은 바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무장특기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안전」이란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안전수칙을 엄두에 두고 각종 작업, 교육 및 훈련에 임하며 임무완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 관 제 사 ▷



중 위 김 용

관제사 생활 3년 4개월, 이제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 관제사 생활이지만 사

실 지금까지 이 관제분야에 대해 내가 가졌던 보람과 회의가 3년 4개월 동안 착잡하게 교차되고 있었음을 먼저 고백하고 싶다.

우리의 어려운 국가적 현실 속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관제분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물론 군인으로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긍지와 보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반면에 그 나름의 회의 또한 있으리라 믿는다.

공군의 여러가지 업무 중 특수한 여건 속에서 복무해야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 관제사 생활이기에 보람에 따르는 회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도 전국 산간벽지의 Site에서 낮과 밤의 구별이 없이 영공수호에 전력하고 있는 관제사들은 분초를 다투는 긴박감과 잠시의 해이도 있을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내 조국의 하늘을 내가 수호하고 있다는 긍지와 보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연륜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아직 어설픈 관제분야의 지식 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내가 관제사의 긍지와 보람을 피력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모하여 관제사의 참된 진면을 묵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보람에 사는 관제사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관제사라면 누구나 거쳐야 되는 훈련관제사 시절 :

보람과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내가 왜 관제사가 되었는가 하는 일시적인 회의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리라.

타 특기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선후배간의 엄격한 구분은 관제특기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라는 것을 이 훈련관제사 생활에서 절감하게 된다.

요격관제 회수가 100회가 넘어야만 주어지는 숙달관제사 자격을 얻기 위해 전념해야 하는 6~7개월의 시간은 아마 관제사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시간일 것이다.

항상 긴장하고 신속 정확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작전실 내는 물론 BOQ 생활에서도 타 특기의 동기생들이 누리는 여유를 훈련관제사 시절에는 생각할 수도 없다.

몇 만 Feet의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들을 갖고 요격관제 훈련을 할 때는 하등의 잡념도 없이 Scope만을 주시하

면서 나도 모를 긴장감에 Phone을 왼 손에 땀이 배이고 등에 진땀이 배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 이 훈련관제사 생활이다.

이미 관제업무에 숙련된 선배장교가 Monitor장교로 옆에 앉아 여러가지 조언과 Coach를 해주지만 계획한 대로 요격판제가 잘 되지 않거나 힘에 벅찬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선배장교의 눈치와 조치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나, 그러나 대부분의 선배장교들이 엄한 꾸중과 요격판제의 재 시도를 호령할 때는 당황해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어찌다가 선배장교가 도맡아 해주거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때는 어찌나 그 선배장교가 고마운지 직접 Scope 앞에 앉아 Mission을 해본 관제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전실 내의 긴장된 근무 못지 않게 훈련관제사를 괴롭히는(?) 것은 이론교육과 시험이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어느 군보다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공군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관제분야만큼 교육과 시험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특기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래도 고참 관제사라고 내면에는 생각하고 있지만 역시 정기적인 교육(주 1회)과 시험은 변함없이 내가 치러야 하는 과정이다.

이 Site에서 다른 Site로 전속을 가게 되는 경우에도 전입시험을 보아야 하고 새로 전속한 Site의 특수한 규정을 익히기 위해 교육을 받고 공부 아닌 공부들 해야 하니 관제분야를 처음 익히는 훈련관제사 시절은 재언을 필요치 않는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밟고 마지막으로 Qualify Check을 받아 통과하게 되며는 갖게 되는 Qualify 회식은 관제사 생활의 분수령이 되는 기념식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는 작전실 내의 모든 근무에 뚜렷한 책임이 부여되고 관제사로서의 여러가지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고생되던 훈련관제사 시절은 지나간 추억으로 종종 화제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도 엄하게만 보였던 선배 장교들도 다른 대우를 해주기 시작한다.

도회지와는 멀리 떨어진 산이나 섬에 대부분 위치해 있는 Site에서 주말야나 휴무일은 물론 낮과 밤의 구분도 없이 불철주야 삼천만의 불침번으로서의 본격적인 관제사 생활은 시작되는 것이다.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를 여기서 세삼스럽게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분단된 국토 위에 DMZ라는 군사분계선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적과 대치해 있는 우리의 국가적 현실은 단 5분이면 수도 서울이 적기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기에 공군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은 특히 강조된다고 보겠다.

국가가 지금 공군에게 요구하고 있는 완전무결한 임전태세의 완비나 「1대5」라는 구호 아래 숫자적 열세를 굳건한 정신력과 연마된 전술전기로 극복하자라는 공군의 지상목표가 가장 막중하게 부여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관제분야라 하겠다.

이러한 국가적 요구에 맡은 바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관제사들은 전국방방곡곡의 Site에서 끊임없는 전술전기 연마와 내 나라의 하늘을 내가 굳게 지킴으로써 내 형제 부모들이 오늘도 편안할 수 있다는 보람과 긍지 속에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삼실과 같은 어두침침한 작전실:**

잠시도 실을 모르고 도는 Scope의 Sweep를 따라 하늘을 감시하는 관제사의 눈초리는 빛을 발한다.

우리 영공 내외에서의 극적 불명 항공기나 적성 항공기의 출현은 작전실 요원들을 초진장 사태로 이끈다.

그 항적의 위치, 속도, 고도, 방향,

대수 등에서 항적의 위험도가 설정되고 이것에 따라 가장 가까운 비행기지의 비상대기 항공기를 긴급 출동시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의 호뭇함은 우리 관제사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보람과 긍지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끈히 잠든 한밤중에 해안 어느 곳인가 출현한 간첩선을 적침시키기 위해 야군 비행기를 긴급출동시켜 작전을 전개하는 우리 관제사들의 빛나는 눈초리에는 시간과 나를 초월하는 숭고한 사명의식만이 있을 뿐이다.

어두운 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Radar로 유도관제하면서 TGT 지점으로 접근시킬 때는 조종사와 관제사가 일심동체가 되어 이 작전을 꼭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속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오직 내 형제 내 부모들이 평화스럽게 잠들고 있는 이 국토를 우리가 지키고 수호해야 된다는 하나의 충성된 마음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실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제사들은 낮과 밤이 없이 오늘도 전국 산간벽지의 Site에서 끊임없는 전술전기 연마에 온갖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며 분초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실전과 같은 훈련 속에 전술전기를 연마하고 내 조국의 영공을 내가 최선단

에서 지키고 있다는 관제사의 보람 앞에는 그 어떤 난관도 눈 녹듯 사라지고 오늘도 내일도 보람과 긍지에 산다는 뜨거운 마음만이 관제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 교 관 ▷



중위 안진기

공군기술교육단은 보라매의 산실이요, 요람이다. 나에게 장교로서의 생애를 열어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방향지워 준 배움의 터전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공군의 첫 인상을 느꼈고, 민간인이 군인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지난 3년 수개월의 나의 군대생활은 훈련을 받을 당시 이곳에서 터득한 철학적 이념의 참되고 올바른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나는 평소에 잊지 못했던 이곳에 돌아와서 교관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훈련을 받는 여러 피교육자들과

락을 같이 하면서 그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고도로 전문적이고 분업화되어 있는 유기적인 조직체 내에서 각자가 맡은 임무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관은 막강한 공군의 정병을 양성하는 사람이며 교관의 일거수, 일투족은 바로 피교육자가 본받게 되고 후보생들의 행동은 곧 공군 전력에 연결되므로, 교관들의 몸가짐과 마음의 자세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 교관직을 맡게 되었을 때는 비장한 각오로 몸을 움추렸다.

「절대로 욕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구타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강인한 훈련으로 정예 병사를 육성하리라」는 마음을 굳게 다졌었다.

그러나 막상 교육에 임하고 보니 실체는 구름처럼 이상을 증폭시키기 어려웠고, 교육의 중요성을 터득할수록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마음을 덮었다.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보생들로 하여금 공군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보람을 갖게 하며 공군의 병사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교육이 시작될 때마다 생각하지만 시

작할 때 세운 이상과 실천은 항상 차질이 온다.

천차만별로 다른 개인들, 특히 사회에서 자유분방하게 놀던 청년들만 모아서 규정된 가장 짧은 기간에 국가와 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해서 새로운 인간, 즉 군인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극한적인 통제를 가해야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계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

훈련은 습성을 이루고, 습성은 제2의 천성을 만들어서 마침내 그 전기는 강요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이며 자연적이어서 가장 쉽게 그러나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만 하기 때문에 강인하고 철저한 군사훈련을 한다.

이러한 극한적인 통제나 반복적인 훈련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후보생들로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내하기가 무척 힘든 것이다. 그러나 공군장병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에 비하면 쉬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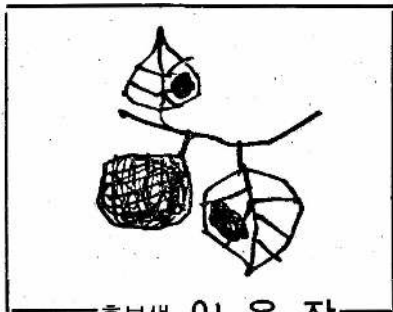
이렇게 책임을 느끼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성과가 여의치 못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육심만큼 큰 불만이 외부로 나타나는 때도 있다. 그러다가도 내가 피교육자일 때 이러한 모습을 보고 놀라던 일을 생각하고는 반성을 하고 심호

흡을 하지만 다시 또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되고 어떤 때는 처음으로 교관으로 임할 때 가졌던 이상과의 차이에서 심한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과 진통의 반복을 거치면 많은 젊은이들이 민간 생활에서의 습성을 버리고 군인다운 동작을 익혀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병이 되어 계급장을 달고 각자의 근무처를 찾아 가고 우리가 가르친 이념과 전기가 이들에게서 실천되어 공군을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될 때 우리 교관들은 보람을 느낀다.

젊은 우리들의 철학과 이념이 공군의 전통을 이어 갈 때 교관들은 긍지를 느낄 것이다.

◁ 후보생 ▷



후보생 이유 작

「후보생으로서의 각오와 긍지」
수술대 위에 죽은듯이 자고 있는 나에

게 하이얀 마스크를 한 닥터가 다가와서 『각오는 되었겠지?』하고 물었다. 『네!』 생명에 위협까지 주는 병이었고 끝내는 수술까지 해야만 했다. 수술 중에 생명을 잃을 염려도 있고 해서 단단한 각오가 필요했던 모양이었다.

『자! 여기에 사인을 해라!』하며 뱉는 글씨 쓴 종이 한 장을 내어 밀었다. 『무엇입니까?』 『읽어 보면 알아』 읽어보니 수술 중에 생명을 잃으면 전사로 해서 유수담당자 앞으로 유골을 보내겠다는 끔찍한 내용이였다.

『군의관님만 믿습니다. 서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해주십시오』 『참아야 한다』 『네!』 준비가 끝나자 가위질이며 칼질이 실로 케매는데에서 끝났는데 각오했던 것과는 너무나 편했고, 고통마저 없었다.

지금도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 그때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가 없었더라면 정말 그 아픔을 참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현재 나는 사관후보생으로서 완전한 초급장교 지휘관이 되고자 박차를 가해가며 그토록 고된 훈련과 어려운 교육과정을 거쳐 많은 경험과 알찬 지혜를 습득하고자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이기겠다는 신념과 각오가 굳건이 뱉혀있다. 그래서 튼튼한 신체단련에 숨가쁘

게 노력하고 교양과 지식을 넓히고자 책을 읽고 담화를 나누며 장교로서의 겸손한 기풍과 소양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날아갈듯한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셈이다.

사관후보생인 나는 내일이 있다고 안일하게 기다리지 않고 오늘이 내게 주어지던 24시간 동안 온갖 심혈과 정성을 경주해서 완전무결하게 처리하고 후회될 일을 결코 하지 않으며 나 하나로 인해 전체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오늘을 어떻게 의의있게 보냈는가?」가 극히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어떻게 해서든 편하게 하루를 보내자」는 식의 안일무사주의는 절대 배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덧붙여 내가 초급장교가 되려는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겠다는 각오가 있다.

그것은 첫째, 「인화」로 아래 사람을 완전한 내 편에 들게 하겠다.

딱딱한 것은 두동강나기 쉬우나 연한 것은 동강나기가 어렵다.

사람의 깊은 마음을 주먹과 원력으로 는 결코 다스릴 수 없으며, 진실로 가식이 없는 태도로 아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첩경이다.

「인화」로 동져쳐야만이 윗 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감없

이 따르는 것이다.

「도저히 칼로서 물을 베지 못한다」

둘째, 부하편을 적극 들어주며 그를 믿고 일을 맡기겠다.

서로간의 믿음이 없이 불신임으로 어찌 군대의 기강을 유지할 것인가?

한번 실수는 못본체 물어준다. 두번 실수는 알아듣도록 시정을 해 주며 타일러준다. 세번 실수는 결코 때리지 않고 꾸짖는다. 네번 실수는 엄격히 벌을 내린다.

세째, 칭찬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을 줄 때는 엄하게 준다.

타의 모범이 될 일을 한 부하에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이 보는 앞에서 상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크고 벌을 줄 때는 엄하게 줘야만이 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올며 애마의 목을 베 「김 유신」 장군, 제 머리를 잘라버린 「조조」

올며 「마초」를 죽인 공명, 비제, 「노·에타」의 부하보다는 「혁신을 위해 파괴하는」 부하를 가까이 한다.

안일무사주의의 부하는 전진을 모른다.

요즈음같이 스치리한 시대에 제자리 걸음은 결코 전진이라 말할 수가 없다.

혁신을 위해 파괴하는 자야 말로 새

시대에 발맞춤하며 희망적이고 전진을 잉태할 수 있다.

다섯째, 부하의 발언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도량을 가지겠다.

비록 그 발언이 유용치 못하다해서 편찬을 주든지 조소로 넘겨버리면 다시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골한 재간이 없다. 부하의 방향감각을 이해 습득하는 데는 그들의 발언과 면담을 자주 가지는게 필요하다.

여섯째, 타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야겠다.

『제 아들은 도둑을 만들기 싫어한다.』는 식의 말은 아예 하지 않고 먼저 앞에 나서서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장교라고 해서 특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장에서부터 언행까지 엄숙 단정해야만이 부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최선의 지휘법은 솔선수범이다.

일곱째, 공과 사를 엄격히 가리고 위엄과 애정을 겸비해야겠다.

너무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다 보면 공적상에서 할 말을 못다하고, 시켜야 될 일도 시키지 못해 중간에서 단절되고 만다. 또한 항상 언행에 무게가 있고 부하들로 하여금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며 뜨거운 애정으로 이끌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부하는 앞에 불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분별도 없이 따라온다.

여덟째, 한번 내린 지시나 명령은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겠다.

모름지기 검토하고 생각한 후에 내려지는 명령, 지시인지라 실볼리 즉흥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일단 내린 명령, 지시를 급방 거두어들인다면 부하는 불신입할 것이며, 당황하게 만든다.

심사숙고하는 기질을 길러야 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아홉째, 젠블맨 설을 발휘하겠다.

아파 신음하는 부하의 일을 빼앗아 맡아 행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나 어린애 부인들을 위해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부하들이 높이 평가해 주고 부종심도 절로 우러난다.

열째, 때로는 부하의 잘못도 나의 책임으로 돌려야 겠다.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부하의 잘못의 책임이 가중하다 해도 내가 지게 되면 부하는 몸이 가루가 된다 해도 나를 따른다.

그런 부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온천하를 차지한 것과도 같다.

열거하면 수백도 넘겠지만 이상의 열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행할 각오가 뚜렷이 서 있다.

나는 사관후보생이나 장교가 곧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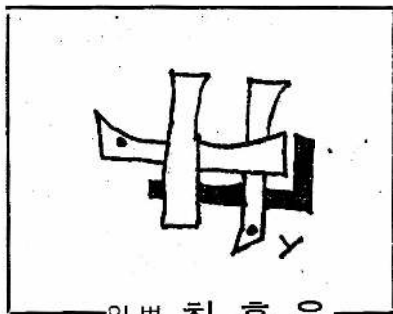
후보생으로서 선택된 군의 중견간부의 긍지를 가지고 훈련과 교육에 정신과 몸을 담고 있다.

피로와 진통도 능히 참아 이길 수 있고 쓰라림도 웃음으로 넘길 아량이 있다.

그것은 오직 지고의 교육이념과 훈련의 소산인 것이다.

명예심이 두텁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군의 기간으로서 대적할 수 없는 자부심과 측량할 수 없는 긍지를 지니고 산다.

◁ 사 병 ▷



일병 최 홍 운

지금도 저기 활주로엔 잠시도 쉬지 않고 전투기들이 이 착륙을 거듭한다. 저 파란 하늘엔 우리 비행단의 전투기가 풀 일 날 없이 우렁찬 폭음을 내며 금방이라도 북한공산 집단을 쳐부실듯 쏘살같은 속도로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어릴적 동리 꼬마들끼리 모여 놀다가도 비행기만 지나가면 하늘을 쳐다보며 「정찰기 지나간다」 「아니아! 저건 전투기야」하며 제법 비행기에 대해 저마다의 일가견(?)을 피력하던 때가 정말 옛그제 같은데 지금은 나 자신이 푸른 제복을 입은 어엿한 공군의 일원이 되고 보니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단순한 동경의 대상만이 아니라 낯이 깊게 된다.

현대전은 말할 것도없이 총력전이다.

총력전은 국민된 사람이면 모두가 일심 동체가 되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힘을 모두 동원하는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총력전은 후방의 국민들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므로 또 일선의 군인들은 보다 빠르고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여 군과 민이 일체를 이루므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우리 공군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가까운 현대전의 실례에서 익히 보아 온다.

이런 생각에까지 이를 때 나 자신 공군의 일원으로 저 푸른 창공을 나는 비행기를 보는 눈은 그 어릴적 동심의 세계에서만 바라보던 눈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닌다. 무언가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마음이고, 무언가 꼭 성취해야겠다는 강한 결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항공병 학교에서 신병 훈련 중에 공군 정훈장교로 계시던 나의 형님께서 이 동생을 위한 간곡한 글을 보내주셨다. 「항공병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 실무부대에 나가서도 주어지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다」시며 매일처럼 부과되는 훈련을 열심히 잘 받으시던 말씀은 어때졌는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북쪽에서도 네 나이 또래의 젊은이가 남쪽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면 베드루! 너의 정신 무장은 대체 어떠한가 되겠느냐?」시던 물음은 언제나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과연 나의 정신무장은 어떠한가 될까? 1천만 이산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남·북 적십자 2차 본 회담이 지금 서울에서 있었는데도 「네 나이 또래의 젊은이가 너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면……?」하신 형님의 물음을 되뇌이곤 말할 수 없는 우리 민족만의 비애를 느껴야 한다.

신병 훈련을 마친지 이제 7개월이 된다. 이중 5개월을 다른 모든 공군사병과 마찬가지로 경비를 썼으니 내가 받은 군사 특기를 찾아 근무하긴 이제 겨우 2개월째 접어드는 새카만 신참.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남은 군 생활을 위해, 아니 진정한 대한의 아들이기 위해서도 그간의 생활을 되돌아

봐도 좋은 시기에 이르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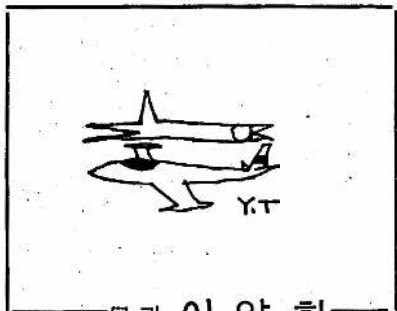
경비군무 5개월 동안 유독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다. 가끔 그는 「우리가 초소를 지키는 건 외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순찰자를 감시하기 위한 거다」며 불평을 털어놓곤 했다. 그럴 때면 난 제법 어른스럽게 「우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불만을 고이 간직하며 현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현안을 가지자. 우리가 이렇게 초소에 있을 때만큼 내 조국을 직접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느냐? 나의 일거일동은 곧 내 조국의 존망과 직결되며 내 조국을 사랑한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하자.

전쟁은 아흔 아홉번 잘 싸우다가도 한 번 잘못하므로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함을 역사는 말하지 않느냐? 우리가 초소를 지키는 건 곧 전쟁에 임하는 것이며, 깜짝 한번 졸을 때 내 조국은 곧 피뢰의 손아귀에 넘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자」며 성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내가 그렇다 해서가 아니고 「정신무장을 튼튼히 하라」시든 형님의 말을 기억하는 나 자신에 다짐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오늘도 저 푸른 하늘엔 우리 비행단의 전투기들이 쓴살같은 속도로 비행하고 있다. 푸른 제복을 입은 나는 이제 저 전투기를 조종하는 마음으로 바라

본다.

▷ 문 관 ◁



문관 이 양 환

오늘도 요란한 전폭기의 폭음을 들으며 하루의 말은 바 임무수행에 여념이 없다. 처음에는 폭음에 짜증을 느끼기도 하고 폭음공해라고 할만큼 임무수행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폭음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루에 무엇을 했는지도 잊을 정도로 폭음과 우리는 친숙해 졌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과 같이 우리 공군은 폭음없이 공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우렁찬 폭음소리는 우리 오천만 국민의 통일염원의 소리요, 평화를 모르는 공산도배들의 일깨움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과된 임무를 완수하기에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 정세

는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들에게 한시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공산도배의 만행은 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다.

그 한 실례로는 세계평화의 제전이란 「올림픽」에서마저 악랄한 수법은 거침 없이 자행되고 있으니 우리들이 어찌 낮과 밤을 구별하며 안일하게 지낼 수가 있겠는가.

자못 우리들의 각오는 큰 것이며 두 어깨가 무거워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반성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한 민족으로서 이념과 체제가 달라 4반세기란 기나긴 세월을 두고 쌓이고 쌓였던 장벽을 헐어보려고 남과 북은 서로 마주 앉았으며, 온 저레의 희망과 기대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며 오천만의 눈동자는 남북적십자회담에 총 집중되고 있다. 그리하여 바라고 원하던 통일이 지금 막 손에 잡힐듯한 것 같이 성급하게 흥분됨을 하고 있는 것이다.

27년이란 너무도 기나긴 세월을 분단 국가로 지내며 「통일」이란 염원이 컸기 때문에 기대도 크리라. 그러나 보다, 그들은 지금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적십자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들의 본성을 노골적으로 들

어내고 있다. 어느 외국기자는 회담의 성공을 벌써부터 비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목적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모르는 공산주의는 우리 자유세계를 너무도 많이 속여왔고 또 우롱해 왔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는 속지 않으려고 손끝이 닳도록 일하며 땀 흘려왔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때는 왔다.

모자라는 물자를 서로 쪼개고 나누어 쓰며 밤을 낮으로 삼고 허리띠를 조여가며 신의와 우애로 서로 돕고, 상과 하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국통일의 그 날을 손꼽으며 우리들의 각오는 사뭇 새로와진다.

남보다 어려운 여건이 많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힘을 모아 기술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기술을 세계만방에 자랑할 것을 다짐한다. 남이 해는 것을 들여다보고 고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직접 만들어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 공군이 되야겠다.

하늘의 제패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나는 노력과 창의력으로 쉬지 않고 하면 된다는 증거를 갖고 꾸준히 맡은 바 대임을 다하는 것 뿐일 것이다.



유모어론

이 병 주



1. 서론적 어프로치

유모어는 일상생활이며 역사이며 철학인 동시에 예술이다. 다시 말하면 유모어는 생활에 있어서는 반려, 역사에 있어서 증인, 철학에 있어서는 지혜, 예술에 있어서는 영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유모어는 때로는 저속하게 마련인 코메디언의 강직한 웃음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훈훈한 인간성을 향취로

하는 예술로서 빛나기도 한다. 「알 카포네」의 풍소에도 유모어가 있고 「소크라테스」의 생활태도에도 유모어가 있을 때, 그러한 극한과 극한 사이의 무한량한 시야에 망연해선 유모어를 말하는 것이 결국 인생을 말하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는 것이다.

유모어를 제일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형성을 위한 객관적인 제약은 주관의 자유, 또는 자의(資意)로써 인간다운 권위와 품위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극복하고 고양한다. 엄연한 객관적 현상인 달(月)을 파란 벽지에 쫓힌 「압핀」으로 묘사할 때 우리는 「체홉」의 유모어를 통해 냉엄한 자연현상마저 인간의 자의에 굴복하고 있는 양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 정물은 비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달리」의 유모어는 모든 정물을 공중을 날게 한다. 조류는 헤엄치지 못하고 물고기는 공기를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피카소」의 새들은 수중에 헤엄치고 물고기는 조롱 속에서 재잘거린다.

그리고 사람은 코를 머리 위에 이고 다니지 못한다. 그런데 「피카소」의 만화가는 「드골」의 코를 「드골」의 두상에 배치할 수가 있다.

유모어는 또 모든 의의와 권위를 부정하는 상대주의적 지혜를 간직하고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이 자각에 따른 체관(靜觀)과 구제를 나타내는 초월적인 태도이기도 하면서 현실에 대한 사랑과 결합에 중점을 두는 정서있는 현실주의로서의 면모도 가진다. 그러니 논리적 입장에서 보면 유모어는 관용주의로 통한다.

자공이란 제자가 「종평생(終平生)」 통할 수 있는 준칙을 한 마디로써 표현하자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항상 입버릇처럼 「인의예지」니, 「문행충신(文行忠信)」이니 하는 말을 들먹이고 있던 공자는 「기노호(其怒乎)」라고 했다. 우리 말로 옮기면 「용서하라」는 뜻이다. 일체의 가치에 관용을 우선시킨 공자는 존재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있었고 그 자각이 현실에 대한 사랑과 겸허한 심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뜻에서 공자도 「유모리스트」 가운데 헤아릴 수 있다.

「헤겔」은 미의 최고형태로서 유모어를 정립하려고 들었다. 그의 의견에 의

하면 유모어는 예술의 최종적인 발전단계라는 것이다. 나는 이와같은 「헤겔」의 통찰을 존경한다.

「헤겔」은 그에게 심취되어 있는 일부 추수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에게겐 학자, 비학자간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헤겔」은 개처럼 거꾸러졌다』는 신칸트주의의 구조와 더불어 뒤이은 신칸트주의의 팽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헤겔」을 읽지도 않고 지나쳐버린 경향이 있었고, 「마르크스」의 『「헤겔」 비판』을 그 결론적인 부분만을 인용해서 「헤겔」을 극복한 적 안연(晏然)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심지어는 「헤겔」의 변증법을 그 정치한 사고의 메카니즘은 사상(捨象)해 버리고 「정·반·합」이란 형식은 논리학적 공식만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야말로 유모리스한 무리들조차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헤겔」의 인기가 하락된 이유는 그가 생존 당시의 프러시아 국가체제를 이념적으로 긍정한 응용학자라는 평가에 있다. 그러나 「헤겔」은 이상과 같은 비판에 편편의 진실이 없는 바는 아니다. 이러한 비판을 훨씬 넘어선 곳에 그의 철학의 진면목을 가지고 있는 위재다. 이를테면 「헤겔」의 철학은 위대한 건축, 위대한 성에 비유할 수가 있다. 그러한 성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조잡한 재료를 줄절하게

사용한 구석이 없지는 않았지만 총체적으로 보아, 「해겔」의 철학은 인간의 두뇌가 건축한 것 가운데서 최대의 것에 속한다. 그리고 그 세부를 따져도 명철한 이지에 인도하고 황홀한 영감을 촉발하는 계기가 풍부하다.

편념론철학의 집대성으로서, 학(學)으로서의 철학은 지향하는 사람으로선 순례가 불가피한 성이다. 「해겔」이 만든 그 성에 살기를 원하는 원하지 않든 철학에 뜻을 둔 사람은 「해겔」이 아니고 그저 지나쳐버린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에 살기를 거절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을 무시하면 건축학의 이해는 불구한 점을 남기게 마련이다.

유모어를 예술의 최종적인 발전단계로 본 통찰은 위대한 철학의 대가담을 만든 사고과정에서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볼 때 「해겔」미학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겔」에 관한 설명이 조금 장황하게 될 것은 일반 독자들의 그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을 감안해서 「해겔」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보고자 하는 뜻에서이기도 하고 한편 유모어를 미의 최고형태라고 한 그의 통찰에 보다 강한 역점을 두고 싶은 까닭이었다.

2. 사전을 통한 어프로치

평생을 유모어의 연구에 바쳤다고도 할 수 있는 「루이 카자미안」은 1926년 『왜 유모어는 정의할 수 없는가』라는 책을 썼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1950년 그는 유모어에 관한 연구와 관찰의 집대성인 「영국에 있어서의 유모어의 발전」이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속에서도 그는 유모어에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포기하고 체판해버렸다. 그리고는 독자들을 「브리타니카」 초판본(1771년)에 인도하고 맡았다. 그런데 「브리타니카」 초판본에서 「유모어」란 항목을 찾아보면 정의 대신 두 개의 참조 기호가 쓰여져 있다.

Humour; Fluid(液體)를 보라.

Humour; Wit(機智)를 보라.

말하자면 1771년판에 「브리타니카」 편집자들은 유모어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의를 내리는 일에 절망하고 근사한 의미를 가진 두 개의 종류를 기술해 놓았을 뿐이다(에스카르프의 「유모어」에서 인용.)

1771년에는 정의 또는 설명을 단념한 「브리타니카」의 편집자들이 현행 사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1965년판을 펴 보았다. 거기에는 장장 2페이지의 면을 이의 설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유모어는 동서고금에 걸

친 세계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집약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영국이고, 유모어란 말 자체가 영국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며 그 발전과정의 탐색이 영국의 문헌을 통하는 것이 일단 편리하겠다는 뜻에서 나는 「브리타니카」의 설명을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다음은 그 목록이다.

유모어=유모어는 습기를 뜻하는 라틴어 「호모루」라는 말로서 그 흥미있는 경력을 시작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유모어는 체액(體液)을 뜻한다. 이 뜻은 부분적으로는 아직 의학용어로서 남아 있다. 중세 이후까지 유포된 고전생리학에 의하면 체액은 4종류로 나뉜다. 열액, 점액, 황색담즙, 흑색담즙 등. 이와 같은 체액의 갖가지 복합도가 사람의 용모, 기질, 성격 등을 결정한다. 그러니 이상적인 사람은 이들 체액이 이상적인 균형으로 조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된다.……이 4 체액에 대한 이해가 「로서」,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그들 동시대인의 작품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론——16세기에 있어서의 유모어란 말은 평형을 잃은 정신상태, 기분, 까닭모를 자의 혹은 고정관념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대되고 특수화했다. 이렇게 해서 유모어는 희극작가에게 알맞은 주제로서 등장한 것

이다. 르네상스 시대 희극의 전통적 기능은 비이상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의 시정에 있었다(그러나 이 시대에 쓰인 유모어란 말은 부정적인, 달갑지 않은 심정을 뜻했다.——필자 설명, 유모어의 희극화 이론의 선구적 설명자는 「벤 존슨」이다.……「존슨」은 「유모어로서의 인간」(Everyman out of his Humour)이란 책의 서두에서 성격에 적용되는 말의 뜻으로 유모어를 두 종류로 구별했다. 하나는 참된 유모어, 하나는 조작된 유모어(Affected Humour).

참된 유모어란 어떤 인간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질이며, 조작된 유모어란 별난 웃을 입는다든가, 별난 말을 한다든가 해서 이상하게 보이게끔 탈신하는 따위의 노릇을 말한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으로 터무니없는 자랑으로 삼는 것을 「존슨」은 가차없이 비난했다. 「존슨」에 의하면 조작된 유모어는 시대와 더불어, 유행과 더불어 바뀐다. 그래서 습관이 된다. 「존슨」은 「최근의 유모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시대와 더불어 사는 인간의 관습이란 말을 쓰기도 했다. 17세기에 있어서의 그의 후계자들은 계속 새로운 유모어를 발견했다. 그것을 습관 또는 풍속에 대한 풍자희극에 재료로써 제공했다.

18, 19세기——17세기의 후기에 이르러 영국은 그들의 코메디가 유모어 덕분에 고대의 코메디, 당대 프랑스의 코

메디보다 월등하게 훌륭하다고 뽑혔다. 그리고 그들은 코메디 무대가 번창한 것은 국민생활이 풍부하고 특색있는 유모어를 가진 사람들이 풍부한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영국은 개인주의와 특색있는 사람, 팽적인 사람의 고향이다. 그때 기괴한 성격을 가진 젊은 「햄릿」은 그 기괴한 성격이 눈에 띄이지 않는 영국으로 갔다. 이런 뜻에서 영국은 언제나 훌륭한 유모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 유모어에 있어서의 영국의 우월을 설명한 최초의 시도인 「시학(詩學)」(1690)에서 「윌리엄 템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풍부한 대지, 안정된 정치, 불안한 기후, 이러한 요소는 극단주의자들의 나라를 만들 위험이 있고, 그만큼 불리한 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부(富)와 자유, 변화있는 기후는 화려한 수확을 올린다. 건강, 용기, 미, 천재, 착한 인간성, 그리고 유모어…….

유모어를 이런 각도에서 보면 그건 「척」하는 조작된 태도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국민적인 표현이며, 부유하고 자유로운 인간, 그 상태에 불안이 없는 사람에 대한 찬사가 된다.

「회극에 있어서의 유모어」란 책에서 「윌리엄 콩그리브」는 영국인에 관한 「템플」의 관찰을 승인하고 조작된 유모어와 참된 유모어와의 구별을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했다. 「템플」의 설은 넓게

유포되어 영국 유모어의 다양성은 위대한 영국의 유산이 되었다.

1777년, 어느 작가는 간단하게 참된 유모어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상업과 그의 반려인 자유가 참된 유모어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상업과 자유의 숨이 끊어질 때 유모어도 예언자의 조언을 바랄 필요도 없이 그 양친과 더불어 무덤으로 간다」…… 참된 유모어가 생겨난 전통의 계속적 활력은 19세기에 도 나타난다. 「존 스튜아트 밀」은 「각양각색의 성격에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어느 사회에 있어서의 이상성(異常性)이란 천재, 창의력, 정신적 활동, 도덕적 용기와 불가분하다」라고 했고, 이 「밀」의 주장을 「마슈 아놀드」는 「마음내키는대로 하라」는 타락적 경향이라고 비판했다.

유모어와 위트——위트는 지적 재담, 농담, 당의죽묘(當意則妙)하는 답의 형이다. 강의하는데 상등의 방식이며 선악을 똑같이 날카롭게 재단하는 무기로서 위험하다. 위트는 본래 공격적이며 왕정복고기(1660년)의 성적 방탕자들과 결부되어 있다. 그들은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에서 종교, 결혼 등 모든 도덕적 사회적 가치와 품위를 조소한다.

그러니 위트는 본질적으로 영리한 것이기는 하되 정열과 정이 없다는 점으로 문학형식으로서의 열등하다. 그러니 회극에서는 등장인물의 주장과 행동을

위트와 관련시키지 않는다. 위트를 희극에 도입하면 등장인물 사이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폐단이 있다. 위트를 표현하고자 지나친 의욕을 가진 작자가 그 위트를 부적당한 장면과 인물을 통하여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몽그리브」는 지나친 위트 작자의 표본이긴 하지만 그 자신 위트는 유모어의 방식을 닮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모어는 위트와는 달리, 그 힘이 화자(話者), 시대, 장소와 동떨어져 있는 고립된 분장이 아니다. 그것은 그 인물의 경력, 복합적인 극적 상황 속의 많은 인간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관 속에서 힘을 가진다. 그러나 유모어는 위트보다 자유롭고, 덜 긴장된 인격의 표현이며 시대와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다.……

18세기 중엽, 유모어는 이미 이상스러운 현상으로도 치지 않게 되어 풍자작가의 주제로서도 적당한 것으로 되지 못했다. 그저 즐겁고 무사기(無邪氣)한 것이다. 그러나 가혹하고 격렬하고 풍자적인 위트와는 달리 유모어는 호의적이고 관대한 감정을 나타냈다.……유모어는 또한 정념을 갖추기 위한 가면이기도 했다.

18세기의 유모리스트——이 시대 유모리스트는 풍부했다. 「조셉 에더슨」, 「리처드 스틸」의 「서 로저 드 코버레이」, 「헨리 윌딩」의 「파슨 아담스」,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웨이크필드의 부목사」, 「로렌스 스톤」의 「앙클 토비」.

희극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유모어가 언제나 존재하는듯 쓰여지고 있지만 「세익스피어」, 「세르반테스」와 그들이 창조한 유모리스한 인물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인물보다 훨씬 훌륭하다.

「폴스테프」와 「동·키호테」는 희극적 인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출현한 당시는 단순한 우스개거리의 취급을 받았다. 전자는 호색하고 거짓말 잘 하고 탐식가이며, 후자는 18세기까지는 기사도 얘기를 풍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이었다. 그런데 18세기가 되면서부터 「폴스테프」는 사랑스럽고 무해한 놈뎡이가 되고 「동·키호테」는 열렬한 박애주의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의 열렬한 행동이 때로는 지나쳐서 우스꽝스럽게 되었을 망정 우리들은 그를 보면서 사랑과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유모어는 18세기의 말기, 19세기의 초두에 와서는 절묘한 순간에 동정과 감동과 밀접한 것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동·키호테」같은 교귀하고 무사(無邪)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불가피한 실망을 보고 입술에는 웃음을 띄우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을 흘린다.

이러할 때 유모어는 그 내면, 또는 사회적, 우주적 관계 속에서 어느 때는

승고하고 어느 때는 기묘하기도 한 복합적인 현상으로서의 인간성을 표현한다. 유모어는 또 언제나 민감한 감수성 위에 무겁게 내며 깔려 있는 인생의 슬픔에서의 구제와 방어도 된다.

19세기 독일 유모어——영국이 유모어를 자기들의 독점물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유모어는 가지고 있다.

19세기 독일인은 유모어에 관해서 결정적이며 엄숙한 철학자가 되었다. 「잔파울 리히터」는 영국의 유모리스트, 특히 「스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뒤에는 「사무엘 콜리지」, 「토마스 드킨시」 「토마스 칼라일」 등 영국인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사람이다. 그는 「미학」이란 책에서 희극의 로맨틱 형식으로서의 유모어 이론을 전개했다.

「리히터」는 말한다. 유모리스한 상황의 관찰자는 웃음의 대상에 자기들 주관적으로 일치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대상이 바로 자기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대상도 그 일부가 되어 있는 전 인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모어는 개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과의 대조가 되는 유한(有限)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유모어는 어떤 개인의 우열함을 들추어 내는 것이 아니고, 우열한 세계의 우열만을 들추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대하게 견딜 수가 있다. 그러나 유모어가 무한한 세계

들이 작은 세계와 더불어 계산하고 연결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서 웃음이 터져나온다. 그러한 곳에 위대함의 고통이 있다.

현대의 유모어——19세기의 유모어는 희극의 풍부한 형식으로 놓여졌다. 우스운 일, 희극적인 것만 있으면 유모어란 일반용어로서 통할 수 있을만큼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머리스트란 말은 19세기까지는 희극 자체의 무의식적인 주제에까지 쓰여진 말이었는데 지금은 희극기술에 의식적으로 숙달한 사람에게만 쓰여지게 되었다. 동시에 유모어란 말은 희극을 보고 감상할 줄 아는 능력에 쓰여진다. 물론 이 말은 희극이라는 특수분야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는 하나 18세기와 20세기의 역사가 남겨놓은 것을 제외하면 좁은 의미 밖에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나쁘게 말해서 지금 유모어의 관념은 그로테스크한 것과 정념적인 것의 무의미한 잡탕이 되었고 기껏 인간의 선에 대한 포부에 브레이크를 걸고 인간의 약점과 그 포부의 불일치를 보는 눈으로 되었다. …

20세기에 와서는 유모어는 희극의 분야에서도 무조건 그 우월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희극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초기 작가들에 관한 18, 19세기의 해석을 거절하고 많은 비평가들의 관심은 유모어의 관중에게 주는 정념을 2차적인 것으로 하고 그 구조적 분석으로 끌

렸다. ……그리고 18, 19세기의 사람들이 유모어라고 한 것을 지적으로나 정적으로나 덜 세련된 것으로 본다.

18세기와 19세기에 있어서의 노력은 문학사에 있어서 불행한 과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이들 비평가들이 위트를 소생시켜 이들 위대한 시작에서 발견되는 의지와 감정의 융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브리타니카」의 설명은 체액으로서 비롯된 유모어라는 말이 체액 이상으로 우리의 생활에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 철학의 영역, 예술의 영역으로 전개되고 심화되어 간 양상을 요령있게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정의는 없다.

「생명을 정의할 수는 없다. 그 상태와 생리를 기록할 수 있을 뿐」이라는 말이 이 경우에도 해당될 지 모른다.

「브리타니카」를 읽으면 유모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적인 현상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영국의 영향은 조금도 받지 않는 갖가지 문학 가운데도 「유모리스트」라는 이름에 적합한 작가들이 더러 발견된다.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보카치오」,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독일의 「그린델스 하우스」, 프랑스에서는 「프랑수와 비용」, 「라브레」, 「모리에르」, 「볼테르」, 「류세」 등 수없이 헤아릴 수 있다.

다음은 프랑스에 있어서의 유모어의 의미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유모어라는 말이 프랑스에 들어간 것은 1725년이다. 「볼테르」는 1762년 4월 21일 「올리비에」 신부 앞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다. 『그들은 그 농담, 그 희극, 그 쾌활함, 꾸밈도 없이 흘러나오는 기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이 그러한 체액을 가지고 있고 타 국민들은 이러한 성질의 기지를 나타내는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프르네이유」의 몇 개의 희극 속에서는 그러한 뜻으로 쓰인 프랑스의 옛말인 것이다』

그러나 유모어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뚜렷한 윤곽을 가지기 위해서는 18세기 말 「스타르」부인의 통찰을 기다려야만 했다.

「영어는 어떤 종류의 피(血)의 경향인 쾌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모어란 말을 창조했다. 피의 경향이라고 하지만 정신의 경향과 거의 마찬가지로 같다. 그 쾌활함은 자연과 풍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건 전혀 흉내를 낼 수도 없는 것이어서 같은 원인이 있다고 해도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 그건 쾌활함 속의 슬픔이라고도 하고 싶을 정도다. 당신들을 웃기는 사람 자신은 자기 가 뿌린 기쁨의 씨앗을 알지 못한다. 그는 우울한 기분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성을 낼지도 모른다. 무뚝뚝한 태도가 때로는 칭찬에 묘미를 더하는 수가 있는 것처럼 쾌활한 농담은 저자가 근엄할수록 신명하게 눈에 뜨인다. ……영국인들이 교묘하게 묘사한 것은 변태적 인간들이다」

「리트레」가 사전에 유모어란 말을 채택한 것은 1865년이다. 「리트레」의 사전은 이렇게 설명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채용되지 않는 신어, 상상력의 쾌활함과 희극적인 유희를 표시하는 영어」

프랑스에 있어서의 유모어는 풍자화를 통해서 번창했다. 이 움직임의 으뜸이 「외사슬에 묶인 오리(鵝)라」는 신문이다. 이 풍자지는 프랑스어를 풍부하게 하고 논적(論敵)도 경의를 표하는 유일한 신문이 되었다. 법률도 이 유모어를 무시하고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정체도 이 신문의 유모어를 무시할 수 없다.

석학 「베르그송」은 1899년 「웃음」이라는 책 속에서 유모어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유모어에 관한 사교의 문을 결정적으로 개방한 것은 철학자들이 아니고 시인들이다. 유모어라는 「야누스」(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를 고찰할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어두운 철학의 그림자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소를 발견하는 것이다. 「락스 자콕」은 이 시

인들의 선구자. 그는 유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갓가지의 감동을 감싸곤, 답하지 않고 답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광휘」라고(이항은 「에스카르피」의 「유모어」에서).

3. 단편을 통한 어프로치

유모어란 말은 천년 이상 되는 서구 문명의 무계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이상과 같이 전삭(詮索)해 나가는 것은 이 소고가 견디어 나갈 일이 아니다. 표본적이라고 생각되는 유모어의 몇 가지 예를 소개하고 서구에 있어서의 유모어의 개념을 윤곽으로나마 밝혀보고자 한다. 유모어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소개가 필요하겠지만 필자 역량의 부족으로 감당할 바가 못 된다.

예 1. 「영국노동당의 진짜 창시자가 누구일까」하는 토론이 벌어졌다. 결에서 듣고 있던 「윈스턴 처칠」이 『그건 「콜럼버스」지』하고 말하자 일등은 논란 표정을 하며 「처칠」을 보았다. 「처칠」이 말을 이었다. 『생각해 봐요. 「콜럼버스」는 출발할 때 어디로 갈 것인지 알지 못했다. 도착했을 때도 거기가 어딘지 몰랐다. 게다가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의 비용은 전부 남의 돈으로 했거든』

(싫어하는 노동당에 대한 익살. 그러나 이런 익살엔 독기가 없다. 유모어는 이런 종류의 익살이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예 2. 지금은 실각한 「호루시초프」 전 소련수상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서 만좌를 복소시킨 일이 있다고 한다. 『어느 소련 사람이 「호루시초프」는 바보다. 「호루시초프」는 바보다 하고 고품을 지르며 크레믈린 궁전 앞을 지나갔다. 그 사나이는 체포되어 23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3년은 당서기 모욕죄에 대한 형이었고 20년은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형이다.』

(자기를 비하하면서 남을 웃기는 화술. 그러면서도 저속하지 않다. 유모어는 이런 유의 화술이라는 좋은 예)

예 3. 이탈리아인과 유태인이 제각기 선조의 자랑을 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인 『이번 로마의 유적을 파고 있었더니 녹이 쓴 동전이 나왔더군.』 유태인 『그게 어쨌단 말인가.』 이탈리아인 『우리를 조상이 그때 벌써 전화를 발명하고 있었다는 증거란 말이다.』 유태인 『며칠 전 우린 예루살렘을 발굴했는데 아무 것도 나오지 않더라.』 이탈리아인 『그럼 테지.』 유태인 『당신 무슨 소릴 하는 것이야. 우리들 선조는 벌써 무선전화를 발명하고 있었던 말이다』

(터무니 없는 나라 자랑. 이와 비슷

한 경우에 대한 풍자도 유모어의 일종이 된다는 좋은 예)

예 4. 「조지」 5세와 「메리」 황후가 가족의 품평회에 참석했다. 회장의 증상에 큰 웃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황후는 『저 소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계원이 『하루에 42회 교미를 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황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런 특징을 폐하에게도 명백하게 알리도록 하라』면서 그 소에게 상을 주었다. 계원은 곧 무슨 까닭으로 황후가 그 소에게 상을 주었는가를 「조지」 5세 폐하에게 아뢰었다. 왕은 잠깐 놀란 표정이더니 『암소 한 마리와 그렇게 하는 것이나』고 물었다. 계원은 『아니옵니다. 42두의 암소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고 답했다. 왕은 자못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사정을 왕후에게도 명백하게 말씀 올려라』 (가벼운 음색을 띤 얘기로 유모어의 일종이라는 좋은 예)

예 5. 두 유태인이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유태인 갑 『세상은 사회주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양 아냐?』

유태인 을 『그런가 보더라』

유태인 갑 『그러니까 말야, 네 말 두 마리가 있으면 내게 한 마리 줄래?』

유태인 을 『주고 말고』

유태인 갑 『그럼 돼지 두 마리가 있

으면 한 마린 날 주지?』

유태인 을『주고 말고』

유태인 갑『그럼 너 닭이 두 마리 있으면 한 마린 내게 주겠구먼?』

유태인 을『그건 안 돼』

유태인 갑『왜 그런가?』

유태인 을『말이니 돼지나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닭은 지금 내가 두 마리 가지고 있거든』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시대 풍조에 대한 풍자는 있다. 이것도 유모어의 일례가 된다)

예 6. 독일의 어떤 비어 홀. 손님이 반쯤 비운 족기에서 한 마리의 파리를 꺼내들고 보이에게 호통을 쳤다.

『얘, 이게 뭐냐』

보이는 황송해서 몸들 바들 돌랐다.

『죄송합니다. 곧 대신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때놓고 보이는 황급히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손님은 들고 있던 파리를 재떨이에 버렸다. 이것을 시종 보고 있던 옆자리의 손님이 그 손님의 족기도 반쯤 비어 있었는데,

『실례합니다. 선생님 그 파리 소용이 없습니까?』

(있지는 않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시정의 실화. 이러한 것도 유모어의 일종이 된다)

예 7. 007의 『제임스 본드』에 관해서 어느 평론가가 이러한 말을 했다.

『「본드」는 본질적으로 배신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금과 술과 여자를 준다고 약속하기만 하면 그는 곧 모스크바의 편으로 전신할 것이다. 말하자면 「본드」의 성격에는 매춘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기교다.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죽이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죽이느냐 하는 것이고 여자를 유혹해야 하나, 안해야 하나가 아니고 언제 유혹하느냐에 있다. 그러니까 현대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시간으로 끝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서의 꼭 알맞는 성격이다. 그러나 60년 인생극의 주인공의 성격은 못된다. 이것이 현대의 비극이다』

(이 얘기에는 달카로운 문명비평이 있다. 그런데 「본드」와 같은 영화극의 주인공을 통한 발언이라는데 유모어로서의 근거가 있다)

예 8. 「리히텐 베르크」의 말이다.

『당신들이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조끼의 제 4단추보다 훨씬 밑으로 붙어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그렇다. 어느 댄스파티에서

『아가씨, 젊은 남자들의 몸에 착 붙은 즈봉에 대한 감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쾌활한 숙녀의 대답은 이러했다.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꼭 유쾌하구먼요』

또 이런 경우가 있다.

『서로 안지 한 시간도 채 못되었는데 내 마음을 바라세요?』

『아닙니다 부인, 저는 그런 높은 곳을 바라진 않습니다』

(약간 경박하지만 남녀교제의 실상의 그 언저리를 찌른 점으로 유모어일 수 있다)

예 9. 페르샤의 젊은 정원사가 왕자를 보고 말했다.

『오늘 아침 사신(死神)을 만났습니다. 자를 보더니 위협하는 몸짓을 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곳은 위험하니 오늘 밤 안으로 멀리 이스파한까지 도망을 쳐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좋은 왕자는 자기의 말을 빌려주어서 그 정원사를 이스파한까지 도망치도록 도와주었다. 그날 오후 왕자는 사신을 만났다. 그래서 『오늘 아침 왜 정원사를 위협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사신의 대답은 이러했다.

『위험한 것이 아니라 놀랜 겁니다. 이스파한에서 이렇게 먼 곳까지 와 있어서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밤 그놈을 이스파한에서 불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운명에 대한 이러한 우화도 표현의

방식에 따라 유모어가 된다는 예)

예 10. 『에로티시즘과 남성의 성적 자극성, 여성들의 수동을 가장한 유혹술을 무슨 나쁜 짓의 표본처럼 논의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한 행동이 그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바로 그 정도로 사실상 저하한다면 인류는 쉼자 폭탄을 가리지 않고 멸망할 뿐이다』
——이 등장(伊藤整)(아포리즘<잠언>도 비유의 묘를 얻으면 위트의 오소를 유모어로서 살릴 수 있다는 좋은 예)

예 11. 다음은 「시드니」라는 시인의 말이다.

『여자의 말로서 「아베요」하는 것은 반드시 부정일탈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예」하는 말도 반드시 긍정적인 말은 아니다. 이러한 여자의 언어학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여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남자가 있다. 남자편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여자가 참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편에서 추리라도 할 수 있겠지만 도통 아무 것도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데 아무리 추리해 보아도 알 턱이 없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쓸데없는 노릇이다』

(인생의 기미를 포착한 아폴리즘이 유모어가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예.

이상의 예를 통해서 서구적인 유모어, 그 빙산의 일각을 더듬어 보았다. 문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유모어의 영국적인 어의로서는 이상은 유모어라기보다 유모어적인 단편일 뿐일는지 모른다. 서구 현대의 유모어는 「올더스 헉슬리」의 「가자에서 눈벌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사르트르」의 「구토」, 「까뮈」의 「이방인」, 여기에다 「지로도」, 「오즈본」 등의 작품을 감상, 분석하는 본격적인 작업을 통해서 겨우 어프로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재 이상의 예를 통해서 밖에는 서구의 유모어를 설명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강 이와같은 개념을 발판으로 동양의 유모어에 대한 어프로치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4. 동양의 유모어

풍부한 대지, 안정된 정치, 변화있는 기후, 그리고 다양한 인간들을 가졌다는 점으로 영국은 독특한 유모어를 성장 발전시켰다고 했다. 또 상업과 자유가 유모어의 양친이라고도 했다. 영국의 유모어가 정 이런 조건으로서만 가능했고 유모어란 영국적인 풍미를 떠어 야만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우긴다면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모어를 찾는다는 것은 나무에서 불고기를 구하는 격이 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유모어라는 말을 막연한 기분으로서 사

용해왔고 그 나름대로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주변에 유모어를 발견하며 살아왔다. 강남의 굴을 강북에 심으면 탕자가 될망정 똑같은 갈굴류임에는 틀림이 없듯이 영국에 영국류의 생활이 있다면 동양에도 동양류의 생활이 있다. 생활이 있는 곳에 유모어는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가 유모어란 말을 원어 그대로 쓰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유모어에 대처할 수 있는 말로서 해학, 또는 골계(滑稽)라는 말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대응도가 「프렌치덴트」를 「왕」이란 말로 번역했을 때와 유사한 의미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할 수 없는 처지에서 유모어를 그 본연의 의미와 더불어 해학이나 골계의 뜻을 포섭한 말이라고 치고 얘기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다.

역사상, 특히 기록상에 나타난 동양의 유모어는 대개 각박한 사정 속에서 웃음을 동반하지 않고 등장한다. 모든 유모어가 웃음과 일치할 수는 없다는 「에스카르피」의 시사는 동양의 경우에 더욱 적절하다.

자로는 목을 끊기어 죽는다. 그런데 죽기 직전 갓끈이 끊어졌다. 그는 「군자는 의관을 정제해야 한다」면서 조용히 갓끈을 다시 매었다. 나는 이것을 동양적 유모어의 어떤 상징적 일면으로 본다. 장자의 유모어도 역시 어둡다. 그러나 유모어는 역시 유모어다. 동양의

유모어를 집성한 교전으로서는 사마천의 「골계열전(列傳)」을 들 수 있는데 그 속에 등장하는 유모리스트들은 거의 각박한 정황 속에서의 유모리스트들이었다.

순우장은 음악장야의 연을 치고 국사를 돌보지 않는 왕을 연(諫)하기 위해 은어(유모어)를 사용했고 우맹은 친구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유머러스한 언동을 했고 우전은 진시황의 비위를 살피며 스스로의 용진을 꾀했고 팍사인은 무제의 유모를 구하기 위해 엉뚱한 언동을 꾸며다. 이 모든 언동은 유모리스트다운 유모어였지만 모두 실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웨이크필드의 목사가 모처럼 좋은 그림을 그리게 해놓고 그림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부엌 벽에 걸어놓고 이웃 사람들의 조소를 사는 따위의 한일철의 정경과 다른 것이다.

「골계열전」의 유머리스트들을 아일랜드를 위해 헌신한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스위프트」와 비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 뜻은 「열전」 속의 유머리스트, 특히 동방생 같은 3천매의 간죽(簡牘)을 쓴 필력을 가진 사람이 「스위프트」 당시의 영국에 태어났더라면 무계결에서 피어로 노릇같은 짓을 하지 않고 「걸리버 여행기」에 필적하는 대작을 후세에 남겼을지 모른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예술, 희극으로서 나타난 유

모어에 있어서 중국은 영국에 대해서 손색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의 희극은 12세기 6조의 말기에서 시작했으나 연극의 형식적 의미를 가진 것은 당대의 「참군희(參軍戲)」에서 비롯했다. 이것은 골계문답을 주로 하는 것이었는데 송대에 이르러 참군희는 일종 진보해서 골계풍자주의 전통을 확립했다. 원곡 「구풍비(救風塵)」의 작가 관한경은 「셰익스피어」보다 3백년 앞인 13세기의 작가다. 「구풍비」에는 주사(周舍)라는 등장인물이 있다. 만일 「셰익스피어」와 같은 나라였더라면 그의 「골스태프」는 관한경의 주사를 원형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 성격이 닮았고 희극적 인간상으로서 거의 완벽에 가깝다. 주사의 첫 대사는

『30년 주육(酒肉)에 빠져

여운(女運)이 좋길 20년

신탄(薪炭)과 쌀값은 모르지만

주색의 밀친 때문에 고생이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2막에 가서는 이런 대사가 있다.

『나는 주사 말을 다루는 솜씨는 여간 아닌데 당나귀의 등에서 넘어지다니, 이런 계집을 마누라로 삼으려고 내 헛바닥 반이나 깎아놓고 겨우 얘기는 성립했다. 그래 지금 여자를 가마에 태우고 문경을 떠나 정주까지 왔다. 그 계집의 가마를 앞에 보내놓는 것은 젊은 늑쟁

이들이 「주사가 안인장(安引章)을 마누라도 얻었다」고 놀리거나 앓을까 해서였는데, 보니 가마가 흔들흔들, 가까이 가서 가마 메는 놈들을 한대 치고 「가면 가는 거지, 왜 가마는 흔들는거냐」고 했겠다. 젊은 놈들 말하길 「저희들 탓이 아니올시다. 가마 안에서 마나님 뒷을 하시는가 보시구려, 가마의 주렴을 올려놓고 보았더니 계집년이 훌쩍 벗고 춤을 추고 있지 않는가. 집엘 가서 이불을 만들어 놓으라고 해놓고 방에 들어갔더니 이불이 침대보다도 높지 않은가. 「이년 어딜 갔을까」하고 고향을 질렀더니 이불 속에서 「여보 나는 이불 속에 있어요」 하더라 말야. 「왜 이불 속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불에 숨을 넣다가 내까지 같이 께매버렸어요. 몽둥이를 들고 때릴려고 하니 「여보 나를 때리는 건 좋지만 이웃집 왕과는 때리지 마시오」 그래 내가 말했지. 「흠 이웃집 할머니까지 같이 께매버렸군」

요약하면 늙쟁이 남편과 바보같은 마누라, 거기다 수다스런 이웃들이 곁들여 유모어를 엮어내려 간다.

이와 같이 중국의 희극은 그 성질은 물론 다르지만 서양의 희극에 못지않은 유모어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애극, 또는 사극이라도 극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반드시 골계풍자의 부분을 갖추어야 한다는 견식이 극의 시

초부터 있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다.

우리는 또 중국의 대작가 노신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의 대표작 「아Q 정전」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모어에 관한 작품이다. 나는 「아Q 정전」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을 말할 때 「잔 파울 리히터」의 의견을 상기한다. 「유모어스한 상황의 관찰자는 웃음의 대상에 자기를 주관적으로 일치시키려 한다」고 「리히터」는 말했는데, 그것이 작품일 경우에는 작품 자체의 내적인 인력이 작용해야만 대상과 자기와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신의 「아Q 정전」을 읽고 대부분의 독자는 자기 속의 「아Q」를 느끼고 「아Q」 속에 자기를 느낀다. 그 「리히터」의 필법을 빌리면 『「아Q」의 우열을 들추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열, 인류의 우열을 들추어냈다』

노신은 유모어를 독점물로 알고 있던 영국의 작가들이 기도해보지 못했던 가장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유모어의 철학화, 유모어의 예술화를 원수한 사람이다. 그러나 동양적인 작박함은 여기에도 낙인처럼 찍혀 있다. 슬픈 유모어의 미학이 여기에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노신 이후 그 씨앗을 까꾸어 키운 대채(大才)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유모어적 상황이다.

(노신을 들먹이기를 꺼리는 풍조가 이 나라에 있다. 그가 중국의 작가가

고 오늘의 중공이 그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나는 노신에 관한 문헌을 입수할 수 있는 때까지 입수해 보았지만 중공의 우강부회(秦强附會)적 문서 이외에서 노신이 공산주의자인 적이 없었고 하물며 공산당원, 또는 이에 유사한 조직에 가담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부정과 불의를 미워하고 진정한 뜻에서 중국 백성의 벗이 되려고 각고 노력한 민족주의자—군벌과 토호열신(土豪劣紳)이 구호로써만 부르짖는 그런 것이 아닌 민족주의 문학자였다. 진상, 또는 실상을 모르고 중공이 좋아하는 인물이라는 그 점만으로 노신을 소원하게 한다는 것은 소련이 「베토벤」을 좋아하니 「베토벤」을 버려야 한다는 지극히 졸렬한 논법의 포로가 되는 것

이다. 민족정신, 민주정신, 인도정신, 문학정신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노신은 널리 읽혀져야 하고 깊이 연구되어야 할 줄 믿는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나는 서툰 조감도를 서둘러 만드는 것보다 지금 펜클럽 서울대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자와 작가들의 노작을 기다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결론적인 느낌으로서 말하면 예술로서의 유모어는 한국의 고대, 현대의 문학을 통해서 볼 때 별거벗은 한국의 산을 닮았다는 것이다. 시정인, 또는 생활인으로서는 비교적 유모어의 센스가 풍부한 민족인데 유모어를 예술로서 성숙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물음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 박대통령 말씀 중에서 □

□ 소비하고 남는 것을 저축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는 것을 소비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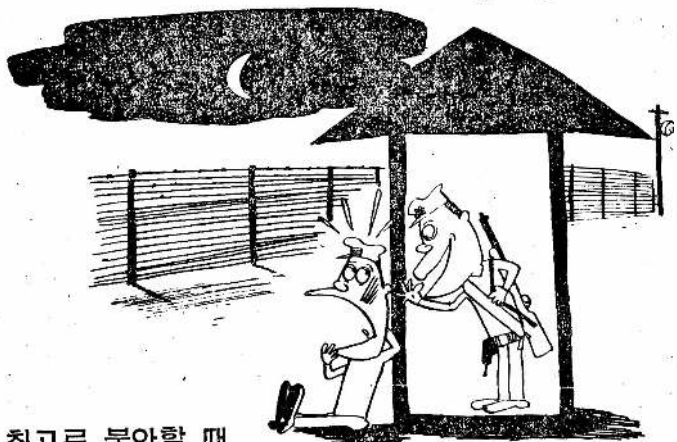
—1970. 저축의 날 치사에서—

□ 나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검소하고 내핍하는 생활로써 한푼이라도 더 저축하여 가정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하루 빨리 실현하도록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68. 제 5회 저축의 날 담화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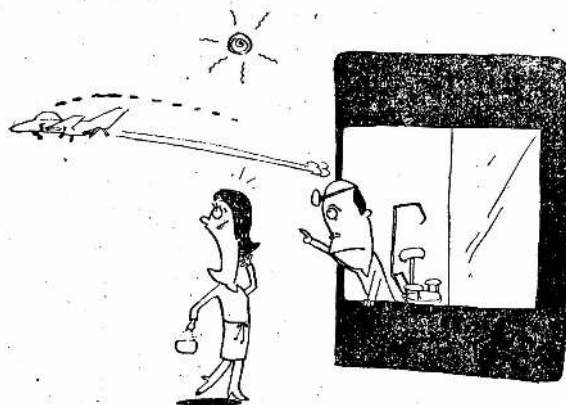
공군만평

박진래



□ 최고로 불안할 때

피곤한가 본데 그대로 꼭 쉬게!
근무는 본 당직사령이 대신 서 줄테니까.



□ 무서운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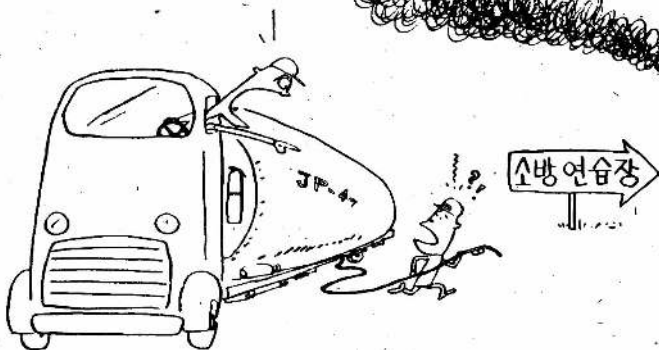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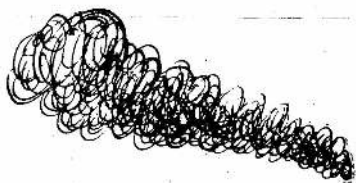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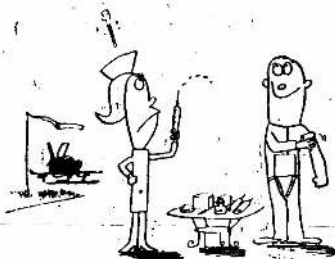
남편되시는 분의 총
치는 영 못뽑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집계로 막
뽑을 찰라에 저렇게
뺑소닐 치니 원!

공군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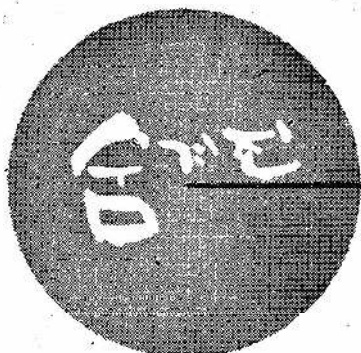
□ 두 고집통

미스 임의 고집을 꺾느니……
아예 내려와서 한대 찢리는 게
현명할 길!



□ 큰일 나겠네

“이봐! 이등병, 이건 소방차가 아니고 황금마차야!! 황금마차”



이야기들

전 재 수

그동안 4회로 연재해 오던 「숨겨진 이야기들」은 이번 호로 끝을 맺는다. 정사가 아닌 야사적(野史的)인 입장에서 단편적인 사실(史實)들을 통하여 우리 공군의 초창기의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는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종류의 기획으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대하고자 한다. <편집실>

◇ 중대간 연락용장비로 서울— 평양간을 통신하려 하다.

1950년 9월 15일, 역사적인 인천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아군은 전반적인 총 반격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공군은 10월 24일에 선전대장에서 무감 소령 이하 21명이 평양의 미립비행장으로 진출하였고, 10월 30일에는 비행단 주력이 미립비행장에 당도하였다.

이때 공군의 통신사들은 694라 불리우

는 통신장비 1대를 가지고 올라갔다. 이 장비는 출력이 50watt 정도로 미군들이 중대와 중대간의 연락용으로 쓰는 통신기재로써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형태의 것이었다.

적도 평양에 전진한 우리 공군의 사기는 충진해 있었다.

당시만 해도 통신기의 성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할 때 우리 통신사들의 심중에는 용기와 자신이 넘치고 있었다.

몇번 694라는 통신기재를 점검하고

또 서울과의 교신을 서둘렀으나 워낙 장비가 장비라서인지 도대체 교신이 되질 않았다. 사실은 서울과의 교신이 무리인 것도 일찍 알아낼 수가 없었던 지도 모른다.

낮시간을 종일 이 통신기재에 매달려 있던 통신사들이 저녁이 되자 시내로 모두 빠져 나갔다. 적이 도주하고 난 평양의 시가지도 한번 가 볼겸, 장비를 고칠 수 있는 부분품이라도 구하리라고 마음먹었으리라.

결국 한 사람이 장비를 책임지고 고쳐 서울과의 교신을 이룩하도록 하고 부대에 남아서 장비와 씨름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장비를 매만지고 연구를 하여도 그 장비로 서울과의 교신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날이 세도록 장비를 매만져도 매한 가지였다. 시내로 갔던 통신사들이 돌아와도 이 장비를 책임진 통신사는 장비 옆에서 작동을 시키고, 또 매만지고 하였다. 그러나 장비의 능력은 한정이 있는 법이다.

지쳐서 팔씩 장비 옆에 주저앉은 통신사의 말이 걸작이었다. 아무리 기계지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주나?

〈한홍유, 김무현, 오병대 제씨
면담, 1965〉

◇ 백구 부대

공군사 제1권 136페이지에는 「11전투 중대 일명 백구부대(중대장 소령 박희동)가 여의도에서 작전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공군발전역사 54페이지에는 「1950년 12월 20일 대전기지에서 김신 중령을 부대장으로 하고 F-51 6대로 백구부대가 창설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여하튼 백구부대는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가 불의의 중공군 불법침전으로 전선이 후퇴할 때에 대전에 남아 있기는 하였다.

기지부대나, 그렇지 않으면 전투부대나 하는 문제는 참전자의 증언도 구구하거나와 공군사를 연구할 사람들의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투요보(1951년)에 의하면 백구부대의 작전기간은 1951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로 되어 있고 11전투비행중대의 작전기간은 1951년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아울러 공군사에 의하면 1951년 4월 1일부로 여의도에서 101 이기지전대가 창설이 되었는데 전대장이 김신 중령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 숨겨진 이야기들

1. 백구부대는 기지부대인가, 전투부대인가?

2. 공군발전약사에서와 같이 백구부대가 대전에서 창설되었다면 1950년 12월 20일부터 1951년 4월 3일 여의도에서 출격하기까지 무슨 일을 하였는가?

3. 공군사에 의하면 1951년 4월 1일 여의도에서 101기지전대가 창설되었는데 백구부대와는 다른 것인가?

4. 전투요보에 의하면 백구부대와 11전투중대가 서로 다른 부대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가?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공군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연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백구부대에 관한 면담자료들을 발췌해 보기로 한다(아래 면담 내용은 국방부 전시편찬위원회 소장 면담록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감 화

1950년 11월 30일부터 11전투비행부대가 생길 때까지 백구부대라는 게 있었다. 11전투비행중대는 1951년 4월 1일에 생겼는데 백구부대와는 관계가 없다. 그때는 뚜렷한 명칭이 없었다. 내가 평양에서 떠난 것이 11월 25일이었다. 성남중학교에 와 가지고 보고하는 동안에 대전으로 후퇴한다고 했다.

대전에 내가 간 것이 11월 30일이다.

그때 대전에서는 미군의 헬스소령 등

이 남아 출격을 하였다.

12월 20일에 제주도로 내려갔다. 그때 김 신 장군이 대전에 남아있었고 백구부대가 생기게 되었다.

나는 T-6를 타고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F-51 훈련을 받았다.

백구부대가 대전에서 여의도로 올라갈 때 내가 출격했다.

나하고 오 춘목, 이 세영, 최 종봉 등은 1951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격했는데 김 신 장군 일행과 교대하였다.

이 세영, 최 종봉이 전사하고 난 다음 우리는 정 영진, 박 회동, 김 두만, 강 호륜 등의 조종사들과 교대하였다. (1966. 3. 14. 공본 기획국장실에서)

윤 응 렬

백구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후방부대이다. 지금의 기지부대이다(1966.

3. 21. 공사 교장실에서)

김 두 만

백구부대는 대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기지부대의 전신이다. 비행부대가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처음에 여의도에서 조금 나갔다가 사고가 나니까 중지했다가 다시 훈련을 해서 무스탕을 가지고 출격하였다(1965. 3. 16. 작전사령부에서).

협 창 건

11전대의 전신이 백구부대인데 101전

대가 백구부대를 지원해 주었다. 정비니 무장이니 하는 것을 통합해서 101전대가 됐고 그것을 지휘한 사람이 김 신 장군이다(1965. 수원에서).

이 수

제주도에서 비행기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고 제1전비단에 있었다. 제1전비단은 11중대와 12중대가 있었다. 그때 12중대는 제주도에 그냥 있고, 11중대가 여의도로 올라왔다. 11중대가 백구부대로 되었다. 11중대장은 박 회동소령이었다. 나는 11중대로 배속을 받아 여의도로 갔다. 11중대가 올라가기 전에 백구부대가 있었다. 그 당시 정비사는 2개 내무반, 무장사는 1개 내무반이 있었다(1965).

박 회 동

미림에서 여의도로 왔다가 여의도에서 대전으로 갈 때가 백구부대이다. 그리고 주력은 제주도로 갔는데 백구부대장은 김 신 소령인데 비행기는 4대 정도 남았다.

그때 제주도에서는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는데 나는 제주도로 갔다.

그때 남은 멤버가 김 신, 김 성룡, 정 영길 등이다.

51년이 되어 조종사가 양성되어 가지고 여의도로 다시 갔다.

일본에 계기비행훈련을 갔다 와서 제1

비행단 11대대로 갔다. 12대대는 제주도에 그냥 7~8대 있었다.

백구부대는 제주도로 합류될 때 해산되었다.

◇ 이름없는 영웅들

1950년 12월 17일, 헌병 연포(連浦)과전대 김 영길상사의 7명은 적 포위망을 뚫고, 후퇴전을 감행하여 화도(花島)를 근거지로 야간 게릴라전을 단행한 끝에 적에게 많은 손실을 주고 5일 후인 12월 24일에 목선(木船)으로 포항으로 후퇴하고 이듬해 1월 11일 공군본부로 귀환하게 되었다. 야간 게릴라전에서 최 흉배 이등중사는 장렬히 전사하여 화도에 가 매장하였다.

○ 1950년 11월 12일이었다. 전선으로부터 적의 후방인 정주(定州)는 적의 대병력이 우글대고 있었다.

공군본부 정보국에서는 작전상 주요 정보수집을 위해 김 동기 이병을 단신으로 정주 삼공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하였다. 적지에 돌입한 김 동기 이병은 단신으로 수많은 적과 교전을 겪으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말은 바 입무를 완수하고 극적으로 생환하게 되어 전군(全軍)의 작전에 지대한 공훈을 세우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김 동기 이병은 미 제5공군

◇ 숨겨진 이야기들

사령관 파아트릿지 중장으로부터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 창설과 시초

1950년 말과 1951년을 중심으로 신설된 공군의 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950년 12월 12일에는 연일 각 지구에서 항공관구사령부 소속 기지대가 철수를 하는 가운데에도 정훈감실에 정훈음악대가 창설이 되어 선무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 군악대의 시초가 되었다.

12월 23일에는 전반적인 전선의 이동에 따라 차기 작전의 전투태세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후방부대와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하기 위해 공군 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51년 1월 29일에는 비행단 비행대에 낙하산반을 신설하였는데 낙하산 훈련을 위한 편제로는 이것이 처음인 셈이다. 3월 14일부터는 낙하산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하산마다 이력 카아드를 작성하여 낙하산과 같이 비치하도록 하였다.

1951년 2월 1일에는 비행안전과 지상 안전 및 검열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본 일반명령 제7호로써 감찰감실이 신설되었는데 초대 감찰감은 정보국장이던 김 길성 소령이 겸무하였다.

3월 1일에는 의무감실이 신설되었는데 이미 공군병원이 있었으나 의무감실은 없었는데 신설될 때 의무감실의 병력인가는 장교 5명에 사병 11명이었다.

4월 15일에는 홀병감실이 신설되었는데 초대 홀병감은 최 역 소령이었다.

항공병학교의 모체는 1951년 4월 15일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에서 창설된 항공기지사령부 제1항공교육대이다. 종래 각 단대에서 실시되던 신병교육을 통합하여 제10기 일반병교육부터 착수하여 각종 기술하사관 및 일반병의 군사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초대 교육대장은 노 중신 소령이었다.

공군본부에 본부사령실이 창설된 것은 1951년 4월 25일 공군본부중대가 본부사령실로 개편된 것에서 비롯된다. 초대 본부사령은 허 영걸 대위였는데 5월 11일부터, 본부사령실에 본부중대를 두어 본부사령실을 증편하게 되었다.

(1951년 주요사건일지 참조)

◇ 극동공군의 환자 공수

전쟁 초기 극동공군의 환자공수실적을 살펴 보면 과연 전쟁이란 무서운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극동공군의 1950년 12월말 현재 공수환자의 수는 월계 20,316명이었다. 이것은 12월 한달 동안의 공수환자수가

다. 물론 12월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아군이 후퇴할 때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한 유엔군과 한국군을 합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실로 엄청난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극동공군의 수송기 C-47기, C-54기, C-46기, 그리고 C-119기 등으로 수송된 공수환자 수는 1951년 1월에 10,301명, 2월에 18,137명, 3월에 12,451명, 4월에 10,693명, 5월에 11,051명, 6월에 14,811명, 7월에 5,965명, 8월에 5,556명, 9월에 11,869명, 10월에 12,718명, 11월에 7,023명, 12월에 6,249명으로 1951년에는 총 126,554명에 이르렀다.

이를 미루어 보아도 1950년도와 1951년도에는 얼마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구비된 자료로 인하여 극동공군의 의무후송관계는 연도별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1952년도에는 이 환자 숫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전쟁이 교착상태에 이르러서는 환자 수가 월등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1952년 1월에는 5,541명, 2월에는 5,584명, 3월에는 5,345명, 4월에는 3,847명, 5월에는 4,593명, 6월에는 4,789명으로 대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물론 이 공수환자 수는 전사자 수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전쟁초기 유엔군과 한

국군이 얼마나 많이 인명피해를 입었는가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전쟁이란 역시 인명과 재산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서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란 한세기를 걸르는 일이 없이 꾸준히 발생하고 또한 명멸해 오면서 인간의 생명을 휘두르며 파괴와 창조의 순환을 거듭시켜 온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미 공군성서 한국 동란 중 미공군의 활동 참조).

◇ 헤스소령의 조종사 구출작전

다음은 전승가(Battle Hymn) 속에 게재되어 있는 글을 번역한 것이다. 그대로 번역문을 옮겨 실기로 한다.

「어느 봄날(필자 추정 1951.4.25) 저녁 수목 사이에 추락한 전폭기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급히 갔을 때였다. 머리 위를 선회하던 나는 추락한 조종사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조종석에서 나와서 불타고 있는 비행기에서부터 멀리 뛰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도로 있는 곳까지 뛰어 갈 동안 혹시라도 적이 사격을 가할까 싶어 그의 옆을 따라 갔다.

조종사는 도랑으로 뛰어 내려 도랑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면서 아군에게로 가는 퇴로를 찾아 헤매었다. 그의 추

락을 아군진영에서 보았음이 틀림없었다. 한대의 무장한 차가 조종사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차는 조종사가 있는 쪽으로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나의 눈을 믿을 수가 없어 무선으로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나는 그 차가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중공군 1개분대 규모의 적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차가 드디어 조종사 앞에 멈추자 한 사병이 뛰어 내려 그 조종사를 차 안으로 밀어넣는 것을 보았다.

차는 한 바퀴 빙 돌아 사격을 계속하면서 안전한 곳까지 가는 것을 보고 난 뒤에야 나는 유쾌한 기분으로 기수를 높였다.

◇ 초대참모총장 김 정렬 장군

필자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전사를 다루고 있을 때에도 그러했거나와 이 글을 연재하면서 계속 공군사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공군의 초창기의 초대 참모총장이시던 김 정렬 장군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은 일찌기 무인의 집에서 태어났었다. 일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엘리트

만이 꿈꿀 수 있던 일본사관학교 항공과를 택하여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분은 젊은 날에는 적을 알고 적을 치면 이길 수 있다는 각오 아래 일본의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차 독립되는 우리나라의 동량이 되자는 꿈이 그분의 가슴 속 깊이 잠재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자 김 정렬장군은 선배, 후배를 찾아다니며 조국의 하늘을 일터로 삼아 일하기를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은 공군창설 7인간부를 규합하여 육군항공대에 소위로 임관을 마다 안했다. 드디어 1949년 공군이 육군으로 독립이 되자 선배인 최 용덕장군이 국방부에서 일을 보게 되고 장군은 공군 초대 참모총장의 직을 맡았다. 그리고 동란을 겪게 되었는데 전쟁중 공군력 증강을 위한 피땀이린 노력, 그리고 전쟁 이후 제트기 도입을 위해 노력하신 그분의 노력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 집에 대해서는 이 책의 『인터뷰: 김 정렬장군을 찾아서』라는 기사를 읽으면 더욱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

필자가 처음으로 김정렬 장군을 뵈기는 그분이 주미대사를 거쳐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을 때이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전임 J중령이 필자를 인솔하여 가서 뵙게 되었고 그 뒤 그분을 종종 뵙고 공군사를 위한 면담을 신청하게 되었다.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대하면 그분을 직접 대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으나 오히려 뵙고는 오히려 더 놀라고 존경스러워졌는지 모를 일이다.

『아마 그게 51년 4월 16일과 17일 겁니다.』 무엇을 묻다가 이렇게 날짜를 정확히 대지 못하면 김 정렬 장군은

『아니야, 4월 15일일세. 내 기억이 맞아. 정확히 4월 15일이야.』라는 식으로 꼭 집어 말씀을 하시곤 했다.

우선 기억력이 경탄할 지경이었고, 또한 공군사의 정립(定立)에 관한 관심은 아주 열성적이신 편이다.

필자가 그분을 면담한 시간은 최하가 1시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기업체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사장이라는 증책을 맡으시고 계시면서 필자가 찾아가면 다른 곳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짧게 끊으시고 대화를 계속해서 심지어 3~4시간을 말씀해 주시곤 했다.

『선배도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

가 죽으면 초창기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공군사는 말할 사람이 적어지지. 그러니까 언제라도 물어와』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비서진에게 공군에서 J모중령과 필자가 오면 하시라도 만나도록 조치하라고 일러시는 것이었다.

모쪼록 그분이 오래 사시면서 앞으로 공군사를 연구하는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면 하는 욕심과 그리고 또한 자서전이라도 집필해 놓으셨으면 하는 욕심은 어쩔 수 없다.

이상으로써 그동안 4회나 연재해 오던 이 지면을 그칠까 한다. 그동안 자료의 한정과 청리 미비에도 불구하고 연재해 온 글을 읽어 준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공군의 역사와 함께 유익하고 흥미있는 이야기는 무척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체계있게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어제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오늘이 있고 또한 내일이 있는 것이다. 어제를 버릴 것이 아니라 내일의 발판으로 삼을 때에 급진적인 발전이 뒤따르리라고 확신한다.

영국의 시음



-다음의 글은 당시의 영국수상.....□
-이었던 윈스턴·처어칠이 저.....□
-술한 「제 2차세계대전」중에서.....□
-영국 상공에서 실시되었던 항.....□
-공회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실>.....□

이제 우리들의 운명은 공중전의 승리에 달려 있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영국의 침입의 모든 계획이 해협의 상공과 우리의 남쪽 해안에서 선정한 여러 상륙지점 상공에서 제공권을 획득하는데 걸려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승선항의 준비, 수송선의 집결, 도해로의 소해, 신기뢰원의 부설, 이런 일은 영국 공군의 습격에 대한 보호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도해와 상륙을 결행하는에는 수송선과 해안 상공의 완전한 제공권이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그래서 영국 공군과 런던 해안 사

이에 있는 비행장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 선결문제였다. 히틀러가 7월 31일 레도 제독에게 「8일간 강렬한 항공력을 동원해서 적의 공군력 항만 해군력을 어느 정도까지 부수는데 성공하지 않는다면 작전은 1941년 5월까지 연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지금 불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싸움이다.

나 자신은 이 눈 앞에 닥친 힘 다름에 있어 마음으로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다.

이미 6월 4일에 하원에서 「위대한 불

란서군은 현재는 불과 수천대 탱크의 맹렬한 공격에 쫓기고 혼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천만명의 공군의 기량과 노력으로 문명 그 자체의 운명이 옹호될 수도 있지는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으며, 또 6월 9일에는 스머즈에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팔로는 히틀러가 영국을 습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하늘의 우기를 꺾어버리는 것이다」고 써 보냈다. 그 기회가 다가온 것이다.

영국의 싸움을 구성한 영·독 공군의 격투에 관해서는 훌륭한 기록이 여러개 공개되었다. 공군참모총장 다우딩 윌수의 전보와 공군의 팜플렛 제156호에는 1941년과 1943년간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던 기본적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독일 최고사령부의 견해 및 여러 국면에 있어서 그들의 내부적 반동도 알고 있다.

중요한 전투의 몇 개에 있어서의 독일의 손해는 당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적었던 것 같으며 그리고 피차간에 그 보고는 꽤 과장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영국의 생명과 세계의 자유가 걸려 있던 이 유명한 전투의 양상과 운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독일 공군은 불란서와의 싸움에서 극한까지 동원되었기 때문에 노르웨이 작전 후의 독일 해군과 같이 그 회복을 위해서는 몇 주간이나 혹은 몇 달이 필요

했다.

이 정돈상태는 우리에게만 고마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쪽도 전투기대대는 3개 중대를 빼고는 모두 대륙작전에 출동했기 때문이었다.

히틀러에게는 불란서가 무너진 후에도 영국이 평화 제의를 수락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페당 원수나 웨이강 등 기타 많은 불란서의 장군이나 정치가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십나가가 지닌 특별한 탄력과 떨어져 있다는 유리한 지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다 그는 이들 불란서인과 같이 우리들의 의사력을 잘못 판단했다.

핀헨 이후 우리들은 먼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가지 배운 것이 있었던 것이다. 6월 중 그는 짐차로 밝혀진 새로운 정세에 본격적으로 달려들었다. 그 동안에 독일 공군이 회복되어 다음 일을 위해 다시 전개되었다.

다음의 일이 무엇인지 의심할 것이 없었다. 히틀러는 영국에 침입하여 정복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우발 사건이나 분규가 따를 장기전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만일 하늘에서 영국을 쳐부순다면 영국의 저항은 끝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침입은 가능하지만 패전국을 점령한다는 목적 이외에는 침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었

다.

6월과 7월 상순 중 독일 공군은 기운을 회복, 부대를 재편성하여 불란서와 벨기에의 모든 비행장에 기지를 두고 공격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과 시험적 출격으로 앞에 부딪칠 저항의 성질과 규모의 축정에 힘썼다. 최초로 맹렬한 공격이 시작된 것은 7월 10일인데 이 날이 일반적으로 영·독 공군전 시작의 날로 되어 있었다. 이 밖에 가장 중대한 뜻을 지닌 날이 명기되어 있다.

8월 15일과 9월 15일이 그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공격에는 잇달으면서 겹친 3개의 국면이 있었다. 제1 국면은 7월 10일에서 8월 18일까지로 해협의 영국 호송 선단과 도버에서 플리어드에 이르는 남쪽 연안의 여러 항구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적은 이로써 우리 공군을 다루어 보고 전투에 끌어들이 소모시킬 뿐더러 장차 침입 작전의 목표로 하고 있던 해안의 여러 도시에 손해를 입히려 하였다. 제2의 국면은 8월 24일에서 9월 27일까지인데 영국 공군과 이에 따르는 여러 시설을 없앴으로써 런던에의 길을 열려는 것이며 이 결과가 런던에 대한 맹렬한 연속적 목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위협을 받고 있던 바다와의 연락에서 런던을 빼내는 것도 노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피링의 심산으로는

세계 최대의 도시를 혼란과 마비상태에 빠뜨려 정부와 국민에게 겁을 주어 결국은 독일의 의사에 굴복시킨다는 큼직한 상품이 눈앞에 있다고 믿은 것이었다. 독일의 해군과 육군 참모부는 피링의 짐작이 맞을 것을 빌었다.

그런데 사태가 진전함에 따라 그들은 영국 공군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과 「바닷사자」작전의 모험에 가장 요긴한 그들의 필수 조건이 런던 파괴 때문에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이리하여 모두가 실망했을 때 그리고 제공권이란 절대조건을 잃어 침입작전이 무기 연기되었을 때 제3의 최후적 국면이 나타났다. 몇몇한 승리에의 희망은 멀어지고 영국공군은 밍살스럽게도 생기를 잃지 않고 있으므로 피링은 10월에 이르러 런던과 공업생산의 중심지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옮겼다.

전투의 성능에는 크게 차이는 없었다.

독일기는 속력에 이기고 상승력도 뛰어나 있었다. 영국기는 전동력과 무장면에서 앞서 있었다. 숫적인 우세에 자신을 가진 독일 비행사는 폴란드, 노르웨이, 저지 제국 및 불란서에 있어서의 승리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비행사는 자기들의 개인적 기량에 절대적 자신을 지님과 동시에 영국 민족이 최악의 역경에 섰을 때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그 결의를 가지고 있었

다. 독일측은 하나의 중대한 전략적 이점을 지니고 이를 적절히 이용했다.

그것은 그들의 부대가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기지에 있다는 것인데 그들은 여기에서 그들의 공격지점을 속이기 위한 견제와 기만행동을 취하면서 대병력으로 우리에게 집중공격을 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적은 불란서나 벨기에서의 전투조건에 비기면 해협의 상공과 해협을 넘어선 상공에서의 전투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그들의 불리한 조건을 상당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음은 능률적인 해상구조대를 편성한 노력이다.

적십자의 표지를 붙인 독일의 수송기는 7,8월중 공중전이 있을 때마다 상당수 해협 상공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격추된 적의 조종사가 재기하여 또다시 우리 비전투원을 폭격하려고 내습하는 것을 가능케 하려는 이 구조 수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능하면 그들을 구조하여 포로로 했지만 독일의 부상병 수송기는 모두 전시 내각의 승인을 거친 명확한 명령 아래 전투기에 의해 착륙을 하게 되든지 격추되든지 했다.

이 수송기의 승무원이나 의사는 이런 대접이 제비바 협약에 위반된다면서 항의했다. 그러나 이런 전쟁 양식을 예기 못한 이 협약은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인은 잔소리를 할만한 처지에 있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모든 조약, 전쟁법규 그리고 엄숙한 협정 등을 양심의 느낌이 없이 마구 짓밟아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곧 이 실험을 포기했으며 피차간의 병사의 구조 작업은 우리의 소함정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독일측이 이에 대해 언제나 총격을 퍼부었음은 물론이다. 독일공군은 8월말까지 폭격기 1천15대, 급강하 폭격기 3백46대, 전투기 9백33대, 증전투기 3백75대 등 2천6백69대의 작전비행기를 집결했다.

총통의 지령 제17호는 8월 5일에 대영 항공전의 강화를 허락했다. 피링은 「바닷사자」작전은 크게 중점을 두지 않고(절대적) 항공전을 꼭 믿고 있었다.

이 결과로써 그가 사전에 갖가지 수배를 소홀히 한 것은 해군 참모본부를 당혹시켰다. 해군으로서의 영국 공군과 비행기 공업의 파괴는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달성되었다면 항공전은 영국의 군함과 선박으로 옮겨야 할 것이었다. 해군은 피링이 해군 관계의 목표를 바꾼 것을 유감으로 생각했으며 일이 진전되지 않는데 골치를 싸웠다.

8월 5일 [해군당국은 실재없는 영국 공군의 위협으로 해협 수역에 기뢰 부설의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최고사령부

에 보고했다. 그런데 8월 10일의 해군참모부 전쟁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약천후 때문에 작전 불가능이 되어 있는 공군의 부위로 「바닷사자」작전을 위한 준비, 특히 기뢰 제거의 일이 지장에 부딪치고 있다.

거기에다 공군은 해군참모부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최근의 좋은 날씨가 제공한 많은 기회를 놓쳤다.

7월과 8월 상순의 연속적인 맹공전은 켄트곶과 해협 연안을 목표로 했다.

피링과 그의 경험 많은 막로는 우리 전투기 중대의 거의 전부가 이 남부지방의 격투에 끌려든 것으로 생각했다.

그대서 그들은 위쉬만 북쪽의 여러 공업도시를 주간 폭격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그들의 제1급 전투기 Me109로서는 너무 원거리였기에 그들은 Me10의 보호만으로 폭격기를 위험 앞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 전투기는 항속력은 있었지만 현재 가장 요긴한 성능은 아예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였으며 그들은 대견하게도 이를 행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8월 15일 약 1백대의 폭격기는 Me110 40대의 호위를 받으며 라인사이트를 향해 출발했다.

동시에 우리 부대가 이미 전투 집결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 것으로 짐작된 남쪽으로 향하여 이를 묶어두기 위해 8백대 이상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다우딩이 취한 전투기대의 배치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위협은 연결되고 있었다.

허리케인과 스피트파이어의 7개 중대는 남쪽의 격투에서 철수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휴양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북쪽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었지만 전장에서 떠나는 것을 아주 유감으로 생각했으며 조종사들은 조금도 고단하지 않다고 절충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뜻밖의 즐거움이 나타났다. 그들은 적의 연안지대를 넘자 이를 환영할 수가 있었다.

영국측의 손해는 겨우 조종사 12명이 부상한데 비해 적의 30대가 격추되었다.

이 대부분은 중폭 하인켈 111대인데 비행기마다 승무원 중에는 4명의 정병이 끼어 있었다. 전투부대에 지휘에 있어서 다우딩 공군원수의 선견은 감탄할 것이지만 이보다 더욱 멋진 것은 남쪽의 그 긴 사투의 몇주일을 통해서 북쪽에 전투기부대를 유보해 둔 자제력과 곧 가해지려는 무서운 중압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었다.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결과를 전쟁기술에 있어서의 천재의 전형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다. 그후 최상급의 전투기가 호위할 수 있는 거리 밖에서 적의 주간공습은 다시는 기도되지 않았으며 위쉬 이북의 모든 것이 낮에는 안전하게 됐다.

8월 15일은 이 전기중 최대의 항공전이 있는 날로써 5백마일의 전선에 걸쳐 다섯 개의 격투가 벌어졌다. 그것은 결정적인 날이었다.

남쪽에서는 우리 22개중대 전투가 전투에 참가했다. 대부분은 두번, 어느것은 세번 출동했다. 독일측의 손해는 북쪽의 것을 합하면 영국측의 34에 대해 76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독일 공군으로서 타격이었다. 독일 공군 수뇌는 장래에 대한 나쁜 전조인 이 패배의 결과를 검토하고는 암담한 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공군은 그때도 아직 런던 항을, 대량의 선박을 지닌 일련의 거대한 도크를 명증시키는데 크게 정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 최대의 도시를 목표로써 가지고 있었다.

이 치열한 격투와 끊임없는 불안의 몇 주일을 통하여 비버브룩 경은 눈부신 활동을 했다. 전투기대에는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비행기를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은 번거로운 인사나 실속없는 말들을 나눌 때가 아니었다.

그러한 것이 용납되는 것은 만사가 순조로운 평온한 체제 속에서의 일이다.

그의 뛰어난 자질은 시대의 요구에 맞았다. 타고난 명량성과 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일의 강장제였다.

나는 때때로 그와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반가웠다. 그는 기대에 어긋남이 없었으며 또 그것은 그의 특무대였다. 그의 사람됨에 있어 지니고 있는 힘과 타고난 자질은 고도의 설득력과 고안력과 더불어 많은 장애를 일소했다. 보급도 관내의 모든 것은 전장으로 흘렀다.

새로운 비행기와 수리가 끝난 비행기는 일찌기 없었던 수가 몰호르듯 여러 중대의 손으로 넘어갔다.

제작과 수리의 전 작업은 극점까지 동원되었다. 나는 그의 진가에 감동하여 8월 2일 폐하의 재가를 얻고 그를 전시내각에 넣었다.

또 그때 그의 장남 맥스에잇큰은 전투기 조종사로서 적기 11대를 격추하는 수훈을 세우고 있었다.

당시 내가 가장 믿접하게 협력한 또한 사람의 장관은 국가의 전 인적자원을 관리하여 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던 노동상 겸 봉사상 어베스트, 베빈이었다.

군수공장의 노동자는 모두 즐겨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도 또한 10월에 전시내각에 들었다. 노동조합원은 꾸준히 만들어 왔으며 악착같이 지켜오던 법규와 특권을 이미

부력, 지위, 특권, 그리고 재산 등이 빠져져 있던 제단에 아낌없이 올렸다.

백열의 몇 주간 나는 비버브룩, 베빈 등 두 사람과 매우 멋있게 손발이 맞았다. 나중에 두 사람은 다투었는데 이것은 아주 슬픈 일로써 여러가지 마찰의 씨앗이 되었다.

그러나 이 최대 난국을 당했을 때에는 우리는 일치단결했다.

나는 체임벌린의 충성과 전 각료의 결의와 능률을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나는 독일군의 손해의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알고 싶었다. 아무리 차분하고 정직하다 하더라도 멀리 구름 위에서 싸우는 일이 드물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적의 몇 대를 격추시켰는지 또는 같은 비행기는 몇 대의 적기에 의해 격추되었는지 정확히 알리가 없었다.

<수상으로부터 이즈메이 장군에게>
(40년 8월 17일)

「비버브룩 경이 본인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목요일의 전투에서 독일의 80대 이상이 국내에서 쫓아졌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 몇 대인가 본인은 전투기대 총지휘관에게 이 전투에서 육지의 상공과 바다의 상공을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묻고 있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주장되고 있는 전과를 확정시킬 좋은 수단이 제공될 것이다」

<수상으로부터 공군참모총장에게>
(40년 8월 17일)

「우리들의 눈은 이 나라 상공에서의 전투 결과에 집중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 폭격기대가 입은 심각한 손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제 밤의 증폭 7대의 손실과 거기에 다시금 지상에서— 대부분은 탕미어에서— 파괴되고 있는 21대의 비행기를 합하면 28대이다. 이 28대를 예의 22대의 전투기에 가산하면 당일의 우리 손해는 50대가 된다.

독일의 손해 75대에 의해 그려지는 화면은 이 때문에 매우 달라진다. 그날 우리 쪽은 적의 3에 대해 2를 잃은 것이다. 지상에서 파괴되고 있는 기형을 알려달라.」

<수상으로부터 공군상에게>
(40년 8월 21일)

중요한 것은 독일의 항공기를 격추하여 전투에 이길 것이고 아울러 미국의 신문 통신원과 미국민에게 우리가 이기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숫자가 많다고 믿게 하고 있는 일이 더욱 낮은 수준임을 알게 하는 일이다.

독일군의 공중공격이 격퇴 되었음이 명백히 제시되고 미국민이 그 진상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먼 앞날의 일은 아닐 것이다.

전투가 월세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공습경보 기타에 관해서

끊임없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 이때에 전투기대 사령부에 갖가지 일은 귀찮게 갖다 안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본인은 사실 그들 자신에게 말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미국의 민중에게 우리 조종사는 숫자에 관해서 과장되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통신원을 항공대에 데리고 오는 것 등은 재미있는 일이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 항공기 생산상이 육지에만 떨어진 독일 항공기를 80대나 훑었다고 말한 그날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조사 사실을 기록한 문서류를 귀관이 보아 주기를 바란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매우 좋은 수단이 된다.

사실 본인은 미국인이 회의적인 데에는 좀 초조하고 있다. 사실은 모든 것은 결정하는 것이다.

8월 20일 나는 의회에 이렇게 보고할 수가 있었다.

「두 말 할 것 없이 적은 우리 보다는 월등하게 수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생산은 상당히 적의 그것을 앞지르고 있다. 미국 항공기는 이제야 차츰 흘러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싸운 후에도 우리 폭격기와 전투기의 실질적인 세력은 이때까지 보지 못한만큼 충실되고 있다. 우리는 공중의 격투

를 언제까지나 적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격투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빨리 우리는 비토소 공중에서의 균세(均勢)에 가까와지며 나아가서는 전쟁의 결과가 상당한 정도로 결려 있는 우세에 가까와지며 나아가서는 전쟁의 결과가 상당한 정도로 결려 있는 우세에 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8월말에 이르기까지 괴팅은 공중 격투의 양상을 불리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의 그 일당은 영국의 지상조직과 비행기 공업과 공군의 전력에 이미 심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8월 8일 이후 그들 4백 67대에 대해 우리는 1천 15대를 잃었다고 손꼽았다. 하긴 양쪽 다 자기쪽을 유망하게 보는 것은 보통이며 적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기는 했다. 9월에는 한 때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독일 공군은 결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맹렬한 공습이 런던 주변의 비행장 시설에 둘러져 6일 밤에는 68대가 런던을 공격했으며 이어 7일에는 약 3백대로 편성된 최초의 대규모 공습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며칠 사이에 우리 고사포 수는 배로 늘었으며 런던 상공에서는 아주 격렬한 연속적 항공전이 벌어졌다.

독일 공군은 우리의 손해를 과대평가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해군 참모부는 해군의 이해와 책임을 우려하여 9월 10일의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입했음을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다.

「적의 공군이 남 잉글랜드의 상공과 해협의 상공에서 패배한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앞으로의 형세판단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독일 공군의 여행적 공격은 사실 적의 전투기 방어력을 꽤 약화시켰으므로 영국 상공에서의 우리 전투기대의 우세는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해군 참모부가 작전상 불가결하게 최고 사령부에 명시한 조건, 즉 해협지역에서의 안전한 제공권과 독일함대와 보급선박의 집결구역에서의 적공군의 활동 배제는 달성되지 않고 있다.

……만일 공군이 현재 런던에 집중하고 있는 공격을 줄여 포오즈머스와 도버 그리고 작전지역 내 및 그 부근의 전항에 대한 공격을 늘이면 「바닷사자」작전의 시간표적인 준비에 적합할 것이다.」

이때 이미 히틀러는 런던에 대한 대공습은 결정적일 것이라는 피링의 말을 믿고 있었으므로 참모부는 감히 최고 사령부에 호소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불안은 잇달았고 12일에는 다음과 같은 어두운 결론에 달한 것이었다.

항공전은 해전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바를 무시하고 「바닷사자」작전의 틀 밖

에서 절대적 공중전으로 수행되고 있다. 공중전의 지금 모양으로 수행되는 이상, 그것은 대부분이 해군의 도움을 기대하는 「바닷사자」작전의 준비를 도울 수는 없다. 특히 현재 거의 방해받음이 없이 해협 내에서 행동하고 있는 영국 군함에 대해 공군이 도전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적의 군함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은 수송을 위해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따라서 영국 해군에 대한 중요한 방어는 기뢰원이라고 해야겠지만 그러나 최고사령부에 거듭 설명한대로 그것은 선박을 위한 확실한 보호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강화된 공중전이 침입작전에는 이바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작전적 및 군사적 이유로 해서 침입 실행은 아직 고려할 수 없다.

9월 11일, 다음과 같이 발송했다.

일기가 좋기만 하면 한번에 3,4백대에 이르기까지 하는 독일 폭격기의 파도는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대낮에 군사적 기타 목표를 공격하려고 이 섬의 상공에 특히 켄트 곳의 상륙에 쇄도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 전투기대에 추격되어 거의 예외없이 쫓겨나고 있으며, 그 손해는 우리 1대에 3대, 우리 조종사 1명에 대해 6명의 평균으로 되어 있다.

잉글랜드 상공의 주간 지배를 확보 하려는 독일의 이 노력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전쟁 전체의 가장 어려운 포인트이다. 지금까지는 이 점의 실패는 뚜렷하다. 그들은 아주 많은 희생물 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쪽이 강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또 실제로 7월에 이 격전이 시작한 때 보다는 비교적 적보다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히틀러군이 그 전투기 세력을 아주 높은 율로 소모하고 있다는 것, 지금과 같이 계속 앞으로 여러 주일을 넘긴다면 공군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물 소모시키고 감작시키고 말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유리한 지위에 설 것이다. 한편 제공권을 획득하지 않고 이 나라에의 침입을 꾀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매우 모험적인 사업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침입 준비는 큰 규모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몇 백쌍이나 되는 자진력이 있는 대형 하주가 독일과 네델란드의 항구에서 유럽의 해안을 따라 북플란서의 여러 항구로 내려오고 있다.

명케르크에서 브레스트에 걸쳐 더 나아가서는 브레스트에서 비스케만에 있는 불란서의 여러 항구에 이르기까지...

이밖에 10쌍, 12쌍으로 된 호송선단은 독일인이 불란서의 해안에 구축한 새 포대의 응호 아래 항구에서 항구로 물을 옮기면서 도버수로를 빠져 해협

으로 내려오고 있다. 현재 함부르크에서 브레스트에 걸쳐 독일, 네델란드, 벨기에, 불란서의 항구에는 상당 선박 집결이 보인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여러 항구에서 침입부대를 나르기 위해 선박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들 선박군이나 하주군의 배후에는 독일의 대군이 매우 위험하기만한 횡단도해에 출발하기 위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언제 침입을 시도할 것인지 우리로서는 모른다. 전혀 침입을 하지 않을 것인지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 섬에 대한 무겁고 본격적인 침입이 독일식의 철저함과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이라도 영국에, 스코틀란드에 아일랜드에 혹은 세 나라 모두에 그 준비가 돌려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만일 이 침입이 실제로 결정될 것이라면 그것이 오랫동안 연기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날씨는 언제 변할지 모른다. 거기에는 밤마다 우리 폭격기에 격퇴되고 항구 밖에 잠복하고 있는 우리 군함에 포격되는 선박군을 한없이 기다리게 해둔다는 것은 적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말 또는 그 전후를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불 해협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그리고 드레이크(영주—무적함대를 무찌른 영국의 제독 프렌시스 드레이크 경)가 목구의 유희를 끝내려 하고 있을 때, 또 블로뉴에 진을 친 나폴레옹의 그란타르메(영주—나폴레옹 수하의 군대의 호칭)와 우리 사이에 벨슨이 절연하게 서 있던 그 때와 비길 수 있는 시기이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그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그러한 옛날에 비해 지금은 훨씬 규모가 크며 또 세계의 생명과 장래와 그 문명으로써는 훨씬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8월 24일에서 9월 6일에 걸친 전투기대로서는 불리한 것이었다.

이 위급한 나날에 적은 영국의 남부와 동남부의 비행장에 강력한 연속적 공격을 가했다. 그 목적은 한시라도 바빠 런던을 공격하려고 서두르는 적이 주간 전투기에 의한 런던의 방공을 부수는데 있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중폭격으로부터 런던을 지키는 것보다는 상기한 비행장과 그곳에서 작전이라는 전투기대와의 기능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결투는 영·독 양공군의 사활의 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면이 있었다.

우리는 이 전투를 결코 기지 장소를 지킨다는 각도에서 보지 않고 어느 쪽이 하늘에서 이길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스탠모어의 전투기대 총사령부, 특히 익스브리지의 제11전투기대 사령부에는 커다란 불안에 있었다. 이 대대의 전선 비행장 5개소와 6개의 소지구 기지는 손해를 입었다. 연안의 맨스턴과 라임에서는 며칠을 두고 전투기를 발작시킬 수 없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런던 남쪽 버킹엄에 있는 지구 기지에서는 아주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1주일 동안에 전투기 중대가 단 한 번밖에 행동할 수가 없었다. 만약 적이 끝까지 부근의 기지를 맹공격하여 작전실이나 전화연락을 파괴했다면 전투기대 사령부의 복잡한 조직 전체는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었다면 런던이 따끔한 맛을 당했을 뿐 아니라 결정적 지역에 쌓아올린 우리 상공의 지배는 실패했을 것이다.

나는 그 기지 중의 몇개소—특히 맨스턴(8월 28일)과 내 집이 가까운 비긴힐을 시찰하게 되었다. 양쪽 모두 무참하게 얻어맞아 활주로에는 커다란 탄공(彈孔)이 있었다.

그러기에 전투기대사령부는 적이 9월 7일에 런던으로 공격을 들린 것을 보고 적이 작전이 바뀌었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 한시를 던진 것이었다. 피링은 영국의 공군 전력에 의존하고 있던 비행장의 조직과 연락에 대한 공격을 약착같이 계속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정통적인 전쟁원리를 어기고 거기이다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인도도를 어기고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같은 기간—8월 24일~9월 6일에 우리 전투기대의 실체력은 전체로서는 아주 감퇴했다. 2주일간에 1백 3명의 조종사가 전사하고 1백 28명이 중상을 입었다.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의 4백 66대가 파괴되었거나 큰 손해를 입었다. 약 1천명의 조종사 중 거의 4분의 1을 잃은 것이다.

이 보충에는 2백 60명을 열렬하기는 하나 미숙한 사람으로 보충할 수 밖에 없었다.

각지의 연습반에서 뽑혀 온 이들 중에는 아직 전 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9월 7일에서 열흘간에 걸친 런던의 야간공격은 부두나 철도 중심부에 대한 것으로써 많은 비전투원을 살상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한숨을 들리는 기간이 되었다.

이 기간중 나는 어떻게 하든 1주일에 두번 직접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켄트나 수섹스의 피폭지역에서 오후를 보내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 전용의 특별 열차를 사용했는데 그때에는 침대, 욕실, 외부와 연락하는 전화 등을 가지는 등 아주 편리하게 설비되어 있었으며 필요한 일손도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수면중 외에는 다우닝가의 편지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의를 거

의 모두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우리는 9월 15일을 공습이 절정에 달한 날로 정해야 할 것 같다.

이날 독일 공군은 14일의 그대 공습 후 런던에 대한 주간 공격을 재개하여 최대의 집중공격을 한 것이다.

그것은 대전 중의 결정적 전투의 하나이며 워털루 싸움과 같이 일요일이었다.

나는 체커즈에 가 있었다.

공중 전투의 모습을 목격하기 위해 나는 그대까지 자주 제11전투기대는 25개 남짓한 중대로 편성되어 에셋스, 켄트, 수섹스, 햄프셔 및 이 지구를 거처 런던에 이르는 가도 전부의 방위를 맡고 있었다. 우리의 운명은 대부분은 실로 이 부대에 걸려 있는 것이다.

이미 덩게르케 철수의 처음부터 영국 남부에서의 주간전투에 모두가 그에 의해 지휘되었으며 또 사령부의 시설과 장비는 최고도의 완전에 이르고 있었다.

나와 아내는 지하 50피트의 내폭탄 작전실에 안내되었다. 이 지하실의 지휘중추와 전화선의 체제가 없었다면 허리케인이나 스피트파이어가 아무리 떠올라도 전혀 효과는 없겠지만 이 체제는 전쟁 전 다우딩의 진언과 추진에 의해 공군성이 고안 건설한 것이다. 이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칭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시 영국 남부에는 제11전투기대 사령부와 그밖에 여섯개의 중속적 기지사령부가 있었다. 이들의 모두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비상한 중압 아래 있었다. 최고의 사령부는 스탠모어의 전투기대 총사령부이었지만 그러나 실제의 지휘는 현명하게도 제113대대의 손에 맡겨졌으며 그것은 각 현에 있는 몇개의 기지사령부를 통하여 지배하고 흑판은 전구로 가로가 6개 란으로 구분되어 6개의 지구기지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 위에 그 하나 하나는 전구의 횡선으로 구분된 세란(細欄)을 지니고 있었다. 이리하여 이 세란의 제일 밑에 있는 일련의 전구에 불이 켜지면 2분의 예고로 그 중대가 준비는 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다음의 일련은 5분으로 준비 완료를 뜻하고 그 다음의 일련은 20분으로 출동가능을 뜻하고 있었다. 대대 작전실은 조그만 극장을 닮아 있었다. 넓이 60피트 쯤의 2층 구조였다. 우리는 2층의 특별석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밑에는 커다란 지도 테이블이 있었으며 그 주위에 약 20명의 고도훈련을 받은 젊은 남자가 전화 조수와 더불어 모여 있었다.

우리의 바로 정면에는 극장이라면 스크린이 있을 전면 벽을 덮는 커다란 흑판이 걸려 있었다.

흑판은 전구로 가로가 6개 란으로 구분되어 6개의 지구기지를 표시하고 있

었다. 그 위에 그 하나 하나는 전구의 횡선으로 여섯으로 구분된 세란을 지니고 있었다. 이리하여 이 세란의 제일 밑에 있는 일련의 전구에 불이 켜지면 2분의 예고로 그 중대가 준비는 되어 있음을 표시하고 다음의 일련은 5분으로 준비완료를 뜻하고 그 다음의 일련은 20분으로 출동가능을 뜻하며 그 다음은 이륙하였음을 뜻하고 그 다음은 적기발견의 보고 그 다음은 빨간 전등으로 전투 중을 알리고 제일 위는 귀환 중을 뜻했다.

왼쪽에는 부대일의 특별석과 비슷한 유리로 싸인 자리에 4,5명의 장교가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대공감시대에서 보내오는 정보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었다. 당시 감시대는 남녀, 청년을 합하여 5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

레이다는 아직 유지한 때여서 적기가 우리 해안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릴 수 있었지만 육지 상공을 나르는 적기에 관한 정보는 주로 망원경과 휴대용 전화기를 지닌 감시대원에 의해 공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 중에는 몇 천이란 정보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령부의 만 여러 곳의 방에 있는 경험있는 여러 사람들이 재빨리 그것을 가려내어 일초를 다투어 직접 큰 마루의 테이블의 주위에 있는 칩입 기록을 전달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리 속의 특별석에서 감시하고 있는 장교

에 전달한다. 오른쪽에는 또 하나의 유리로 싸인 작적이 있는데 그 속에는 고사포대의 활동을 보고하는 육군 장교가 있었다. 당시 이 대대 관구의 고사포는 적기에 육박하는 구역에 대한 발포를 멈추게 하는것은 가장 요긴한 것이었다.

전쟁 1년 전, 나는 스탠모어를 방문했을 때에 사우딩으로부터 설명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한 체계의 일반적 윤곽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동안의 전투에서 그것을 체제를 갖추고 더욱 정밀하게 되어 이제 전 부분이 종합되어 매우 정묘한, 세계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쟁의 도구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랫층으로 내려가면서 파야크는 「글쎄,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디나 다 조용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15분 후에는 침입기록계가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디에프 부근의 독일 기지에서 「40대 이상」이 내습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벽위 표시판의 맨 밑줄의 전구는 각 중대의 대기를 표시하기 위해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있달아 「20대 이상」, 「40대 이상」이란 보고가 들어왔다.

그로부터 10분이 지나서 증대한 전투가 다가오고 있음이 밝혀졌다.

적과 우리편의 상공은 비행기로 꼭

차기 시작했다.

연달아 「40대 이상」 「60대 이상」의 보고가 들어왔다. 「80대 이상」이라는 것도 있었다. 우리의 아래에 있는 큰 마루의 탁상에서는 시시각각으로 피상공격의 모든 움직임을 나타내는 원반이 내습의 여러 선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동안에 우리 정면의 흑판에서는 윗줄로 올라가는 전등을 전투중대가 속속 하늘로 올라감을 표시했는데 최후에 불과 4,5개 증대만이 「준비완료」의 상태로 남았다. 아주 큰 판가름이 달린 전투는 처음 시작한 후부터 1시간 남짓 계속됐다.

적은 연달아 새로운 공격진을 내보낼 충분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적의 위로 오르기 위해 상승한 우리 전투기대는 약 80분 후에는 연료보급을 위해 또는 5분간의 전투 후에는 탄환보급 때문에 착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그러한 보급의 순간에서 새로운 적이 쇄도할 수 있었다면 우리 전투기의 1부를 지상에서 파괴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낮에는 너무 많은 전투기가 동시에 보급을 위해 지상에 있지 않도록 각 중대에 지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작전의 하나였다.

얼마쯤 있다가 표시판의 붉은 등불은 우리 전투기의 대부분이 싸우고 있음을 알렸다. 급변하는 전황에 따라 침입 기록계가 원반을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큰 마루에서는 억눌린 목소리들이 울러 나왔다. 파야크 부원수는 전투기 대의 배치에 관해 일반적인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내가 앉아 있는 특등석의 중앙에 있던 아직 젊은 장교가 상세한 명령으로 번역하여 각 기지로 전하고 있었다.

몇년인가 후에 내가 그 장교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는 월로비드브로크 경이었던 것이다(내가 그 다음에 그를 만난 것은 1947년에 조키클럽의 간사였는데 내가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는 놀랐다). 그는 지금 지도 테이블에 나타난 최후의 표시를 확인한 다음 각 전투기 중대에 상승 초계의 명령을 내렸다.

파야크 부원수 자신은 뒤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의 모든 움직임을 매서운 눈초리로 주시하면서 부하 간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위협을 받고 있는 지구의 증원 등 결정적 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아주 드물게 입을 열 뿐이었다.

얼마 있으니 우리 전투기 중대는 모조리 전투에 들어갔고 벌써 연료보급을 위해 돌아오는 것도 있었다.

모든 비행기는 하늘에 있었다. 폭탄의 맨 밑줄의 등불은 꺼져있었다.

에비로 남아있는 중대는 하나도 없었다. 그때 파야크는 스탠모어의 다투딩에게 전화를 걸고 지휘하는 전투기가

재 급유와 탄환 보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적이 대거 공격해 왔을 때를 대비하여 제12전투기 대대에서 3개 중대를 자기의 지휘 아래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그대로 되었다. 이 3개 중대는 런던과 전투기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했다.

제11대대는 이미 전부 출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평소의 사무 쯤으로만 느끼고 있는 듯한 예의 아직 젊은 티가 있는 장교는 대대장의 일반 방략에 따라 침착하고 조용하고 낮으며 단조로운 목소리로 명령을 연달아 내리고 있었다. 증원된 3개 중대는 곧 전투에 참가했다. 대대장은 이제 부하의 의자 뒤에 선 채로 이제 앵글 태우고 있는 빛이 뚜렷했다. 그때까지 나는 말없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이밖에 어떤 예비대가 있는가」고 물었다. 「하나도 없습니다」고 부원수는 대답했다. 후일 여기에 대해 누가 쓴 것 중에 이 답을 들은 나는 「우리의 빛을 떠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겠는가, 만일 제 보급 중의 우리 비행기가 또 다시 「40대 이상」이나 「50대 이상」으로 내습하는 적에게 지상에서 포착되었다면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적의 우세는 크고, 우리의 여유는 가난하며 도박에 걸려 있는 것은 무한이었다.

다시 5분이 지났다. 우리 전투기대의 대부분은 보급을 다시 받기 위해 이미 지상에 있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공군력은 이들에 대해 상공 보호를 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적은 그때 되돌아 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래층의 테이블에서는 원반의 움직임이 적의 전투기, 폭격기가 동쪽으로 계속 움직임을 가리켰다.

다시 10분 후에 전투는 끝났다.

우리는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거의 지상에 나왔을 때는 「적기 없다」는 사이렌이 울렸다.

「당신이 봐주신 것은 아주 좋았읍니다」라고 파아크는 말했다.

「물론 최후의 20분간이라는 것은 정보가 틀어닥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읍니다. 이 전투는 현재의 우리 전력의 한도를 보였읍니다. 오늘은 우리 전력의 한도 이상으로 혹사되었다고 하겠읍니다.」 나는 전투의 결과보고가 와 있는지 어떤지를 물어본 다음 적의 공격은 만족스럽게 격퇴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요격해야 한다고 느낀 만큼의 적은 요격했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적이 도처에서 우리 방어를 돌파한 것은 사실이었다.

몇 10대라는 폭격기가 전투기의 호위 아래 런던 상공에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었다. 내가 지하에 있는 동안에 적의 12대쯤은 격추되었는데 전과와 손실이 어찌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체커즈가 돌아온 것은 상오 4시 30분이었다. 낮잠을 자기 위해 곧 침대에 들어갔다. 제11전투기대의 활주 때문에 무척 고단했던지 8시까지 눈이 뜨이지 않았다. 내가 부르자 수석 비서인 존 마아틴이 저녁에 보게 되어 있는 전세계로부터의 정보를 한아름 가지고 들어왔다. 모두 기분 좋은 것들은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든가 저기에서는 늦어진다든가 누구에게서는 불만스런 회답이 왔다든가 대서양에서 몇 척이나 격침 당했다든가 하는 것들이었다.

마아틴은 이것을 모두 읽은 다음 「그러나 공중전에서 모든 것이 메워졌읍니다. 40대 이하의 손해로 적이 1백, 83대를 격추했읍니다.」라고 말했다.

최후의 정보에 의하면 이날 적의 손실은 56대에 지나지 않았지만 9월 15일이란 날은 「영국의 싸움」의 절정이었다. 그날 밤 우리 폭격기대는 불노위에 서 안트워프에 걸친 여러 항구의 선박에 맹공격을 감행하여 안트워프에서는 특히 큰 손해를 입혔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총통은 9월 17일에 「바닷사자」작전을 무기연기했다.

10월 12일에는 영국 침입은 다음해 봄까지 공식으로 연기되었으며 다시 1941년 7월에서 1942년 봄까지 연기되었다.

「그때까지는 대소전이 끝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부질없는 그러나 중요한 상상이었다.

1942년 2월 13일 리더제독은 「바닷사자」 작전에 관해 히틀러와 최후의 회견을 갖고 이 작전의 「철회」를 승락토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바닷사자」작전은 소멸됐다. 아마 9월 15일을 그 사망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독일 해군 참모부는 이러한 연기에 대 만족이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권고한 것이었다.

육군의 지도자는 할 말이 없었다.

17일에 나는 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함주곡조의 고양(高揚)된 기분으로 하루 하루의 대기를 계속하면 드디어는 신선한 매력을 잃기 쉽다. 일요일의 활약은 영국, 공군의 전투기가 종래 싸워온 중에서 가장 빛나고 수확도 푸짐한 것이었다…… 우리는 냉정한, 그러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자신을 가지고 이 긴 공중전의 귀결을 기다릴 수가 있다.

공명한 관찰자 스트롱 준장—미국 전쟁 계획부 차장으로 독일 공습의 결과를 관찰하기 위해 런던에 파유된 미국 군사사절단의 단장 일행은 19일 뉴요크로 돌아가서 독일 공군은 영국 공군의 전

력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폭격에 의한 군사적 손해는 비교적 적고 또 영국이 발표하는 적의 손해 숫자는 과장돼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런던의 싸움은 아직 계속되어야 했다.

침입계획은 철회되었지만 9월 27일에 이르기까지 괴팅은 그의 수법으로 전쟁에 이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10월에는 런던이 가장 많이 당했지만 기타 여러 지역에 대해서는 독일은 밤낮없이 소규모 공습을 벌였다.

집중공격 대신에 분산공격이 채용되어 대소전이 시작되었다. 소모, 그러나 그것은 어느 쪽의 것인가?

우리는 사후의 지식을 가지고 세계의 결전의 하나로 간주되어 마땅한 이 싸움의 영·독 공군의 참된 손실을 냉정하게 연구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적기의 격추를 추산할 때 언제나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독일기를 1대 3의 비율은 1대 2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국 공군은 지기는 커녕 이기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그 말은 바 일을 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기구의 정상에서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의 정력과 용기는 시종 일관 정복이 불가능했으며 최상급이었다.

그리하여 영국은 구원되었다.

- ...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 ...국민노릇을 할 나라가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이외에 또 다...
- ...른 조국이 없다.
- ...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크게 발전시키고 훌륭케...
- ...함으로써 우리의 생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여야 겠다.

대한국군 발달사

신 광 식

우리는 두 조각의 국토를 통일할 두 갈래의 민족을 합하여서 기리 조국의 발전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더 많이 알아야겠고 더 많은 힘을 갖추어야 겠다. 남북의 대결이 대화있는 대결로 전환된 이 시점이야말로 더욱 무장을 굳게 하여야겠고 또한 고귀한 국방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아야 겠다.

이러한 뜻에서 대한국군 발달사를 한번쯤 알아 두어야 하겠다.

1. 군의 기원

가. 개 론

나라가 서면 무엇보다 먼저 국방의 필요를 느끼고, 국방을 요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인을 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군은 전국과 동일한 보조로 일어났다. 군은 타군보다 육군이 먼저 설치되었다.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우리 인류의 거주지가 육지인 판

계요, 둘째 고대에는 바다나 하늘을 나는 기구를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병(兵)은 흉기라 하였다. 그것은 폭(暴)을 자행하고 난(亂)을 방(放)하는 것이 병인 까닭이다. 그러나 폭을 제거하고 난을 평정하는 것도 역시 병이다. 병은 흉기라 하나 상대방이 흉기로 나를 범할 경우에는 나도 부득이 그 흉기로서 침범하는 것을 저항하며 퇴치하는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

다. 이러한 의미에서 폭을 자행하고 난을 방하는 병은 흉기인 동시에 그 폭을 제거하고 난을 평정하는 길기(吉器)가 된다.

이 길기의 정신을 떨치는 것이 곧 국방이요, 군이다.

고금을 통하여 군과 병력이 없는 국가는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기능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군과 병력을 말한다면 그 기능은 사물(死物)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군은 특히 국가기능의 큰 요소가 되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 군의 기원

우리나라 군의 기원은 멀리 단군성조께서 개국하신 그 즉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 일곱 가지 관제를 만들고 관의 이름을 모두 용맹스럽고 진실한 동물의 이름을 붙여 가(加)라 하였다. 그 칠가(七加)중에 웅가(熊加)가 군을 맡았다. 맨 처음의 웅가는 치우씨(蚩尤氏)다.

(七加는 虎加, 馬加, 牛加, 熊加, 鷹加, 鷲加, 狗加다. 虎加는 여터 加를 거느리었으니 現代의 國務總理格이다. 馬加는 民生及文教官이요, 牛加는 農林官이요, 鷹加는 司法官이요, 鷲加는 厚生保健官, 狗加는 內務官인데 諸加의 氏名은 다음과 같다.

虎加: 王者夫妻, 馬加: 神誌,

牛加: 高矢, 熊加: 蚩尤氏,
鷹加: 第二王者夫妻蘇,
鷲加: 第三王者夫妻虞, 狗加: 余守己,

2. 군의 제도

가. 국민계병

상고시대 우리나라의 군제는 국민계병제이었다. 촌에는 촌민을 병졸로 한 촌군(村軍)이 있고, 읍에는 읍민을 병졸로 한 읍군(邑軍)이 있었다. 촌의 군이 강하여야 촌의 힘이 생긴다 하여 사(射)와 기(騎)를 익히고 촌이 부(富)하여야 촌의 품(品)이 높으다 하여 수렵과 경작과 직작(織作)에 부지런하였다. 따라서 읍이 그랬고 성(城)이 그랬고 전국이 그랬다.

그래서 가가호호에 갑주, 투구, 활, 살, 방패 등을 가구로 여기고 상비하였다. 만일 적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촌읍의 군이 스스로 나가 싸웠으며 여러 민중이 전장에 나가는 장병을 볼 때 곧 자기를 대신하여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양식을 갖다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또한 사람들은 모두 병졸이 되어 촌읍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자기의 가사(家事)로 생각하였다. 이것이 곧 고군제(古軍制)의 이념이요, 고정책(古政體)의 전통이었다. 그래서 상하가

모두 군으로써 단결이 되어 위난을 당할 때 스스로 시석(矢石) 앞에 나아가 위로는 국란(國亂)을 구하고 아래로는 국민을 호(護)하였다. 즉 군주까지도 직접으로 전투원이 되었다. 이것이 고조선의 기혼이요, 국민계병의 무풍(武風)이었다.

나. 병농(兵農)일치

옛날에는 군인으로서 태평무사한 평시에는 농촌에 들어가 농사에 종사하고 만일 전사가 되면 농촌으로부터 다시 병영에 돌아와 종사하였다.

이 병농일치의 군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모두 취한 바 고 군제이었으나 그 중 우리나라와 지나에서는 더욱 현저하고 조직적이었다. 우리나라의 병농일치제는 멀리 부여시대로부터 이조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오래된 군제이었거니와 신라에서는 사바왕, 특히 고려에서는 당의 제도를 참작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즉 고려 태조 2년에는 6위(六衛)를 새로 세우고 20세로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모두 군에 편입한 뒤 각각 발 17결씩을 주어 작농케 하다가 60세가 되면 병역을 면하는 동시에 그 발도 환납케 하였다. 현종 2년에는 혼련에 좀더 유의하여 농번기 이외에는 반드시 혼련을 행하게 하였으니, 매월 평균 6회에 달했다. 이씨조선에 이르러서도 역시 이

러하였으나 특히 선조임란 뒤에는 병농 불가분주의(不可分主義)를 일층 강화하였다.

다. 둔전병제

둔전병(屯田兵)제는 변새지(邊塞地)에 상주하는 군인으로서 당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군에 복무하는 제도니 본시 한 나라의 제도이다.

우리나라 둔전병제는 고려 현종 15년에 시작된 것이다. 현종 이후 세왕 중에 정종, 문종, 숙종, 공민왕, 우왕 등의 시대에 가장 성하였고, 이조에서는 단종, 선조, 인조, 효종, 숙종, 영조, 정종, 순조시대에 가장 성하였다가 고종 광무 2년에 폐지하였다.

라. 징병제

고대 국민계병제의 역사가 생긴 이래로부터 국민은 병역에 입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였고, 군주도 국민을 병역에 징용하는 것이 역시 당연한 권능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병즉농(兵卽農)의 징병제는 용이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전통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현대의 징병제와 같은 것이 아니요, 임시적인 모병이었다. 따라서 그 병역에 복무하는 것도 일정한 연한이 있는 것이 아니요, 사태의 지속(遲速)에 의하여 속히

귀결이 되면 병역의 면제도 속하고 더
더기 되면 병역의 면제도 역시 더디게
되었다.

마. 승병제(僮兵制)

승병은 승려로서 조직한 군대로 우리
나라의 독특한 군제이다. 신라 진흥왕
때부터 시작하여 고려에까지 전래하였
으나 현저한 공적이 있기는 이조 선조
임진란에서다.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
규대사 등이 있어 막대한 전공을 이루었
고, 임진란 이래로 상하가 국방의 필요
를 느끼는 중, 사명대사가 또한 국방의
완비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조의(朝議)
가 그를 용납하여 각지에 산성을 쌓게 되
어 승도(僧徒)로서 담당케 하였으며, 산
성 안에 사찰을 세우고 산성을 지킬 승
병을 두었으니 승병이 거처하는 사찰을
승영(僧營)이라 하고 승병이 쓰는 창고
를 승고(僧庫)라 하였으며 또한 요새의
산성 안에 사고(史庫)를 두고 그를 수
호하기 위하여 승병을 두었으며, 특히
수도 서울을 수호하기 위하여 남한산성
과 북한산성을 축조하고 남북한(南北漢)
의 상비 승병은 총 748명이었으며 광무
5년에 폐지하였다.

3. 군의 편성

가. 삼국시대

삼국시대 군의 편성은 두 가지 구별이

있다. 숙위대(宿衛隊)와 비변대(備邊隊)
가 그것이다.

숙위대는 궁성과 수도를 호위하는 군
대요, 비변대는 지방을 수비하는 군대
다. 군영을 정(停)이라 하고 군대를 당
(幢)이라 한 바 그 군호(軍號)가 23종
이 있었다.

(新羅의 23軍號)

1. 六停 2. 九誓幢 3. 十幢 4. 五州誓
5. 三武幢 6. 계금幢 7. 急幢 8. 四千
- 幢 9. 京五種幢 10. 二節末幢 11. 萬
- 步幢 12. 大武尺幢 13. 軍師幢 14. 仲
- 幢 15. 百官幢 16. 四投幢 17. 皆知
- 載幢 18. 三十九余甲幢 19. 仇七幢
20. 二麗(이계) 21. 二弓 22. 三邊守
23. 新三千幢

숙위대나 비변대를 불문하고 3대분과
가 있었으니 궁대(弓隊), 노대(弩隊),
기대(騎隊)가 그것이다.

궁대와 노대는 보병이요, 기대는 기
병이었다. 그러나 삼국시대까지도 보기
(步騎)의 구별이 확연치 않고 보병이
기대로도 변하고 기대가 보병으로도 변
하였다.

그런데 삼국시대에 특히 군의 편성이
복잡하였던 나라는 신라이다. 신라에서
는 이중 16의 四投幢에 있는 石投幢은
石戰隊이다.

나. 고려시대

고려의 군은 왕태조 2년에 신라말의 복잡한 군제의 폐를 고쳐서 간단한 편성에 주력하였는 바 그 주요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①육위(六衛) : 왕태조 2년에는 군대를 위(衛)라 칭하고 위의 아래에는 영(領)을 두었는데 위는 6위요, 영은 228명이었다. 1위에는 38명씩 두고 1명에는 병졸 1,000명씩을 두었는데 이것이 고려군의 최초의 편성이었다. 이 위의 편성은 당나라 제도를 본뜬 것이다.

②8위(八衛) : 목종 때에 안양(鷹揚), 용호(龍虎)의 2위를 더하여 8위라 칭하고 이를 42도호부(都護府)로 나누었으니 부에는 대(隊)와 오(伍)의 구별이 있었으며 총병력은 12만이었다.

③광군사(光軍司) : 정종 2년에 최 광윤의 제의를 들어서 군제를 개편하고 영(營)을 광군사, 군을 광군이라 칭하였는데 병력은 30만이었다.

④선봉군(先鋒軍) : 문종 초년에 최 제언의 제의를 들어 각위의 대장 1명으로 하여금 용감한 병사 200명씩을 특선하여 영(領)케 하고 이름을 선봉군이라 하였으니 결사대와 마찬가지로 하겠다.

⑤별무반(別武班) : 숙종 때에 윤 판의 제의를 들어 새로 편성하였는데 말

을 가진 자를 신기군(神騎軍)이라 하고 말을 아니 가진 자를 신보군(神步軍)이라 하였으니 고려의 보병과 기병의 구별은 이때에 생기게 되었다.

⑥도방(都房) : 명종 26년에 대장 최 충현이 이 의민 일당을 멸한 후 명종을 폐하고 신종을 세워 도방이란 것을 두게 되었으니 군권과 정권을 장악하는 사병(私兵)이었다. 신종이 죽고 희종이 왕대를 잇자 최 충현을 제하러하자 오히려 폐하는 바가 되었는데 원종 11년에 이르러서야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도방은 국가의 기관이 아니요 충현의 사병(私兵)이었으나 63년간 횡포를 자행하였다.

⑦삼별초군(三別抄軍) : 최 충현의 아들인 우가 창설한 것인데 좌별초, 우별초, 신의별초(神義別抄)로 나뉘었으므로 삼별초라는 명칭이 있게 된 것이다.

삼별초군도 역대권신(歷代權臣)의 간섭을 받음이 많았던만큼 그 폐해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종 11년 원종이 강화로부터 개성에 환도할 때 그 후환을 염려하여 강화에 있는 삼별초의 해산을 명한 바 그 수령 배충손이 마침내 난을 일으켜 강화로부터 진도를 지나 제주도로 들어가 대항하는 것을 원종 14년 4월에 대장 김방경이 토평(討平)하니 그 난을 삼별초난이라 하였다. 삼

별초군은 상규군(常規軍)의 편성이 아니고 일종의 특별부대였다.

⑧충용4위군(忠勇四衛軍) : 공민왕 5년에 군을 개편하여 충용사위라하고 매위에 장군 1명, 중랑장(中郎將), 낭장 각 2명, 별장(別將), 산원(散員) 각 5명, 위장(尉長) 각 20명, 대장(隊長) 각 40명을 두었는데 이것은 특별정예대였다.

⑨도총제부(都總制府) : 공양왕 3년에 군을 감축하여 중군, 좌군, 우군 등 3군으로 하고 도총제사(都總制使)로 3군을 통솔케 하였으니 최초의 도총제사는 이 태조였다.

다. 이조시대

이조시대 군의 편성은 이 태조 2년에 먼저 고려의 병제가 되었던 것을 없애고 새로운 편성을 행하였다. 이 태조 개국 후에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세워 이름을 위(衛)라 하였다. 위(衛)는 모두 9위(衛)를 두었으니 이것이 이조국군의 최초 편성이었다. 그 9위라는 것은 ①의흥친군좌위(義興親軍左衛), ②의흥친군우(右)위, ③응양위(鷹揚衛), ④금오위(金吾衛), ⑤좌우위, ⑥신호위(神虎衛), ⑦비순위(備巡衛), ⑧천우위(千牛衛), ⑨감문위(監門衛) 등이다. 각 위에는 상장군(上將軍) 1명, 대장군 2명을 두었다. 또한 매 위에는 각각 5명(領)을 두고 매 영에는 장군 1명, 중랑

장(中郎將) 3명, 낭장 3명, 부장(副將) 6명, 산원(散員) 8명, 위(尉) 24인, 정(正) 40인으로 9위와 45명의 총원은 4,230명이다. 그런데 태조 2년에 의흥친군위를 3군부(三軍府)라 고쳤고, 그 뒤로부터 태조 4년에는 3군제에 속한 위의 칭호를 시위사(侍衛司)라 하였으며 태종 9년에는 의흥 3군부를 3군진무소(三軍鎭撫所)라 고쳤다. 당시에는 병조에서 군정을 모두 장악하였으나 태종이 병조의 고관들을 문신들로 임명하는 것은 군사지도에 당치못하다 하여 환성사(贊成事) 이천우로서 도진무를 임명하고 도총제 박자정으로서 상진무를 임명하고 풍산군 심구령으로서 부진무를 임명하고 상호군(上護軍) 차지개 등 27명으로서 진무를 임명하여 군무를 전임케 하였다. 세종 28년에는 3군진무소를 다시 의흥부라 하였으며 문종 때에는 5위라 하였고, 세조 때에는 5위도총부라 하였으며, 인조 원년 이후, 어영청(御營廳), 총용청(總戎廳), 총위영, 금위영(禁衛營), 훈련도감, 용호영(龍虎營), 호위영(扈衛營), 금위영(禁衛營) 등의 명칭으로 변경이 많았고, 병원(兵員)의 증감도 많았다. 3국시대 이래로 고려조(朝), 이조말기까지의 군의 편성은 오직 보병만을 가지고 그 명칭이 변경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고종 광무시대에

이르러 대를 나누어 친위(親衛), 진위(鎭衛) 등 양대(隊)로 하고 각 대에는 보, 기(騎), 포, 공, 치중(輜重) 등의 각 병과를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현병대, 위생대, 위수대(衛戍隊), 군악대를 편성하였으며, 대를 나누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등의 편성이 있었으니 각 분과를 분립한 군의 편성은 광무시대에 효시가 되었다.

라. 석전대(石戰隊)

군의 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이한 것은 석전대(石戰隊)다. 석전대는 멀리 상고(上古)시대의 유물로서 그것이 조직화되기는 3국시대다. 신라에서는 투석당(投石幢), 고려와 이조에서는 척석군(擲石軍)이라 하고 상비군으로써 편성하였다. 고려시대에서는 왜구가 침범하는 때는 반드시 척석군을 선봉대로 하여 전공을 많이 세웠으며 이조에서 현저히 공을 세운 것은 중종 시대 삼포란(三浦亂)과 선조시대 임진란에 척석군의 전공이 많았다.

투석의 기원은 옛날 원시시대로부터 시작된 바 특히 수렵시대에는 들이 유일 무이한 병기였다. 투석은 오직 전투뿐만 아니요, 동물을 획득하는 방법으로도 없지 못할 병기였다. 전투술이 발달된 후에도 보조별동대(別動隊)로써 들을 전투에 사용하는 이익을 알아 그와

같이 오랜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석전술은 일본에까지 전하였다.

마. 의용포호대(義勇捕虎隊)

이조의 군대편성 중에 또한 기이한 것은 의용포호대다. 이것은 성종 때에 설치된 것이다. 원래 한양의 북한산 등은 호(虎)의 소굴이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왕산 호랑이」란 말까지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 호군(虎群)은 시가에까지 내려와 인명과 가축의 피해가 극심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는 선조 4년에 고양군에서 하루동안 4백여 명이 잡아먹힌 대참사가 있었다. 그래서 한양에 도읍을 정한 후에 이 무리가 국가의 크나큰 화근이 되었던바 세조는 친히 창경원 비원에 침입한 호랑이를 사살한 예도 있었다. 이와같이 호랑이의 난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성종 때에는 포호대를 조직하였고, 숙종 때에는 경성 수비의 군위병과 3군영의 병졸 중에도 역시 포호대를 편성하였다.

4. 군의 직제(職制)

가. 3국시대

신라는 유리왕 10년에 97등급의 직제를 정하였다. 이것이 신라 관제의 시초이다. 그 중에 군의 직제로는, 처음에는

대보(大補)로써 군정을 행하다가 조분 왕 때에 이르러 대장군을 두었고, 진흥 왕 때에는 대감, 제감(弟監), 소감, 당주(幢主), 사지(舍知), 화척(火尺) 등 6등급으로 나누었으며, 특히 위부에는 장군, 감, 대두, 영 등 4등급을 두었고 법흥왕 때에는 병부령(兵部令)을 두어 내의 군정을 맡아서 처리하게 했다.

고구려는 12등급의 관제를 설정하였는 바 특히 락리지(莫離支—大)가 모두 맡았으며 각 부에는 대형(大兄)을 두었으며 성에는 목살(爵薩)을 두었고 그 칭호는 대모달(大模達), 비위장군, 차말객(次末客), 비중랑장(比中郎將)의 등급이 있었다.

백제는 16등급의 관제를 설정하였는 바 특히 군의 최고직제로는 위사좌평(衛士佐平), 병관좌평(官兵佐平) 등을 두었으니, 위사좌평은 시위군을 관할하였고 병관좌평은 내외군정을 총괄하였다. 좌평 이하에는 관군(冠軍)장군, 용양(龍驤)장군, 부마(駙馬), 도위(都尉), 태수, 장리(長吏), 사마(司馬) 등의 7등급이 있었다.

나. 고려시대

고려는 태조 때에 병부(兵部)를 두었는데 그 직원은 어사, 시랑, 낭중, 원외랑(員外郎) 등이다. 성종 때에는 병부령을 고쳐 상서병랑(尙書兵郎)이라 하

였고 문종 때에는 정관사, 상서(尙書), 지도사(知都事)를 두었으며, 충렬왕 때에는 판서를 상서, 시랑을 총랑(摠郎), 낭중을 정랑(正郎), 원외랑을 좌랑(佐郎)이라 하다가 또다시 병조로 고치고 총랑을 시랑, 정랑을 낭중, 좌랑을 원외랑이라 하였다. 지방에는 병마절도사, 병마사, 지(知)병마사, 병마부사, 병마판관(判官), 병마록사(錄事)를 두었으며, 군관의 최고 칭호는 상장군, 대장군, 장군 등 3등급이 있었다.

다. 이조시대

이조의 직제는 동반(東班), 서반(西班) 등 양반으로 나누어졌으며, 동반은 문관(文官)이며, 서반은 무관(武官)이다. 이것이 이른바 양반이다. 서반의 품위를 또한 나누어 9품으로 하였고 9품 중에서도 정(正)과 종(從)의 구별이 있었으니 정에는 정3품을 표준하여 정3품부터 그 이상을 당상관(堂上官)이라 하고 그 이하를 당하관(堂下官)이라 하였으며 종에 있어서는 종2품부터 그 이상을 당상관이라 하고 그 이하를 당하관이라 하였다. 또한 정에는 정5품으로부터 대부(大夫)라 칭하고 종에는 종4품부터를 대부라 칭하였으며 모든 대부 중에 승록(崇祿)대부, 정헌(正憲)대부, 가의(嘉義)대부, 통정(通政)대부를 4대부라 칭하였다. 그 양반 중에는 경관(京

官)과 외관(外官)의 구별이 있으니 경관은 중앙정부의 관리요, 외관은 지방관청의 관리다. 서반의 품위와 경관급 외관의 관별은 다음과 같다.

서반의 품위

정 1품 종 1품	대장	
정 2품 종 2품	중장	
정 3품	소장	절충(折衝)장군
정 3품	정령(대령)	어모(禦侮)장군
종 3품	정령	건공(建功)장군
		보공(保功)장군
정 4품	부령(중령)	진위(振威)장군
		초위(昭威)장군
종 4품	"	정략(定略)장군
		선략(宣略)장군
정 5품	삼령(소령)	과교(果敎)장군
		충교(忠敎)장군
종 5품	"	현신(顯信)장군
		영신(彰信)장군
정 6품	정위(正尉)	돈용(敦勇)교위
		체용(遞勇)교위
종 6품	"	여절(勵節)교위
		양절(梁節)교위
정 7품	중위	박순(迫順)부위
종 7품	소위	분순(奮順)부위
정 8품	정교(正校)	승의(承義)부위
정 8품	"	신의부위
정 9품	부교(副校)	효력(効力)부위

종 9품 부교(副校) 전력(展力)부위

라. 직제의 혁신

고종 32년 갑오경장을 기하여 칙령 제55호로써 동년 3월 26일에 관제를 고쳐 병조를 군부로 하고 대신, 협변(協辦), 국장, 과장, 주사 등을 두었으며, 무관의 칭호는 장교로부터 하사, 병졸에까지 3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위관으로부터 영관까지는 소속한 병과의 명칭을 첨가하였는데, 예를 들면 보병정령(正領), 기병정령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장관에 이르러는 병과의 명칭을 첨가하지 않았다. 하사에 있어서는 특무정교(特務正校)를 다시 두어 준사관의 대우를 하였다.

5. 군의 통수(統帥)

가. 통수의 권한

예로부터 군주의 권한은 불가침의 신성한 것이었다. 그것을 국가를 운용하는 형식으로 보면 통치권과 통수권의 둘로 나누었다. 통치권은 모든 병기를 관할하는 대권이며, 통수권은 국가의 병마권을 총관할하는 권한이다. 즉 통치권이 그 국가의 원수에게 있는 것과 같이 통수권도 그 원수에게 있다. 이것은 고금을 일관한 통례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통수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나. 통수권의 유약(帷幄)

통수권의 유약(帷幄)은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원수에게 예속이 되었다. 즉 정권과 군권의 양권분립은 현대의 제도만이 아니고, 고대에도 그러하였다. 신라에서는 석탈해(昔脫解), 고구려에서는 을두지(乙豆智), 백제에서는 을음(乙音)으로 포(補)관명)라 칭하고 병마의 권한을 위임하여 이것이 통수권 유약이 독립된 표시다.

다. 문무혼동의 폐(弊)

이제조 원년에 병조를 설치하고 일반 군정을 맡아 처리하다가 세종 때에 비변사(備邊司)를 두고 크고 작은 군정을 처리하였다. 그런데 정종 2년에 좌의정 단계로써 병조판서를 겸하게 하여 재상으로써 병권을 직접으로 행하게 된 효시가 되고 또한 문구가 혼동되어 통수의 유약이 독립성을 잃게 되고 따라서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선조 때에 병조판서 이이가 10만 양병론을 제의하여 재상 유성룡의 반대로 성립되지 못하고 임진란을 당하여 비로소 후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진란 뒤에도 재상 자리에 있는 문신들은 병조판서를 겸임하는 것을 명예로 여겨 마침내 통수와 정치의 구별이 서지 못하였다.

라. 원수부(元帥府)

광무 3년 6월 21일에 원수부를 설치하고 대황제는 대원수, 황태자는 원수의 직책을 가져, 이것이 우리나라의 처음되는 통수권의 기관이다. 원수부에는 군무국, 검사국, 기록국, 회계국으로써 조직하고 그 인장은 대원수보 1개, 원수보 1개, 원수부인 1개 이외에 각국에 인장을 각 1개씩 두었다. 원수부는 국방과 용병(用兵)과 군사에 관한 각항의 명령을 정하여 독립한 권한으로 군부와 경성 각 대를 지도감독하였다. 그리고 원수부의 직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문관을 채용치 않았다. 각국에는 총장을 두어 사무를 집행하였다.

그런데 원수부의 4국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진 것은 사무국으로 인감보관에 관한 것, 공문의 발표, 장교급 담당관의 임명과 진퇴(進退), 군대편성, 전투준비와 군비 지출에 관한 것을 다루어 통수의 권한에 관한 임무를 모두 맡아서 처리하였다.

마. 참모부

참모부는 국방과 용병에 관한 일체의 군무를 행하며, 광무 4년 3월 22일에 설치하였다.

참모부에 보직을 갖는 자는 각 병과

의 정위(正尉)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발하였다.

①육군대학 혹은 외국무관학교 졸업 후에 2년 이상 군부에 입한 장교로 참모총장이 적임으로 임명한 자.

②학식재능이 탁월한 장교로 참모총장이 적임으로 임명한 자.

참모부는 그 임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 1국, 제 2국을 설치하고 그 국장으로써 다음의 사무를 이행케 하였다.

제 1국—작전, 요새위치의 선정 및 병기 탄약, 부대 배치, 동원, 평시 전시 편제, 병기재료, 탄약, 장구, 전시법제규제정.

제 2국—외국 군사 및 그 지리, 첩보, 군사총계, 운수, 교통, 군용통신, 외국서적 번역.

참모부는 원수부와 합하여 유악의 최고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효시가 된 것이다.

6. 군의 교육

가. 최초의 교육기관

군의 교육은 3국시대 이전은 넉넉히 고찰할 수가 없으나 3국시대에 이르러서도 다만 군을 위주한 것만이 아니고, 그 무예를 국민교육의 한 과로 정한 일도 있고 혹은 국민의 훈련과목으로도 하였으며 혹은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으

로 여긴 일도 있었다. 군의 교육기관으로써 최초가 되는 것은 고구려에는 견당(肩堂)이란 것이 있었고 신라에는 독서당, 백제에는 사대(射臺), 고려에는 강예제(講藝齋), 이조에는 사인소(舍人所) 등이 유명한 것이다.

나. 군 교육의 학과

군 교육의 학과는 예로부터 여러 과목이 있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궁술과 마술이다. 병서를 가르침도 있었으나 이것은 특수제급의 학과며 일반 과목이 아니었다.

1) 궁 술

궁술은 여러 과목 중에 가장 주된 과목으로써 예로부터 진력하였으며 전세계에 우수하였다. 지나(支那)에서 우리나라를 가리켜 동이(東夷)라 하는 것은 대궁(大弓)을 잘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夷)자는 대(大)자와 궁(弓)자의 복합인 까닭이다. 궁술의 교습은 오직 군인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고 일반국민의 수련과목으로 장려하였다. 그래서 궁술에 관하여는 특별한 설비와 직제가 있게 되었다.

2) 기 술(騎術)

기술은 말을 타는 것이니 혹은 마술(馬術)이라고도 한다. 기술은 고조선시대부터 성행하였으나 특히 3국시대에 이르러 현저히 발달되었다. 기술은 모

든 기능을 마상기(馬上技)라 하였는데 이 마상기는 현대 꼭마술의 바탕이다.

3) 검술

검술은 궁술과 아울러 고대로부터 성행하였다. 특히 검술을 알지 못하고는 장수될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이 격(擊)검술이 현저히 발달이 된 것은 이조 선조 임진란 당시부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도의 용법은 모두가 22법이 있었다. 환도는 길이가 3자 3치, 자루의 길이가 1자, 무게 1근 8량이다. 환도 중에는 유명한 보검이 많았다.

4) 유술(柔術)

유술(柔術)은 옛날 속언으로 <가드락질>이라 하였다. 고려 숙종 때에 여러 가지 유희가 성행하는 중에 이 「가드락질」도 한 몫 끼게 되었으며 충혜왕 때에는 크게 유행되어 그 이름도 수전(手搏) 혹은 권법(拳法), 권술이라 하였다. 왕은 교외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가드락질을 관람하였다. 이것이 군용의 무예로 되기는 인종 때부터다. 당시의 유명한 무관인 정 중부, 도 경근, 이 의 문 등이 모두 그 선수였으며, 이조에서는 효종왕 때에는 8장사 등이 역시 뛰어난 선수들이었다. 특히 김 여준 장사는 심양에서 명성을 날렸다. 가드락질은 신법(身法), 수법(手法), 각법(脚法) 등 모두 25법이 있었다. 이 가드락질은 처

음 지나 춘추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에 들어왔고 이조에서 또한 그것을 계승하였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정리되고 교습되기는 선조 임진란 후부터이다.

5) 격구(擊球)

격구는 우리나라에서 「장치기」라는 것이다. 원래는 지나 춘추시대에 생긴 것이 3국시대에 수입된 이래로 이조에까지 전한 것이다. 특히 고려에서 더욱 성행하였다. 그 공은 처음에는 가죽으로 만들고 그 속에는 여러가지 잡동사니를 넣었으나, 나중에는 공기를 넣고 그것을 기구(氣球)라 하였다. 격구에 사용하는 장대는 길이가 3자 5치이니 그것을 들고 마상에서 달리며 치는 것이다. 공을 굴리기 시작하는 곳부터 문까지의 거리는 2백보인데 그 7종이 있었다. 격구 이외에 타구(打球), 축구도 있었다.

6) 병도(兵道)의 정신

병도(兵道)는 군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를 이름이니 이것을 무사도라고도 한다. 이 병도는 예로부터 지켰으며 그 중요한 것은 3개의 덕목(德目)이 있었다.

1. 무용(武勇)
2. 예양(禮讓)
3. 충의(忠義)

그런데 3국시대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제 각각 국가의 운명에 애를 태우게 되므로 제각기 무비(武備)의 충실을 꾀하는 동시에 무사정신의 연마에 힘을 썼다. 3국 중에서도 특히 신라는 지정학적 사정이 불리한만큼 국민정신의 진흥에 정진하여 그들의 고도(古道)인 화랑단을 이에 인용하여 가장 현실한 지조와 용감한 기풍을 함양하기에 성공하였다. 그 주지하는 바는 첫째, 충(忠)을 다할 것, 둘째, 효(孝)를 바칠 것, 셋째, 신의를 중히 여길 것. 그 다음으로는 인(仁)을 지킬 것 등이었으나 특히 순국(殉國)지상주의를 철저히 발휘케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실행만으로 일관케 하였다. 또한 그 구체적 발현으로는 임진무퇴(臨陳無退)를 가장 크나큰 덕행으로 하였다. 이에 관한 사실은 신라역사의 어느 페이지에서나 능히 발견할 수 있는 바로서 한 번 읽으면 과연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을 갖게 된다.

7. 군의 훈련

가. 전 통

군의 훈련은 국법에 의하여 조직적, 또는 강제적으로 행하였다. 특히 신라의 진흥왕 때로부터 3국을 통일하던 문무왕 때까지의 시대는 전쟁이 그칠 날이 별로 없음을 따라 저마다 군의 훈련

도 맹렬하였으며 순국정신을 진작하는 운동도 역시 열렬하였다. 그러나 신라가 통일的大업을 이룬 뒤로는 그 훈련의 정신이 위축되고 약하게 되었으나 이는 유교, 불교의 영향도 크려니와 군 자체의 의지가 쇠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 태조가 건국 후에 다시 무풍(武風)을 진작시켜 군의 훈련도 또한 작열하였다. 태조 원년에 구장을 설치하고 격구와 축구술을 장려하였던 것은 군의 훈련에 큰 이체라 하거니와 특히 궁술의 훈련도 멀리 부여시대로부터 끊임 없었던 전통적 훈련이었다. 고구려는 끊임없이 훈련을 계속하는 중, 특히 동맹(東盟)대회와 낙랑구(樂浪邱)대회는 연중행사로서 개최하여 군은 물론 이요, 일반 국민의 궁술과 마술의 대연습을 행하였으며 백제에서는 비류왕 17년 8월(4119)에 설치한 사대(射臺)와 서대(西臺)에 왕이 친히 출어하여 그 훈련을 감독하였고 신라에서는 매년 8월 15일에 큰 잔치를 열고 군을 비롯하여 관민이 다 같이 활과 말의 기술을 겨루어 우승자에게 말과 광복으로 상을 내렸다. 신라는 본시 궁술로써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정하였으며 이미 벼슬에 오른 자라도 기간을 정하고 소집하여 그 예(藝)를 겨룸으로써 민속이 자연히 이에 화합하여 장려를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훈련에 힘을 썼다.

고려시대에도 역시 궁술 훈련에 치중하여 역대의 군왕이 친히 장교의 사법(射法)을 득려하였으며 혹은 개성과 평양 등 양 도시의 장졸을 집합하여 장기간의 훈련을 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현종은 문관 4품, 연령 60세 미만자를 매월의 휴가일마다 동서 교외에 집합시켜 훈련을 행하였고, 선종은 또한 사장(射場)을 특설하고 군의 장졸과 일반 국민들이 모두 연습케 하여 우승자에게는 은 그릇을 상으로 주었다. 또한 지방의 각주와 각 진(鎭)에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매월 6차에 대훈련을 행하여 우수한 자에게는 승급을 시켜주기도 하고 승진을 시켜주며, 무직자에게는 직책을 주기도 하였다.

이조에서는 무과제도가 설정된 후에 군의 훈련이 더욱 성행하였던바 그보다 더욱 성행케 된 것은 선조 임진란 후다. 크나큰 재화를 입은 쓰라린 경험도 있 으려니와 대병학가(大兵學家) 한교의 발명으로 처음에는 6기(六技)로써 일반 군을 훈련하다가 인조 8년에는 무예청을 설치하고 12기를 가하여 도합 18기를 훈련하였으며 영종 35년에는 24기를 가르쳐 훈련하였다. 그리하여 임진란 후 특히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등 4조에

서 더욱 발달이 되었다. 그 원인은 그 여러가지 기를 무과에서도 실시하게 된 까닭이다.

나. 검 열

검열은 군의 훈련된 실적을 살펴보는 것이다. 검열은 신라 제5대 파사(婆娑)왕 15년(94)에 어천(關川)에서 군사들 사열한 것으로서 시작하였다. 그 뒤 제 13대 미추왕 20년(1281)은 양산사에서 군사들을 사열하였고, 제20대 자비왕 5년(462)은 왜인이 자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변에 새로 그 성을 쌓고 드디어 대규모의 열병을 하였으며 문무왕 14년(674)은 통일 대업을 이룬 뒤 장병을 위안하는 불공을 드리기 위하여 영조사에 나갔다가 그 길에서 아창(阿滄) 설수진이 훈련한 6진병법을 열병하였고 제34대 효성왕 4년(740)에는 특히 노병(弩兵)을 열병하였다. 열병은 역대 제왕의 관심이 컸으며 특히 이조 세종대왕은 새로 만든 규정에 의하여 훈련한 장병을 매월 7일에 서울 교외에서 열병하였다. 정조는 승병을 자주 열병한 것이 이채로왔으며 고려 제19대 명종은 18년(1188)에 동교에서 열병할 때 동일한 군대에 대하여 각종각양으로 약 10일간을 가장 길었던 열병이다.

8. 군의 성쇠

가. 쇠퇴의 3대 이유

군대는 국민의 생명이요, 국가안위의 주다. 그러므로 군이 나라의 중추가 되었던 것은 고금이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시대로부터 3국시대까지는 군의 전성시대였다. 그런데 군이 점차로 쇠퇴하여진 것은 신라통일 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①3국간의 전쟁이 끝나고 신라가 통일的大업을 이룬 뒤에는 태평시대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전날에 용맹한 기풍을 가지고 부탕도화(赴湯蹈火)의 실천을 행하던 군인들은 스스로 활을 걸고 칼을 놓은 뒤 혹은 산수간의 유람객이 되고 혹은 풍류객이 되어 신라통일 뒤로 고려의 건국초대까지는 군의 존재가 희미하였다.

②당의 문물이 수입되면서 새로운 문화운동이 생기고 동시에 사회제도와 면목이 고쳐지게 되었으며 또한 불교의 사상이 팽배(澎拜)하여 투쟁의 정신이 자연 약해졌다.

③신라는 통일 뒤 약 백년까지는 그대로 인물을 택함에 있어서 활과 말의 재능을 등용시켰다. 그러다가 제38대 임금 원성왕 4년에 독서출신과를 설치하고 처음에는 무(武)에 치중하다가 뒤

에는 경진과 문학으로써만 재능을 택하게 됨 따라 문사의 세력은 날로 높아지게 되었으나 그 반대로 군의 존재는 갈수록 떨어져 한쪽으로 밀려가 있게 되었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문체는 크게 떨쳐지고 무풍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 중에도 문에 치중한 것이 더욱 큰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고려가 건국된 뒤 왕건 태조가 다시 무운을 부활시켜 문무병행제를 수립하고 문과 무를 평등케 한 바 이것이 이른 바 문무양반제의 효시이다.

나. 문귀무천(文貴武賤)의 난

고려 제4대 임금 광종이 과거제를 설치하고 따라서 관학(官學)의 설립과 사학의 발전으로 돌연 문(文)의 숭배사상이 현저하여지며 문무제가 분리되었다. 광종 뒤로부터 역대 제왕이 시인을 애호하고 학자를 우대하는 풍이 더욱 높아지자 문신의 교만이 늘어가는 반면에 무신의 대우는 점점 비천하게 되며 이에 문귀무천(文貴武賤)의 폐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신분과 관직에 차별이 심하게 되어 문신은 문관(文官)이라 칭하나 무신은 관(官)자를 버리고 무부(武夫), 혹은 호반(虎班)이라 칭하며 관직에 있어서도 무관은 대신이 되는 것을 용납치 아니 하였고 군주의 배향

(配享)에 있어서도 무인은 허락치 아니하였다. 특히 무관으로서 상신(相臣)을 허락한 것이 불과 수명이었다. 또한 인칭에 있어서도 다같은 조신으로서 무관은 문신에 대하여 소인이라 칭하였다. 그래서 필경 제18대 임금 의종 24년 8월에 대장 정 증부가 무관이고, 이 의방 등과 공모하고 난을 일으켜 문관을 살육하니 이것을 정증부의 난이라고 한다.

9. 군치일(軍馳日)

가. 군치(軍馳)의 조서(詔書)

광무 11년 정미(1907) 7월 31일은 우리나라 유사 이래, 처음되는 군의 치욕일(恥辱日)이다.

일로전쟁이 래로 우리나라에 주둔한 일본군대는 주요부대가 계속하여 주둔하였으니 그것은 소위 한일공수동맹의 미명하에 우리나라의 국방을 돕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의 재정권은 이미 일본인 고문관의 수중에 들어갔으므로 군의 경비를 자유로 할 수 없게 됨을 따라 사관으로부터 병졸에 이르기까지 급료를 지급하기에 곤란하였다. 그러나 최신식 교련을 받은 우리 군대는 규율과 용락이 대단하였다. 이에 이등박문은 그것을 빈곤한 재정으로써 막대한 군비를 지출케 되는 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하여 걱정이 된다는 구

실로써 이 완용에게 군대를 해산하기를 강권하였다. 이 완용은 고종황제께 그 뜻을 아뢰었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극구 반대하고 허락치 않았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성내에 물의가 일어나며 이로써 장차 국본(國本)이 파괴될 초보라 하여 민심이 동요될 기세가 보였다. 이 완용은 그 기세를 살피고 이등박문과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와 일철의 준비를 마치고 다시 고종황제에게 강청하자 정미년 7월 31일 밤에 군대해산의 조서를 내렸다.

나. 최초의 항일전(抗日戰)

8월 1일 오전 8시 비가 오는 중에 경성의 각 대를 훈련원에서 해산할 때 미리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에 교섭하여 일본군인들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를 경계하게 하고 병졸의 무기는 그들이 꿈에도 예상치 못한 해산시간 전에 미리 탈취하여 영내에는 한 조각의 철도 없이 마치 이리에 잡힌 양떼와 같이 초연히 훈련원에 집합하였다. 수백명 일본군의 창칼 아래에서 그들은 해산의 선고를 받았다. 뜻아닌 치욕을 당한 장병들은 적수공권이므로 별도리가 없었고 다만 급료받기를 거절하고 길가에 흩어져 통곡하는 광경은 진실로 하늘이 무심한듯 하였다.

그런데 서소문 내의 진위대 제1연대

제 1대대장 육군보병참령 박 성환은 드디어 자살하였다. 박 성환의 분사는 그 대대장병에게 무언의 항전명령이었다. 그리하여 각 대대의 장병들은 무기고를 파괴하고 무기를 뺏아 항전하는 중 그 이웃에 있는 진위 제 2연대의 장병이 또한 권기하여 양대대 병력의 합세로써 남대문 부근에서 일본군과 일대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일본군은 백병전의 형세가 불리함으로 남대문부상에 기관포를 설치하고 난사하였으나 양대대 병력은 굴복치 않고 수 시간에 걸쳐서 악전고투를 계속하였으나 탄환의 부족으로 마침내 각각 해산케 되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 내의 국군은 전부 해산되었다.

다. 의병결기

국군의 해산은 이렇게 종국을 치루었으나 국가가 장차 망하게 된 원한이 총만한 해산군은 각지에 흩어져 봉기한 의병과 손을 잡아 기치를 높이 들고 각지에서 봉기하여 약 2년간의 항일전을 계속하였다. 그 총사령은 민 궁호다.

그 중에 항일전이 가장 강한 곳은 원주, 강화, 충주, 제천, 여주 등지였다. 그러나 원래 병기와 군량이 없는 대항이므로 일본군의 정예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자연의 현세이었다. 다만 무수한 사상이 있었을 뿐이다.

믿거나·말거나

◇ 턱에 난 날개

<턱수염>이라는 것은 있지만 <턱날개>라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그 보기가 있다.

아메리카 캔사스주의 파슨즈시의 유리아헨켈은 총알로 턱의 일부뿐이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수술할 때에 닭의 가슴 패기의 피부를 옮겨 심었는데, 거기에서 <턱날개>가 나서 이야기 거리가 되었다.

이슬라미즘의 발전사

— 중 —
 < 끝 > — 히 톤 구 —

4. 「이스라엘」군 발전사를 통해서 얻은 우리의 교훈



「이스라엘」 민족(유대인)은 로마제국에게 정복되어 그들의 조상이 이룩하여 놓은 땅으로부터 추방

을 당하여 세계의 각처에서 조국이 없는 민족의 한을 되새기며 기나긴 2000년의 유랑을 계속했다. 그 유랑 속에서 그들은 이민족으로서의 박해와 억압, 그리고 대량학살의 참화(慘禍) 등 오로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이어 받았기에 받아야만 할 민족적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의 조상신으로부터 약속받은 성지(聖地) 「파레

스티나」로 돌아가 그곳에다 그들만의 운명 공동체인 그들의 항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만은 버리지 않았다.

그러한 그들의 의지는 장장 2천년의 긴 세월동안 추호의 흐려짐도 없이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서 역력하게 계승되어 왔던 것이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조국없는 민족, 그리고 세계의 각처를 떠돌아 다니야 할 숙명적인 유랑의 민족이라는 슬픈 유산만을 받았지만 그러한 그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실의와 자학을 하지는 않았다. 오로지 의지와 용기와 근면만이 그들의 생활신조였다.

그러한 역경 속의 유랑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사의 수레바퀴는 마침내 그들에게 2천년 동안이나 그리워 하던 그들의 땅 「파레스티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전기(轉機)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 자신에 의한 끊임없는 노력의 보람이라기보다는 강대국간

의 국가 이익을 위주로 한 긴장완화와 세력권의 조정을 시도하는 국제질서의 제편성의 결과에서 얻어진 하나의 「틈」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새로운 민족사(民族史)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그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호기(好機)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수세기동안 방치하여 놓은 황폐된 땅, 그리고 모래더미 뿐인 사막을 파헤쳐 그곳에다 그들 자신의 운명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였고, 그것이 부흥과 전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중동제일의 강국이 되었다. 역경 속에서 하나의 꿈과 같은 이상을 현실로 바꾸어 놓는데 성공한 그들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배워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의 운명을 그들 스스로가 개척했다.

우리 인간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민족도 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조국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은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인간의 존재는 내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필연적인 타고난 운명을 갖고 있다. 인간은 그러한 운명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환경을 또 만들어 간다. 즉 타

고난 운명의 지배를 받지만 그 운명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역사를 다시 만들고 운명에 의해서 만들어 지지만 그 운명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으로서의 필연적인 운명 속에서 유대인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들 스스로가 또 유대인으로서의 운명을 만들어 냈다. 조국이 없는 유랑의 민족이라는 운명과 이 민족으로부터 박해와 억압을 받아야 한다는 운명 속에 살면서 조국을 되찾아야 하겠다는 결의와 이민족으로부터의 박해와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하겠다는 의지는 조국을 재건하는 운명과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을 지키는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냈다. 즉 굴욕과 유랑과 억압이라는 타고난 운명을 자주와 자립과 자위의 운명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나. 유대인들은 단합된 그들 자신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조국을 재건했다.

유대인들은 나라는 하나의 개인을 생각하기에 앞서 민족이라는 혈통으로서 결합된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생각했고 그것이 발전하여 그들 자신의 필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운명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나 있는 곳에 민족은 있었지만 국가는 없었다」. 그리고 「민족은 있었지만 그것은 한때 망쳐진 민족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 분지박산된 흩어진 민족일 수 밖에는 없었다」라는 긴 세월에 걸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관과 민족관을 갖게 되었다. 즉 「나라가 없는 곳의 나 라는것」이 얼마나 비약한 존재인가를, 그리고 나라가 없는 곳의 나는 생명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골수에 사무치도록 느꼈다. 그들은 나 없는 곳에 국가가 없다는 생각에 앞서 「국가 없는 곳에 나도 있을 수 없다」는 하나의 투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생명이 있는 그들 자신의 개인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의 재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선 민족의 단합과 그 단합된 힘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소규모적인 공동운명체를 하나하나씩 건설하는 일에 착수하여 점차 그것을 확대하는 방식의 국가재건 과업을 수행해 나갔던 것이다. 그들 유태인들은 민족 단위의 단합된 힘을 길러 가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즉 「엘리트」를 핵으로 한 원심작용(遠心作用)을 통해서 조국의 재건을 이룩해 놓은 것이다.

다. 유태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을 섰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처에서 는 민족을 주축으로 하는 통일국가의 건설을 주장하는 국가주의가 발흥하였으나 동유럽과 러시아에서는 유태인에 대한 박해가 여전하게 성행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유태인들은 그들 자신이 성서시대로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 신으로부터 약속받은 성지 「팔레스티나」에다 그들의 공동운명체인 유태인의 향국을 건설하는 것 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유태인 부국운동인 「시오니즘」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유태인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태인의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실제화된 하나의 민족운동으로서 발전하였던 것이다. 즉 하나의 민족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은 그들의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들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개인과 국가의 일심동체적(一心同體的)인 공동운명체로서의 국가관을 확립했고 그것이 그들의 생활신조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 방위에 관한 문제들

그들 자신의 문제로서 인식하였고, 일상 생활을 통해서 항상 「국방을 자기 생존의 문제」로서 실천에 옮겼다. 그러한 의식과 실천의 결과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국가를 부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속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불이라는 그들 자신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 유대인들은 국방과 건설로서 그들의 삶의 길을 터놓았다.

그들은 싸우면서 건설하였고, 건설하면서 싸웠다. 즉 외부로부터 침범하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건설이 있을 수 있었고, 건설이 있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은 바로 건설이 되었고 건설은 바로 국방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 신에게서 약속받았다는 그 땅은 폐허와 모랫더미에 불과한 황무지였다. 그곳에다 삶의 터전을 닦는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건설만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내부적인 역경에다 설상가상격(雪上加霜格)으로 외부로부터의 계속적인 습격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살기 위한 건설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한 자위와 건설하기 위한 자체의 수호가 필요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위를 위한 국방과 살기 위

한 건설의 연속이 바로 역경과 악조건 속에서 부흥과 번영을 누리는 그들 자신의 생활의 전부였다.

마. 유대인들은 창조와 개혁의 정신으로서 역경과 악조건을 물리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이 설 땅은 결코 기후가 좋고 토질이 풍요한 비옥한 땅은 아니었다. 긴 세월을 걸친 방치(放置)로 인하여 황폐할대로 황폐된 토지였고 건조한 사막이었다. 그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은 그러한 버려진 땅을 파헤쳐 그곳에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역경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랍민족의 끈질긴 습격, 만연(漫延)되는 여러가지의 질병, 살인과 약탈, 그리고 고립 등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와 악조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한 역경과 악조건 밑에서 그들의 공동운명체를 건설하는 과업은 오로지 그들의 창조와 개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연과의 투쟁과 아랍민족과의 투쟁으로서 일관된 치참한 「싸움」의 과정이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역경과 악조건이 도리어 그들의 창조와 개혁의 발판이 되어 그러한 장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들 자신의 힘

을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으로서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생물의 진화과정(進化過程)상의 원칙을 그들 자신에게서 실현시킬 수 있었다. 하나의 실례로서 「이스라엘」정규군의 모체가 된 「하가나」의 시로는 그러한 역경과 약조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위조직이었던 것이다.

바. 유대인들은 남의것을 들여다가 자기네 것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대인의 향국을 파레스티나에다 재건하겠다는 시오니즘 운동이 전세계의 유대인들에게 파급되면서부터 세계 각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파레스티나에 모여 들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유랑지에서 익숙시킨 문화를 갖고 파레스티나로 돌아온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이민족의 문화를 그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에도 무턱대고 이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들의 환경과 조건에 알맞는 새로운 그들 자신의 것으로 재생시켰던 것이다. 그러한 정신은 「이스라엘」국방군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이스라엘」군 발전에 있어서 1960년대 초기는 신무기를 선진국으

로부터 구입해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여건과 소요에 맞도록 개조하는 즉 그들 자신의 무기로 만드는 시기였다. 1964년까지에는 「시나이」작전 이후 수년동안 안에 걸쳐서 개발하고 발전시킨 그들 자신의 교리에 입각해서 전면적인 대규모의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 자신의 주체성을 발전시켰다.

그러한 결과 1967년의 중동전쟁은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교리에 입각해서 수행되었던 것이다.

사. 유대인지도자들은 항상 술선수 범하는 미덕을 갖고 있었다.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운다」는 「파레스티나」의 유대인들의 생활신조는 그대로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신조를 현실적인 행동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그리고 선도적인 능력과 창의가 있었다. 그들은 사기와 지도력에서만이 권위와 위신을 가졌을 뿐 민족의 수호 및 조국의 재건과 국가의 번영 및 개인 생활의 향상이라는 인간적인 공동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는 술선해서 수범하는 하나의 동료로서 처신을 했었다.

그들은 개성과 의욕과 참여의식이 강

했고 유태인으로서의 조국재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개척자적 노력과 근로에 의한 조국재건에 대한 정열이 있었다. 그들은 또한 사회적 정의와 평등의 이념을 대중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훌륭한 교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 공동의 정착지에 들어가게 되면 같은 권리와 의무로서 동지적인 결합의 생활을 영위했던 것이나.

아. 아랍제국의 패배는 구태의연한 분열의 결과였다.

1948년의 전쟁을 통해서 아랍제국은 아랍민족 자신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및 군사적 약점의 치부를 외부 세력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러한 치부는 20년 후인 1967년의 6일전쟁에서도 노출되었던 것이다. 결국 아랍제국은 구태의연한 분열의 현상을 두번씩이나 외부세계에 공개한 셈이 되었다. 20년간이라는 시차(時差)가 있었지만 그들 아랍민족에게는 한결같은 동족간의 상호불신과 강하고 배타적인 경쟁심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분열된 힘이 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힘이냐 하는 것과 개혁이 없는 곳에 결코 새로운 힘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개의

전쟁사이의 20년간에 아랍제국에게는 군주제의 폐지와 헌신적인 장교계급의 집단적 힘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아랍세계의 내부에는 하등의 발전적인 개혁이 없었던 것이다. 아랍제국의 정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부정되어온 그러한 길을 밟아왔었다. 그들 아랍제국들은 빈곤에 대한 반성과 경제사회건설을 위한 아랍대중의 동원을 제 1차적 과제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랍의 지도자들은 다수의 대중을 버리고 소수의 형제만을 구하는 길을 택하고 있었다. 그저 관례적인 위신과 민족적 체면만을 외쳤을뿐 국가의 건설이라는 전 국민 또는 전민족을 위한 길을 택하지 않았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구실만으로서 시민대중의 시민생활을 극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대중과 지도자간의 분열이 더욱 더 심해졌을 뿐이었다.

자. 「이스라엘」의 승리는 인간의 정신과 기술에 의한 승리였다.

1967년의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승리하게 된 원동력을 군사평론가들은 인간정신 즉 유태인의 조국재건의 정신에다 귀결시켰다. 물량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한 아랍제국을 물량(物量)면으로 열세인 「이스라엘」군이 전세계를 놀라게 할만큼 전격적인 승리로서

종결시키게 된 이면에는 「이스라엘」군 장병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한 「이스라엘」군 장병의 기술이 정신과 결합되어 하나의 힘으로서 발휘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화력과 파괴력을 대폭 증가시키게 되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용기는 점차 가치가 저하될 것이라는 하나의 가정을 부정하는 결과도 된다. 한 외국의 종군기자는 「이스라엘」군은 사기가 왕성한 부하와 전투에 정통한 용감한 지휘관의 우수성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개인적인 대열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군은 전문화되고 군이 전문화 될수록 장교의 기능개발과 지휘 및 관리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는 군의 정예화 즉 전쟁기술에 대한 개발과 향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기 때문에 아랍제국을 패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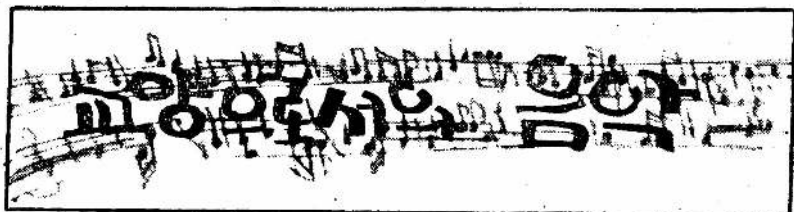
차. 이상을 현실로 바꾸는데 성공한 국가 또는 민족은 계속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상을 현실로 바꾸는데 성공한 국가 또는 민족에게는 다른국가 또는 민족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생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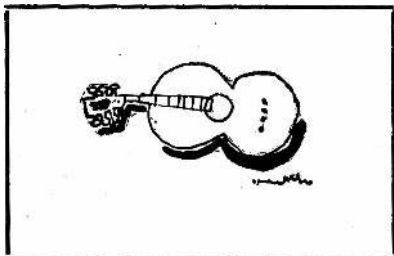
있다. 그러한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오늘과 같은 사막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계속해서 부흥과 발전이 거듭될 것이다. 어떠한 국가이건 또는 민족이건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및 군사적 나아가서는 국가존망에 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한다면 그것은 위기의 극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오랜 꿈을 현실로 바꾸어가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힘을 길러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자주, 자립 및 자위를 위한 국력의 배양은 복귀의 도발을 억제하고 분쇄하기 위한 우리의 힘의 배양일 뿐만이 아니라 강대국간의 독선과 배신을 막아내는 힘, 즉 우리나라의 번영과 국위의 선양을 위한 힘의 배양이 될 것이다.





김 남 기



1. 음악에 대한 개념

1) 음악의 정의

음악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란 참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아마 음악과 같이 다양하고 벅찬 예술은 또 없을 것이며, 생활인의 감정에 그렇게 직접 호소하는 예술도 또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악을 굳이 간단한 말로써 표현해야 한다면 「음을 소재로 해서 우리들의 감정이나 시상을 표현한 시간적인 예술…」이라고나 해야 하는데 음악은 미술이나 조각 등과 달라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음을 소재로 하고 있는 니만큼 언제나 연주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만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음악을 재현(再現)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또한 음악이란 악보만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 준다.

음악이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글자 그대로 음을 즐기는 예술이다.

사람들은 음악을 즐기으로써 마음이 정화되고 아름다워 질 뿐만 아니라, 합창이나 합주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때는 협조심도 아울러 배양되고, 화평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교양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음악을 듣고 이해하며, 나아가서는 좋은 음악을 듣고자 노력해야 할 것은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인으로서의 품위를 높이도록 해야 하겠다.

유명한 도이취의 음악미학자인 「한슬릭크」는 「음악이란 음표의 나열이 아니라 흐르는 유동체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 말은 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말 같으면서도 우리들에게 다시

없는 교훈을 주는 뜻깊은 말로 생각된다.

2) 음악의 내용 구분

모든 음악을 그 내용적인 면에서 분석해 보면 대략 절대(絶對)음악과 표제(標題)음악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절대음악

초나타, 심포니 및 콘체르트와 같이 다만 그 음악의 구성되어져 있는 형식만을 나타내고 그 음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표명하지 않은 음악을 절대음악이라고 하는데, 고전음악의 대부분은 모두가 이 절대음악으로 작곡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절대음악은,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로이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음악을 들을 때, 무엇인지 사건을 연상하거나 얘기 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② 표제음악

작곡되었을 때부터 제목이 붙여지고 거기에 내용이 수반하도록 작곡될 때까지의 음악을 표제음악, 또는 「프로그램 뮤직」이라 하는데, 따라서 듣는 사람도 자연이 그 표제를 머리 속에 그리면서 듣게 되기 마련이다.

풍경이나 어떤 사건 등을 묘사한 것과 감정의 회·노·애·락을 묘사한 것도 있는데, 이 표제음악은 특히 낭만파 음악이 성행하게 된 때, 그 한 부분으로서 발달되었으며, 따라서 교향시 등과 함께 음악과 시의 융합을 보여주는 것

이다.

2. 음악감상의 실제

1) 음악감상에 대한 기본지식

음악감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연주회에서 실제 연주되는 음악을 듣는 것과 레코드나 라디오 등 실제연주 아닌 재생음악 즉 통조림 음악을 듣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음악을 감상할 때는 첫째 그 음악의 작곡자와 그 시대, 그리고 악식 등에 대한 예비지식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절대음악을 표제음악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나 에피소드 등에 현혹되어서 안가(安價)하게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절대로 정숙하게 들어야만 한다.

2) 연극회장에서의 주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정숙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이며, 연주회가 어떤 음악이며 어떤 양식에 의해서 연주된다는 것 등의 예비지식은 지녀야 한다. 그리고 연주자가 무대에 나타나면 그가 인사를 하기 전에 박수로써 그를 환영하면, 연주가 끝났을 때도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박수를 쳐주어야 예의인 것이다.

연주가치를 판단하면서 들어야 한다.

요는 그 연주자가 그 작품에 충실하면서도 재현예술가로서의 자기 개성을

얼마나 발휘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며 또한 앙블은 어디까지나 박수로써 칭해야만 한다.

3) 레코드음악을 들을 때

제일류의 연주가의 연주에 가장 새로운 녹음인 좋은 레코드를 선택하여, 여러 개의 바늘을 그때 그때 적절하게 갈아쓰면서, 레코드의 수명 유지는 물론, 언제나 선명한 재생을 위해 가끔 벌에 쪼여 습기도 방지하고 사용할 때마다 부러쉬로 닦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된다.

3. 성악과 성악곡의 종류

음악을 연주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성악과 기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악은 기악의 반주로 연주되는 때와 기악곡과 함께 연주되는 때가 있어 독창, 중창, 제창, 합창 등으로 가르고 있다.

1) 독창

독창은 혼자서 노래하는 성악의 형태로 리드(歌曲)나 오페라 가운데의 아리아(詠唱), 테시타티브(叙唱) 등의 악곡이 있다.

음악의 3요소라 해서 멜로디, 리듬, 하모니를 들고; 화음이 없으면 음악을 구성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창 때는 피아노나 기타의 악기로 리듬이나 하모니를 보충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반주라고 일컫는다.

2) 중창(Ensemble)

2부 이상의 성음부 멜로디를 각 파트에 한 사람씩 두 사람 이상이 같이 노래하는 것을 중창이라 하며, 2중창, 3중창, 4중창 등이 있다.

중창의 인원 수를 배로 늘이면 복중창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커지면 합창이 되는 것이다.

3) 제창과 합창

① 제창(Uhison)

같은 멜로디를 두 사람 이상의 많은 사람이 함께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합창(Chorus)

한 파트를 두 사람 이상이 담당하고 2성부 이상이 함께 노래부르는 것을 합창이라고 하는데, 중창이 확대된 것이다. 혼성합창은 성악의 집단적인 연주양식이며, 관현악과 함께 연주되는 일도 많지만 대개의 경우 지휘자와 피아노의 반주로 이루어진다. 때로는 무반주로 된 합창도 있으나, 독창이나 중창을 그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4) 독창곡

① 민요

민족적으로 고유한 색채를 띤 서정적인 가곡을 민요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작곡자도 모르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많다.

② 가곡(Lied)

리드란 예술적인 가곡을 말하는 것으로

로 가요와 대조적인 위치에 있다.

15·6세기 이탈리아의 칸초네타에서부터 발달한 독창곡의 양식으로 처음에는 각 귀절마다 가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멜로디를 되풀이하는 유편가곡의 형식였다가 슈베르트에 이르러 통절(通節)가곡의 형식이 생겼다.

③ 영창(Aria)

오페라 또는 오라트리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으로 가곡과는 달리 그 장면 장면의 가사에서 오는 정서가 잘 나타나도록 아주 극적으로 작곡된 독창곡이다.

아리아는 대부분의 경우 의례히 레시타티브가 먼저 나온 다음에 불리게 된다.

④ 서창(Recitative)

말이 음의 액센트와 리듬에 따라 멜로디적인 억양을 붙인 낭송적인 가곡의 형태이고, 반주는 단순한 화음만으로 지속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⑤ 영서창(Arioso)

레시타티브와 아리아의 중간 또는 끝에 붙는 짧은 멜로디를, 아리오소라 하는데, 비교적 움직임이 많은 반주에 따라서 어떤 서정적인 율음을 노래하는 장면을 말한다.

4) 종교 합창곡

① 미사(Missa)

카톨릭교회의 주요한 예전 때 쓰이는 음악을 말하는데, 합창을 주로 하되 독

창과 파이프 오르간 또는 관현악의 반주로 이루어지는 대곡이다.

② 진혼곡(Requiem)

레퀴엠은 미사의 특수한 것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미사곡이다.

③ 교성곡(Cantata)

독창, 중창, 합창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성악곡 양식으로 기악적인 도입부가 먼저 나오는 것이 특색이다.

6) 기악의 연주양식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음악을 통털어서 기악이라고 한다. 이를 연주되는 악기의 모양과 그 수에 따라 독주, 중주, 합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독주(Solo)

한 사람이 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독주라고 하는데, 피아노나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붙게 되는 것이다.

② 중주와 합주

합주에는 현악합주, 관악합주, 관현합주의 구별이 있고 중주는 실내악이라도 하지만 소규모의 합주형식으로 현악 4중주와 피아노 3중주가 그의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하겠다.

가. 현악합주; 스튜딩 오케스트라라고도 하는 이 현악 합주는 순전히 현악기만으로써 연주하는 기악합주의 양식이다.

나. 관악합주; 브라스 밴드 또는 취주악이라고도 하는 순전히 관악기와 악

간의 타악기로써 합주되는 음악 양식으로 균악대가 그 좋은 예이다.

다. 관현악;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 모든 악기를 사용하는 오케스트라는 기악으로 된 음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종합적인 연주양식으로써 웅장한 음향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관현악을 목적에 따라 종류를 나누면, 교향 관현악, 실내 관현악 등이 있으며, 특히 실내 관현악이란 아주 가벼운 음악을 연주하는 목적으로 둔 것이다.

그리고 인원수는 일정치 않으나 적을 때에는 50여명, 많을 때에는 100여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으로 편성되는데, 이 관현악은 후기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편성이 크게 되었으니, 베를리오즈, 리스트의 공헌이 크다.

4. 가극(Opera)

1) 오페라의 내용

음악과 극이 종합된 것을 오페라라고 하는데, 의상, 미술, 조명 등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된 예술의 종합적 형태이다.

레시타티브, 아리아, 아리오소, 코러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서곡(Overture) 등이 일관된 극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한 가수들이 노래하며 연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막과 막 사이에는 간주곡이 있고, 끝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

서 휘날래(Finale)가 있다. 서곡은 오페라가 시작되기 전, 즉 막이 올라가기 전에 오페라의 내용을 암시하기 위해서 연주되는 관현악곡이다.

오페라는 그 규모나 성격에 따라 크게 나누어 정가극(Grand Opera)과 희가극(Opera Comique)으로 구분한다.

일년 열두달 오페라만을 상연하는 극장으로는 이탈리아의 미라노에 있는 「라스칼라」와 뉴욕에 있는 「메트로 폴리탄」 등이 있다.

프리마 돈나(Prima Donna)라고 하는 것은 오페라에 나오는 여주인공을 말하는 것이다.

2) 오페라의 기원

오페라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 즉 1595년에 자코포 페리(Jacopo Peri)가 오타비오 리누치니(Ottavio Rinuccini)의 대본에 의해서 작곡한 「다프네(Dafne)」가 현재 오페라라고 불리는 양식의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오페라(Opera)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이탈리아의 말로서, 단순히 작품이란 뜻에 불과했던 것에 비추어, 이는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것인데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음악작품(Opera in musica)란 뜻이다. 이것이 점점 간단하게 줄여서 들어서 오페라라고 현존하는 뜻으로 세계의 어디서나 통용되고 있다.

3) 르네상스와 오페라

오페라의 발생은 경제적인 요건과 르네상스와는 특히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르네상스의 무엇보다도 커다란 특징의 하나는 휴머니즘, 즉 인문주의에 기초를 둔 고전세계의 재발견, 그리고 중세에 있어 기독교에 의하여 이교(異敎)로서 금지되고 있던 그리스 시대의 문화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오페라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기독교 전성시대인 중세기에 있어서도 패선(受難曲)이라든가 신비극 등의 형태로 음악을 수반하는 드라마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가 주체인 것이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든가 감정의 움직임을 취급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비록 형태로서는 선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또한 형태로만 하더라도 거기에 사용 되는 음악의 성질은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오페라에만 국한된 특징은 아니지만, 오페라의 발생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즉 단음악(單音樂=호모포니)의 발생과 화성음악의 탄생에 기인하고 있다.

중세의 음악은 소위 다성악(폴리포니)

이었다.

중세의 폴리포니에 있어서는 각 성부(Part)가 마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처럼 움직였으며, 참가하는 모든 성부는 동일한 자격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호모포니는 그렇지 않고 선율부와 반주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선율은 항상 주인이고, 반주부는 그것에 종속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이러한 주인공으로서의 선율 파트는 르네상스의 새로운 인간중심, 개인 존중의 정신에 가장 적합되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또한 화성(和聲=Harmony)이라는 생각의 발생—대위법 시대의 화음은 단지 각 성부의 움직임울 조정하는 목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지금에야 화성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화성의 응용은 인간의 감정의 기복을 대단히 훌륭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 오페라라고 하는 형식은 한편으로는 문학,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적 면에서의 발전의 양상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학과 음악과의 종합이라는 문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페라를 창작할 때의 가장 커다란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다.

4) 초기 오페라의 특징

16세기 말기라고 하면 르네상스도 말기에 속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음악양식의 변천은 문학이나 회화(繪畫)에 비해서 뒤늦게 파생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이 어김없이 작용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 무렵의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는 카메라타라는 모임이 있었다고 한다.

카메라타라 함은 원래 동지(同志)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은 인문주의자들의 집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모임이 적지 않았으리라고 추측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 오페라를 탄생케 한 것은 바르디(Bardi)라는 백작의 모임으로써 여기서는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페리타든가 캣치니(Giulio Coccini)라든가 하는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이 모였던 것이다.

베르디 백작은 특히 그리스의 연극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의 저택에서 항상 옛 형식의 그리스극을 연출해 보고자 원했었다 한다.

그래서 리눅치니와 같은 시인이라든가 페리, 캣치니 등과 같은 음악가의 협력으로 새로운 형태의 음악극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다만 이것이 그리스극의 형태 그대로는 아니었던 것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연구한 범위 내에서는 그리스극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고 추구되었다.

순수한 재현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착오가 있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의도에서 현재의 오페라의 형태가 출발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며, 또한 흥미있는 일이다.

독창자의 대화라는 형식도 여기서부터 일어난 것이며, 여기서 또한 레시타티브(敍唱)라는 형식이 생긴 것도 목과할 수는 없다.

레시타티브는 노래와는 다른, 말하듯 하는 선율로 여기에서 대화의 우위(優位)라고 하는 원천이 발견되기도 했다.

즉 선율이 주체가 아니라, 선율은 말의 의미를 강조하고, 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감정이나 심리의 기복에 더 한층 적절하게 호응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음악적 요소가 문학적인 요소에 양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 시대는 겨우 근세음악의 시초, 즉 다성중심의 교회음악에서 벗어나, 단음악, 기악 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였으나, 현재와 같은 오케스트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의 「다프네」의 악보는 분실되어 현존하지 않으며, 남아있는 것으로도 현재의 악보와 같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오페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반주의 오케스트라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

5. 저명한 음악가와 작품

1) 18세기~19세기 초엽

① 바흐(1685~1750)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한 가문의 도이치 태생이다.

작품으로는 마태 수난악이나 B단조의 미사 등과 같은 종교음악과 「평균율 피아노 곡집」, 울겐의 「특카타와 프가」, 바이올린의 「G선상의 아리아」,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등의 불후의 명곡들이 있다.

② 헨델(1685~1759)

바흐와 같은 해에 도이치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음악활동을 계속했다.

작품에는 관현악곡인 「수상(水上)의 음악」과 합창곡으로도 유명한 「할렐루야」, 「메시아」, 이 밖에도 관현악 모음곡이 「아르키나」, 가곡 「라르고」 등이 유명하다.

③ 하이든(1732~1809)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악제(樂才)를 나타낸 대작곡가이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하이든은 소나타 형식의 기초를 세웠고, 피아노 소나타와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장난감 교향곡」, 「경악 교향곡」 등의 심포니와 오라토리오의 「천지창조」 「사계(四季)」 현악 4중주곡으로 「세레나데」, 「황제」 등이 유명한 작품이다.

④ 모짜르트(1756~1791)

오스트리아 태생의 불후의 대천재이다.

35세로 요절할 때까지 1,000여곡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중 오페라 「돈 조반니」, 「마법의 피리」, 「휘가로스의 결혼」 등과 교향곡 「쥬피터」 등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⑤ 베토벤(1770~1827)

도이치의 본에서 태어난 음악의 영웅이다.

불구의 몸으로 초인간적인 인내와 비상한 노력으로 9개의 교향곡을 비롯해서 피아노, 바이올린, 실내악 등에 불후의 걸작을 남겨 악성 베토벤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⑥ 웨버(1786~1826)

웨버 역시 도이치가 낳은 위대한 낭만적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작품으로는 피아노곡 「무도예의 초개」, 가극 「마탄의 사수」 등이 유명하며, 이 곡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작품이다.

⑦ 슈베르트(1798~1828)

이탈리아 태생으로 32년의 짧은 생애를 통해 600여곡의 가곡을 작곡, 예술가곡의 터전을 닦은 가곡의 왕이다.

가곡은 즉흥적으로 작곡된 주옥과 같은 것이나 그중에도 연가곡집으로 된 「겨울 나그네」, 「아름다운 불방앗간의 처녀」, 「백조의 노래」가 대표적이며 가

곡으로서의 「마왕」, 「월계꽃」 등과 8개의 교향곡 중 「미완성 교향곡」 피아노곡 「군대행진곡」 등이 유명한 작품들이다.

2) 19세기 중엽 ~ 20세기

① 멘델스존(1809~1847)

도이치 태생 한여름밤의 꿈을 비롯한 5개의 교향곡, E단조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대표적인 작품이며 피아노곡으로 「무언가(無言歌)」 등 유명한 작품이다.

② 슈만(1810~1856)

도이치 태생의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작품으로는 연가곡집의 「시인의 사랑」, 피아노곡 「어린이의 정경」, 「카니발」 합창곡 「유랑의 무리」 등이 유명

③ 쇼팽(1810~1849)

폴란드 태생 피아노의 시인이라고까지 불리우는 피아노 음악의 대가 작품은 거의가 피아노곡으로 연습곡 27, 전주곡 25, 왈츠 15곡인데 이밖에 「마즐카」, 「스켈스오」, 「발라드」, 「협주곡」 「소나타」 등

④ 리스트(1811~1886)

헝가리 태생 피아니스트이며 대작곡가 피아노곡인 「헝가리 광시곡」 「사랑의 꿈」 「파가니니 연습곡」 등 외에 13개의 훌륭한 교향시곡(交響詩曲)이 있다.

⑤ 바그너(1813~1883)

도이치 태생으로 오페라 작곡계의 제 1인자이다.

유명한 것은 「탄호이저」, 「로엔그린」,

「나벨통겐의 반지」, 「드리스덴과 이슬디」, 「방랑하는네 넬란드인」 등이다.

⑥ 베르디(1813~1901)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오페라 역사상 최대의 오페라 작곡가이다. 「리골렛토」 「트라비아타」, 「아이다」, 「토르바테」, 「오셀로」 등이 있다.

⑦ 요한 슈트라우스(1825~1899)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불후의 왈츠 음악의 천재이다.

「아름답고 푸른 나뉴브강」, 「예술가의 생애」, 「비엔나의 숲 속 얘기」 「황제」 등이 있다.

⑧ 브람스(1833~1897)

도이치에서 출생한 신고전주의 음악의 대가이다.

도이치 진혼곡 「헝가리안 댄스」 「대학축전곡」 「바이올린 협주곡」이 유명하다.

⑨ 차이코프스키(1840~1893)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작곡가이다.

교향곡 제 6번 「비창」을 위시해서 「호도까지 인형」, 「백조」, 「안단테 칸타빌레」를 포함한 현악 4중주곡 제 1번 등이 유명하다.

⑩ 드뷔시(1862~1918)

프랑스가 낳은 인상파의 대가이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교향시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모음곡 「페르가마스쿠」, 가곡 「페테아스와 멜리산도」 등이 유명하다.

여가를 즐길수 있는 게임



— 임 희 자 —

이 상호보충되고 상호협조적 위치에 있을 때만이 생활의 완성이 있고 행복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과 놀이의 가치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동격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같은 인식은 확실히 하여 둘 필요가 있고, 지금 형편으로서는 레크레이션운동의 중요한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젊은이의 세계에서나 노인들의 세계에서나 생활상의 「일」만이 중시되어지고 그 반면의 놀이에 대해서는 도리어 부당한 것으로 믿었던 관념은 버려야 하며 노동과 병행해서 명랑한 놀이의 세계가 인정되고 일과 놀이가 똑같은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군대생활에 있어 타이트하게 짜여진 일과를 마친 후의 내무반 안에서 건전한 레크레이션은 군대생활을 좀 더 활기있고 윤택있게 하는 큰 활력

레크레이션은 근대사회의 산물이다. 이와같은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는 놀이(play)라는 말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놀이를 장난이라고 하여 나쁜 짓을 연상시키고 있거니와 미국에서도 19세기 초기까지는 논다는 것이 일하지 않는, 따라서 선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왔다.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경우와 일을 한 후에 노는 것 또는 일하기 위해서 노는 것 등의 구별이 없이, 놀이는 어떤 경우이건 부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유교의 영향이 강한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는 것이다.

일(work)과 놀이(play)의 양면생활

소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술을 마신다든지 고성방가 등으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를 남용한다면 큰 마이너스가 아닐 수 없다.

레크레이션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사람 뿐이 아니다.

월송이나 고양이, 개나 말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게임을 하고 있다.

다만 사람처럼 규칙이나 사전의 합의가 없이 난폭하게 즐길 뿐이다. 그래도 같은 짐승끼리 서로 모여서 1대 1로, 혹은 떼를 지어서 게임놀이를 하는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물며 사람이 하는 게임에 이르러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놀이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내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놀이만을 소개하려고 한다.

내무반 등에서 하는 게임이므로 너무 거창스러운 도구나 준비가 필요한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생략했다.

일과 후의 여가를 전우들과 함께 흥미로운 여흥과 게임으로 즐길 수가 있다면 우리의 전우애는 더욱 두터워 질 것이고 근무의욕도 더 커지리라 생각된다.

1. 참작놀이

방법: 먼저 인원을 세패로 나눈다. 다음에 손바닥만한 종이를 전원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고 난 다음 A편에는 누

구나가 알 수 있을만한 소설가의 이름을 쓰도록 한다.

B편에서는 소설의 제목을, C편에서는 간단한 비평을, 이를테면 「전쟁문학의 최고봉」이라든가 「청소년 필독의 서」와 같은 식으로 쓰도록 하여 전부 쓴 다음에 편대로 모아서 뒤집어 놓고 A편에서 한장, B편에 한장, C편에서 한장 도합 석장을 하나로 해서 그것을 차례로 읽는다.

반드시 대결작품이 될 것에 틀림없다. 예를 들면 「정비석」 지음 「채달리 부인의 연인」 「청소년 필독의 서」와 같은 걸작 폭소 작품이 만들어 진다.

2. 비행기 놀이

방법: 벽에는 커다란 세계지도를 붙인다. 서로 나눈 편마다 종이로 접은 비행기에 핀을 꽂아서 나누어 준다. 이 룩장으로서 지도 중앙에 큰 점을 표시한다. 전원을 방안의 지도를 마주보는 쪽에 서게 하고 방 한가운데에 여러가지 장애물, 이를테면 결상, 책상, 주전자, 어항 등을 펼쳐 놓는다.

전원에게 일본간의 여유를 주어 지도 위의 이륙지점과 장애물을 둔 장소를 보아두게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전원의 눈을 가린다. 이렇게 한 다음 각자는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 지도가 붙어 있는 쪽으로 가서 되도록 이륙지점에서 먼 곳에다 비행기를 핀으로 꽂는다. 만

일 장애물을 건드리면 그것은 추락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은 실격이다.

또 비행기를 지도 위의 강물이나 호수나 바다에다 쫓으면 비행기는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제일 장거리를 비행한 비행사가 우승이 된다.

3. 앵무새 놀이

이것은 다음에 적은 여러가지 말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골라서 차례차례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일 재빨리 발음이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 지붕 위에 얹힌 콩깍지가 깎 콩깍지가 안 깎 콩깍지나.

▼ 남산 위의 솔방울이 댕댕쿨 댕댕쿨 굴러간다.

▼ 나귀 타고 가는 섯님 남산골 섯님이나 다방골 섯님이나.

▼ 엄마 등에 애기 업고 애기 등에 참새 새끼 지저귄다.

▼ 말뚱 위에 반짝이는 저 벌레는 개똥벌레나 쇠똥벌레나.

4. 숫자 풀이

먼저 열두장의 카드를 준비해서 1, 2, 3, ……12까지의 숫자를 써 넣어 여러 사람에게 한 장씩 나누어 준다. 카드를 받은 사람들은 카드의 번호를 보고 1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를테면 태

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들, 또는 나의 애인이라든지 우리 아버지라든지들 낸다.

5. 땅, 물, 바람, 불

인원을 둥글게 둘러 앉힌다.

한 사람이 둥글게 둘러 앉은 사람중 아무에게나 손수건을 던지고 「땅」, 또는 「바람」, 또는 「불」, 또는 「물」이라고 한다. 이때 「땅」 했을 때는 손수건을 받은 사람이 땅 위를 달리는 동물의 이름을 하나 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람」 하면 하늘을 나는 동물, 「물」 하면 물 속을 헤엄치는 동물, 다만 「불」 했을 때는 잡자코 있어야 한다. 적당한 동물의 이름을 대지 못하든지 「물」 했을 때 지거리든지 하면 벌점을 받는다.

6. 예스·노 놀이

이것은 두 편으로 나누어 노는 게임이다. 문제를 내는 편은 상대방이 모르도록 종이에 써서 덮어 놓는다.

맞추는 편은 자꾸만 질문을 해 가지만 문제를 낸 편은 「예스」나 「노」 이외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질문은 몇분 동안으로 시간을 정해 두든지, 질문의 회수나 범위를 제한해 두어야 한다.

서로 번갈아 가며 문제를 내어서 채점을 해 나간다.

이때의 출제는 처음엔 그 방안에 있

는 물건으로 하든지 해서 범위를 좁게 하고 점점 출제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7. 어조목(魚鳥木) 놀이

리더가 「어조목 어조목」 하며 외우다가 참가자 중 한 사람을 지적하여 셋중의 하나를 가리킨다. 예로 「어조목, 어조목 …목」 하면 지적당한 사람은 리더가 3초를 다 헤아리기 전에 「소나무」, 혹은 「버드나무」 등 나무의 이름을 대야 한다.

「어」 하면 물고기 이름, 「조」 하면 새 이름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어」 했다고 해서 앞에서 말한 물고기 이름을 또다시 부를 수는 없다.

이렇게 하여 3초 안에 이름을 말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대면 벌칙을 받게 된다.

리더는 위치를 자주 바꾸어서 참가자가 정신을 차리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오늘의 영광

참가자 전원이 음악에 맞추어 자유롭게 걸어다닌다.

리더의 지시에 의해서(호르라기) 걸음을 멈추고 자기 옆사람과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뒤로 가서 허리띠를 잡고 한 짝이 된다.

짝을 이룬 여터 그루우프들은 위와 같이 음악에 맞추어 자유롭게 걸어나

닌다.

리더의 호르라기 소리에 의하여 걸음을 멈추고 자기 옆 그루우프와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편은 이긴편의 뒤로 가서 허리띠를 잡는다.

이때의 대형은 2열종대가 된다.

이상과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1열종대의 긴 대열이 완전히 두 패로 나누어 질 것이다.

두 패로 갈려진 각 1열종대의 최선두 자끼리 가위·바위·보로 최종적인 결승에 이긴 선두자가 그날의 영광을 차지하는 승자가 된다.

○ 유의점 : 처음에는 걸어나다가 후반에는 편다든가 스킵을 하든가 하여 변화를 주도록 하면 더욱 흥미진진한 놀이가 된다.

이 놀이는 즐기는 동안 서로가 친근감을 갖게 되며 어색하고 딱딱한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된다.

음악곡은 명랑한 행진곡 또는 「런닝 스텝」에 맞는 곡을 선택하여 분위기를 명랑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전축이 없을 때는 「산토끼」, 「자전거」, 「다람쥐」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게 되면 저절로 흥이 나오게 된다.

9. 비틀거리는 놀이

준비물 : 막대기(길이 1m 지름 5cm) 또는 야구베트 작 빔 1개씩.

인원을 10명을 단위로 하여 참가인원에 의하여 2열, 또는 3열종대로 세운다.

각 팀을 일렬종대로 세우고 각 팀의 선두위치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심판이 막대기를 가지고 선다.

리더의 시작 호령에 맞추어 각 팀의 선두는 달려가서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 세워놓은 막대기 위에 이마를 대고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잡은 다음 막대기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돈다.

각 심판원은 큰 소리로 횃수를 세며 8회를 돌면 가볍게 등을 쳐서 알려준다.

경기자는 등을 맞은 순간 막대기를 그 자리에 놓고 처음의 자기 위치로 돌아가 다음 사람에게 바톤, 또는 손수건을 돌려준다.

전원이 빨리 끝난 팀이 승리하게 된다.

8회를 돌고 원위치에 돌아올 때는 눈이 빙빙 돌면서 비틀거리게 된다는 가 넘어진다는가 하여 웃음이 터지게 된다.

○유의점 : 땅바닥 막대기 이마가 각각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넘어지는 일이 있으니 밖에서 할 때는 잔디밭에서 하도록 한다. 막대기의 길이가 길 때에는 도는 횃수를 많

이 하고 짧을 때는 횃수를 줄여서 하도록 한다.

10. 달걀 굴리기

준비 : 시험지 또는 도화지 10장, 달걀 2개.

인원을 2~4 팀으로 나누고 5매의 도화지를 종대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배치한 다음 첫번째 도화지 위에 다 달걀을 놓는다.

리더의 신호로 첫번째 사람은 손으로 도화지를 끌어 당기며 조심성 있게 달걀을 굴려서 다음 도화지 위로 옮기고 풀러선다. 다음에는 두번째 사람이 위와 같은 식으로 세번째 도화지 위로 옮기고 풀러선다.

이렇게 같은 동작을 되풀이 하는 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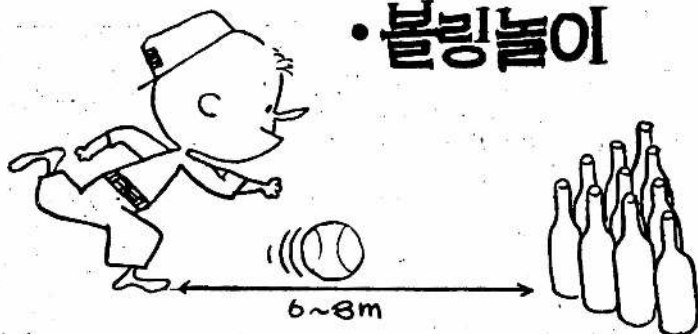
○유의점 : 달걀은 반드시 도화지 위에 얹혀 있지 않으면 반칙이다. 그리고 달걀이 도화지 밖으로 굴러갔을 때는 달걀을 훑어와서 도화지 위에 놓고 다시 도화지를 끌어당겨야 한다.

11. 보울링

준비 : 폴라병, 또는 쥬스병, 강통 10개, 소프트공 1개. (두 팀으로 나누어 실시할 때는 위의 준비품은 배로 마련한다.)

라인에 전방 6~8m의 위치에 병을 세

• 볼링놀이



운다. (그림 1)

정삼각형 내에 그림 1과 같이 10개의 병을 배치한다.

공을 앞으로 굴러 전방의 병을 몇개 넘어뜨리느냐를 다투는 놀이다.

공을 굴리는 횟수를 적당히 정한다.

넘어뜨린 병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된다. 팀 대항도 같다.

병의 위치는 기술의 정도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 넘어진 병은 다시 세워서 다음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둔다.

에 의해서 10~15m 지점까지 달려간다.

지점에 도달하면 그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손벽을 한번 친다.

위의 동작이 끝나면 밑에 놓여 있는 수건을 잡아서 머리에 매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손벽을 치고 다음에는 왼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손벽을 친다.

머리에 맨 수건을 풀어던지고 앞에 있는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풍선을 엉덩이로 터뜨리고 돌아와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긴다. 이렇게 하여 빨리 끝난 팀이 승리할 하게 된다.

12. 풍선 터지기

준비 : 풍선(참가자의 수에 맞추어 준비한다) 실, 세수수건(대열에 의해 깎 수를 준비한다) 의자(대열에 의해서 깎 수를 준비), 바턴(2~3개)

참가자를 2열, 또는 3열로 나누어 길 이로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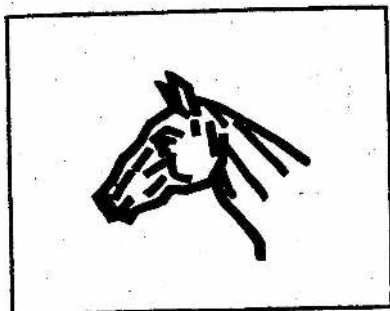
각 줄의 선두자들은 리더의 출발신호

이상 몇 가지 게임놀이의 예를 들어 보았다.

우리 장병들이 현명하고 유익한 시간의 활용으로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건전한 게임놀이가 상호간의 이해, 친선 단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생활 스포츠로서의 승마

박 경 수



1. 승마에 대한 개념

• 승마의 즐거움

누구나 말을 타는데 있어서는 호기심과 매력울 느끼는 모양이나 일상 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나라에 적당한 시설이 적어서 승마를 하고 적어도 그러한 찬스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우리가 말을 타는 것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서부영화다.

말이 안 나오는 서부영화는 서부영화가 아닐만큼 주연적 역할을 하고 있고 멋있게 달리는 말을 봄으로써 활동사진다운 흥분을 느끼는 것이다.

사실상 보기만 하여도 시원스러우니 타고 달리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과연 타는 것 중에 승마같이 재미있는 것이 없을 것이고 승마같이 좋은 운동도 별로 드물 것이다.

우선 스틸을 가진 속도에 있어 시속 50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걷는 것과 뛰는 것과는 세 가지의 부드러운 바운드를 우리 몸에 끼치게 하므로 그 조절과 사람과 말과의 운동의 일치한 개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 스포츠의 극치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하나의 예술분야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더구나 서부영화에서 보다시피 끝없는 들판과 산악지대에서 인마(人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비행기나 일등 기차에 비하겠는가.

• 우리나라의 승마

우리 한민족은 원래 몽고민족의 영향을 받아 말을 타는 족속이다.

옛날에는 승마가 우리의 생활이었다. 우리 조상은 서부영화의 장면 이상으로 말을 달리며 적과 싸움을 한 것이다. 말도 지금의 제주도 말과는 달리 몸집이 크고 걸음도 빨라서 이웃나라에 선 사품으로도 쓰고 일본으로 건너가 승마의 기술을 보여 주기도 하였던 모양이다.

• 말에 대한 이해

승마가 스포츠로서 또는 취미적으로 뛰어나게 좋다는 것은 사람의 상대방이 몸집이 큰 동물이라는 점일 것이다.

대개의 스포츠는 여러가지 기구를 사용한다. 그 중에는 동물을 상대로 하는 사냥이나 낚시질이 있지만 상대방이 떨어져 있다. 승마는 말과 사람이 한명어리가 되어 사람은 말을 자기 다리나 손 같이 쓸 수 있어야 하며 말은 사람을 믿기를 마호메트 교주같이 믿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제일 안전하고 음식도 잘 먹고 살이 쪼며 자손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져야만 승마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이 발광을 부린 다거나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 자동차를 보고 놀래는 것, 사람이 가라고 해도 가지를 않는 경우 등은 말과 사람과의 호흡이 맞지 않고 결국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승마에 대한 기술과 말

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위험이다. 말을 탄다는 사람이 말은 사람을 찬다, 문다, 벌어뜨린다, 달아난다, 결국 말은 무서운 동물이다 라고 모든 잘못을 말못하는 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안 된 일이다.

말은 수천년 동안 사람과 같이 살아왔고 사람은 말의 힘을 빌리고 말은 사람 덕분에 여태껏 자손을 번식시켜 왔다.

그런데 어찌 사람을 해치려 하겠는가.

말은 초식동물이고 공격무기는 가진 바 없다. 다만 맹수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술로서 뒷발로 차는 것 밖에는 모른다.

말은 그 변화가 승마의 좋은 점을 들면 한이 없겠으나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예민한 운동신경을 양성할 수 있다.

2. 동물을 사랑할 수 있으므로 젊은 남녀의 정서교육에는 제일 좋다.

3. 몸 전체의 운동이 되므로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신체의 균형이 잡혀진다.

4. 말을 정신적으로 이끌고 나가려니까 용맹심과 결단력이 길러진다.

5. 혼자라도 즐길 수 있으므로 고독이 무섭지 않아진다.

6. 춘하추동의 계절을 가리지 않고 풍우설일지라도 훈련을 하여야만 좋은 말이 되므로 사람은 자연 말을 위하여

단련을 받게 되니 끊임없이 나가는 인내력을 무의식 중에 양성하게 된다.

우선 승마는 걷는 것부터 시작하여 뛰어나다게 된다.

그래서 말의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말살생을 따라 그리 복잡하지 않은 도로에 나갈 수도 있고 야외 초생지대에 나가 다닐 수도 있겠다.

승마를 한다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정도로 만족하고 승마는 이러한 것이다.

나는 잘 달리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정도로 그치고 마는 모양이다.

원래 승마의 묘미라 할까, 배워야 할 일은 지금부터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말은 단독으로 어거(馭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원래가 말은 군생동물이다. 단독으로 떨어져 다니기를 싫어한다.

그렇다고 사람이 부리는 동물인데 반드시 몰려만 다닌다면 이렇게 불편한 일이 없을 것이다.

말로 하여금 저희들의 군장(群長)을 위는 것보다 자기를 인도하는 주인을 믿 신뢰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때 마상에서 기수가 말이 발을 헛디딜까 두려 더 하면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말에 전파되어서 말은 절대로 그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

말은 벌써 기수의 오장육부를 다 들여다 보고 있는데 기수 자신은 자기의

마음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왜 안 가느냐」고 채찍질을 하지만 말은 그 채찍에 박력이 없음을 다 알고 반항조로 나오는 것이나.

2. 어거(馭馬)하는 기술

· 말의 걸음걸이와 승마요령

우선 말을 타면 앞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가자고 서두르는 동작만 해도 말은 간다. 그러나 이 거치장스러운 동작은 이것이 기술이 아니다.

기술은 일종의 묘책이니 기수가 발뒤꿈치로 말의 복부를 가볍게 차면 말은 앞으로 간다.

말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을 것이니 왼편으로 가고 실을 때에는 고삐를 약간 당기면 되고 오른편 같으면 그 반대 동작을 하면 커브 도는 것이 된다.

가는 속도가 있어야 돌 수도 있는 것이니 언제나 전진을 죽이지 말고 이 동작을 해야 한다.

말을 정지시킬 때는 양쪽 고삐를 똑같이 뒤로 당기면 말은 선다. 만일 안 서면 설 때까지 당겨야 한다.

이것으로써 가는 것, 도는 것, 서는 것을 다 이해하고 말을 부릴 수 있는 완칙을 알았다.

「아니 이렇게 간단할 수야 있느냐, 말타는 것이 어렵다던데」 할 것이나 사실 이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것이 교묘하게 결합되는 것과 그 강약이 말에게 작용하여 말이 여러가지 어려운 운동을 하게 되고 인마(人馬)간의 약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자동차에 세 가지 속도(로우·세컨드·톱)가 있듯이 말에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의 걸음걸이가 있다.

걸음, 빠른걸음, 뛰기 이 세 가지인데 영어로 Walking, Trotting, Galloping 이라 한다. 짐 끄는 말의 걸음이 보통 걷는 걸음이고 말이 제일 피로를 느끼지 않는 걸음이다.

1분간에 100미터를 걸을 수 있다.

이것보다 빠른 것이 빠른 걸음인데 사교댄스의 트로트(Trote) 리듬이 이 걸음의 리듬이다.

기수에게 주는 반동이 2절로 온다.

분속 250미터, 또 한 가지는 뛰기(Gallop)인데 반동이 왈츠조(Walts調)로 3박차(拍車)로 온다.

경마에서 볼 수 있는 걸음걸이는 이것의 제일 빠른 걸음이다.

분속은 350미터에서부터 600미터까지 나간다. 말이 경중경중 뛰어간다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이는 말의 걸음걸이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노루나 토끼는 2박차로 뛰지만 말은 3박차로 뛰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걸음걸이를 고삐와 무릎과 발뒤꿈치로 조정할 수 있으면 우선 실용적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되

려면 여러 난관이 있다.

빠른 걸음을 하려면 기수의 몸이 중요하다니까 자연 주먹이 흔들리고 따라서 고삐가 흔들리니까 말은 어디를 갈지들 모르고 서 버리거나 미숙한 기수로 취급하거나 한다. 그 요령에 있어서는 실제로 말에 앉아서 배우지 않으면 필살로서는 설명이 곤란하다.

• 말의 능력과 다루는 법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등치가 큰 1마력의 말을 부리려면 기운으로는 말에게 진다.

여기에 기술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 이 기술을 잘 씌으로써 사람도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말에도 힘이 들지 않게 하며 고통을 주지 않고 환희여행하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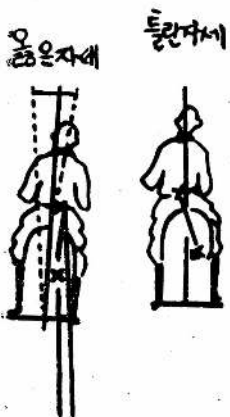
말의 순간속도를 보면 시속 60마일은 낼 수 있으나 말은 기계가 아니고 심장을 가진 동물이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통 스포츠로서 운동삼아 탈 때는 평균 한 시간에 8킬로미터의 걸음이면 적당하다. 장거리를 탈 때는 한 시간에 6킬로미터 정도로 줄이지 않으면 말에 무리가 간다.

말과 한 시간의 운동을 같이 즐기려면 마굿간에서 나와서 준비운동으로 약 10분간을 말에 익숙한 동작이 아니 가게 운동을 시켜 놓고 그다음 30분을 긴장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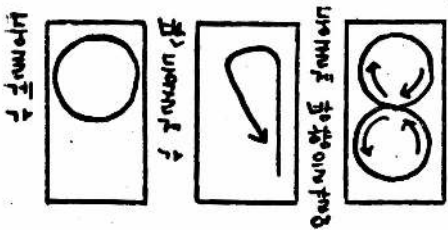
말을 타는 자세와 어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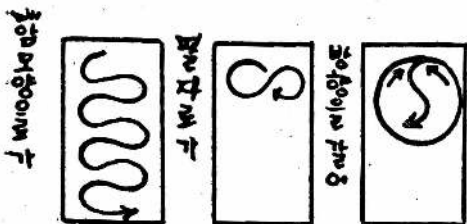
배향자세



안면수평



앞발굽의 움직임



뒷발굽의 움직임



뒷발굽 돌아

마음으로 말에서 배울진 배우고 가르칠진 철저히 남들이 가도록 가르친 후 나머지 20분은 그 동안의 말의 흥분을 진정시키며 호흡을 보통 상태로 만든 후 비로소 말에서 내리는 게 말을 쓰는 방법이다.

승마운동이 무취미한 사람의 육체운동에만 그친다면 목마(木馬)를 타고 끄덕끄덕하는 편이 낫지 산 말을 탈 필요가 없다.

호흡이 동하고 피가 통하는 말이 자기 소유의 말이건 단체의 말이건 간에 그 말을 좋게 만들어야 하고 자기도 말에게서 잘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여러가지 운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3. 말에 대한 여러가지 운동

승마를 하는데 있어서는 말에 대한 여러가지 운동이 필요한데 그 운동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 ① 부드럽게 하는 운동(柔軟運動)
- ② 뻗고 줄이는 운동(伸縮運動)
- ③ 뛰어넘는 운동(飛越運動)
- ④ 근육운동(筋肉運動)
- ⑥ 폐운동(肺力運動)

이 있다.

1. 부드럽게 하는 운동

말은 그 몸집이 비교적 긴 동물이라 똑바로 가기는 편하여도 곡선으로 가기

는 싫어한다. 말은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형형색색으로 부딪치는 사태를 품고 나갈 수 없다. 말은 몸이 부드러워야 여러가지 운동을 잘 할 수 있으며 장거리를 걸어도 그리 피로하지 않다. 이 운동은 사람의 체조와 같은 것으로 목을 좌우로 꾸부러 본다.

긴 목이 편하게 원형으로 꾸부러져야 한다.

2. 뻗고 줄이는 운동

말은 어디까지나 시원스럽게 길러야 승마의 가치가 있다. 세 가지 걸음을 즉 즉 다리를 앞으로 뻗어가며 걸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양쪽 무릎으로 말을 추진시키며 그제 모자라면 박차들 써서라도 말의 힘이 있는 한 뻗을 수 있는 데까지 발을 뻗게 해야 한다.

천마정공의 기백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빨리 걷는다는 것과 몸을 신장(伸張)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수중지마로서 기수가 다음 운동을 지시하면 그 운동으로 옮길 수 있는 주의성을 가지고 말 움직여야 한다. 이때에 말의 두 귀는 모든 주의력이 뒤에 있는 기수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에서 오는 반동으로 부드럽고도 가운 찬 감각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이만큼 완벽에 가까운 신장운동이라

면 그리 오래 계속할 수 없다. 말의 호흡으로 피로 여하를 보아 만 운동으로 옮겨야 한다. 잘 뺨는 말은 잘 단축시킬 수 있다. 전진기세가 왕성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걸음의 넓이를 줄이는 것이다. 말의 다리는 앞으로 뺨는 대신 위로 올라가게 되어 말의 뒷다리는 말의 복부 밑으로 들어온다.

말의 중심이 어깨 아래에 있던 것이 뒤로 이전됨으로써 머리서부터 어깨까지 기양되고 따라서 고삐를 통하여 오는 말의 입의 힘은 점점 가벼워져서 여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있는 듯한 가벼움이라 말할 수 없는 감촉이 생긴다.

추진을 더 가할수록 말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나. 이를 패사지(Passage)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등마술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늘였다 줄였다 하는 동안에 말은 강인하고 반발력이 왕성한 결로 된다.

기수가 요구하는 속도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명마가 되는 것이다.

말은 추진력이 강하고 잘 뺨는다는 이것으로 가치가 결정된다.

3. 뛰어넘는 운동

말은 그 우수한 반발력을 이용하여 그 백관 이상 되는 자기 몸을 공중으로 띄약한다.

처음에는 얇은 것으로 장애물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을 누차 가르쳐 말이

안심하고 이를 통과하게 되면 조금씩 높인다. 약 1미터쯤 높이에 이르면 말이 발을 모아 뛰게 마련이다.

이것은 1주일에 3일간으로 할당하면 말은 자신이 재미가 나서 뛰고 싶어 한다.

기수가 말에게 무리한 넓이를 뛰라고 강요하거나 뛰어넘을 때 말에게 고통을 끼치게 하거나 잘 뛰어 넘은 후에 귀여워하지를 않거나 하면 말은 뛰기를 싫어하며 기수를 태운채 도망하려고 든다.

기수는 뛰어넘을 때 절대로 말의 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들면 뛰어넘을 때 말이 목을 앞으로 뻗 때 고삐를 말이 뺨는대로 늘여주어야 하는 것을 잡아당김으로써 재갈이 말의 입을 세계 쳐 말에게 고통을 주는 수가 많다.

또는 뛰어서 공중에 인마(人馬)가 있을 순간에 사람의 자세가 말에 쫓아가지 못하여 체중으로 말의 허리를 침으로써 말의 뒷다리가 장애물에 얼어맞게 한다든지 미숙한 기수일수록 장애물 경기에서 흥분하여 무리한 속도를 강요함으로써 말이 발을 모아 뛰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

4. 근육운동

어린 말을 가르칠 때는 이 근육운동이 중요하다. 물론 좋은 골격을 가진 말이야 강인한 근육이 발달하게 마련이지 만 어느 정도는 인위적인 단련으로 달성

할 수 있다.

장거리를 보통걸음으로 걷게 한다.

빠른 걸음이나 뛰는 걸음은 일시에 앞뒷다리가 움직이니까 사지의 균등한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보통걸음은 한 다리씩 옮기게 되므로 이 근육운동에는 제일 좋다.

5. 폐운동

열흘에 한 번 정도 경마장같은 넓은 들에 나가서 짧은 시간 동안 비숨을 놓고 달리는 것도 말의 폐의 폐활력이 많아지고 말의 속력을 언제까지나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4. 재갈박기와 굴요(屈撓)

1. 재갈박는 요령

말은 선천적으로 재갈을 박게 되어 있는 동물이므로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이가 없는 곳이 있다.

거기에 재갈을 갖다 대어야만 말이 재갈을 박고 사람이 부리는 대로 부려지는 것이다. 재갈이 제 장소에 들어가고 말에게 아프게 하지 않으면 말이 재갈을 믿게 되어 몸 전체를 이 재갈에 의지하여 걷게 된다.

생전 처음 사람을 태우는 말은 의지할 곳을 모르니까 걸음이 불안정하고 따라서 기수도 불안하지만 이 재갈박기가 되면 걸음걸이도 정확해지며 여려가

지 사물에도 놀라지 않게 된다.

2. 고삐를 당기는 요령

재갈을 박으면 아래턱을 벌려서 기수가 고삐를 쓰면 입으로 사람에게 대항은 할 수 없고 고삐에 복종하게 된다.

조금만 고삐를 당겨도 속도를 줄이거나 서게 된다. 그러니까 입이 예민해진다는 것이다.

아랫목이 부드러워지며 어깨와 목과의 연결된 부분이 안정하게 되어 어디로 도망가는 버릇이 없어진다.

말을 각의 추진으로 몰아내며 이 재갈박기로서 말을 잡으면 말은 수축되며 말의 콧마루는 수직에 가깝게 내리고 머리꼭대기는 제일 넓게 들고 긴 목은 위로 뻗으면서도 약간의 곡선을 갖게 되며 사지의 운보는 경쾌하게 걷게 된다. 이것을 굴요라 부르고 말의 조교의 제일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말이 길가에서 놀라더라도 사람의 수중에서 뛰어나갈 수가 없게 된다. 말이 재갈에 의지하여 잘 걷게 되면 말이 너무 의지하여 잡아당겨서 고삐가 무거워지고 팔이 아파질 수 있다.

늘이고 줄이는 운동으로 말을 수축시키면 말의 뒷다리는 배 밑으로 잘 들어가고 말의 입은 가벼워지며 따라서 말의 운동이 새털같이 가벼워진다.

그 풀밭의 안개

이 건 청

일년내 우리가 구겨버린 시간들이, 되살아나지 못한 욕망들이, 마지막 밤의 깔장 스카프처럼 날리고 사랑의 뽀얀 안개들이 자욱하구나.

안개 속을 헤매면서 안개낀 밤의 풀밭을 밟으며,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았다. 손가락마다 피를 흘리며, 아, 우리는 얼마나 삽질을 했던가. 사랑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막막한 대지를 열심히 파헤쳤다. 우리들의 삽날은 일년내 파 아란 날이 서 있었다.

사랑의 계곡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강물이 범람해 흘러도, 우리들의 시이즌, 동에 뜨는 태양 아래 탄탄한 근육이 더 큰 삽을 들고 나섰다. 완성보다 환희에 찬 우리들의 일,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했던가. 아까운 시간을 구겨 포켓에 넣었다. 돌아와 잠든 후에도 다시 펴서 읽으며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

우리들의 시이즌은 끝나리라. 새로운 계절의 문이 열리고, 이 밤엔 막차들이 떠나는군. 안녕. 그대의 흰 손이 마지막 장을 뜯고 남아 있는 어둠 속으로 그것을 던진다. 하얗게 물려가는 것들, 우리들의 낙엽은 더 먼곳으로 물려가고, 우리들의 새로운 시이즌이 오는군. 새로운 시이즌을 위해 떠나는 것들, 그러면 아듀, 아듀. 떠나간 것들은 더욱 아름다워져 리니.....

바 다

이 규 호

보일듯 말듯하는 천편(千篇)의 빛속에 이 바다가
있다.

빛은 수만(數萬)의 돛으로 출렁거리며 흐르고
비늘은 바다를 치얹고 가로 달린다. 바람은 이때
단 하나의 커다란 날개를 실어와서 주저앉고
그 위에 실린 하늘은 무지개 걸치듯 발가락을 씻
는다.

새 떼가 이 바다를 나뉘었을 때는 새벽이다.

새 떼가 문 바다의 물결이 위로 거슬러 오를 때는
새들의 가장 빛나던 나이다.

천편(千篇)의 빛이 일시에 갈라지며 치솟을 때
바다는 천편(千篇)의 공중으로 떠 있다.

안 려(雁 旅)

이 수 화

아산(牙山)에서 올라 온
최기러기 울음도
서백리아(西伯利亞)까지는 못 가고
동작동의 들국화
총이 총이 새에서
저승에나 있을 제일로 미쁜
음악이 되고
육신이 되고
저 무한궁창의 광음(光陰)이 되나니
빛을 낳아
빛을 먹는
우리네 이마 흰 기러기여
오는 세월 한강가에
아지랭이 좀 일게 하여서
저 아산(牙山)에서 올라 온
최기러기 울음일랑은
서백리아(西伯利亞)까지도 보내고,
동작동의 들국화
총이 총이 새에서는
이승의 제일 미쁜
꽃땀이나 살게 하세.



개 기르기

김 경 진



사교적이면서도 경계심이 강하고 용감도 하지만, 신뢰심이 있는 의리에 사는 가축이 견공(犬公)이다.

또한 주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정다운 벗이 되어 수입의 도움도 되게 하는 축견(畜犬)이고 본다면 가정부업으로도 적당하다 하겠다. 게다가 총사냥에는 없지 못할 필수품이니 축견이야말로 취미와 실리를 겸한 즐거움이라 하겠다.

건강한 개의 감별법

건강한 개는 적당히 살이 찌고 피모에

사람은 항상 대자연을 사랑하고 가까이서 뜻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으려 몇 마리의 동물들을 기르거나 꽃을 가꾸기도 한다.

애완물이거나 실용물이거나 간에 가족 중에서 개처럼 정다운 동물도 쉽지 않다. 영리하고 명탐하며 충직하여 주인을 잘 따르고 절대 복종한다. 훈련을 시키면 잘 알아듣고 습성만 잘 붙이면 불결하거나 비굴하지도 않다.

윤이 나고 원기왕성하며, 거동이 민첩하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있고, 어딘가 불편하면 등을 꾸부리고 코를 문에 묻는다.

또한 언제나 콧등이 축축히 젖어있고 손으로 콧등을 대어보면 산뜻해야 하며 음식물을 주었을 때 잘 먹어야 되고 먹다 남기거나 토하는 것은 질환이 있는 것이다.

식욕과 관련되어 개의 건강상태를 보는 중요한 점은 분변의 검사를 하는 것이 잘 기르는 요법이기도 하다. 실사는 물론 변이 묽거나 풀이나 돌같은 이물

질이 섞여 나오거나,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위장장애, 영양부족, 기생충 감염 등 어느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2. 먹이

개은 인간이 먹다 남은 식물로써 사육되어 왔기 때문에 본래는 육식동물이었으나 현재는 인류와 같이 잡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개의 음식물은 쌀, 보리, 좁쌀을 주식으로 하여 생선 조각, 야채를 섞어주면 된다. 좀 더 맛있게 주려면 우리가 먹는 것보다 연하게, 즉 희박하게 해주고, 굳은 것보다는 죽같은 것이 위턱에 붙지 않고 잘 먹는다.

조수육(鳥獸育)과 내장은 개가 좋아하는 음식물이므로 줄 수 있다면 일 주일에 1~2회 정도 주면 충분하다.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위장에도 부담이 커져서 나쁘고 지방질이 되고, 따라서 습진이 생기기도 한다. 간혹 좋은 개를 팔고 가는 것을 보고는 저 개는 고기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일상 먹고 지내는 환경에 따라 구미도 같아진다.

덧붙일 것은 음식물의 갑작스런 변화이다. 특히 토질, 풍토가 다른 수입견 또는 거소를 옮겼을 때는 먼저 먹던 식물과 환경을 맞추어 주어야 하고 갑작스런 식물의 변경은 좋지 않다.

또한 개에게 주어 해로운 것은 달콤한 과자류나 오징어, 게, 조개류 등과

매운 고추, 후추같은 자극성이 강한 것, 4°C 이상의 더운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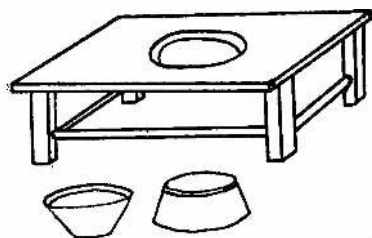
뼈는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굳은 물고기의 머리나 등뼈같은 것을 그대로 주면 소화도 안 되고 위장도 상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 특히 자견(강아지)에게는 위험하고 연골(軟骨)이나 적은 뼈를 잘 끊어주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낫은 고기에는 낫시가 끼어 있을 때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고래, 정어리, 고등어의 지방질은 해로울 때가 있으니 정어리는 구어서 주고, 끊었을 때는 너무 농후한 것을 그대로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섞어주는 것이 좋다.

성견(成犬)의 식사는 조식 2회를 원칙으로 하고 낮에는 약간 주어도 좋으나 별로 주지 않아도 무방한데 음식물을 주는 분량은 측정하기가 곤란하나 적당히 먹어 없어질 정도로 준다. 먹울 것을 주고 지켜서 보면 그 개의 식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참고로 그 양(量)을 기록해 보면 대략 생후 4~5개월이면 자기 체중의 $\frac{3}{4}$, 6개월이면 $\frac{2}{3}$, 8개월이면 $\frac{1}{2}$, 1년 이상이 되었으면 $\frac{1}{3}$ 정도로 주면 된다. 한편 자견은 손을 대보고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주어야 하며, 설사는 과식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식기는 우리 가정에서는 으레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기 쉬운데 녹이 슬지 않는 것으로 얹드려 먹지 않도록 식사

때를 만들어 고정시켜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식사 후는 꼭 식기를 씻고

그림 1



— 식기와 식사대 —

깨끗한 물을 떠주어서 언제든지 개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도록 해 준다.

특히 식사는 일정한 장소, 시간, 같은 식기, 같은 사람에 의하여 주도록 하여 타인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도록 지도훈련을 하면 고이적인 독살이라거나 약을 먹은 쥐를 잡아 먹어 죽는 등의 사고는 일으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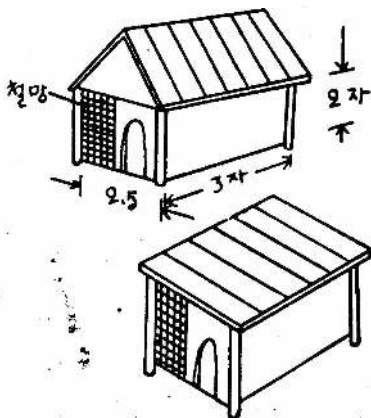
3. 견사(犬舍)와 사육장

개는 뜰 주위에 철망으로 두르고, 뜰에서 놓아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되도록 별이 잘 들고 건조한 장소에서 아침저녁 운동을 시킨다. 그늘지고 습한 곳은 개의 건강에 제일 나쁘고 「디스템퍼」(개의 전염병)에 걸리기가 쉽다.

개 집은 외관에만 치중하지 말고 개

가 거처하기 좋게 실용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붕의 물매를 느리게 하여

그림 2



견사의 두 가지

이른 봄 또는 겨울철은, 양지바른 지붕 위에 누워 잘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개는 습한 날이나 물건을 피하여 높은 장소에서 자기를 본능적으로 좋아한다.

그리고 개 집의 출입구도 중앙에 만들어 주지 말고 되도록 적게 한쪽에 만들어 주도록 한다. 개는 동굴이나 그늘진 곳에서 살던 습성이 남아 있어 아무 시설도 없는 가정에서는 마루 밑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므로 작은 출입문은 겨울철 보온에도 유리할 뿐더러 입구에 담요같은 천으로 드리우면 개 집 안 보온은 자체의 체온만으로도 충분하게 된다.

견사는 되도록 지붕과 앞뒷면을 분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청소와 소독 그리고 햇빛을 쬐이는데 편리하며, 여름철에는 앞뒷면을 철망으로 바꾸어 통풍을 좋게 하고 「필라리아」(모기로 인한 기생충)를 배개하는 모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가는 철망 내에 굵은 철망으로 이중문을 하지 않으면 발톱으로 긁어버린다. 개 집에는 짚을 깔아주고 없을 때는 가마니를 풀어주어 적어도 2주일에 한번쯤은 청소를 하며 일광소독을 해 주어야 한다.

4. 운동과 훈련

운동은 아침 저녁 2회로 2, 3십분 정도로 하면 충분하고 시간은 식전이 좋은데 운동 후 잠시 쉬고서 식사를 주도 록 한다.

개는 본래 자기의 처소를 떠나면 배설을 하는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밖에 나가면 곧 변을 보려고 냄새를 맡고 배설장소를 찾는데 이때 너무 무리하게 끌어당기지를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운동을 자전거로 시킬 때에는 개가 가벼운 속도로 무리가 되지 않도록 맞추어 주어야 하며 빨리 가기를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특기할 것은 개의 운동은 뛰기만 하여도 무의미하다. 주인이나 인도하는 자가 같이 즐겁게 놀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공을 던지거나 나무 조각을 던져주면 개의 본능적인 수렴목을 만족시키며, 훈련의 기초적인 순치교육

(馴致教育)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훈련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개가 가진 성능을 보다 확실성 있게 양성하여 집지기(番犬)나 군용견, 경찰견, 사역견 또는 엽견으로서 그 목적에 따라 길들이는 것인데, 꼭 훈련소에 가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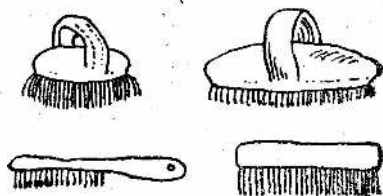
어릴 때부터 성견이 될 때까지 항상 배우는 것으로 집에서 관리할 때나 매일 운동시에 조금씩 자주 습득시키도록 애써야 한다.

평소의 순치교육(3개월부터)이 잘 되면 그 다음 단계인 기본훈련은 순조로이 잘 하게 된다. 이것은 생후 8개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늦으면 그 능력이 저하된다.

5. 피모(被毛)의 위생

어떤 사람은 매일 목욕을 시키고 솔질을 한다고 하나 그럴 필요는 없으며, 봄, 가을 환모기(換毛期)에는 꾸준한 솔질이 필요하다.

그림 5



손질도구

흔히 개에게는 벼룩과 진드기가 있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나 이것은 전염병을 매개시키므로 꼭 없애야 하는데 벼룩은 B. H. C를 뿌리고 빗으로 빗진 다음 약을 깨끗이 털어주며, 진드기가 생기면 피세트로 일일이 잡아주어야 한다. 또한 습진이 생겨 등이나 어깨, 귀 밑에 털이 빠지고 빨갛게 되는 때는 아연화연고나 「올리브」유 또는 페니실린 연고를 바르면 쉽게 낫는다.

6. 개의 번식

개의 번식은 정기적으로 6개월 내지 8개월 간격으로 발정이 왔을 때 성립되고 수컷은 어느 때나 이에 응할 수 있는 상태이다. 발정이 가까와오면 암컷은 평상시보다 피모가 윤택해지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된다.

약 3주일간 자궁출혈을 하는데 그동안 교미에 알맞는 기일은 개에 따라 좀 다르지만 출혈이 시작된 후 12~14일 경인데 단지 3~4일 밖에 없다.

교배는 배란(排卵)되는 당일이 가장 좋으나 그 시기를 맞추기는 곤란하므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 한 번 시킨 후 1~2일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교배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교배 후 20여일이 지나면 거동이 부드러워지며 과격한 운동을 싫어한다. 그러나 일 개월이 지나야 유선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50일쯤되면 분만이 가

까와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의 임신 기일은 60일로 기준을 두고 있다.

임신한 개는 분만 10여일 전부터 적당한 운동을 시켜 난산을 피하여야 하며 유방을 깨끗이 씻어주고 개 집 안도 새 짚으로 깔아주어야 하는데 주의할 것이 시기쯤 되면 구충제나 하제를 사용치 말아야 한다.

개는 분만 후 자기 자신이 잘 가꾸나 비상용으로 조명등, 소독약, 실, 가위, 탈지면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은데 이때 서투르게 소동을 일으켜 신경이 예민한 모체에 자극을 주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하다.

대략 첫새끼를 낳은 뒤 30~40분 간격으로 3, 4시간 걸리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면 사산을 면치 못하고 난산일 경우는 꺼내주지 않으면 하루나 이틀 후에 저절로 나오는 때가 많다.

7. 강아지의 사육법

생후 40여일은 포유기(哺乳期)라 하고 유치(幼齒)가 나올 무렵을 자견기(仔犬期)라 하며, 자견기의 사육관리는 그 개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견은 어미로부터 40여일 동안 젖을 먹고 난 후 이유를 하는데 가능하면 2개월 전후가 더욱 적당하다.

젖을 떼기까지는 우선 우유, 「스프」, 계란 등의 유동식물로 어미젖을 보충하

여 주고 차차로 죽같은 것으로 바꾸어 주는데 특히 자전의 발육에 필요한 것은 비타민 A와 칼슘인데 이것을 공급하려면 간과 어분이 좋다.

자전의 식사는 성견과 같이 아침 저녁으로 한 되므로 대개 2~3개월은 4시간 간격으로 4~5회, 4~5개월은 3~4회, 6개월생은 하루 6시간 간격으로 3회 정도, 8개월 이후는 아침 저녁 2회로 한다. 이때 너무 과식을 시켜 설사를 하게 되면 등과 다리가 구부러지기 쉬우며 조금씩 자주 주어야 하며 주 1회 정도로 체중을 측정해 두고 구충약도 때때로 복용시켜야 한다.

자전을 어미로부터 떼어올 때는 되도록 오전중으로 하며 지금까지 깔고 있던 짚이나 자리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저녁까지는 상당히 새 집과 새 가족들에게 낯이 익게 되어 잘 때도 그리 슬퍼하지 않게 된다.

또한 실내에서 기를 때의 제일 큰 문제가 번갈기인데, 냄새를 맡으며 구석으로 찾아 갈 때는 변을 볼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이므로 알은 상자에 모래와 짚을 담아두고 꼭 붙들어 그 곳에 놓아주면 곧 혼자서 그곳으로 가는 버릇이 생긴다. 혹 실수하여 더럽혔을 때는 비누나 소독약으로 깨끗이 닦아 그 냄새를 없애 주어야 한다.

8. 병의 치료와 간호

가. 기생충

(1) 회충

증상: 입의 점막이 백색으로 되고 쇠약해져서 배만 커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다닐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처음에는 토할듯이 구역질을 하고 돌도 할아본다든가 한다.

구충법; 회충의 구충은 그리 간단히는 안 된다. 구충약은 아침 일찍 공복에 투약함이 원칙이고 그날은 번에 섞여나 오는가를 살펴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10일 후 다시 번검사를 하고 회충의 유무를 조사해서 남아있으면 다시 먹어야 하는데, 생후 2개월까지 완전히 구충하지 않으면 영양불량과 신경증 같은 그 자체의 해도 많지만 구루병이 되는 때도 있다.

(2) 십이지장충

십이지장충은 심한 병세로서 혈변, 즉 피가 섞인 만성설사를 한다. 그러나 개의 회충과 십이지장충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또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구충약을 먹이는 수도 있는데 구충약으로 중독은 안 생길지언정 과도한 분량으로 위장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성견은 반년에 한 번 정도로 좋으나 자전은 되도록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나. 구루병(佝僂病)

원인; 구루병은 전신의 뼈가 물러지는 것으로 생후 2, 3개월에 제일 많고 영양이 부족하거나 편식했을 때, 비타민 A 또는 칼슘의 부족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어미의 젖이 나빠서 발육이 불완전했거나 젖배기 시기가 빨라 관리가 불충분하였을 때 생기게 된다. 그러나 영양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광과 운동으로 그늘진 좁은 곳이나, 실내에서 기를 때 이것이 부족하기 쉽다.

증상; 앞발목이 굽어지고 무릎이 벌어지고 꾸부러져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나 그 발목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골격에 생기고 안면 눈 아래 뼈도 높이 튀어나오고 늑골도 몹시 튀어나온 것을 손으로 만져보아 알 수 있다.

치료의 예방; 영양, 일광, 운동의 결합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간유, 린산, 칼슘도 사용한다. 단 이 약물은 장기간 사용하면 해가 되니, 1~2주일 사용 후는 일주일쯤 쉬었다가 다시 복용하도록 한다. 이보다도 자전이 좋아하는 버터와 치즈는 구루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다. 디스텔퍼(瘧犬熱, Distemper)

ワクチン과 혈청; 「디스텔퍼 백신」과 혈청이 나와 70% 이상은 걸리지 않고 치료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원인은 여과성병원균(濾過性病原菌)에 의하여 생기는 개의 특유한 전염병으로 4, 5개월 정도의 자전이 많이 걸리나 한 번 앓으면 면역이 생긴다.

전염경로; 직접 병을 앓는 개와 접촉하면 물론 걸리고, 길가의 앓는 개의 변이 있는 곳에 다녀도 걸린다. 또 병든 개가 사용했던 기구나 간호한 사람의 의복으로도 전염된다.

병상의 경과; 경과는 약한 개와 순수 증일수록 중환을 앓는다. 그리고 그 해의 유행형 즉 호흡기형, 소화기형, 뇌형 등으로 나누어지며, 또한 계절적인 영향으로 겨울에는 폐염을 병발하기 쉽고, 여름에는 뇌증을 일으키기 쉽다.

기생충 구충에 완벽을 기한다면 디스텔퍼도 쉽게 그치는데 잠복기는 보통 5~6일이고 발병 직전에는 맥박이 약아지며 눈이 충혈되고 손으로 아랫눈썹을 눌러보면 빨갛게 되어 있다. 이때 이미 체온이 올라있고, 원기가 없고, 식욕이 줄어들고 눈곱이 끼기 시작하며, 황록색의 콧물을 흘리고 병균은 위장, 폐장, 심장, 뇌신경의 중요한 기관에 침투하여 복잡한 증상을 일으킨다.

치료법; 혈청 이외에는 대증요법으로 페니실린을 주사한다. 기타 화학요법도 디스텔퍼 자체에 직접 작용하는 것은 없으나 이차적으로 오는 폐염이나 설사를 멈출 수는 있다.

나의 문화수업기

— 늦게 문단에 데뷔하고 나서 —

지 광 현



하나의 인간이 생성으로부터 자기완성에 이르는 독자적 획일과정 중 청소년기에 처한 시대적 또는 사회적 여건이 미치는 영향은 완성된 그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 내지 심리적으로 타성된 후천적 성격 재창조에 힘이 크다고 본다.

그것은 맹자의 삼천지교에서도 다루어져서 오늘날 공감하듯 한 인간의 발육하는 과정도상에서는 교정하기 쉬우나 그 여건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런 비례로 교정하기 어려운 잠재인습으로 성격이 응고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대개의 경우 장년기에 들어서도 당시의 환경으로 변할 수 있고 만년기에서도 볼 수 있으니 성향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깊이 뿌리찬 그 기초는 쉽사리 말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의 청소년기에 있어서 선천적 성격에 가해지던 시대적 또는 사회적 환경 아래 모든 사물은 페이스스의 형상으로 심저에 침전되고 그 형상이 용해되어 셋기 어려운 성격을 재 창조하였음은 소년기에 그런 심상이 획일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증거이기에 긍정하고 있다.

내향세계의 잡다한 페이스스적 메랑코리가 하나의 발산의 돌파구로 구심한 것과 현실에 처진 자기 좌절의식의 위로 내지 자기방위로서 문학이라는 방법을 지망했다고 생각된다. 그 문학의 장르 중에서 그의 본령이요, 그 영혼인 시문학을 했음은 시는 예나 오늘이나 여전히 육체의 상징이며 정신이기 때문이었고 좌절의 앤소리지를 패턴에 담아 투박함이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신란한 근대감각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고찰이 인간의식의 심저에 깔린 자랄구태한 미적감각을 좇어도 무진장 흠어진 그보다 더한 예술적 미의식 추구를 내면 세계에서 찾으려 했음이 이 길을 걷게 된 직접 동기라 생각된다. 여기 청소년기 측면의 몇 토막 나의 생활을 솔직하게 공개하기로 한다.

X X X

어렸을 적 동네의 부인네들이나 친척들이 집에 오면 나를 보고 으레 놀려서 나는 울상이 되다가 마침내 울음보를 터뜨리는 걸 보고 울지 말라고 타이르곤 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짓들을 자주 했는지 잘 몰라도 하여튼 내가 부끄럼을 잘 타고 잘 우는 아이였음이 자명하다.

비단 그것은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러했다. 약삭빠른 동네 아이들이 그걸 모를 리 없었으므로 나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울보로 대명칭을 받게 되었고 그런 풍수의 취급을 받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려했고 항상 외로로 걸으로 돌 무렵 나의 소외의식의 무서운 싹이 그늘에서 자랐는지 모른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자연과 무척 친근케 되었다. 파아란 하늘에 걸려있는 구름이며 초연한 산을 배경으로 한 시냇물이며 흠어져 있는 바위, 숲, 산새 등 모든 사물을 신비적 대상으로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한결같이 의

인화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 웃기고 울리고 하였다. 자연뿐만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모든 동물까지도 유일한 벗이 되어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바둑이를 빼 놓을 수 없었다.

바둑이를 벗삼아 그를 베리고 뒷산으로 올라서 자연을 관조하고 시간을 보내면 일이 그 당시 나의 생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했음은 두 말할 나위 없었다. 하학시간까지 바둑이를 사슴에 매어서 어쩔 가지 못하게 한 연후 그와 같이 등산을 하던 나의 매일에 소외작업은 계속되었다.

등교하는 길은 사람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잇길을 선택하였으나 무엇보다 꺼림직한 것은 내 옆에 앉은 우악스런 여자 아이의 얼굴을 매일 대하여야 된다는 교실이 딱 질색이었다. 그때는 남녀공학이라서 어쩔 수 없었고 가끔 그녀에게 흘탕기고 해집어 들긴 내가 무섭게 미웠으나 스승의 칭찬이 나에게 쓸린 뎀 그녀는 내 앞에서 오금도 못뛰는 꼴이 가엾기까지 했다. 그 후 요 몇년 전에 안 일이지만 그녀는 결혼을 잘 해서 자가용을 굴리며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췌익 한 번 웃어보았다.

세계 제2차대전 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니까 1944년이라고 기억된다. 어른들이 모이기만 하면 걱정스런 빛으로 슬렁거렸다. 그런데 하루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하학을 하고 귀가하니 몽

때에도 아끼던 바둑이를 잃어버렸다. 그때부터 침식과 학업을 전폐하고 비통한 팔로 수권질에 올랐다. 가는 곳 아무 데고 없었으나 어느 곳에 꼭 있을 것만 같은 존재관념에 쓰다녔는지도 모른다. 역시 눈물 글썽여 돌아다니는 나를 보고서 사람들은 우는 바둑이라는 별명으로 놀려댔고 또 그런 눈총을 열두에 담을 겨를이 없는 나를 보고 어머님은 한사코 달래주는 것이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일러주지 않으니 나의 쓸모없는 방황은 계속될 수 밖에 없었던 어느 날 수소문 끝에 일본군 군납용으로 개라는 개는 모조리 잡아갔다는 끔직한 소문이다. 어안이 병병하고 어이가 없어서 울음도 멎었다. 그래도 있을만한 곳을 뒤졌으나 모두 허사였다. 그러던 다음 날 내가 살던 군청 창고에 잡아 간 개를 두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귀가 번쩍 솟았다. 어떤 두려움도 무섭도 있고 경비가 심한 사신을 월담하여 면회를 갔다. 창고문 사이로 사지와 입이 묶여 있는 바둑이를 시선으로 찾아냈다. 어떤 말할 수 없는 비통에 눈물 머금어 나를 보는 눈이 살려 달라는 애원의 빛이었을 거라, 아니면 극한상황의 살기에 차서 주인인 나를 보고 바둑바둑 이를 갈고 있을 거라 생각되었지만 별 도리 없었다.

—죽음 직전에 불타고 있는 파아란

백금의 눈빛—

안락사를 시키지 못할망정 사지를 묶어서 굶겨 죽이는 악독한 왜놈의 판로 사회에 이를 갈았다.

—그 빛을 영영 잊을 수 없어서 지금도 개를 기르지 못하는 탓이 된 건 사실이다—

그 당시 속수무책이던 마음의 갈등과 전쟁이라는 것이 융합된 컴프렉스의 착잡한 심경을 작문으로 써서 냈더니 교내에서 특등으로 당선되어 상으로 까만 운동화 한 켤레를 탔다. 기쁨보다 더 침울했다. 남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으나 나는 양심의 컴프렉스같은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신고 다니는 신이 짚으로 만든 스티커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신(계타)이었기 때문이다.

그 신을 책보통이에 싸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바로 뒷산에 가서 파묻고 달각 달각 나무신을 끌고 내려오고 있으면서 나는 니힐같은 것을 느낀 것 같다. 노을이 붉게 타는 저녁을 배경으로 어떤 부조리의 후유를 한숨으로 내뿜으면서...

중학 4학년 다닐 때까지 문예반에 가담을 해서 선배 또는 스승으로부터 시문학 수업을 하던 1950년 동란이 터졌다. 정정 하늘을 가르느 포소리 들리고 그 하늘에는 적기도 아군기도 쓰다녔다. 내가 사는 우리의 땅에서 일어난 전쟁의

쓰라린 고배를 달게 마셔야 했다. 붉은 군대에 간첩서 어쩔 수 없이 의용군을 피해야 했다. 아침에 주먹밥과 책을 끼고 산에서 살다가 밤에는 돌아오고—
 몹서리 오싹한 세월이었으나 나로서는 나대로 세상을 관조하고 자연을 방벽삼아 또한 묻혀서 시문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춘원, 영랑, 소월, 지훈, 두진, 복월, 미당의 시집을 끼고 다니며 꾸준한 습작을 했다. 오히려 그것은 차츰 엄숙하여 오는 생명의 위협 내지 공포같은 것을, 또 그런 느낌을 벗어나는 시간이기 에 그 당시 나의 시는 나의 전부였고 나의 지고한 종교였고 나의 생존의 조항이라 생각되었다. 시를 쓰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 한다. 시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때 지배적 관념이었기 더 심오한 습작을 한 것 같다.

몹서리치는 전쟁의 몹서리에서 착잡한 심연의 갈등을 누르는 오직 하나의 힘은 시에 전념으로서 얻어진 것 같다. 그런 나의 문학적 신조가 없었던들 무더운 여름 숲에 숨어서 아니면 장마 속에 거적을 두르고 우신하던 뼈아픈 고행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줄 믿는다. 절대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붉은 손에 할 썸 받지 않겠다는 그런 신념을 뜻함이다. 수복이 되어서 마음놓고 동베에 활거하니 있을만한 사람들의 익은 얼굴이 많이 없어졌다. 전쟁이 쓸고 간 뒷자리

가 너무 허전했고 마음 아팠다.

1952년 여름 나는 공군에 이등병으로 입대를 했다. 우선 병역을 마치고 대학에 다시 갈 생각에서였다. ○○서 두달의 훈련을 마치고 ○○로 갔다. 다시 비행기정비교육을 끝내고 그 자리에서 정비사로서 근무했다.

펜 대신 망치질, 종이 대신 판금질... 나의 현재까지의 문학수업은 일변했다. 새벽에 기상을 해서 저문 밤에 내무반에 오면 죽음처럼 쓰러져 갔다. 몸에 덜 배 생소한 나의 직무에 미숙했기 때 문만은 아니고 허약한 체질이 그들 감당키 어려운 반응으로 야기된 소치라 본다.

반년쯤 정비사를 하는 동안 문학수업을 해보겠다는 신념은 관철됐지만 모든 일과는 허용되지 않았다. 허나 그것은 잘못 생각이었다. 시간을 자신이 만들려고 했다. 불침번을 서면서, 외출을 동료에게 양보하면서, 수유에 얻어지는 시간을 절약해서 틈틈이 모여진 시간 그것이 무척 유용한 시간임을 자각할 즈음 ○○○전대장의 특별배려로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적성에 맞는 일이라서 무척 즐거웠다. 행정병으로서 기쁨이 앞섰기라기보다 펜과 종이를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전환점이 주요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등병으로서의 책임도 주요

하였기 가급적 직무에 충실하기로 하고
당분간 시문학은 중단하기로 했다. 전
문 장르가 아니지만 창작을 읽으며 국
문학을 곁들이기로 했다.

이것은 나의 수업을 중단함을 뜻함이
아니라 규율과 제한된 시간을 유효적절
히 활용하겠다는 뜻에서다. 그 후부터
과외에 얻어지는 모든 자율시간을 독서
로써 메꾸었다. 삼사년이 지나서 나는
삼사백권의 문학전집을 쟁그리 읽어버렸
다. 그 중에는 재독한 것도 포함되지만
대체적으로 노오트를 하여 정독을 한
셈이고 도서관에 있는 책은 물론 시내
대본점에서 빌려다가 읽었다.

측근자들은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 했
다. 자기들과의 이단자니까 물론 내가
미쳤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기배들이 허
황하게 미쳤다는 걸 나는 긍정해야 했
다. 어수선한 지금의 상황에서 무슨 독
서냐. 술이나 들고 여자나 나무고 돌아
다니자고 했으나 이 다음에 실낱 하자
고 미루고 나대로 고집대로 했으니 나
또한 항상 따돌림을 받은 건 자명하다.

어렸을 적 생각이 났다. 나는 커서도
외톨백이가 된 셈이다. 허나 시를 써야
한다. 이제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
만은 변함이 없었다. 창작독서로 얻어
진 노오트도 상당하고 차츰 시간도 많아
져서 시문학으로 다시 컴백하였다. 전
역을 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서 눌러앉기로 하였다.

× × ×

자연은 시의 영원한 대상이라 보아
왔고 또 그렇게 여겨져서 그 원대한 스
케일내에 시의 대상이 담겨졌다는 느낌
으로써 광복성과 신비성을 미사여구적
외적 찬미로, 또는 사실적 심미로, 그
형상을 철학과 사상으로 복합한 어떤
차원의 질서로 보아 왔기에 자연의 모
든 형상은 곧 시며, 시는 곧 자연 속에
파묻힌 금속같은 질서라고 생각되었으
므로 그 내면 세계에 있어서의 일체의
부조리, 갈등 그의 추구 등 현실을 부정
한 다만 심미적인 경향과 예찬으로 일
관되었던 습자가 거 얼마나 허황된 생각
이며 수박 겉핥기같은 얕은 것임을 차차
알게 되었다.

미의 의식은 사실적이며 표상적인 질
서보다 오히려 차원을 달리 한 둔화된
무형적이며 상징적인 추구로 얻어지는
쾌락이 비중의 심도가 다양하고 오래
효과가 지속되면서 함축성있는 감동을
주리라 본다. 이것이 또한 미의 본질이
라 확신한다. 그러므로 시에 대상도 이
에 병행하여 시각적인 것을 거의 도외시
하고 내면의 증의적 메타포로 도입하여
그것을 독특한 철학과 사상으로 뽑어
내는 높은 차원의 투영이 진실한 시의
영원성이며 가치성이라 본다.

시시각각으로 엄습해 오는 문명의 파
도가 저셀수록 메카니즘의 염증도 짙으
도 더하게 마련이므로 다만 그것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에 가볍게 떠 내려가면서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류에 뛰어들어서 그 파도를 헤집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면의 추구는 무섭게 진행됐지만 나는 무기력해서 아니 반신반의로 회고에 흔들려서 방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전환점에 접어들면서 내적 또는 외적 조건으로 예술의 회의같은 걸 느꼈다. 그럴수록 그 세계에서 왕성해지는 예술 말소 여론이 오히려 반기를 들게 하고 가담자로서 옹호한 것도 사실이다.

허나 예술의 보상은 무형무상의 자기 만족 또는 쾌락에 있음을 첨언 강조하고 싶다. 이런 정점에서 나의 문학수업 방향을 차차 물리며, 표상적 미의식 추구를 느슨하게 하면서 우주의 피조물로서 병을 앓으며 현실과 타협하기로 했다.

× × ×

1957년이라고 기억된다. 진주의 설창수 시인을 우연히 알게 됐다. 몇번 만나서 내 수업울 의논했더니 영남문학동인으로 호의있게 맞아주었다.

군대에서 어떻게 시를 쓰느냐고 모두들 얘기했다. 마치 자기베들은 이단 세계에서 사는 예술인입네 하는 그런 농도 깊은 인상으로 나를 받아들였다. 이럴 사회에서의 나의 수업이 안 된다는 긍정적이고 어렵다는 반문이다. 허나 그

의문에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 지금은 모르나 내 신념을 분명히 피력한 것만은 틀림 없었다.

당시 설창수 시인은 경남일보를 주필할 때라서 나의 무명작품을 신문에 여러 번 할애해 주었다. 세상에 처음으로 습작시 「적막」이 활자로 찍어서 눈에 띄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어떤 신념의 환희같은 걸 느꼈다. 그 후로 발표된 것은 「춘경」 「냉혈」 「미소와 내분설」 등 등이었다. 그때 좀 공군위클리(지금의 주간공군)에도 여러 번 발표한 것 같으나 지금은 유고가 하나도 없다.

물론 무명의 독자취급을 해준 것이 사실이나 지금 생각하면 작품 역시 형편 없었다. 모처럼 맞은 스승의 결을 떠나기 싫어서 놀리 군에 있기로 했다.

허나 그런 기쁨도 오래 가지 못하고 무명의 배를 벗기 위하여 좀더 전문작업을 퍼기로 했다. 중앙에선 무명취급을 하는 문단의 냉대가 싸늘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당시 설창수 시인은 시작업을 쉬고 본질적 기본작업을 권유했다. 그 말이 율었다. 그래서 대학에 적을 두고 철학, 미학, 심리, 시론을 국문학과 결들여서 공부하기로 하고 나의 피나는 작업은 계속되었다. 중앙에선 현대문학이 한창자라고 있을 때였다.

얼마 뒤 등단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했다고 판단하고 여러 번 응모에 투고 하였으나 번번히 낙방을 먹었다. 그 후 다시 쉬었다.

한때 문학을 걸어치우고 고시공부를 하라던 생각이 불현듯 났으나 이것 저것 건드리다 남는 것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계속을 하였으나 내 처지를 보고 딱하게 여기던 어떤 선배시인은 격려했고 그럴 때마다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고 통명스럽게 짜붙였지만 실은 밑도 끝도 없었다.

니이체의 생각이 났다. 벌이 쓰는 것은 아프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피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침식을 잃고 시를 생각했다. 몇 번 울기도 했다. 어떤 때 내가 미워져서 하늘처럼 술을 퍼마시고 미친놈으로 싸다녔다.

문학이 미지의 세계를 발굴해 내는 또는 그걸 전제로 한 학문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몸소 체험이라면 선배시인의 생각이 났다. 유가를 얻어서 거렁뱅이, 엇장수, 냉차팔이를 지면 아무도 모르게 해보았음을 지금 얼굴 붉게 솔직히 고백 안 할 수 없다. 세상의 바닥이 보일 것 같아서, 생생한 체험이 크로스업 될 것 같아서, 찬란한 그날이 빨리 올 것 같아서, 광폭한 자연의 내적 갈등의 추구를 위해서, 등단 후의 밑거름을 위해서……

그렇다. 내가 나서야 될 때를 알고 나는 미덕과 인내를 분명히 알고자 한

때문일까? 등단의 문이 아무리 요원하더라도……

중학에 다니는 우리집 큰놈이 아버지와의 대화가 있었다. 거기에 나의 내자도 합세했다. 글 쓴 끝이 무어나는 것이다. 실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프게 쓰고 고생만 시켰으니 그럴 법도 하다. 순간 아찔한 심광이 뇌리에 스쳐갔다. 할 말이 없다. 이쯤 된 대화에 거적같은 추한 모습이 드러났다. 착잡한 뉴앙스로 마음을 조아렸다.

화가이던 절친한 친구생각이 났다. 여러 번 국전에서 낙선되더니 몇년 전 타계하고 끝을 냈다. 그 친구의 심정을 심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절대로 모든 타협이 없었던 획일적 인간이었다. 절망은 스스로의 희망으로 몰아넣은 그 친구—— 좀더 참았으면 하는 것이 아쉬웠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유명세 세계에서 아성을 쌓고 아집을 하는 아류에 골몰하고 있을 그 친구——(명복을 빈다)

그런데 나는 참아서 무얼 했단 말인가. 스스로의 체적이 필요한 게 아닌가, 피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닌가, 마지막 결심을 했다. 세 겹으로 된 등단의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서기 위해서——

한 성기 시인을 찾았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정적 판가름을 하는 마지막 기로에서 습작을 했다. 무엇 때문에 야길에 빠져서 버리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지, 또한 예술무위론이 고조되는 삭막한 현실에서 구태여 해야 된다는 절대적 신념을 내 세웠는지, 하여튼 여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전술했다.

× × ×

1972년 봄이다. 청록삼가의 일가인 박 두진 시인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한 성기 시인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작품을 인정하여 현대시학 6월호로서 처녀시 「피리」가 초회 추천을 받았다. 다음과 같은 뜨거운 추천서와 함께……

두 번째의 추천작품은 「산여울」이다. 천자의 천사를 옮겨 본다.

지 광현씨의 시적 성격은 같은 서정시이면서도 그 소재의 용해도나 주제화에 있어서 일종의 서정적 서정시나 서정적 서정시의 풍모를 띠고 있다. 거기에 결들인 인생시적 배면이 부드럽고 안정된 소박한 향토성, 전원성과 어울려 어떤 중도적 온건성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대상을 자기화해서 하나의 주제적 서정성으로 표상하는데 알맞는 언어의 질적 조절과 음조적 배려가 착실하면서도 섬세하다. 바닥에 깔린 시적 페이스는 바로 표현과 작시자의 이러한 내적 관련성의 밀도를 말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생략).

동지 9월호로서 「벼랑」이란 작품으로 추천이 완료됐다. 20여년의 긴 한숨을

물어 쉬었다. 너무 허전했다. 긴 세월의 고생보다 탁 트인 문이 자꾸만 돌아다 본다. 하지만 천자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어긋나지 않는 작품의 보답을 할 작정이다. 이 글을 읽은 독자에게도—— 그리고, 다만 이 글은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동료나 후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고, 불굴의 의지의 극복력은 굳은 신념 속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나의 등단소감을 끝으로 한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조금은 얼떨떨합니다. 먼저 당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께서는 왜 늦었느냐고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려서 앓고 있는 내 머리맡에서 나보다 더 앓고 계시던 모습, 한 동안 잊어버렸던 당신의 얼굴이 커다랗게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달빛과 당신의 얼굴을 요즘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계시지 않아 더 확실한 모습… 부재와 실제의 거리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바람에 슬러서 보이지 않는 당신의 위치……. 그 위치가 어떤 것보다 똑똑하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죽어서나 풀릴 것 같은 이 열병……. 내친 걸음 돌이킬 수 없어 가끔 한눈을 팔아 허둥거릴 때마다 더 또랑 또랑 말썽 알려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거침없이 나서 볼 생각입니다(중략).

군종
코오너

공군본부 군종감실 제공

통일을 앞둔 종교인들에게

박 용 목

<군산 감리교회 목사>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혼란에 기되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Radically Society)」요 「폭발적 변화의 사회(Violent Change of Society)」다.

이것은 현대의 급진하는 과학의 발전과 그로 인해 생기는 가공할만한 생활의 변화에서 우리는 실감할 수 있고, 또 국내외의 정치적인 상황의 흐름에서도 느낄 수 있다. 7.4 남북의 공동성명 이후 우리나라도 세계정치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종래의 반공교육도 수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화없는 대결에서 대화있는 대결로, 맹목적인 정치대결에서 차원높은 승공대결의 자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지난번 평양과 서울에서의 적십자 회담도 그런 면에서 하나의 변화된 통일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한국 적십자 수석대표 이 범석씨의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종교적인 기원을 덧붙인 간곡한 말에 비해 북한대표단의 정치적인 선전과 획일적인 언행은 우리에게 진정한 통일을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다. 보다 더 간절한 종교적인 기원과 성실한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범석 수석대표의 인사가 그의 염원을 이룩하도록 온 국민에게 한결같이 종교인의 자세로 기도해 주기 바란다

는 말은 곧 우리 5천만 겨레의 소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종교에 대한 참된 이해와 보다 올바른 종교인의 자세라 할 것이다. 종교란 한 마디로 말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이며, 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알고, 인간이 신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디트리히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옥중서간 중 「반항과 복종(Widerstand und. Ergebung)」에 의하면 종교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오셨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케 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다고 했다.

그는 부연해서 말하기를 나는 종교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유대율법대로 하면 의당 단식해야 하는 안식일에 밀이삭을 후벼 흙에 먹는 것을 옹호한 예수님의 말씀, 안식일에 롬통에 빠진 양을 구해내면서 하신 말씀들을 비롯해서 종교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교훈하신 예는 성경에 너무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일 대다수의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마치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개인의 생활을 통제하려 한다. 따라서 많은 교인들이 강요된 이중생활을 해야만 하고 강제된 이중성격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돌파구를 마련해 준 이가 바로 본회퍼이다. 그는 기독교는 종교의 카메코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구원이라고 했다. 그는 죽음을 부활로 해결해주고 병자를 안찰해주고 마음의 고통을 기도로 가볍게 해주는 따위의 요술장이 종교를 배격했다. 인간이 약해졌을 때 “Vitamin” Tablet를 찾듯이 찾는 그런 따위의 하나님을 그는 부인한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그런 따위의 신이나 교회를 의지하고 살던 유소년기를 넘어서서 당당히 자립한 성인기에 들어섰다고 했다.

종교란 실로 인류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모든 문화 역사도 종교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 후자는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의 생활이 안정되면 종교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과학이 가장 발달되고 경제 생활이 풍부해지는 오늘날 세계의 종교인 수는 줄지 아니 하고 더욱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히틀러나 스탈린은 종교를 말살할 수 있는듯 생각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날로 승할 뿐이다. 위대한 과

학자들은 인간의 제한성과 종교의 참의미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 또는 위대한 문인들이 하나님을 긍정하고 무신론자들까지도 결국 신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략 정의를 내리고 꿈에도 잊지 못할 남북통일이라는 겨레들의 숙제를 앞에 놓고 우리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몇 마디 말하련다.

첫째로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 해마다 봄이 오면 애립녹화운동을 전개하여 식수를 한다. 일찌기 이 사람이 공군군목으로 복무할 때 제주도 "사이트"에서 복무하는 공군장병들을 위로하며 도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차 군용기로 제주도 여행을 한 일이 있었다. 그 때에 기상에서 호남지역 산을 내려다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다. 마치 원숭이 랑문처럼 산마다 봉우리가 빨갛게 된 것이 눈에 띄었다. 사람들이 나무를 남벌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대학(大學)에 나타난 인(仁)을 풀이할 때 초목(草木)이 꺾어짐을 보고는 반드시 애뜻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나니 이는 그 인(仁)이 초목으로 더불어 일체됨이라 했다. 과연 옳은 말이다. 옛날 성인들은 한 그루 나무를

대할 때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 근일 우리들이 산의 나무를 남벌하여 지난 8월 하순경에 경기, 강원, 충청, 서울 등 각지에서 홍수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의 피해와 막대한 물질적인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양명(陽明)은 사람이 인(仁)을 생활화 함으로써 사람이 천지만물과 합일이 된다고 했다. 공자(孔子)는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라 했는데 즉 이 뜻은 자신이 서려고 하는 데에 남도 세울 것이요, 자신이 달하려고 할 때에 남도 달하게 된다 했다. 중용(中庸)에서는 "成己"이라야 "成物"이 된다고 했다. 맹자(孟子)는 "先知覺後知, 先覺覺後覺"이라고 하였다. 이 말의 뜻은 선지자가 후지자를 깨우치고 선각자가 후각자를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옳은 말이다. 근일 우리 주위에서 대인 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고 결심한 동료들이 이해득실의 관계로 하루 아침에 원수가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통탄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인의 금지를 갖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될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성장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느낄수록 성장의 용량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다만

성장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성장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만약 우리들이 생활하는 모든 부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들은 남을 비난하고 책하기 이전에 자신을 엄격히 책하자는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들의 생활에서 거짓을 없애야 하겠다. 즉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매사에 책임을 지는 생활이다. 민주 사회의 특징은 「책임의식(Responsibility)」을 갖고 행동한다. 맹자가 제선왕(齊宣王)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왕의 신하 중의 한 사람이 그 처자를 벗에게 맡기고 초(楚)나라에 갔다 왔다. 집에 와보니 그의 처자가 얼고 굶주리고 있었다. 이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 신의가 없는 벗은 절교하라고 했다. 또한 문기를 「사사(士師)」 즉 오늘로 말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인데 그가 법을 잘 집행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 파면하라고 했다. 맹자는 또한 문기를 「사경(四境)」지내 불능치면 어찌 하리까 하니 왕이 좌우를 돌아보고 말을 피하였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이다.

금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진 것

은 예의없이 모두 거짓에서 와 진 것이다. 가짜상품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짜학생 가짜군인 가짜기자 가짜형사 가짜법관 심지어는 인간개조사업을 말고 종사하는 교육가, 종교인 중에도 가짜가 수두룩한 형편이니 어떻게 이 나라가 전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겠는가. 한 가정도 행복하려면 서로 믿어야 한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그런 가정은 행복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상하가 서로 속이고 서로 의심하는 가운데 국가사회는 시들어만 가고 각개국민은 허덕이는 것이다. 옛날 “주문공(周文公)”이 통치할 때에는 백성들이 밤에도 대문을 닫지 않았다고 하며 본의 아닌 죄과를 범하는 죄인에게도 땅을 그어서 「옥(獄)」을 삼았다는 것을 보아서 과연 얼마나 서로 믿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도 서구 사회의 복지국가에서 들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사는 것은 물론이요, 「벤마크」같은 나라에서는 공원의 새들이 손님들의 손바닥에서 모이를 먹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과 동물사이에도 서로 믿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보더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깨끗이 거짓을 청산하고 참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리고 서로 믿고 사는데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국민정신에서

거짓을 없애고 참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선 부정부패의 근절책으로 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첩경이기도 하다. 그것은 공산주의 자체가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사상이요, 무산계급을 기만하는 거짓사상인만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발양시켜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사는 참생활 앞에는 거어 무릎을 꿇고야 말 것이다. 급변 서울 남북한적십자회담 개최하는 자리에서 우리 남한대표로 축하한 김 옥길 이산가족대표연설이나 김 준엽자문위원연설의 내용은 한결같이 인도주의적 적십자정신 밑에서 회담이 성공될 것을 바란다고 했는데 비해 북한적십자측 윤 기복 자문위원이나 재일조련대표 김 병직은 스스로의 정치체제를 찬양하고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투의 정치연설로 일관했으며 정치선전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 광경을 취재하던 외국기자들까지 아연실색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았다. 그들의 저의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확인했다.

세계로는 총동원 협조하는 정성을 함양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파벌의식을 청산해야 겠다. 파벌의식이 가장 발달한 족속이 우리 한국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안 불행한 운명 속에서 헤매었다는 사실이다. 이 파벌의식을 조성하는 몇 가지 요소를 든다면 지연(地緣)을 같이 하는 동향관계, 혈연(血緣)을 같이 하는 친족관계, 학업을 같이한 동창관계, 사상과 행동을 같이 하는 동지관계, 이런 것들이다. 이것이 무슨 인위적인 사익한 심정이 아니요, 차라리 인간의 상정이요, 자연한 취세인줄 안다. 그리하여 서로 고락을 같이 하면서 상부상조하는 생활은 의당 있어야 할 것이며 조금도 국가사회에 해독도 끼칠 까닭도 없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해독을 끼친 것은 그것을 악용해서 상대측이나 국가사회를 쪼먹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망국적 근성으로 되어진 것 뿐이다. 인간성 가운데는 이기가 좋아하고 자기 싫어하는 경쟁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을 근절시키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그것이 인의 본성에 뿌리를 박고 있기때문이다. 그런만큼 이것을 육성시켜 선용하게 되면 이것은 도리어 없는 것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내 그룹에서 만든 것, 내가 제안한 것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버리자. 안 되는 것이 밖의 것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가 안 되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생각이다. 바울선생은 말하기

를 마음을 같이해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이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마음을 가질라고 했다.

결론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모든 문제의 중심요소는 이 민족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열쇠는 누가 가졌나 하면 다른이가 아니라 곧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다. 「행2: 17」 즉 이 말씀은 내일을 약속한다는 뜻이다. 환언하면

목적의 이익에 흡족하는 민족에게 갈복 표를 지시해줄 책임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신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영구적인 사업이요, 우리들의 의무인 것이다. 미국 뉴욕에 있는 "Mahatan"섬은 폭이 20km이며 길이가 50km인데 1626년에 홍인종의 한 사람이 화란인에게 27\$을 받고 팔았다. 그 당시 이 섬은 한낱 바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금일 이 섬은 전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되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치솟고 있지 않은가. 많은 건물이 부동산의 반석 위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복의 동포들에게 하루 속히 전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겠다.

□ 박대통령 말씀 중에서 □

○ 참으로 위대한 창조는 위대한 진통에서만 가능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위대한 창조를 위하여 위대한 진통을 감당할만한 이상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다.

○ 자주(自主)! 그것은 오직 자주경제라는 그물 이외에 잡을 그물이 없는 것이다.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나의 입산 수도기

이 인 수 <본부 법사>



법주사(法住寺)의 황혼은 고요에 묻혀 낙엽과 함께 질어가고 있었다. 여름에는 그리도 무성했을 보리수 잎들이 낙엽으로 뒹굴고 5층 목탑인 팔상전(捌相殿) 추녀 밑에 매달린 풍경은 집착을 여의고 고독한 일생을 살아가는 사문(沙門=승려)의 모습처럼 고고(孤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자비로운듯 엄숙하고 쓸쓸한듯 포근하며, 공허한듯 해맑은」 절간의 분위기는 번거로운 사파세계에서 때 묻은 중생의 마음을 제도하고 오랜 정신적 방황에 지친 길손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차단기(遮斷機)가 되어 다시 한번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고 확고한 결심을 갖도록 깨우쳐주는 것 같았다.

입산수도(入山修道)란 인간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일시적 감정이나 순간적 기분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것인데 나는 지금 사춘기 소년같은 들

뜰 감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행생활을 결심한 것은 아닌지 회의와 의문 속에서 절간을 거닐고 있었다.

『앵그렁—앵그렁』

고요를 깨는 풍경소리를 내며 스치는 초겨울 바람이 마지막 한 잎 남은 애처로운 고엽(枯葉)을 떨어뜨려 내 발 밑에 날려보냈다.

일체의 만물은 유정무정(有情無情)을 가릴 것 없이 시시각각 변화하여 생기는 그 순간부터 늙어가며 병들어 신음하다 방금 떨어진 낙엽처럼 마침내는 어두운 죽음의 세계로 몰입되는 것.

이렇게 언젠가 한번 죽음의 세계로 굴러 떨어지면 평생을 두고 애지중지하던 그 모든 것들도 아무 필요가 없는 일체는 허무로 돌아가 그야말로 한바탕의 허망하고 긴 꿈이 인생의 실상이니 이 허무하고 쓸쓸한 인생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에 이르는 번뇌의 긴 행진인데 어찌 허랑방탕하게 세월의

흐름을 덧없이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인생 칠십 고래회(人生七十古來稀)란 찰라의 삶이지만.

이동안 무엇인가 뜻있고 보람된 생활, 진실하고 영원한 인생을 깨치고 사는 것이 참 인간다운 삶이요, 가치있는 인생을 살리는 인간의 도표인 것이다.

이런 보람된 인생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주체인 자아(自我)를 완성하고 높은 인격을 형성시켜야만 한다.

자아완성과 인격형성은 내면적인 번뇌, 망상을 극복하고 수양의 덕을 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산수행을 하자.

내 인생의 도정을 가장 똑바로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지름길은 불타의 너무나도 인간적인, 인간을 위한 고귀한 가르침을 통한 수도가 제일 완전할 것이다.

「생겨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어 없어지고야 마는 것이요. 한 방울의 물거품이 생겨났다 해서 물은 많아지지 않고 한 방울의 물이 없어졌다 해서 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 처럼, 태어남과 죽음, 즉 생사(生死)란 본래 허황한 꿈이요, 물거품같은 것이니 이 이치를 확연히 깨달아 생(生)과 사(死)를 초월하고 인간의 본체적 생명인 자아를 완성하면

영원한 마음의 안정을 얻어 해탈의 즐거움에 안주할 것이요.

그러므로 해탈을 얻을 때까지의 과정을 수도라 하고, 수도가 성취되어 자아와 우주의 심원한 진리를 깨달은 자를 「불타」라 하오.

젊은이의 고민은 젊은이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주지도 않소.

자아와 죽음에 대한 회의는 자기 극복을 위한 수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요. 그리고 꼭 입산수도만이 최선의 길이 아니요. 얼마나 자신의 내면 수양의 선택이 길이나 하는 순 주관적인 것이요.

그러나 젊은이, 산에서 사는데 자기 완성을 위해 더 편리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서슴없이 찾아오시오.

우리 「불타」의 거룩한 가르침 속에는 어떤 류의 사람이든 마음이 가난하고 불안한 사람은 언제든지 입산하여 해탈을 위한 내면 수양을 할 수 있도록 범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깐요……」

독실한 불교신도인 어머님께서 초경한 범주사에 계신다는 고명한 스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녹음기처럼 내 머리 속에서 기억의 테이프를 돌리고 있었다.

「자, 이제 다 왔어」

「잠깐 기다리게」

짧직한 목소리가 갖가지 생각에 잠겨 뒤따라 온 내 귓전에 들려왔다.

나는 법주사 일주문으로 들어선 후로 팔둘히 내 생각에 잠겨 있었기에 흘깃 놀랐다.

「젊은이 들어오게」

어느새 먼저 들어간 스님이 방문을 열고 가볍게 손짓해 보였다.

나는 향긋한 향내음이 은은하게 코에 스며드는 총무스님 방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오는 도중 안내하던 스님한테 배운대로 큰절을 세번 해 올리고 바르게 앉았다.

회색 옷을 깨끗하게 다려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는 스님을 살며시 훑쳐보았다.

얼굴의 주름살은 역력했으나 빈틈없는 몸가짐은 거센 풍량과 싸워 이긴 노련한 뱃사공처럼 보였다.

연문을 가리키는 주름살은 스님의 수도생활이 원숙한 경지에 이른듯 보였고 철산이라도 단숨에 뚫을 것 같은 안광(眼光)은 세속적인 인격이나 지성(知性) 이상의 고귀한 것이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나는 눈길을 피해 방안을 훑어 보았다.

벽지를 대신하여 창호지를 말끔히 바른 뽀오얀 벽과 벽에 걸린 장삼과 가사, 맞은 편에는 인상이 험상궂게 보이는 스

님의 초상화가 족자에 끼워 걸려 있었다. 사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단조로운 방이었다.

「스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음 그래, 지책수좌 수고 많았군」

「젊은이, 이 못난 사문생활은 뭇하려고 왔소.」

소개를 받은 총무스님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나에게 입산동기부터 물으셨다.

「네, 좀 더 진실하고 영원한 인생을 얻기 위해 참된 자아를 완성하려고…」

「진실하고 영원한 인생을 위해…」

내 입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는 「진실」이니 「영원」이니 하는 감상에 젖은 듯한 사치한 단어를 들은 스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 말을 가냘프게 되풀이 의우셨다.

「……말 하기는 쉽고 좋은 소리지. 그런데 젊은이는 어떤 것이 진실이고 무엇이 영원인지 알고 있는가?」

「그야 거짓이 없음이 진실이요, 시간 관념을 초월한 것이 영원이죠.」

「말머리를 모르는 구면,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논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 「영원」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 아느냐고 물어본 걸세. 알겠나?」

「스님의 눈은 광채를 띄며 입가엔 아

까와는 달리 차가운 웃음이 번졌다.

「그걸 어떻게……」

「알지 못하면서 진실이니 영원이니 하고 함부로 말하오?」

폐부를 찌르는듯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혀 당황해 졌다.

이마엔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젊은이, 진실이나 영원은 범부중생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나 인식의 대상은 아니네. 더 높고 심원한 곳, 아니 진실로 극히 평범하고 범속한 곳에서 찾을 수 있지. 중생의 눈과 귀가 병들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게 허물일 뿐이야. 번뇌망상의 병만 완치되면 거저 속에서도 진실을, 찰라 속에서도 영원을 발견할 수 있지. 그러나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

스님은 깊은 탄식의 한숨을 쉬셨다.

「스님,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수도라는 약을 복용해야지.」

「스님, 허락해 주십시오. 입산수도 할 수 있도록…… 간절한 소원입니다. 스님.」

「입산수도란 허락이 필요 없어. 누구든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스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감사했다.

「감사하긴…… 자네의 결심이 고마우네. 스님노릇은 어렵다면 죽는 것보다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든 진실하고 영원한 인생을 얻으려면 한 번은 치뤄야 할 홍역이니까?」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은 유형적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는 것 즉 먹물옷 입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무형적 마음의 속세를 등지고 진실한 영원의 자아(自我)로 입산하는 출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마음의 출가는 복잡한 수속 절차가 필요없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만 이런 형식은 편리하고 바르고, 빠른 길이라는 것 뿐이야.

젊은이가 원하는 진실하고 영원한 인생에 가까와지려면 수없이 새로운 마음의 출가가 될 때까지 유형무형의 입산술 해야 되네.」

「명심하겠습니다.」

「잘 해 보게나……」

노스님은 대견함과 근심스러움이 엇갈린 표정을 지으며 신상이나 과거에 관한 조금의 질문도 없이 간단한 점진 끝에 입산수도를 허락해 주셨다.

나는 스님의 잔잔한 웃음이 스며있는 해맑은 얼굴을 그려보며 사리각(舍利閣)을 물러나와 중무소에 가서 필요한

수속절차를 마치고 이날부터 「절 집안」 생활을 시작하였다.

행자(行者) 생활

행자생활의 제1과는 우선 절 풍속을 익히고 불교식 행동거취를 배우는 데서 부터 시작되었다.

스님들에게 대하는 인사법, 도량(道場)을 다니는 법, 합장하는 법 등 까다로운 이조 봉건시대의 예의처럼 어려웠다. 후원(後院)에는 대어섯명의 동료행자가 있었지만 불임성이 없는 나는 얼 굴도 익히지 못한 터라 눈치로만 따라가 러니 행동이 여간 우스꽝스런게 아니었다. 보기가 막했던지 나눌께 되던 날 혜철스님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 친절하게 어색한 행동을 고쳐주러 오셨다.

「힘들지요. 불교는 아직 조직적인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여러가지로 초심자들은 어리둥절하게 되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시작한 스님은 하나 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었다.行者생활을 어떻게 하면 보람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자상하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스님은 부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나를 데리고 법당으로 갔다.

법당 안에는 일체 중생의 고난을 자비로 접수하시는 금빛 가사(袈裟)를 걸친

부처님의 거룩한 상(像)이 인자하게 미소짓고 계셨다. 혜철스님은 촛불을 밝히고 향(香)을 피운 다음 부처님께 예배하는 뜻과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부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나무토막이나 흙으로 만든 조각상을 숭배하는 이른바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의 진리의 당체 즉 나(我) 속에 내재해 있는 마음부처에 귀의하는 의미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아로 돌아가는 성스런 종교적 신앙행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촛불, 악취나는 마음을 향기롭게 하는 향내음, 더러운 마음을 맑게 하는 청수(淸水)를 올리는 것도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季)행자에게 새로운 이 술한 풍물이나 의식은 보다 진리를 갈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상징하는 표상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은……」하며 혜철스님이 먼저 합장하고 불교식으로 세번 예배를 해 보였다. 나도 스님이 하는대로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세번 공손히 절을 했다.

「나의 영원한 스승 불타여! 불타여!」한 점의 사심(私心)없는 바로 깨끗한 마음의 부르짖음이었다.

절에 들어와 정식으로 자격 있는 승려가 되기 전, 이년가람 승려가 되기 위한 예비수련의 행자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육체적으로 고달프기 짝이 없는 나날을 보내야 한다. 독신으로 평생을 불문(佛門)에 몸바쳐야 할 승려는 남자가 하는 일이든, 여자가 하는 일이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술, 이룰대면 빨래하고 바느질하며 밥 짓고 반찬 만드는 것 등을 다 습득하여야 한다. 옛날 중국에서는 집 짓는 법까지 다 배웠다고 하니 자격을 갖추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알 수 있다.

또 절 생활이란 개개인이 모인 공동집단이어서 각자가 역할에 맞는 책임을 맡아 대중에게 봉사하게 되는데 행자들은 기초수련을 쌓는 동안 공양주(밥 짓는 직책)나 채공(반찬 만드는 직책) 등 대개 많은 육체적 노역을 요구하는 한 소임을 맡게 된다. 초년 수도생이 이런 직책을 맡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든지 아만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그 아만은 수도생활에 백해무익한 것이다. 속은 텅텅 비고 걸만 번드레한 못된 성깔은 천한(결코 천한 직책은 아니지만) 소임을 맡아봄으로써 나는 아직 보잘것 없는 인간임을 인식시켜 쓸모없는 아만을 없애자는 뜻에서 세속에서 제아무리 고귀한 직책을 가졌어도 수도생활은 처

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행인 것이다.

나는 처음에 공양주(밥 짓는 일)를 맡았다. 그때까지 80여명의 식구를 위해 하루 세번 더운 밥을 짓고 돌을 가리고 씻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어느 정도 각오는 돼 있어 정신적인 고충은 별로 없었지만 밥을 하다가 배우거나 돌이 나올 때 노스님들로부터 견책을 당할 때는 웬지 눈물이 핑돌곤 하였다. 신세가 가련해서도 아니었다. 이런 과정을 밟아온 노스님들의 고통을 나의 행복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날에 대한 깊은 반성의 눈물이었다. 나의 종교적 신앙의 정열은 이런 공양주의 고달픈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열도를 더해갔다. 값싼 「휴머니티」라기엔 너무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려나오는 심부였던 것이다. 법주사에는 산중에 8암자가 있다. 그 가운데 복천암이라는 암자는 속리산을 오르내리는 산마루턱의 첫암자이며 누구든지 이 암자를 들리는 사람이면 복천암 특유의 약수를 한모금 마시기 마련이었다.

이곳은 또 이조, 세조대왕이 등장으로 수양하던 곳으로 약수로서 병을 나눌 수 있게 하리만큼 범당 밑 바위 틈에서 나는 물은 담 흘리는 나그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약

수압자로 이름나 있다.

바람이 얼마나 찬지 코 끝을 빨갱게 하는 추운 겨울에 영하 19°~21°C로 수온주가 내려가는 추위는 김치 속에 손을 넣으면 뼈 속까지 저려오는 차가움은 차라리 전기고문을 당하는 것 이상의 고통이었다. 콧물이 코끝에 고드름으로 얼어붙어도 체공인 나는 휴식할 시간도 없이 매일같이 바빴다. 어디서 힘이 나는지 가혹하리만큼 많은 분량의 책임을 수행해도 별다른 피로가 오지 않으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즐거운 고통은 생활에 희열마저 느끼는 것 같았다. 경초가 다가오자 절에서는 떡도 하고 엿도 고우느라고 행자들은 눈코를 사이없이 바빴다. 우리는 별좌(別座, 후원의 총책임자)스님의 가르침을 받아가며 몇몇은 암자로 떡방아를 찧으러 가고 나머지는 채소류이긴 하지만 반찬을 정성스럽게 작만하기로 했는데 나는 체공이기 때문에 반찬 준비하는 행자들과 함께 설맞이 차비를 하였다. 두부도 부치고 빈대떡도 지지며 있는 숨씨 다 탈취하는 후원은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꼭 무슨 잔치집과도 같이 흥정됐다. 너무 시간에 쫓겨 고민할 겨를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같았다. 우리는 밤 9시 취침시간이 되어도 자지 못하고 새벽 1

시까지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야 겨우 몸을 쉴 수가 있었다. 행자들 실에 들어서니 저절로 팔다리가 맥이 빠지고 눈이 스스로 감졌다. 나는 새벽 3시에 예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쏟아지는 수면의 상태에는 어쩔 수 없이 혼수상태같은 잠 속에 빠져 들어갔다. 얼마나 지났는지 누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나는 앓자 예불을 해야지 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안을 한번 둘러보니 모두들 이불도 덮지않고 제멋대로 떨어져서 깊은 잠에 취해 있었다. 나를 먼저 깨운 것은 늦게까지 같이 일할 한 별좌스님이었다. 나는 부랴부랴 잠에 떨어진 행자들을 깨웠으나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별좌스님 소리들을 질렀다. 「야, 인식들아, 여기가 여관방인줄 아나. 빨리 일어나, 예불도 안 하고 이게 뭐냐? 빨리 일어나 빨리.」

그리고 보니 벌써 새벽예불이 끝난 모양이었다. 방이 정 울리는 호통소리에 행자들은 눈을 부미고 부시시 일어났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상태로 어찌 중노릇을 해, 빨리 빨리 일어나서 범당으로 와. 3천배 참회야. 빨리 서둘러.」

성질이 워낙 고약한 스님이라 한번 성질이 나면 물 불을 가리지 않는 별좌스님이라 지시대로 우리는 범당 쪽으로

갔다. 범당엔 방금 예불이 끝나서 그런지 향내음이 은은했다.

「스님, 아침공양을 지어야 하는데…」
별을 받으면서도, 어느 행자가 걱정을 했다.

「필요없어. 예불도 안 하는 녀석들의 밥을 먹느니 굶는게 낫지. 너희들이 안 하면 큰방 스님들이 나와서 해도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께 절을 삼천번 하는 별을 정월 초하룻날부터 받게 되었다. 이것이 별이 아니고 부처님께 삼천배로 세배를 올린다고 자위하면서 하루종일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절을 했다.

그러나 말이 쉬워 삼천번이지 허벅지에 스며오는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스님들은 번갈아 위엄 있는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밤새껏 스님들을 위해 일을 하고 피로 때문에 새벽 예불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정월 초하룻날 삼천배씩이나 참회를 시켜도 한 마디 변명도 없이 별을 받는다는 것은 승려사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진풍경이라 하겠다.

사람은 누구든지 밥을 먹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실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그런 뜻에서 곡식을 만드는 농부나 밥을 짓는 식모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다. 그런데도 이

상하게 사람들은 농부나 식모의 고마움에 대한 감사나 존경보다는 툭스럽게 하대하는게 오늘의 실정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가치관이 전도될 사회의 부조리한 일면인 것이다. 그런데 절 풍속에서는 이 거꾸로 된 가치관을 바로잡기나 하려는 듯, 식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가 밥을 짓는 공양주 생활 3개월, 반찬 만드는 채공 3개월을 수료하고 국 끓이는 경두를 할 때 배운 음식물에 대한 감사의 정신은 참으로 존귀한 것이었다. 스님들은 대개의 경우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신도들의 정성어린 시주로 양식을 하는데 백여명이 먹는 그 많은 쌀을 씻을 때에도 쌀알이 한 톨이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함은 물론 쌀을 씻기 전에 식구 수를 정확히 헤아려 쌀을 내며, 밥을 하루 세번씩 꼭 시간을 맞춰 먹고 먹고 난 다음엔 남거나 모자라도 알아야 하며, 그릇에 묻은 밥티 하나까지도 이 쌀알 하나가 입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러 사람이 끼친 수고로운 공덕을 생각하고 다 씻어먹는 등 그 철저함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것이다. 공양주에 대한 인식도 세속에서의 식모와 같지 않고 복(福)을 짓는 소임이라 하여 어떤 스님들은 일부러 마음도 쉬고 공덕도 쌓을겸 공양주를 자청하는 분도

있었다. 그런 중에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밥 먹는 대중에 백서명이나 되니 밥도 팔(鬻)밥을 해야 하는데 시간 맞춰서 해야 되고 돌 하나 들어가도 큰일이 나니 밥만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거기다가 노스님네는 밥을 질게 하라고 하고 짧은 스님네는 되게 하라고 부탁하니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골치를 앓는 것은 공양주인 것이다. 그런데 이 공양주의 고민을 잘 이해해 주시는 노스님이 한 분 계셨다. 매일 대중공양이 끝나면 후원 공양주를 찾아 누룽지를 얻으려 나오는 누더기를 입은 화옹이란 범명을 가진 뒷방에 한거하는 노스님이 었다.

이 스님은 젊어서 일본의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뜻한 바 있어 입산한 후 평생을 청렴강직하게 사신 스님으로 행력이나 지도자적 역량이 있으면서도 명리엔 야예 뜻이 없으신지 조용하게 법주사 뒷방에서 누더기 한 벌을 재산으로 누룽지나 얻어 잡수시며 절에 처음 들어온 어린 행자들과 어울리시길 좋아 하는 분이였다. 그러나 인품이나 성정은 대쪽같이 누구든 그 앞에선 고개를 숙이곤 하였다. 속리산 중에 눈푸른 스님은 경업대 남쪽스님과 큰절의 화옹스님 뿐이라며 모든 대중에게 존경받는

스님이였다. 내가 공양주를 하게 되자 스님과 나는 누룽지 때문에 심심치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나는 무엇이든 모르는 것은 스님께 묻고 스님은 그때마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 목소리도 걸직하지만 얘기도 구수하고 알맹이 있는 소리만 하여 스님과의 대화는 여간 유익한게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날 스님은 불쑥 「참 공양주 이름이 뭐지?」 누룽지를 우물거리시며 물었다.

「예 오얏이(李)자 어질인(仁)자, 목숨수(壽)자 이인수입니다.」

「내가 묻는 행자의 이름은 그런 뜻이 아냐, 그까짓 이인수야 나한테 붙이면 내 이름이 되고 개똥이한테 붙이면 개똥이 이름이 되는 지칭에 불과한 것이지만 내가 묻는 건 이인수의 본래 이름이 무엇인가?」

스님은 계속 누룽지를 우물거리며 찻긱다고 해야 할지 자비스럽다고 해야 할지 분간하기 힘든 얼굴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 보았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 고개만 숙였다.

「인수행자」

「네」

「이런 바보, 부르면 대답하는 늬이 바로 이인수네 그래 뭐가 어렵다고 병

어리처럼 대답 못하누? 자넨 이름도 모르는 맹추인가?」 화옹 스님은 누봉지를 꿰뚫어 삼키더니 진귀한 법문(法門)을 시작하였다. 「스님이 되는 공부란 책을 읽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깨달아 어두운 마음을 지혜의 등불로 밝히는게 더 중요하네. 수도란 바로 자신의 깨끗한 심성(心性)을 깨닫는 것을 뜻하는 걸세. 항상 의심해 보게. 밤먹고, 잠자고, 기쁘고, 성내고, 춥고, 더운 줄 아는 바로 그놈이 어떤 것인가를…… 물론 이인수일테지. 그러나 이인수일테지 하고 생각하는 그놈은 또 어떤 놈인가? 이인수라고 부르는 그놈, 불리는 상대의 이인수가 돌인가 하나인가? 이 관계를 알면 그가 곧 부처고 도인이야. 잘 안다는 생각도 없이 잘 아는 것을 반야(般若) 즉 지혜라고

하지…」

스님은 오랫동안 알아듣기 쉽게 여러 가지 교리를 설명하신 다음 뒷방으로 돌아가셨다. 나는 장승처럼 우두커니 서서 스님의 알듯 모를듯한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던 말인가? 내가 내 자신도 모르면서 어떻게 진실과 영원을 알 수 있던 말인가?」 나, 나란 무엇이길래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고독해야 하고 회의하는가? 나, 나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스님의 청훈(靑訓)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정신적 세계를 눈뜨게 하는 밝은 빛과 같았다.

그러나 역시 수도는 힘든 것이었다.

정신력으로 육체를 이끌어 나간다고 보다는 육체적 교량이 정신을 좌우하는 게 나의 빈약한 수도생활이었다.

□ 박 대통령 말씀 중에서 □

남들이 이미 전쟁이 남기고 간 폐허 위에 번영을 이룩하고 거치른 사막을 개척하여 그 위애다가 풍요한 사회를 건설하였거니와 우리는 이 소중한 20년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실로 뼈저린 반성과 자책의 심회를 누를 길 없다. 우리는 분산되어 서로 헐뜯으며 귀중한 나날을 허송하고 있을 때, 그들은 혼연일체되어 땀을 흘렸고 우리가 소비(消費)할 때 그들은 저축을 하였으며 우리가 내일을 잊고 오늘날만 생각할 때 그들은 오늘을 굶주리며 내일을 생각했다.

—1965년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이야기 한국 교회사

이 영 현
〈예장총회 신학교 교수〉

신교를 전하기 위하여 숙고한 사람들
1874년 고종께서 집정하게 되니 그렇게도 권위를 자랑하던 대원군도 실세해야 하게 되고 개화주의에 기울어졌던 민비 일파가 정권을 잡았다. 쇠국정책을 버린 그들은 1876년 일본과 우호통상조약을 맺었다. 그래도 내정개혁은 생각도 않았기 때문에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등의 개화파 인사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일본은 이들을 이용하여 한국에 그 세력을 부식하려 하자 민비 일파는 청국에 원조를 요청했다. 1882년 군대 개편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13개월이나 밀린 급료로 주는 양곡이 품질불량에다가 그 양도 적어 불만이 크던 차에 대원군의 부채질로 난을 일으켰다.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바로 그것이다. 민비는 난을 피하고 대원군은 다시 집권하였다. 그러나 민씨 일파의 요청으로 들어온 청군에게 남치된 대원군은 청국 보정부(保定府)에 3년간 유배되고 민비는 다시 돌아왔다. 이 임오군

란 중에 공사관을 피습당한 일본은 그것을 구실삼아 1875년 9월 강화도를 침공하였다. 소위 운양호사건(雲揚號事件)인데 일본은 1876년 병자년에 강제로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상설 공사관을 설치, 이미 개항한 부산항 외에도 인천과 원산을 강제로 개항케 하고 치외법권 등을 획득했다.

뒤이어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을 서두르게 되었다. 앞서 제네랄 쉬어만(General-Shermann)호 사건과 뒤이은 미함(美艦)의 문책침공사건(辛未洋擾)에서 아무 이득도 보지 못했던 미국은 일본을 가운데 두고 한국과의 통상을 모색했으나 한국의 완강한 거부와 일본의 미온적인 주선으로 시일만 지연되고 있을 때, 이 기회를 알아차란 청국의 이홍장(李鴻章)은 미·일 친선이 그 당시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청국에 불리할 것을 염려하여 재빨리 슈펠트(Shufeldt) 제독을 친진에 초청하여 그의 주선으로 한·미

통상조약을 1882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문에는 종교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 언급도 없었다. 그 후 2~3년내로 구미제국과의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천주교 박해와 프랑스 신부 살해로 가장 감정이 나빴던 프랑스와의 우호통상조약은 1886년 6월 4일에 가서야 체결되었다.

그 조약문 중 제9조 2항에 「학습혹 교회어언문자(學習或敎諭語言文字)라는 말이 끼여 있었다. 이것은 한국이 외교경험이 미숙한 것을 틈타 프랑스가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애매한 글자로 표현하여 시인토록 한 것이다. 이선근씨는 그의 저서 한국사 최근세편에 아래와 같이 썼다.(P. 772)

이 점에 관해서 웃지 못할 실례를 제시하면 처음에 한국정부는 미국 선교사들의 학교 경영을 묵인하다가 서기 1888년에 이르러서는 조약상 명문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공사에게 통고하되 「한·미조약에는 각종 학교를 개설하여 종교의 선포를 허락한 조문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종교(즉 선교)의 전도를 허락할 수 없으니 귀 국민에게 고하여 차 규범을 준수토록 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측은 「한·불조약의 규정한 바로 미루어 포교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

다」고 주장하게 하니 한국정부는 비로소 조문의 해석 여하를 가지고 불국 정부에 항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불국 측이 「교회(敎誨)」2자를 내세워 조문 해석상 포교의 권이 있음을 끝끝내 주장하니 한국정부도 할 수 없이 인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미국과 기타의 제국은 불국과 동등으로 선교사업을 위한 교육기관을 계속 경영할 수가 있게 되니 한·불조약의 「교회」2자는 실로 이 나라의 선교사업을 통한 교육문화에 새로운 국면을 타개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교회」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외교에 어두운 한국정부로 하여금 기독교 선교의 문호를 개방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선교선교의 실체는 이 한·불조약의 「교회」에서라기 보다는 승점원 승지로서 외무아문교섭사무를 맡아보던 김옥균씨의 주선으로 일본에 주재하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마클레의 노력에 의하여 기독교 경영의 병원과 학교설립을 고종황제에게서 인정받은 데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주재 미국 성서공회 총무 헨리 루미스(Henry Loomis)가 쓴 "Friend of the East"(1925년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1882년 김옥균이 30명의 청년을 일본으로 데려와 화폐제도와 우정(郵政)공부를 시키려 후꾸자와 유기

저(福澤諭吉) 문하에 두었다. 그때 김옥균씨는 기독교를 믿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그중 두 청년이 후쿠자와씨를 떠나 쓰기지(築地)의 장로교 미션스쿨에 입학하였다. 몸씨 당황한 김옥균씨를 루미스 선교사가 초청하였다. 이때 루미스는 김옥균에게 한문 성서와 천도스원(天道溯原)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다. 김옥균은 이 책을 열심히 읽었다. 그 후 김옥균씨는 답례로 루미스 목사와 장로교 선교사 나스(Knox)를 초래했다. 이 자리에서 어느 한 사람이 5년 후에는 한국에도 복음이 전하여질 길이 열리리라고 말을 하자, 김옥균은 2~3년내에 개방되도록 힘쓰겠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그는 1884년에 선교사 입국의 허가를 받았다. 1884년 6월 26일 마클레이(Robert S. Maclay)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 때의 일을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놀랜 것은 나의 통역이 개화당을 반대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로 서울에 공공연히 들어온 것은 내가 처음이요, 내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다행히 김옥균씨가 일본에 유람했을 때에 우리 내외와 사귀었던 일이 있었는데 씨가 한국정부의 의무의 대판이었으며

로 6월 3일에 내가 한국에서 기독교 사업을 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설명한 서함을 주고 황제폐하에게 상주하여 달라고 김씨에게 청하였다. 7월 3일에 내가 다시 김씨를 방문한 즉 그가 말하기를 그 서함을 황제께서 신중히 살피시고 한국에서 병원과 학교사업을 하는 것을 깊이 환영한다고 하였다. 당시 주한 미국 공사 프트(Lucius N. Foote)씨가 1884년 9월 1일 미국 국무성에 보낸 보고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지난 7월에 동양에서 다년간 체류하면서 선교사업하는 신학박사 매클레이씨가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 목적은 할 수 있으면 교회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려는 이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 사업에 대하여는 무슨 반대가 별로 없으나 그가 떠난 후에 황제폐하의 보증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서울에서 교회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려는 지장이 없이 해출뿐 아니라 온연히 권장하시겠다고 말씀하였읍니다」(김세한 培材 80年史) 그러나 이러한 고종황제의 허락도 조정에서 정론(政論)의 일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사사로운 허락이었다. 때문에 뒷날 1889년 9월에 원두우 선교사와 헤튼박사가 서울에 학교를 세우겠다 한때 대하여 정부는 불허를 통지했다. 영어와 기하의 서양과학을 가르치

므로 왕의 백성에게 큰 이익을 주겠다고 학교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으나 불허하였던 것이다.

뒷날 알렌의사와 원두우 선교사가 가끔 언쟁을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금법을 가지고 정부의 의사와 감정을 건드리지 말자는 알렌의 태도와 그냥 밀고 나가자는 원두우 사이의 의견 차이에서였다고 짐작된다. 하지만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일하기 전에 먼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한국선교를 시작하게 되기까지의 사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1883년 일본에서 일하던 장로회 선교사 녹스(George W. Knox) 목사는 선교본부에다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서울에는 영어학교가 세워졌는데 학생이 70명이고 중국인 선생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차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가르치게 될 것이고 또 서양학문을 존중히 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동경에도 30명의 한국학생들이 모여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여러 모로 도와주고 있는데 벌써 두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독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을 위하여 일하실 분은 없습니까? 한국에 교회학교를 세우면 큰 성과를 거둘 것은 분명합니다. 두 목사

와 한 사람의 의사만 있으면 넉넉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 치료를 갈망하는 이곳 사람들을 위하여 의사에게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제물포에 한시바삐 병원을 설립해야 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4월 전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넓게 열려진 선교지에 단 세 사람의 선교사를 보낼 수 없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The foreign missionary Jan. 1884. P.336) 1884년 4월 14일 중국에서 선교하던 미국 장로회 선교사 리이드(Gildert Reid)목사는 치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본부에 보냈다.

「나는 한국에 선교사업울 한시 바삐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온 내용과 만주에서 얻은 지식에다 한국에서 직접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나의 의견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도 선교사를 처음에는 가르치는 일과 의사의 자격으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와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충분한 준비를 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 그런 선교사 두 사람을 이번 가을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이 벌써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 그들의 생활이 좋지 아니해서 서양문명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의 높고 깨끗한 사랑의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사만 하고 복을 전하는 것을 지체해서 되겠습니까? 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줄 압니다. 영국과 독일이 한국과 조약을 맺어서 그들끼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자유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사업과 영어 가르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은 문제 없으며 또 한국사람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목사 한 분과 영사를 한국에 보내서 사정을 알아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일본 선교사업을 연구하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한국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 충분히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선 그곳에 학교를 세워서 영어를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병 고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와 교사의 보수는 자담하게 하십시오"라고 일본과 중국에서 장로교, 감리교의 양교파 선교사들 그리고 이수정 등이 미국교회에 한국선교를 호소하는 글들이 연달아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다.

미국 안에서는 한국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시작을 종용하는 인사들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된 후 우리나라에서 민영익(閔泳翊)이 전권대사가 되고 서광범(徐光範) 홍영식(洪英植) 등이 수행원이 되어, 1883년 6월에 사절단으로 미국에 갔을 때 아서(Art-heur)대통령을 예방하고 서부로 횡단하는 기차 속에서, 볼티모어대학 학장 가우처(John F. Gaucher)박사를 만나게 되어 한국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가우처 박사는 한국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감리교 선교부에 2천불을 보내며 한국 선교를 호소했고 또 일본에 있는 매클레(R. S. Maclay)선교사에 편지하여 한국 선교의 가능성 여부를 현지답사하여 알려달라고 했다. 민영익은 동년 11월 27일 뉴욕에서 동경대학 교수로 있었던 한국통 그리피스(W. E. Griffis)와 만나 한국에서의 기독교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또한 기일(James S. Gale)과도 만났다. 「한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겠으나 하나님 그분은 도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고 호소를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감리교도 장로교도 한국선교를 오래동안 주저하였다. 가우처박사가 2천불을 보내면서 한국선교를 해달라고 호소했을 때 감리교 선교부의

반응은 소극적이었고 일본주재 녹스(George W. Knox)선교사와 이수정이 그렇게도 한국 선교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선교부의 반응은 매우 엇갈려 언제될 지 막연했다. 선교부 실행이사 중 엘린우드(F. N. Ellinwood)박사 같은 이는 즉각적인 선교 시작을 역설했으나 다른 이들은 몇해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반대했다. 총무이사는 장문의 해명서를 발표하여 한국 선교를 즉시 할 수 없음을 표명했다. 미국교회가 이렇게 한국이 선교지임을 확신하면서도 선교의 시작을 늦추려고 한데는 이유가 있었다.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온 후의 역사가 너무도 피어린 참혹한 수난의 자취임을 잘 알고 있었고, 1866년 병인교난 때 열두명의 불란서 신부 중 9명이나 순교자를 낸 불란서가 격노하여 불란서인 함대사령관 로즈(Pierre G. Roze)제독의 함대가 언제 한국을 침공할지 그 날자를 다루는 불안한 정세하에 선교사를 한국에 들여 보낸다는 것은 마치 쇠를 지고 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과 통상수호조약을 맺은 열강중에 오직 미국만이 영토적인 야심이 없었으므로 한·미조약 체결 이후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안타까히 여

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선교부 총무의 장문의 한국 선교의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읽은 프레데릭 마르판드(Frederick Marquand) 제단 중역이면서 선교부 이사 중 한 사람인 맥윌리엄스(Darid W. Mcwilliams)는 자기교회 목사인 엘린우드에게 그 성명서가 말하는 이유의 정당성 여부를 물다가 오리려 엘린우드의 즉각 선교역실에 공명하고 1884년 2, 4, 5월 석달 동안에 6천불을 선교부에 보내며 한국 선교의 시작을 부탁했다. 또 다른 메서도 헌금이 연달아 들어왔다. 이렇게 되자 선교부도 한국선교를 결정하고 젊고 유능한 의사 헤론(John H. Heron)을 1884년 봄에 한국 선교사로 임명하고 당분간 일본에 가 있으면서 어학을 배우고 때를 기다리게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의료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되었으나 1년간이나 적당한 임지를 얻지못하다가 한국으로 일자리를 바꾼 알렌(Horace N. Allen)박사가 누구보다 앞서 한국에 들어왔다. 알렌박사는 1858년 4월 23일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태어나서 오하이오 웨슬레이안 대학에서 B. S. 학위를 받았고 오하이오주 옥스포드 마이아미의과대학을 1883년 졸업하고 의료선교사로 동년 10월 11일 상해에 도착하여 상해와 남경 등지를 돌아다니며 적

당한 자리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던 중 상해에 있던 친구 헨더슨(Henderson) 박사의 권유로 한국에 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도 알렌은 매우 조심성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당시 한국 정부 외무아문 협관 몰렌들푸(P. G. Von Mollendorff) 밑에서 세관 사무를 보는 하스(Joseph Hass)에게 1884년 6월 6일자로 한국주재 외국인들에게 의사가 필요함을 묻고 그 결과를 6월 8일 선교본부에 알리면서 한국으로 입지를 바꾸어 주기를 요청했다. 또 선교부는 6월 22일 날자로 이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하여 알렌 박사는 1884년 9월 14일 상해를 떠나 20일 제물포에 다왔고 22일에는 서울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선교사의 신분을 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선교사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던 까닭이다. 그는 곧 미국영사관의 공의로 보수없이 일 보게 되었고 뒤이어 영국, 청국, 일본 영사관의 공의로 일하게 되었으며 또한 세관의 의사로도 수고하게 되었다. 비록 신분을 숨겨 미공사관 공의로 왔어도 그는 사사르히어 학선생 이하영(李夏榮)에게 전도하였다. 뒷날 이하영씨는 미국 와싱턴 주재 한국 대리공사로 있었다. 자연히 알렌 박사가 선교사란 소문이 떠돌게 되었다. 고종황제는 미국공사 푸트(Foote)를 소

환하여 그 여부를 물었을 때 푸트는 그는 미국을 위시한 각국 공사관 공의라 답변하여 문제를 알아있게 하였다. 이하영씨 뒤를 이어 알렌박사의 어학선생이 된 사람이 노도사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알렌박사는 노도사가 자기 책상에 있는 한문신약성서 복음서를 읽는 것을 발견했다. 들키면 목이 다라난다고 말했으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성경을 숨어 읽다가 세례를 받고 후에 감리교인이 됐다. 최초의 세례교인이었다.

갑신정변이 터지고 말았다. 일본 문물제도의 쇄신에 눈을 뜬 김옥균, 박영호,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당은 민비를 중심한 보수파의 정권 농락과 부패 타락을 참을 수 없어 우정국 피로연 자리를 이용하여 수구파 요인들을 다 암살하고 일개 혁신을 일으키려 했던 정변이다. 특히 그 중요한 대상자가 민영익이었다. 민영익은 보수파 중에도 가장 머리가 영민하고 해외 여러나라를 순방하여 개화의 사상을 가졌던 동지적 사람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돌아오자 보수정권의 권력을 놓치 못하여 돌아섰던 사람인 까닭이다. 개화당 거사는 비록 3일 천하로 끝났으나 중상일은 민영익은 서울 장안에 명희라는 14명

의 한의사들도 쏟아져 나오는 피를 멈출 수가 없어 죽게 되었을 때 볼렌돌프의 주선으로 알렌박사가 3개월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완쾌시켰다.

1885년 1월 27일 민영익은 고마움에 넘치는 편지와 함께 10만량을 보냈다. 알렌박사의 의술이 용함을 본 궁중에서는 그를 고종의 어의(御醫)로 임명했다. 그후 한국, 청국, 일본 군사들의 총돌 사건이 터져 많은 사상자를 냈을 때도 알렌박사는 힘을 다하여 치료하였다. 날마다 돌아가는 환자들을 집에서 치료하기는 너무도 힘들었으므로 1885년 1월 22일 미국 대리공사 플크(Foulk)에게 병원을 세울 계획을 말했고, 그의 주선으로 우리정부는 1885년 2월에 설립허가를 줄뿐 아니라 감신정변에 살해당한 홍영식의 집을 내주었고 이름도 광혜원(廣惠院)이라 지어주었다. 1885년 6월에 헤본박사가 와서 알렌의사를 도왔다. 1887년에 알렌박사는 의료선교에서 은퇴하여 와싱턴 주재 한국공사관 서기가 되었다가 1889년 다시 선교사업을 시작하여 병원 경영책임을 맡았다. 1895년 8월에 서울 주재 미국공사관 관리가 되고 1897년에는 공사 씬이 귀국하고 없는 동안 대리공사와 총영사로 임명되었고 1901년에는 특명 전권대사로 있었다. 국왕으로부터 세번이나 공

로훈장을 받았다.

1885년 민비 시해사건이 터졌다. 일본 역도(逆徒)들은 왕궁에 침입하여 방속에 숨어 있던 민비를 찾아내어 일격에 쓰러트렸다. 세번씩이나 애달프게 왕세자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가는 민비를 일본인들은 훗이불로 뒤집어 세워가지고 얼마 멀지 않은 녹원(鹿園)의 우리 속에 들어가서 석유를 끼얹고 불질렀다. 다음 날 대리공사 알렌과 웨베르(Waeber)가 급히 왕궁으로 달려갔을 때 독살을 염려하던 고종황제는 한없이 울면서 「아무도 날 도와 줄 사람이 없는데, 왕후의 죽음을 누가 갚아주기만 한다면 머리를 잘라 신을 꼬아 주겠다」고 호소하였다. 이 사건으로 알렌 대리공사는 깊은 회오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가 부임하기도 전에 그를 주선하여 민비를 만나게 했고 신임하도록 했던 것이다. 대역의 죄를 저질러 놓고도 일본은 변명문을 발표했다. 동양의 노대국인 청국이 일본 앞에 형편없이 패전하자 러시아의 세력을 동양에서 막기 위하여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게 되었고, 미국도 썼은듯이 한·미우호조약에서 보장한 원조의 손길을 끊고 오히려 일본 편에 들어 일본의 변명문을 「지극히 만족한 것」이라고 표명하고 일본을 위해 자진하여 공

개보도의 알선까지 했던 것이다.

알렌 공사는 이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민비 시해의 음모가 일본공사관에서 진행된 점을 와싱턴에 계속 보고하고 일본의 만행을 울분 속에서 규탄했다. 한 걸음 더 나가 미국의 대외정책의 수정을 진언했다. 우리 정부 외무 대신 김윤식(金允植)에게 왕후 살해범 처벌을 요구하며 일본의 압력으로 민비를 서민으로 격화시킨 처사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때문에 알렌 대리공사는 쉐공사 귀임 후에는 공석상에서의 발언의 제한을 받았고 얼마 후엔 해임되고 말았다. 알렌박사가 한국 선교를 위해 공헌한 일과 또 선교정책에 현지 선교사와의 사이에 견해의 차로 적지않은 잡음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1900년 겨울에 미국사람들이 서울에다 전차를 부설하였다.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날로 많아졌다. 이때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과 내장원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이 전차 부설 때문에 재원이 다 달라진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전차 이용을 금지케 했다. 이를 안 미국인들이 황제에게 상주하여 그렇게 하지못하도록 하니 원심을 품은 전기 양인이 고종에게 무고하여 12월 1일에 선교사와 예수교인들을 한꺼번에 살륙하라는 밀

령을 각도에 내렸다. 해주에 가 있던 언더우드 목사가 해주 관찰부에 있는 사람에게서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서울 어비슨(O. R. Avison) 박사에게 라틴어로 전보를 쳤고 어비슨박사는 알렌 대리공사에게 알리고 알렌은 고종황제에게 상조하여 그들의 목숨을 건졌다. 황제에게 막중한 신임을 받는 알렌은 선교정책에 있어서 극히 신중하였다. 국법을 범하고 선교하는 것은 몹씨도 꺼려했던 것이다. 1888년 금교령이 내렸다. 전년에 천주교에서 명동의 교지를 비밀리에 매수하고 궁전보다 더 높은 성당을 짓는데 자극되어 일어난 일인 것 같다.

알렌은 순회전도에 나간 언더우드를 소환하고 이 금령의 발표는 경거망동의 순회전도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있다면서 당분간 의료사업과 교육에만 치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타 교과 선교사들이 알렌 선교사를 싫어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개알 선교사까지도 「내 생각에는 이 알렌 선교사의 이름을 선교사의 명부에서 아예 빼버려야만 한다」고 까지 말하였다고 한다.

알렌 박사는 1905년 할일 많았던 장든 한국을 떠났다.

마틴 루터 킹

정 활 진 <본부군목>



지금부터 350
년전 미국땅에 팔
려온 검둥이들은
서덜기만 하였
다. 인간 이하의
노예로서 채찍에

허덕이었고 물건처럼 팔려서 이리 저리
끌려 다녔다. 그럴 때마다 부모와 자식
이 이별을 하였고 이것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다.
이런 비극을 없애기 위한 링컨대통령의
흑인 해방이 있는 다음에도 미국에서는
피와 진흙 투성이의 갈등과 유혈의 난
투가 멈추지 아니했다. 여전히 흑인은
천대와 소외를 당하였고 인간으로서의
대접은 요원한 꿈에 지나지 않았다. 낮
에는 증노동에 시달렸고 밤이면 끝없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일이 없는 자신들
의 서글픈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누가 이 사방의
지경에서 우리를 구할까?」하는 염원이
흑인들의 가슴마다 팍 차 있을 뿐이었
다. 드디어 1829년 1월 15일 한 흑인목

사의 가정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졌
다. 이 아기가 바로 미국의 흑인, 아니
전세계의 흑인을 평등한 인간으로 올려
놓을 민권운동의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였다. 그러나 아무도 이 어린이가
중대한 세계의 과제를 걸머지고 나설 줄
이야 꿈에도 몰랐다. 더우기 인종 차별
이 극심했던 남부의 조오지아주의 애틀
랜타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좀처럼 이
지역에서 그런 인물이 출생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하여튼 남부는 수
다한 결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의 고향
이었기에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어려서
부터 생각해 왔다. 이미 아버지도 목사
요 어머니도 목사의 딸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의 성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다섯살 나던 해의 일이
였다. 매일같이 만나서 놀던 백인 친구
가 하루는 루터 킹을 보고 「어머니가
흑인 친구와 놀아서는 안 된대………」하
여 같이 놀기를 거부하고 나섰다. 살색
이 검다는 이유로 친구를 잃어버린 서
운함과 쓰라림은 어린 킹에게 적지 않

은 충격을 주었다.

집에 돌아온 즉시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토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면서 마틴 루터와 같은 정의의 투사가 되라고 일러 주었다. 그리하여 본명이 마이클이었던 것을 마틴 루터 킹으로 바꾸어 주기까지 했다. 이날부터 마틴 루터 킹은 이름 그대로 저항운동의 꿈을 어린 가슴 속에서 키워나갔다. 여기에서 그는 아버지의 두려움을 모르는 정직성과 투지가 있는 활동력에 루터 킹은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어떤 날 양화점에 아버지와 함께 갔던 일이 있었다. 이 상점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첫 번째 빈결상에 앉았다. 이때 백인 점원은 구석으로 앉으달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이 자리에서 흥정을 못하는 한 한 쉼테도 안 사겠소」하고 나가 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킹목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내버스 승차를 거부해왔다. 그리고 그는 교원봉급의 평등화를 위한 투쟁과 재판소의 흑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폐지하는 운동에 앞장을 섰다고 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투쟁 자세와 운동에서 이미 그는 인종차별을 비난하였다. 그 자신도 버스나 식당 아무 이발소나 백인처럼 드나들 수 없는 차별대우에 한없는

서러움을 느꼈다.

그는 소년시절에 벌써 흑인들의 민권을 찾아야 된다고 다짐했다. 이런 쓰라림과 서러움 속에서도 그에게는 흑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도 지워버리지 못하였다. 고등학교를 거쳐 15세가 되면서 모어하우스대학에 입학했다. 이 대학은 흑인대학으로서 루터 킹은 이 대학에서 생의 전환점이 될 위대한 사상에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유명한 비폭력 사상이었다. 킹은 이때까지 구체적인 저항철학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다가 도로우의 「비폭력 저항론」을 읽고 감명받은 바 컸다. 그 후 그는 인도의 간디를 존경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었다. 그가 크로우저 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비폭력주의 바탕이 성서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을 가리켜 미국의 간디라고까지 부르지만 그토록 중요의 도가니 속에서 비폭력주의자가 된 것은 실로 의외의 일이었다. 그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비폭력에 의한 저항운동만이 미국에 있어서 흑인이 취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신학교육 기간을 통하여 먼저 자신의 거칠은 인격을 인내와 평온의 인격으로 도야

시켰다. 편견에는 관대로, 증오에는 사랑으로, 백인의 우월감은 인내로, 폭력에는 비폭력에 의한 용서로 '대하자는 철학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루터 킹을 위대한 인물로 등장시킨 터전이었다.

그는 신학을 전공하고 이어 보스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와 철학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칸트와 헤겔을 연구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한가지 상기해둘 것은 킹목사의 비폭력에 의한 민권운동은 단순한 비폭력에 맞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적극적인 저항을 위한 비폭력요 비폭력 자체는 저항의 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간디의 비폭력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폭력을 어떻게 구사하고 전개하느냐에 그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신학교와 대학에서 간디, 헤겔, 칸트의 저서에 접하면서 이들의 사상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지만, 그것이 그대로 흑인 민권운동에 적용될 것은 아니었다. 특히 흑인목사인 그가 저항의 자세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있어서는 언제나 모험적인 고민과 회생을 작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위의 흑인 동료들은 그의 미온적이며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다. 그들은 테러와 방화와 살인에까지 밀고 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킹목사는 어디까지나 폭력에 의한 민권시위를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우선 유명했던 몽고메리 사건에서 우리는 그의 고귀한 투쟁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몽고메리시에서 버스에 승차한 파크스라도 흑인 부인에게 늦게 오른 백인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라는 시비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1955년 12월 12일 저녁 파크스부인은 드디어 버스 좌석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흑인들은 일제히 버스 승차 거부로 돌입한 것이다.

이때 킹목사는 「수동적으로 악을 받아들이는 자는 악의 영속을 돕는 자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악의 창조자다. 악을 향한 아무 저항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킹목사 한 사람의 미래만 아니라 흑인 전체의 미래를 건 모험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그도 성급하게 덤벼들지 아니했다. 끈덕진 인내와 대화와 접근을 통하여 버스의 차별승차를 철폐하는데 분투하였다. 이 기간을 통하여 수많은 흑인동지들이 투옥과 테러와 협박을 받았고 더

우기 물지각한 흑인들의 난동도 있었다. 그러나 킹목사는 이런 틈바구니에서 비폭력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 나갔다. 드디어 그들의 투쟁으로 이 노선을 운영하는 버스회사는 많은 적자를 보고 파산되어 버렸다.

그는 이 몽고메리 사건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비폭력의 가능성을 과시했던 것이다. 몽고메리사건이 흑인의 승리로 끝나자 킹목사는 「공중 교통기구에서의 차별제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효임을 대법원이 시달했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항거의 기치를 내리고 화해의 시간을 마련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폭력 저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로, 비폭력 저항이 비겁한 자의 수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로, 비폭력은 적의 우정과 이해를 얻는다는 점이다. 셋째로, 비폭력은 악을 범하는 사람에게보다도 악의 세력 자체를 향한 저항이라는 점이다. 넷째로, 보복없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반격없이 적의 타격을 받아들이는 기꺼움이다. 다섯째, 외면상의 육체적 폭력은 물론이요, 내면적인 정신적 폭력도 피한다는 것이 킹목사의 주장이다. 이러한 킹목사의 비폭력 민권운동은 백인들의 호감을 삼을 뿐만이 아니라 백인들의 우월감을

난폭하게 건드리지 않았다는데서 성공적인 방법이었다. 일부 흑인 지도자가 운에는 급진적으로 폭력행동에 돌입하고자 들고 나왔으나, 그럴 때마다 킹목사는 과격한 행동은 백해 무익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들을 설득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63년 4월 3일엔 버밍햄에서 킹목사 자신이 벌인 민권운동으로 킹목사를 포함한 2,500명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권력의 균등분배와 미국 표준에 의거한 생활조건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버밍햄 사건도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의 개입으로 흑인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또한 1963년 8월 28일에는 유명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와싱턴 행진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자유와 직업을 위한 대행진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 운동의 지도자도 킹목사였다. 이 행진에는 킹목사를 위시한 미국의 많은 백인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가담하여 이 행진 대열의 앞장을 섰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실로 킹목사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질서정연한 범국민적 행진에 미국시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이 갈채를 보냈다.

목사는 와싱턴 행진에 나서며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포부를 말하였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분기하여 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자명의 진리로 알게 될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조오지아의 언덕들 위에서 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의 자손과 전에 노예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의 자손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피부 색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성품에 의하여 평가되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하여 드디어 64년 7월 2일 케네디 대통령이 민권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 후 존슨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빛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오로지 킹 목사의 고결한 인격과 지성과 백절불굴의 투지로 이루어진 열매였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전 세계는 그의 노고와 업적을 간과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명예로운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수여하고 찬사를 아끼지 아니했다.

평소에 그는 집을 나올 때마다 부인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감옥에 가 있는 줄 아시오」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감옥이 두렵지 않았던 것은 정의의 산실로 알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고매한 정신과 평화적 방법으로 흑인 민권운동을 영도했기 때문에 세계는 킹목사에게 노벨평화상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경의를 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만큼 그가 박해하는 자를 사랑했다는 증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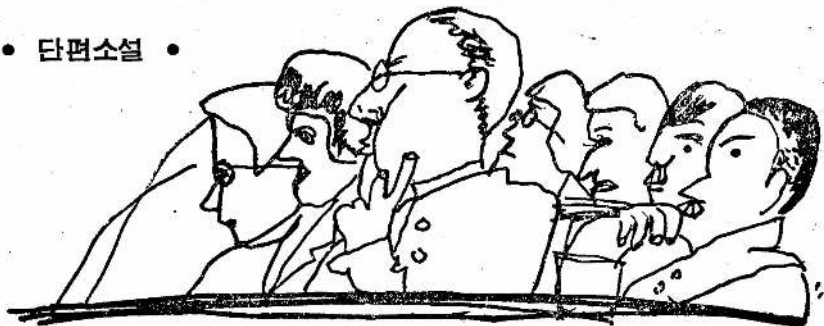
나아가서는 세계를 정의의 언덕 위로 이끌어 간 증좌라고 보겠다.

이렇게 상송 일로에서 치솟는 그의 인기와 인격은 한 물지각한 백인의 질투와 증오를 낳게 하고 말았다. 1968년 4월 4일 킹목사는 멤피스 시에 이르렀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듯 4일 저녁 멤피스 시 중심가에 있는 로르레인 호텔 3층 발코니에서 쉬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한 백인의 총탄을 맞고 피살되었다. 당시 39세의 약관으로서 아직 민권운동의 길은 먼데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한채 가버린 것이다.

한편 미국의 지성과 양심을 가진 수많은 백인들도 아연실색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은 킹목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전국에 7일을 애도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 인물의 위대함을 그가 죽은 다음에야 측정한다고 하지만 킹목사가 서거한 다음 십여명의 자살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빚었다.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의 업적과 그의 정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영원을 살았다고 생각되어진다.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 흑인들이 민권을 획득하는 길이 있다면 아마도 킹 목사의 행적과 그의 정신 특히 평화적인 비폭력 저항의 길을 가는데 있다고 본다.



태 평 야

김 병 로

난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산보에 나가기로 했다. 장마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어서 우산을 들어야 하는 불편이 따랐지만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심사였다.

주택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길이 여간 나쁘지가 않았다. 사람 하나 간신히 걸을 정도로 좁은 눈두렁길이 비 뱀에 죽탕이 되어 발을 옮겨놓기 힘이 들었고 그나마 미끄럽기까지 하여서 조금만 방심하였다가는 나자빠지기 알맞았다. 또 길을 덮을 정도로 양쪽에 수북히 자란 잡초에 빗물이 함뿍 맺혔다가 스치는 바짓단을 여지없이 적셔놓아서 종다리께가 선득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난 그 길을 그냥 걸기로 하였다. 우산을 접어 들고 비트작거리면서 정해진 코스를 끝까지 걸을 작정을 했다.

난 종래 수로를 가로 지른 다리 있는 데까지 올 수 있었다. 거기서부터는 길이 좁은 좋았다. 지나 온 길보다는 약간 넓고 양쪽 잡풀들도 짧게 깎기위 있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걸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난 일단 다리 위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검은 구름이 물거미 벼처럼 짙싸게 동북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하늘을 짝 덮은 채 그렇게 부산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구름이 들어가누나……>

난 어렸을 적에 어른들한테 들던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혼자 입 속으로 이렇게 뇌었다.

시골 어른들은 장마 때에 구름이 동북쪽으로 이동하면 구름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들어간 구름은 모두 비가 되어 내린다고 믿었던 것이다.

난 다시 걸기 시작했다. 사위가 점차 어두워 왔다. 그러더니만 곧 뒤에서 비가 따라왔다. 썩, 바람에 물리어 소리 내며, 비는 삼시간에 날 덮어버리고 그리고 앞질러 갔다. 난 얼른 우산을 폈다. 그리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점점 거세진 빗발은 종래 날 두렁에 주저앉게 하고 말았다. 빗발을 모는 바람이 너무 세서 우산을 지탱할 수가 없었고, 엇비슷이 후려치는 빗발이 정경이를 때려서 더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앞으니까 낡은 우산으로도 비막음이 되었다. 난 한껏 몸을 숙이고 앉아서 비바람에 일렁이는 벼의 물결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물짐승들이 물 속에서 물러 달아나며 일으키는 물결 같았다. 몹시 빠른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많은 짐승들의 움직임 때의 거친 물결 같았다. 뽀얀 빗발에 밀리면서 그 물결은 수없이 일어나서 뺨소널 치곤 했다.

갑자기 사위가 흰히 밝아졌다. 몇 군데 하늘에 구멍이 생기더니만 그게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누리를 밝히는 것이었다.

비도 갑자기 기세를 꺾었다. 바람이 멎으면서 빗줄기가 바로 서는가 했더니 곧 빗발이 성글어지면서 우산에 후드득 소릴 냈다. 그러다가 그것은 서서히 멎어버렸다.

난 일어났다. 다시 쿵쿵히 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양목사를 생각했다. 한 번 찬찬히 그를 중심해서 교회의 문제를 들여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난 양목사를 생각하는 순간 저절로 쓴웃음이 지어지는 걸 억제하지 못했다.

양목사는 아까 낮 설교에서 교회의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저주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장로들을 그는 중점적으로 저주했었다. 목사(자기)를 내쫓는 장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교인들로서는 가장 꺼려하는 멸망의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다.

나는 나 뿐 아니라 모든 장로들과 집사들은, 이 교회에서 마지막 보내는

주일에 양목사가 모든 감정을 넘어서 부드러운 설교를 할 결로 기대했었다. 지난 삼년간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메리고 있던 교인들을 축복하는 설교를 해서 교인들의 코허리를 시큰하게 만든 결로 알았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사람은 어떤 장면에서건 마지막 순간엔 마음이 순화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난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목사가 그렇게 부드러운 설교를 해서 교회당 안을 눈물의 바다로 만들 경우를 생각하고, 양목사를 떠나도록 한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그 순간의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면서 낮 예배에 임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나의 예상을 뒤엎고 철두철미 저주의 설교를 해버린 것이었다.

하긴 양목사는 이 교회에 부임한 후 삼년 동안을 출꾼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살았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는 부임하면서 벌써 배장로와 그 일파라고 하는 제직들에게 좋지 못한 선입감을 품고 와서 그들을 저주하면서 산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자기를 기준해서 뜻에 맞게 나오는 교인은 축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모 저모로 저주하면서 살아온 것 같았다. 아무개는 하느님한테 택함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아무개는 순제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함부로 하며 다녔는데 교인에게 그보다 더한 저주는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가 제직하는 삼년 동안 이백이 넘는 교인들 가운데에는 축복과 저주를 번갈아 받은 교인들이 많았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을 보이면 곧 축복이 오고, 반대의 태도를 보이면 금세 저주가 왔다.

이런 양목사가 자기를 내보내는 장로들과 제직들을 저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옳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주일이어서, 자기가 내세운 퇴직금을 그대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모든 교인들 앞에서 장로들이 자기를 불법적으로 쫓아내어 할 수 없이 간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교회의 법을 보면 장로들이 불법적으로 목사를 추방하게끔 되어 있질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의 법은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기 때문에 목사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법이었다. 장로들이 감히 불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주일의 설교에서 법에 어두운 교인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 앞으로는 장로들이 교인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도록 충동질 하는 인상을 주었다.

퇴직금도 엄청난 것이었다. 교회를 빚더미에 올려 얹히면서까지 거액을 주는 것은 기왕 떠나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사사로운 감정이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또 앞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아선 안 된단 배려에서이기도 했다.

마지고 보면 이런 배려가 있을 수 없는 양목사와 제직들과의 관계였다. 왜냐하면 그는 떠나기로 결정이 된 뒤에도 무려 구 개월 동안을 더 머물러 있으면서 봉급을 탔고, 갖은 방법을 다하여 교인을 선동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저주했던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계속 시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서는 떠나라니까 가지 않고 그렇게 오래 동안 애를 먹었던 것이다.

물론 양목사만이 나쁜 건 아니었다. 배장로와 그 일파도 나빴다.

양목사가 그토록 이성을 잃고 저돌적으로 공회석상에서 배장로에게 대들게 된 데에는 배장로와 그 일파의 책임도 받은 있었다.

싸움은 양쪽이 똑같으니까 벌어진단 말이 있지만 양목사와 배장로는 서로 티끌만큼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니 맞서서 싸움을 계속했던 것이다. 가족들까지 동원해가며 둘이 싸움에 열불이나 있는 사이에 교회는 자꾸만 위축되어 갔다. 분위기가 실렁해지고, 눈에 보이게 파벌이 생기고, 사사건건이 파벌의식이 작용해서 되는 일이 없게 되고, 교인의 수는 줄어들었다.

난 둘의 싸움을 중재하겠다고 둘 사이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까지도 이용하려 했다. 자기에 유리할 때엔 추파를 던지고, 아널 때엔 미워하며 영롱하게 공격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 때가 있었다.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밍다는 며느리의 심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난 후퇴하지를 알았다. 싸움을 말려서 교회를 화목의 제단으로 만들기 위해 근 이년 동안을 참고 화해를 촉구했다. 그러나 불가능했다. 그래서 난 둘더러 모두 교회에서 물러가라고 했다. 그것도 안 되었다. 양목사만이라도 떠나라고 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목사가 떠나라고 했다. 공회석상에서 결정적인 실수(배장로를 도둑으로 몰았다가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

다.)를 저질렀고, 목사는 탄 데 가서도 목회할 수 있으나 장로는 본 교회를 떠나기 어려운 처지이니 양보하라고 했다.

양목사는 필적 뛰었다. 장로들의 의견이 모두 떠나야 옳다는데도 그는 아니라고 필적거리며 장로들을 저주했다.

물론 양목사가 떠난다고 해서 당장 교회에 항구적인 평화가 온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아니, 도리어 앞으로 오는 목사의 성질에 따라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목사의 성질이 날카로워서 배장로의 추근거림을 뒤덮으려 한다면 충돌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 뻔했다. 그렇다는 것은 배장로는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 목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장로는 이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이십여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무려 여덟명의 목사들을 몰아 낸 관록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거쳐 간 여덟명의 목사 모두가 자의에 반하여 쫓겨나는 형식으로 떠나갔던 것이다. 아무리 수완있고 도량이 넓다는 목사들도 일단 배장로에게 걸려들면 시일의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망정 중당에는 떨어져 나가고야 말았다.

<그에게는 마력이 있다!>

어떤 배장로를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지만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무리 따져도 하잘 나위 없는 위인인데 배장로한테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팽팽 떨어져 나갔다.

배장로는 겨우 국민학교만 나온 무식한 사람이었다. 성경도 체계적으로 배운 바가 없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고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이 그와의 변론에서 절절매기 일쑤였다. 이것쯤이야 알보고 대들었던 목사들이 마치 어떤 마기(魔氣)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점차 배장로에게 말려들곤 했다. 해서 끝내는 궁지에 몰려서 어쩔 줄을 모르곤 했다.

이런 현상은 누가 생각트래도 신기했다. 도대체 어거지요 맹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유치한 배장로의 신앙적 표준에 뿔 뺨에 싱싱하고 조리있는 목사들이 꼼짝을 못하고 속이는가 말이다.

난 가끔 배장로를 두고 사교의 교주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대개의 경우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종교에 일가견을

가졌던 목사 장로들이 그물에 고기 걸리듯, 포습된단 사실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배장로에게도 그런, 사람을 끄는 마력을 지닌 것 아닌가 혼자 생각해보곤 했다. 소위 도깨비들이 지녔다는 여의대(如意袋)와도 같은 것을 지녔는지 모른단, 내가 다시 생각하면 저절로 쓴 웃음이 웃어지는 허황된 생각을 하기도 했다.

아뿔튼 이런 배장로가 이 교회에 버티고 앉았는 한, 그리고 머슴처럼 배장로가 시키는대로 일만 하는 목사가 오지 않는 한 평화스런 교회의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난 단정적으로 생각했다.

『淸—』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난 반사적으로 두렵에 쪼구리고 앉았다. 우산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다 잔뜩 숙이고 몸을 웅숭그린채 앞을 봤다. 수북히 자란 벼들이 다시 물결을 일으키며, 바람에 물리고 있었다. 빗소리와 바람에 서걱거리는 벼 잎사귀소리가 부산했다.

이번엔 비가 쉬 몇질 앉았다. 빗발도 아까보다 더 드세었다. 우산이 갠다. 목에 빗물이 선뜩거렸다. 앞이 땃즐기같은 빗발로 해서 뿌연니 흐려왔다. 난 문득 몸에 오한을 느꼈다. 마음에 외롭이 일어났다. 아무도 없는 비 내리는 허허한 벌판에 남아빠진 우산을 의지하고 혼자 앉았자니까 땅덩어리 위에 나 혼자만 남은 것같은 외로움이 스며왔다.

외로움은 서서히 내 마음 속에 응어리졌던 양목사에 대한 미움, 배장로에 대한 알미움을 사그라지게 했다.

<그게 다 뭐냐? 사람이 아득바득 서로 할릴 게 뭐냐? 둥글둥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이다.....>

따지고 보면 양목사도 불쌍했다. 가족이 수두룩한데 갈 교회도 잡지 못하고 떠나니까 말이다. 퇴직금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 식구들이 앉아서 녹이면 오래 갈 건덕지도 못된다. 그것이 다할 때까지 교회를 얻지 못하면 뾰족한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때엔 자기를 떠나게 한 장로들을 더욱 혹독하게 저주하며 울부짖을 것 아닌가?

배장로의 야스꺼움도 이해가 갔다. 무식하고 돈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평생 어디가서 누구에게 군림할 수가 있었겠는가? 누구 앞에 나서서 감히 강론을 하며 남을 지도할 수가 있었겠는가?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장로가 된 것을 꿈에도 확인을 앓고는 못 배길 정도로 소중하게 아는지 모른다. 그렇게 소중한 감투를 오는 목사들마다 베끼려 했다. 필사적으로 감투를 붙잡고 늘어지다가 그는 반격의 법을 배웠다. 즉, 선제공격의 효과를 알게 된 것이었다 해서 굴복 않는 목사는 무조건적으로 돌려놓고 땀타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알금알금 물어뜯어서 항복을 받는 것이었다.

다시 비가 멎었다. 사위가 흰해지더니 햇빛까지 비다. 누기 찬 몸에 햇빛은 미지근하게 쬐여왔다. 기분이 끈적끈적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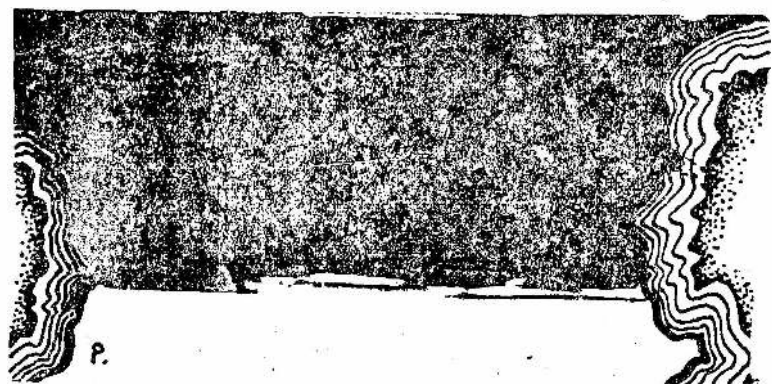
난 일어났다. 걸었다. 머리가 또 무거워 왔다. 빗속에서 맑아졌던 머리에 다시 너절한 것들이 물러 든 것이었다. 뭔가 너절하지 않은 걸 찾아본다. 태평야(太平爺) 생각이 떠올랐다. 적어도 그 노인만은 너절하지 않단 생각이 들었다. 나이 육십이 넘었지만, 성경을 간신히 읽을 정도로 무식했지만 살림이 빠듯했지만 그는 너절하게 굴지 않았다. 크믹하고, 태평스럽고, 부지런했다. 태평야란 이름은 일본서 오래 살다 돌아온 교인이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곧 그것은 그의 본 이름을 대신하게 되었다.

태평야는 배장로와 함께 이 교회의 창립자의 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벌써 서리집사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배장로가 겨우 학생교인일 적에 그는 제직회의 한 멤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배장로가 장로생활 십오년 가까이 되어 오는 지금까지 그는 출공 서리집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그의 교회 경력을 듣거나 또는 그의 야릇한 차림새를 볼 적에 사람들은 대뜸 그를 <칠부>로 점찍는다. 그리고 사실 그런 판단은 어느 정도 정확하기도 한 것이다.

그의 차림새는 형용키 어려울 정도로 우습다. 옷 하나 하나가 모두 딴 사람의 것일 경우가 많은데, 예를들어 양복저고리는 옛날 <로마이>, 양복바지는 <홀치기>, 와이셔츠는 얼핏 불량배를 연상케 하는 <뽕쪽에리>, 넥타이는 빨강색, 구두는 허형계 걸이 벗겨진 교물, 이런 옷들을 두루 모아 입고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은 우선 없다.

몸이라도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 그의 모양새가 좁은 덜 우스울텐데



이것이 또한 야릇하게 생겨 먹었다. 백오십센치 정도의 작달막한 키인데다 몸피가 야릇하게 생겨 먹었다. 유난스레 큰 머리와 이마가 훌렁 까지고 처진 두 어깨와 좁은 가슴팍을 지나 배는 개구리처럼 엄청나게 커 먹었다. 축 처지다시피 된 배를 짊어막한 두 다리가 받쳤다.

그 몸매에 그 옷들을 생각하면 실물을 보지 않고도 웃음이 나게 마련이었다. 그의 얼굴은 적동색으로 그을었다. 두리두리 큰 두 눈과 허리가 잘름한 개발코와 카이젤 수염을 지나 험사하니 벌려진 입 등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호인 타입이다.

태평야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웃음을 주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 장사하면서도 즐창 남을 웃겼다. 교인도, 가족도, 행인도 웃겼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웃었고, 일 하는 것 자체를 코믹하게 하여서 자신은 즐거워하고 남들을 웃게 했다.

난 이 교회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예배시간마다 맨 앞자리 차지하지 않으면 입구에 앉아서 안내를 하며, 퐁퐁 웃으운 소릴 하는 그를 처음엔 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으헤 하나 들썩 끼이게 마련인 잡일꾼으로 봤던 것이다. 주로 웃은 일 도맡아 하는 허드렛일 하는 사람으로 알았었다. 그리고 그런 내 첫 인상은 크게 빛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그에게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순수한 인간의 모습, 내지 신앙인의 모습만은 훨씬 뒤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처음 이 교회에 왔을 적에 난 아침 출근 때에 거의 매일 아침 그와 마주치곤 했었다. 그 때에 그는 함석 물함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새 것을 팔기도 하고 낡은 것을 때우기도 했다.

아침마다 낡은 손수레에다가 수북히 물함지들을 싣고 큰길로 나오곤 했는데 대개의 경우 그는 내 통근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갔다.

아침에 날 보면 태평야는 멀리서부터 손을 번쩍 들면서 <여, 황 집사님 지금 출근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지나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 난 처음 얼마 동안은 그것이 좀 부끄러웠다. 통근 버스를 기다리는 동료들이 여럿 있는데서 피상한 차림새를 한 물함지장수한테 아는 죄를 당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곤 했었다. 그러나 거의 아침마다 만나서 한바탕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들곤 하는 사이에 내 생각은 차차 달라졌다. 태평야는 생김새, 차림새, 말투, 리아카에 실은 물함지의 꼬락서니까지 코믹하고 유머러스하게 해 갖고 다녔다. 그걸 보고, 또 같이 말을 건네는 동안에 난 아침부터 한바탕 웃게 되곤 했다.

웃는 거 나쁘지가 않았다. 아침이면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마련인데, 한바탕 웃는 동안에 험글하니 밝아져서 명랑해지고 활기도 찾았다. 날 그렇게 웃겨놓고서 그는 먼저 떠나곤 했다. 내가 타는 출근차가 가는 방향으로 디뎌거리며 리아카를 밀고 떠났다. 그 때마다 뒹겨나온 배·땀에 상처를 뒤로 제치고 땡땡한 바지 입은 짧은 다리를 늘려서 걷는 그의 희안한 폼모습을 한참씩 바라보며 난 웃음을 삼키곤 했다.

그렇게 앞서 가다가 내가 탄 통근차가 그를 따라 잡으면 그는 으뭇 환한 웃음을 띄며 버스를 향해 마구 손을 흔들어서는 것이었다.

나도 손을 마주 흔들어 줬다. 차차 나 뿐 아니라 통근차에 탄 나의 동료들 거의 모두가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게 되었다. 나한테 그에 관한 이야기 들리고 흥미를 갖게 된 것이다.

출근길에서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회나 수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날에 예배보러 교회당에 나와서도 나는 태평야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다. 남자석 맨 앞자리 아니면 출입구 나무의자에 앉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난 종일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에 얻었던 헝크러진 마음을 고를 수가 있었다.

제직회의석에서도 파가 갈리어 심각한 대립을 이루고 서로 감정적인 입씨름을 하다가도 태평야가 불쑥 우스개소리 한 마디 던지면 모두 실랑이를 끊

고 콧웃게 되곤 하였다.

교회의 파벌은 언제나 있었고,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경계하고 감시하며 지내노라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만 태평야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았다. 감히 누구도 그에게 자기 파에 붙으라 말할 수도 없었지만 설혹 그런다치더라도 그는 대뜸 <난 예수판걸요?>하고 하하하 웃어버릴 것이 분명했다.

양목사는 처음 부임했을 적에 멋도 모르고 태평야를 자기 편으로 꼽았던 것이다. 틈만 생기면 예배당에 나와서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부셔진 배를 수리하고, 사택의 불편한 곳을 시원스레 고쳐놓는 태평야의 태도를 자기에게 호감이 있어서인 줄로 꼭해했던 것이다. 즉 예배당 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대해서도 틈만 나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자질구레한 일들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태평야의 생활태도를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당시의 양목사로선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자기 사람이 필요한 때여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태평야의 본질, 그러니까 그가 걸치고 다니는 형형색색의 옷들이 남의 일을 돕고 얻은 훈장과도 같은 것들이란 걸 깨닫고서야 양목사는 아차, 하고 등허리에 식은 땀을 흘렸다.

배장로도 그의 성격과 됃됨을 알면서도, 다급한 때엔 그를 이용하려 들곤 했다. 교회 초창기 때부터 같이 있었던 인연을 내세워 은근히 자기에게 협조할 것을 종용하곤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태평야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니겠냐며 허탈스레 마구 웃을 뿐 딱히 대답을 않곤 했다.

배장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태평야에게 휘말려서 팻줄이 아프도록 웃기만 하다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스스로도 분간 못하고 돌아오곤 했다. 물론 이것은 태평야의 수가 배장로를 능가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사실 수에 있어서 배장로를 따를 사람이 이 교회 안엔 없었다. 다만 태평야가 이렇게 배장로를 골리는 것은 철두철미한 그의 태평력 때문인 것이다.

태평야는 강원도에서도 의지기로 유명한 산골에서 태어났다. 하늘이 머리 위에만 빠끔히 구멍이 나 있을 정도로 험한 산골에 태어나서 그는 아버지 따라 감자농사 지으며 자랐다. 그러다가 요행하게 그곳에 나타난 기독교의 전도사를 만나 신앙을 갖게 되었고, 끝내는 서울의 변두리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 변두리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그를 사찰로 데려왔던 것이다. 그의 순진하면서 태평한 성격과 기쁨으로 일을 하는 생활태도를 좋게 보고 그 목사가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 후에 6·25를 만나 일시 남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목사가 지금의 교회를 세울 때에 태평야는 창립멤버가 되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머리카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었다.

교회의 기초가 잡혀 갈 무렵 그 목사는 자기가 세운 장로인 배장로한테 쫓겨나고 말았다.

그 때에 태평야는 무척이나 서운했고, 나가는 목사를 따라가고 싶기도 했지만 사람이 부질없이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멀잡은 곳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운 그 목사를 못 잊어서 그는 가끔 찾아가서 인살 하곤 했다.

그 목사가 쫓겨난 뒤로 오는 목사마다 길어서 삼년, 짧을 땐 일년도 못채우고 쫓겨나곤 했다. 배장로를 적으로 돌리고 싸우다가 넘어지곤 했다. 목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인들도 많이 갈리어 나갔다. 배장로에게 맞서다가 패퇴한 그들은 배거리로 나가서 새로 교회를 만들곤 했는데 근처에 드문드문 그런 새끼교회들이 있었다.

초창기의 멤버들도 대부분 갈리거나 이사를 가고 남은 사람이 희귀한 형편이었다.

태평야는 이렇듯 험란한 교회의 역사를 속속들이 밟아 왔으면서도 상처를 모르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비록 신급(神級)이 오르지 못하여 만년 서리집사란 인상을 주고 있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야말로 이 교회의 기둥이요 보배였다. 파벌싸움을 벌여놓고 교회의 일 앎기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만은 교회당을 들렀다. 지금은 사찰직을 맡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남들이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예배당을 보수하고 손질하는 데 열중했다. 비 새는 곳을 때우고 변소를 고치고 우물이랑 수도, 그리고 전기를 손질했다. 싸우는 사람들이 예배당의 염려일랑 앎고 싸움에 열중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그는 이 교회에서 어느 파의 사람한테도 마음대로 내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서로 감시하여 교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기에 열중하는 각

파의 두목들의 눈앞에서도 그만은 자유로이 어딘지 오갔다. 어느 파에서건 단 파에 부득이한 통보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를 통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는 실제적으로 이 교회의 어른인 것이었다. 동시에 어렵고 아쉬울 때에 진요하게 쓰이고, 전천후적으로 교회당을 매만지는 지보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위가 캄캄해지면서 역수로 비가 쏟아졌다. 난 익속스레 우산을 뒤로 하며 두텁 위에 주저앉았다.

이번엔 외롭지가 않았다. 방금이라도 태평야가 배를 내밀고 허허 웃으며 나타날 것만 같아 웃음부터 먼저 터지려고 했다.

작년 겨울이었다. 교회당 근처에 스케이트장이 생겼다. 주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가서 스케이트를 탔다. 태평야도 호기심에서 교회에 오는 길에 가끔 걸음을 멈추고 그걸 구경하곤 했다. 그러다가 종래 그는 스케이트를 타 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아이들이 타는 것 자기를 못 타겠는가 싶었다. 그러나 스케이트가 없어서 문제였다. 그는 생각 끝에 옆집 대학생의 것을 빌리기로 했다. 마침 남은 것이 있어서 빌릴 수 있었다. 조금 크긴 했지만 양말 몇 켤레를 겹쳐 신고 타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얼음판에 나가보니까 문제는 심각했다.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는 엉기엉기 기기 시작했다. 야릇한 차림새를 한 땅딸보 노인이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판을 엉기엉기 기니까 스케이트꾼들이 모두 몰려왔다. 뿐만 아니라 길 가던 행인들까지 모여들어서 구경한다고 야단이 났다.

태평야는 모여든 학생들에게 스케이트 지치는 법을 배워달라 애원했다. 몇몇이 자원해서 나섰다. 그들은 대뜸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부엌을 해가며 서서히 얼음판을 미끄러져 나갔다.

『야, 신난다!』

태평야는 환희에 찬 고함을 질렀다. 따라붙은 학생들도 소릴 질렀다. 수십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빙빙 링을 돌며 나갔다.

이튿 날부터 태평야는 하루도 빠짐없이 얼음판에 나갔다. 그럴 때마다 구경꾼이 모여들고 스케이트 타는 학생들도 늘어갔다. 주인이 그에게 입장료 면

제의 혜택을 주었다. 손님을 많이 유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문을 듣고 나도 한 번 나가 봤다. 토요일의 오후였는데 과연 태평야는 나타나 있었다. 인젠 제법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웅위하고 『우 우』 소릴 지르며 달리고 있었다. 벅타이까지 맨 양복차림을 하고 배를 내민 노인이 활개를 치며,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보고 나는 웃으워 혼살이 났다.

태평야는 몇 해 전 청평에 물놀이 가서도 같이 갔던 제직들이 모래밭에 베굴베굴 굴며 웃어야 할 일을 저질렀었다.

수영복을 빌려 입는다는 것이 기왕이면 런닝샤스까지 달린 것을 입는다고 여자의 것을 골랐던 것이다. 빌려주는 사람은 아주머니의 것을 빌리는 줄 알았고, 본인은 남녀의 것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탈의장에서 여자의 수영복을 입고 해해 웃으며 나타나는 태평야를 부인 집사들이 먼저 발견하고 기겁을 하며 도망질을 쳤다. 이어서 남자들이 왔는데 모두들 웃다 못해 모래밭에 나동그라져서 베굴베굴 굴면서 웃어댔던 것이다.

배가 울창이처럼 뿔겨나온 카이젤 수영의 태평야가 빨간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희안했다. 나도 모래밭에 덩굴며 웃어댔는데 종일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서 애를 먹었다.

그날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여러 달 동안 태평야를 보면 여자 수영복 입었던 생각이 나서 청평에 갔던 교인들은 점잖이 해야 하는 장소에서까지 킬킬대서 야단이 나곤 했다.

태평야는 그런 엄청난 일에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시골서 자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면서 덤덤히 수영복을 벗어버렸던 것이다.

난 태평야의 이런 점이 좋았다.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태연하는 태도 말이다.

그는 한 번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다.

『장로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나같은 감자바위가 서울에 와서 별스런 구경 다 하면서 살고, 또 교회에 나와서 집사까지 되어서 훌륭한 분들과 어울려서 다니며, 대접 받고...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자식들은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되구, 교회에서 성가대니 청년회니 하는 데에 들어 활동을 하고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는 이렇게 서울에 산다는 자체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포장된 도로, 높다란 건물, 그리고 밀려 달리는 각종 차량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었다.

교회에서도 장로 못된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된 것을 대견해 하고 있었고, 자식들도 대학에 못 보내는 것을 탄식하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간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사고방식은 불평이나 불만과는 아주 동떨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긍정적으로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사고방식을 그는 가정에서도 똑같이 하고, 집에서도 태평스럽고, 코믹하고 유머러스했다.

집 자체가 그의 외양처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그의 집도 입고 있는 옷과 마찬가지로 한 부분 한 부분의 출생지가 달랐다. 꼬불꼬불하게 생겨먹은 낮은 집이 어떤 부분은 흙벽돌, 어떤 부분은 시멘트 블록, 다른 부분은 붉은 벽돌,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하게 되어 있었다. 지붕도 스텔트, 기와, 합석, 루핑 등 여러 가지로 덮혀 있었다. 바람벽도 흰색, 회색, 푸른색 등으로 칠이 되어서 집 모양이 야릇했다.

이렇게 얼룩덜룩한 집이 된 것은 태평야가 남의 일을 도와주고 한 가지씩 얻어다가 손수 지은 집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생기는대로 가져다가 붙여서 만든 집이었다.

요사이의 그런 집에도 구멍가게까지 차리고 극장 광고 나무랭이를 벽에다 덕지덕지 붙여놔서 더욱 회한하다.

이렇게 걸 보기엔 웬만한 탐장만도 못한 집이었지만 사는 사람들은 모두 명랑하고 유머러스해서 늘 웃음이 터지고 노래소리가 울려 나왔다.

태평야의 가족은 모두 열이었다. 자기들 부부 외에 육 남매의 자녀들이 있는데 딸 둘이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기 뺀에 사위가 둘 있었다.

이렇게 열이나 되는 식구들이 벌집같은 집에 아박아박 박혀 살았지만 그렇게들 명랑했다.

가계(家計)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아들들과 사위들이 직장에 나가고 태평야 자신은 구멍가게를 지키니까 합해서 다섯 사람, 그러니까 식구의 반이 돈을 벌고 있는 셈이어서 살기가 이럭저럭 괜찮았다. 구멍가게라고 했지만 차려놓은 꼬락서니는 장난스러우리만큼 형편 없었지만 매상고는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웃의 큰 가게들보다 월추 많다는 소문이었다. 태평야의 인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그만 보면 죽고 못살았다. 해서 그가 가게에 앉았는 동안 꼬무라기들은 늘 바글바글 끓었다. 우스운 이야기 듣고, 성경과 찬송을 배우고, 가끔 껌 하나라도 얻어먹노라 그렇게들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돈이 생기면 영락없이 태평야의 가게에서 썼다. 어른들도 할 수 있는 대로 그집 물건을 팔아주려고 애를 썼다. 같은 물건 살 바에야 웃으면서 기분 좋게 산다는 것이었다. 태평야의 가락조의 찬송가 소리라도 들으면서 산다는 것이었다.

가락조의 찬송가라고 했지만 태평야는 그런 실력으로 교회에서의 준비찬송, 그러니까 예배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부르는 찬송을 즐곤 리드하고 있었다. 늘 싸운다고 분위기가 싸늘해져서 누구 하나 준비찬송 리드할 생각을 않을 적에 그는 불쑥 <준비찬송 하나 부릅시다!> 하고 흥일대는 저음으로 서두를 낸다. 교인들은 키득대다가 별 수 없이 따라 부른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교회 안에 분위기를 좀 녹이곤 하는 것이었다.

비가 또 댄었다. 하늘이 트이고 햇빛까지 어른거렸다. 그러나 구름은 여전히 동북쪽으로 날렵하게 달리고 있었고 바람도 간헐적으로 세차게 불어서 벼를 모질게 흔들어 놓고 있었다.

난 일어났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까 집을 나올 때에 헝크러졌던 마음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았다. 양복사나 배장로에 대한 미운 생각도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다. 그러면서 마음 속에 뭔가 자신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았다. 아니, 그건 희망갈기도 했다.

<나도 교회의 운영면에서 손을 떼자. 그리고 태평야처럼 바보스레 태평스레, 유머러스하게, 코믹하게, 순진하게 교회에 봉사하자. 성격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자. 교회당 구석구석을 쓸고, 손질하고, 교인들의 신발을 고풍하게 간수하는 작은 일들을 태평야와 더불어 하자. 그렇다. 나에게 태평야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능력도 있다. 주일학교 반사도, 성가대원도 할 수가 있다. 운영이 아닌 그런 봉사면에만 힘을 쓰자. 그렇게 하면 설후 배장로가 앞으로 또 문제를 일으키더라도(틀림없이 일으킨다.) 난 태평야처럼 태평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속으로 이렇게 뇌이면서 난 아까보다 조금은 기운지게 걷고 있었다. 그러면서 속말을 계속했다.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에 필요한 인물은 목사들도 장로들도 제직들도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선 그들은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이었다. 특히 배장로같은 사람은 철저한 배타주의자로서 새로 들어오는 유능한 교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야릇하게 비틀어서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게 했다. 자기의 권좌가 흔들릴까 봐 그러한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의 방해물일 수 밖에 없었다. 파벌을 조성하기에 여념이 없는 목사나 제직원들도 모두 교회에 유익을 못 주고 해를 줬다. 그러면서 복은 남달리 많이 받겠다고 악을 썼다. 나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자리에서 떠나 바닥으로 내려와서 재출발해야 한다. 태평야를 따라 그를 배우며 수적수적 일하고 전도해야 한다…….>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 이번엔 앉지 않았다. 아까처럼 비가 모질게 후려쳤지만 자세를 헝크러뜨리지 않고 곧게 걸었다. 바짓단이 젖어 들며 종다리께가 선긋거렸지만 개의치 않고 유유히 걸었다.

<저녁 예배 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시간에 양목사가 낮에 한 것보다 더 혹독한 저주를 장로들에게 퍼붓겠지. 그러나 난 조금도 마음 상치 않고 들어야 한다. 벌써 난 장로가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평신도가 되었으니까…….>

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기운지게 두렁길을 걷고 있었다. 비는 날 몰아세우듯 뒤에서 휘몰아치고 있었다.

편집을 마치고



○...10월유신으로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향한 거보를 내 디딘 72년도를 보내고 이제 유신 1차년도인 73년을 맞게 되었다.

유신 1차년도를 맞이한 우리들은 정신적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앞날 내일에의 도약을 위한 일선에 참여하여야겠다.

이제 또 공군지의 한 호를 더하게 되어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여>

○...경동과 총격의 연속이던 72년도 저물고, 이제 밝은 해와 함께 자손만대의 번영을 꾸려 갈 「유신한국」이 출범하였다.

우리 다같이 고쳐알아 군인으로서의 자각을 추구하고, 다시는 못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못난 백성으로서 손가질 받지 않기 위해, 다시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모아 보자. <진>

○...이제 또다시 송구영신호를 대하게 되니 반가움보다 조심스런 아쉬움이 앞선다. 독자들과 함께 「공군」지의 첫장을 넘기며 한결 다양해진 지면에 작은 보람이라도 느껴보고 싶다.

정말 여러 면으로 분주하게 된 한 해였다.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갖

자는 「약속」을 기억하며 소해엔 더욱 열심히 일하고, 더욱 열심히 웃어보고프다. <임>

○...계엄사령부에 파견나가 근무하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공군본부 사무실로 들어와 밤이 늦도록 원고와 씨름을 벌였다.

산적한 원고들을 놓고 하나씩 지면편집을 끝내고 드디어 OK승! 울고픈 마음이 들었다.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일 저일 닦치는대로 좌우지간 무척 바쁘다.

○...이번 호에도 특별화보로 「유신 화보」를 꾸며보았다. 그리고 특집으로는 무게가 있으리라 생각되는 「군인정신」을 묶었다. 정훈교육자료로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

김 정렬 초대 참모총장님의 인터뷰를 이제 내 보내게 되어 송구스러우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 재철 병장의 그림솜씨에 또 한번 감사를 표한다. <전>

발행처: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공군대령 신찬
 인쇄처: 공군교재창
 인쇄인: 공군대령 방오섭
 편집실 전화 69-3511, 406-3353



역대 공군참모총장, 벽고지 사이트 방문코 장병 위문

김 정렬, 박 원석, 김 창규, 김 두만장군 등 역대 공군참모총장 일행이 12월 29일 벽고지 사이트를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공군 「베드민턴」선수단, 전국 종합선수권 대회서 우승

제 16회 전국 종합 「베드민턴」선수권 대회에서 공군 선수단은 개인 및 단체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3년패를 기록하였다.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 정 예 공 군 되자 —